

지표로 본 서울 변천

3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통계연보상에 인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915년으로 이때 서울의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서울의 인구는 1935년까지 매년 3~6퍼센트 내외의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1936년에는 전년 대비 79.9퍼센트 증가하여 약 73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행정구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

반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군수산업 정책에 따른 공업화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4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45년 해방 전까지 서울 인구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1945년 광

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에는 전년 대비 약 40퍼센트 증가하여 36만여 명이 늘어났다. 광복 후 4년간 서울시 인구 증가 중 절반 이상이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살던 해외 이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지표로 본 서울 변천

3

지표로 본 서울 변천 3

연구책임 이석민
연구진 이정호, 노승철, 윤형미, 권기현

초판 1쇄 인쇄 2020년 5월 12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5월 18일

펴낸이 서왕진
펴낸곳 서울연구원
편집 전말숙, 송도숙
디자인 이석운, 김미연

인쇄 · 제본 민언프린텍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홈페이지 www.si.re.kr

ISBN 979-11-5700-495-9 93310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있습니다.

지표로 본 서울 변천

3

1장 도시 개요	15
1.1 인구 개괄	16
1.2 인구의 자연적 증감	28
1.3 인구이동	31
1.4 가구 변화	40
1.5 경제활동인구와 고용	49
1.6 면적과 인구밀도.....	55
2장 시민생활과 도시경제	63
2.1 소비자 물가지수.....	64
2.2 일상 소비생활.....	69
2.3 생계와 직업.....	110
2.4 에너지 소비.....	118
3장 주택과 건설	127
3.1 주택	128
3.2 건축허가	145
3.3 주택재개발	154

4장 도시기반시설 157

4.1 도로	158
4.2 주차장	164
4.3 지하철	168
4.4 버스전용차로	170
4.5 자전거도로	172
4.6 교량	175
4.7 터널	180
4.8 상수도	184
4.9 하수도	191
4.10 공원 및 녹지대	195

5장 교통 201

5.1 자동차 등록 대수	202
5.2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	212
5.3 주요 지점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216
5.4 대중교통수단	221

6장 공공복지와 문화 229

6.1 의료시설	230
6.2 교육시설	236
6.3 복지 및 문화시설	261

7장 서울시정 277

7.1 재정	278
7.2 자치구와 동	282
7.3 공무원 수	286
7.4 도시 관리 지표	291

1장 도시 개요	15
표 1.1-1 인구 개괄	16
표 1.1-2 연령별 인구구성 및 부양비	24
표 1.2-1 출생 및 사망, 자연인구증가율	29
표 1.3-1 인구이동 : 전입과 전출	31
표 1.3-2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인구 규모와 증감 비율	38
표 1.4-1 가구 변화	40
표 1.4-2 혼인과 이혼	46
표 1.5-1 경제활동별 인구	49
표 1.6-1 인구밀도	56
표 1.6-2 세계 대도시의 인구밀도 비교	61
2장 시민생활과 도시경제	63
표 2.1-1 물가지수 추이	64
표 2.1-2 물가지수 현재와 비교	67
표 2.2-1 지하철 요금	70
표 2.2-2 시내버스 요금	72

표 2.2-3 도시형 시내버스 요금	74
표 2.2-4 택시 요금	76
표 2.2-5 공중전화 요금	77
표 2.2-6 텔레비전 시청 요금	78
표 2.2-7 쌀 가격	79
표 2.2-8 짜장면 가격	81
표 2.2-9 개봉극장 관람 요금	82
표 2.2-10 담배 가격	85
표 2.2-11 각급 학교 수업료(연간)	89
표 2.2-12 사교육비	91
표 2.2-13 가전기기 보급률	92
표 2.2-14 전화 시설 및 가입자	94
표 2.2-15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전국)	98
표 2.2-16 유통시설 현황	100
표 2.2-17 소매업태별 판매 금액 지수	103
표 2.2-18 보육시설 현황	106
표 2.2-19 구별 보육시설 현황	108
표 2.3-1 산업별 취업자 수	110
표 2.3-2 직업별 취업자 수	115
표 2.4-1 유류와 무연탄 소비량	118
표 2.4-2 연탄과 유류 가격(전국 기준)	123

3장 주택과 건설 127

표 3.1-1 주택건설 실적	129
표 3.1-2 주택보급률	133
표 3.1-3 유형별 주택 채고	137
표 3.1-4 주택가격지수	140
표 3.1-5 주택 점유 형태	142
표 3.2-1 구조별 건축허가 면적	145
표 3.2-2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1)	150
표 3.2-3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2)	152
표 3.3-1 정비사업 지정	155

4장 도시기반시설 157

표 4.1-1 도로 개괄	158
표 4.2-1 주차장 개괄	164
표 4.3-1 지하철 개괄	168
표 4.4-1 버스전용차로 개괄	170
표 4.5-1 자전거도로 개괄	172
표 4.6-1 교량 개괄	175
표 4.6-2 한강교량 개괄 한강교량 준공 연혁/본문	178
표 4.7-1 터널 개괄	180
표 4.8-1 상수도 개괄	184
표 4.9-1 하수도 개괄	191
표 4.10-1 공원 및 녹지대 개괄	195

5장 교통 201

표 5.1-1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202
표 5.1-2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207
표 5.2-1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212
표 5.3-1 지점별 교통량 및 교통량 변동 추이	216
표 5.3-2 지역별 통행속도	218
표 5.4-1 택시 면허 대수	221
표 5.4-2 버스대수와 노선 수	224
표 5.4-3 지하철 수송 인원	226

6장 공공복지와 문화 229

표 6.1-1 의료시설 수	230
표 6.2-1 유치원 개괄	236
표 6.2-2 초등학교 개괄	241
표 6.2-3 중학교 개괄	246
표 6.2-4 고등학교 개괄	250

표 6.2-5 대학교 개괄	255
표 6.3-1 사회복지시설 개괄	261
표 6.3-2 공공도서관 개괄	265
표 6.3-3 문화재 개괄	269
표 6.3-4 문화시설 개괄	273

7장 서울시정

표 7.1-1 재정 규모	278
표 7.2-1 행정구역 조정 연혁	282
표 7.2-2 행정구역 변천	283
표 7.3-1 공무원 수	286
표 7.4-1 범죄 개발	291
표 7.4-2 5대 범죄 발생 현황	294
표 7.4-3 화재 개괄	298
표 7.4-4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본 서울시 10대 화재	301
표 7.4-5 교통사고 개괄	303
표 7.4-6 풍수해 개괄	308
표 7.4-7 대기오염 수준 개괄	311

1장 도시 개요	15
그림 1.1-1 인구 증가 추이	21
그림 1.1-2 인구증감률	22
그림 1.1-3 남녀 성비	23
그림 1.1-4 연령별 인구	25
그림 1.1-5 연령별 인구 비율	25
그림 1.2-1 자연적 인구 증감	28
그림 1.3-1 인구의 전입과 전출	33
그림 1.3-2 순 전입=전입-전출	34
그림 1.3-3 서울시 총 전출 중 서울내 이동 비율	34
그림 1.3-4 서울시로의 전입	35
그림 1.3-5 서울시에서의 전출	36
그림 1.3-6 서울시와 인천·경기 지역 사이의 이동	37
그림 1.3-7 서울시와 비수도권 사이의 이동	37
그림 1.4-1 가구수	45
그림 1.4-2 가구당 인구수	45
그림 1.4-3 혼인율과 이혼율	48
그림 1.5-1 경제활동인구(고용 기간 1주 자료)	52
그림 1.5-2 취업자와 실업자	53

그림 1.5-3 고용률과 실업률	53
그림 1.6-1 행정구역 면적 변화	55
그림 1.6-2 인구밀도 변화 추이	60
그림 1.6-3 세계 대도시의 인구밀도 비교	62

2장 시민생활과 도시경제

그림 2.1-1 물가지수 상승(전 가구)	68
그림 2.2-1 교통 요금 종합	69
그림 2.2-2 쌀 가격 추이(40킬로그램 기준)	80
그림 2.2-3 가구당 전화 가입자	97
그림 2.2-4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99
그림 2.2-5 무점포 소매 판매액 지수 변화	104
그림 2.2-6 보육시설 추이	105
그림 2.2-7 2016년 구별 보육시설 현황(상위 9개 구)	107
그림 2.3-1 산업별 취업자	113
그림 2.3-2 산업별 취업자 비율	113
그림 2.3-3 직업별 취업자 비율	117
그림 2.4-1 인구 10만 명당 무연탄 소비량	121
그림 2.4-2 인구 10만 명당 휘발유 소비량	121
그림 2.4-3 유류별 소비량(서울시 기준)	122
그림 2.4-4 유류 가격 추이(전국 기준)	125

3장 주택과 건설

그림 3.1-1 주택건설 실적 추이	131
그림 3.1-2 주택 유형별 건설 실적 비율	132
그림 3.1-3 주택수 및 가구수(기존 산정방식)	135
그림 3.1-4 주택보급률(기존 산정방식)	136
그림 3.1-5 유형별 주택 재고 추이(기존 산정방식)	139
그림 3.1-6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141
그림 3.1-7 주택 점유 비율	143

그림 3.2-1 구조별 건축허가 면적 비율	148
그림 3.2-2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 비율	149

4장 도시기반시설 157

그림 4.1-1 도로 총연장	161
그림 4.1-2 미포장도로 비율	162
그림 4.1-3 1인당 도로연장	162
그림 4.1-4 세대당 도로연장	163
그림 4.2-1 주차장 면수	166
그림 4.2-2 주차장 확보율	166
그림 4.4-1 버스전용차로 연장 추이	171
그림 4.5-1 자전거도로 총계	173
그림 4.6-1 교량 개소	177
그림 4.6-2 한강교량 위치	179
그림 4.8-1 상수도 보급률	187
그림 4.8-2 송수관 및 배수관 총연장	188
그림 4.8-3 시설용량	188
그림 4.8-4 급수관 총연장	189
그림 4.8-5 1일 1인당 급수량	190
그림 4.9-1 하수도 보급률	194
그림 4.9-2 하수도 총연장	194
그림 4.10-1 공원 면적	199
그림 4.10-2 1인당 공원 면적	200

5장 교통 201

그림 5.1-1 자동차 등록 대수	205
그림 5.1-2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206
그림 5.1-3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206
그림 5.1-4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비율	207
그림 5.1-5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210

그림 5.1-6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비율	210
그림 5.2-1 1일 시민 교통 수송 인원	214
그림 5.2-2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214
그림 5.3-1 차종, 지역별 통행속도	220
그림 5.4-1 택시 면허 대수 추이	223
그림 5.4-2 버스 대수	225

6장 공공복지와 문화 229

그림 6.1-1 종합병원 및 병원 수	233
그림 6.1-2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수	233
그림 6.1-3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및 병원 수	234
그림 6.1-4 인구 10만 명당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수	234
그림 6.1-5 인구 10만 명당 의료시설 수(모든 의료시설의 합계)	235
그림 6.2-1 유치원 수 추이	239
그림 6.2-2 유치원 재학생 수 추이	239
그림 6.2-3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추이	240
그림 6.2-4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240
그림 6.2-5 초등학교 수 추이	244
그림 6.2-6 초등학교 재학생 수 추이	244
그림 6.2-7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이	245
그림 6.2-8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245
그림 6.2-9 중학교 수 추이	249
그림 6.2-10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250
그림 6.2-11 고등학교 수 추이	253
그림 6.2-12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254
그림 6.2-13 대학교 수 추이	258
그림 6.2-14 대학교 재학생 수 추이	258
그림 6.2-15 학교별 학교 수 추이	259
그림 6.2-16 학교별 재학생 수 추이	260
그림 6.3-1 공공도서관 수 추이	268
그림 6.3-2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268
그림 6.3-3 국가 지정 문화재 수 추이	271
그림 6.3-4 시 지정 문화재 수 추이	272

그림 6.3-5 공연 시설 수 추이	275
---------------------------	-----

7장 서울시정

277

그림 7.1-1 예산 증가 추이	280
-------------------------	-----

그림 7.1-2 예산 증가율	280
-----------------------	-----

그림 7.3-1 공무원 수 추이	289
-------------------------	-----

그림 7.3-2 공무원 비율	289
-----------------------	-----

그림 7.4-1 범죄 발생 건수 추이	295
----------------------------	-----

그림 7.4-2 발생 범죄 유형 비율	295
----------------------------	-----

그림 7.4-3 범죄 발생 건수 추이	296
----------------------------	-----

그림 7.4-4 범죄 검거 비율 추이	296
----------------------------	-----

그림 7.4-5 강력범 발생 건수	297
--------------------------	-----

그림 7.4-6 폭력범 발생 건수	297
--------------------------	-----

그림 7.4-7 화재 발생 건수 추이	301
----------------------------	-----

그림 7.4-8 인구 10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	302
-----------------------------------	-----

그림 7.4-9 교통사고 발생 추이	305
---------------------------	-----

그림 7.4-10 교통사고 사상자 수 추이	306
-------------------------------	-----

그림 7.4-11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306
-------------------------------	-----

그림 7.4-12 교통사고 부상자 수 추이	307
-------------------------------	-----

그림 7.4-13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추이	307
--------------------------------	-----

그림 7.4-14 아황산가스 추이	313
--------------------------	-----

그림 7.4-15 이산화질소 추이	313
--------------------------	-----

그림 7.4-16 미세먼지 추이	314
-------------------------	-----

인구 개괄

1-1

인구 증감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통계연보상에 인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915년으로 이때 서울의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통치 아래 서울의 인구는 1935년까지 매년 3~6퍼센트 내외의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1936년에는 전년 대비 79.9퍼센트 증가하여 약 73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행정구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군수산업정책에 따른 공업화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4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45년 해방 전까지 서울 인구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전년 대비 약 40퍼센트 증가하여 36만여 명이 늘어났다. 광복 후 4년간 서울시 인구 증가 중 절반 이상이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살던 해외 이주민의 귀국과 북한 주민의 남하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자연증가와 남한 내 농촌인구의 서울 유입에 의한 것이다.

1950년 약 170만 명까지 증가하였던 서울 인구는 한

| 표 1.1-1 | 인구 개괄

단위 : 명, 퍼센트

연도	총인구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1915	241,085	NA	NA			124,432	116,653
1916	253,068	11,983	4.97			131,030	122,038
1917	253,154	86	0.03			131,033	122,121
1918	250,942	-2,212	-0.87			129,856	121,086
1919	248,684	-2,258	-0.90			128,510	120,174
+1920	250,208	1,524	0.61			129,273	120,935
1921	261,698	11,490	4.59			136,069	125,629

연도	총인구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1922	271,414	9,716	3.71			140,514	130,900
1923	288,260	16,846	6.21			149,924	138,336
1924	297,465	9,205	3.19			154,106	143,359
+1925	336,349	38,884	13.07			176,359	159,990
1926	306,363	-29,986	-8.92			157,847	148,516
1927	315,006	8,643	2.82			162,953	152,053
1928	321,848	6,842	2.17			167,046	154,802
1929	340,290	18,442	5.73			176,449	163,841
+1930	355,426	15,136	4.45			183,305	172,121
1931	365,432	10,006	2.82			186,447	178,985
1932	374,909	9,477	2.59			187,009	187,900
1933	382,491	7,582	2.02			191,249	191,242
1934	394,511	12,020	3.14			197,108	197,403
+1935	404,202	9,691	2.46			200,901	203,301
1936	727,241	323,039	79.92			388,194	339,047
1937	706,396	-20,845	-2.87			349,178	357,218
1938	737,214	30,818	4.36			363,893	373,321
1939	774,286	37,072	5.03			381,400	392,886
+1940	930,547	156,261	20.18			461,183	469,364
1941	974,933	44,386	4.77			480,960	493,973
1942	1,114,004	139,071	14.26			561,066	552,938
1943	1,078,178	-35,826	-3.22			536,633	541,545
+1944	947,630	-130,548	-12.11			450,287	497,343
1945	901,371	-46,259	-4.88			424,687	476,684
1946	1,266,057	364,686	40.46			645,515	620,542
1947	1,646,902	380,845	30.08			841,904	804,998
1948	1,707,522	60,620	3.68			869,422	838,100
※1949	1,418,025	-289,497	-16.95			715,078	702,947
1950	1,693,224	275,199	19.41			850,758	842,466
1951	648,432	-1,044,792	-61.70			287,205	361,227

연도	총인구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1952	716,865	68,433	10.55			330,547	386,318
1953	1,010,416	293,551	40.95			479,798	530,618
1954	1,242,880	232,464	23.01			603,063	639,817
※1955	1,574,868	331,988	26.71	1,568,746	6,122	786,159	788,709
1956	1,503,865	-71,003	-4.51			735,224	768,641
1957	1,666,005	162,140	10.78			818,019	847,986
1958	1,756,406	90,401	5.43			866,038	890,368
1959	2,093,969	337,563	19.22			1,035,003	1,058,966
※1960	2,445,402	351,433	16.78	2,436,630	8,772	1,222,695	1,222,707
1961	2,577,018	131,616	5.38			1,269,845	1,307,173
1962	2,983,324	406,306	15.77			1,477,421	1,505,903
1963	3,254,630	271,306	9.09			1,608,513	1,646,117
1964	3,424,385	169,755	5.22			1,692,106	1,732,279
1965	3,470,880	46,495	1.36			1,708,423	1,762,457
※1966	3,793,280	322,400	9.29	3,783,200	10,080	1,894,739	1,898,541
1967	3,969,218	175,938	4.64			1,951,732	2,017,486
1968	4,334,973	365,755	9.21			2,140,083	2,194,890
1969	4,776,928	441,955	10.20				
※1970	5,433,198	656,270	13.74	5,422,735	10,463	2,666,129	2,767,069
1971	5,850,925	417,727	7.69			2,914,059	2,936,866
1972	6,076,143	225,218	3.85			3,020,029	3,056,114
1973	6,289,556	213,413	3.51			3,095,992	3,193,564
1974	6,541,500	251,944	4.01			3,220,575	3,320,925
※1975	6,889,502	348,002	5.32	6,879,464	10,038	3,432,182	3,457,320
1976	7,254,958	365,456	5.30			3,580,754	3,674,204
1977	7,525,629	270,671	3.73			3,725,972	3,799,657
1978	7,823,195	297,566	3.95			3,894,433	3,928,762
1979	8,114,021	290,826	3.72			4,038,173	4,075,848
※1980	8,364,379	250,358	3.09	8,350,616	13,763	4,168,875	4,195,504
1981	8,676,037	311,658	3.73			4,288,804	4,387,233

연도	총인구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1982	8,916,481	240,444	2.77			4,412,300	4,504,181
1983	9,204,344	287,863	3.23			4,607,351	4,596,993
1984	9,501,413	297,069	3.23			4,759,713	4,741,700
※1985	9,639,110	137,697	1.45	9,625,755	13,355	4,795,086	4,844,024
1986	9,798,542	159,432	1.65			4,905,220	4,893,322
1987	9,991,089	192,547	1.97			5,006,777	4,984,312
1988	10,286,503	295,414	2.96			5,161,685	5,124,818
1989	10,576,794	290,291	2.82			5,310,907	5,265,887
※1990	10,612,577	35,783	0.34	10,603,250	9,327	5,326,341	5,286,236
1991	10,904,527	291,950	2.75			5,485,353	5,419,174
1992	10,969,862	65,335	0.60	10,935,230	34,632	5,519,096	5,450,766
1993	10,925,464	-44,398	-0.40	10,889,499	35,965	5,496,638	5,428,826
1994	10,798,700	-126,764	-1.16	10,759,454	39,246	5,429,554	5,369,146
1995	10,595,943	-202,757	-1.88	10,550,871	45,072	5,326,022	5,269,921
1996	10,469,852	-126,091	-1.19	10,418,076	51,776	5,258,247	5,211,605
1997	10,389,057	-80,795	-0.77	10,336,134	52,923	5,214,266	5,174,791
1998	10,321,496	-67,561	-0.65	10,270,506	50,990	5,173,556	5,147,940
1999	10,321,449	-47	0.00	10,264,260	57,189	5,170,662	5,150,787
2000	10,373,234	51,785	0.50	10,311,314	61,920	5,198,186	5,175,048
2001	10,331,244	-41,990	-0.40	10,263,336	67,908	5,175,786	5,155,458
2002	10,280,523	-50,721	-0.49	10,207,295	73,228	5,144,833	5,135,690
2003	10,276,968	-3,555	-0.03	10,174,086	102,882	5,133,694	5,143,274
2004	10,287,847	10,879	0.11	10,173,162	114,685	5,128,752	5,159,095
2005	10,297,004	9,157	0.09	10,167,344	129,660	5,123,738	5,173,266
2006	10,356,202	59,198	0.57	10,181,166	175,036	5,145,481	5,210,721
2007	10,421,782	65,580	0.63	10,192,710	229,072	5,174,655	5,247,127
2008	10,456,034	34,252	0.33	10,200,827	255,207	5,184,732	5,271,302
2009	10,464,051	8,017	0.08	10,208,302	255,749	5,181,359	5,282,692
2010	10,575,447	111,396	1.06	10,312,545	262,902	5,236,742	5,338,705
2011	10,528,774	-46,673	-0.44	10,249,679	279,095	5,208,492	5,320,282

연도	총인구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국적 분류		성별 분류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2012	10,442,426	-86,348	-0.82	10,195,318	247,108	5,159,665	5,282,761
2013	10,388,055	-54,371	-0.52	10,143,645	244,410	5,126,351	5,261,704
2014	10,369,593	-18,462	-0.18	10,103,233	266,360	5,109,013	5,260,580
2015	10,297,138	-72,455	-0.70	10,022,181	274,957	5,063,550	5,233,588
2016	10,204,057	-93,081	-0.90	9,930,616	273,441	5,007,379	5,196,678

주석

- 1936년 이전 인구는 경성부사(京城府史)에 의한 수입(서울통계연보)
- '+' 표시는 해방 전 국세조사인구(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 '※' 표시는 총인구조사(1949년), 간이총인구조사(1960년), 국세조사인구(1960년), 인구주택총조사(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1년(12월 31일 기준) 상주인구조사에서는 현역군인, 외국인,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보호자 등이 제외되었으므로 통계표에서 여자가 남자 수보다 많은 것은 위 특수기관의 집단된 남자 인구가 제외된 것에 기인함(서울통계연보)
- 1965년, 1967년, 1968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상주인구조사는 10월 1일 실시
- 1969년 인구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10월 1일 기준)
- 1986년, 1987년 상주인구조사는 11월 1일 실시
- 1991년부터 상주인구조사 폐지. 1992~2016년은 주민등록인구조사에 의한 자료

자료출처

- 1915~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 1965~199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통계청 - 주제별 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인구 부문 - 총조사인구(해당 연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 1992~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다. 1951년에는 100만 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64.8만여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에 10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59년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제대한 군인과 일자리를 찾는 농민들이 서울로 유입된 데 따른 결과이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은 1965년을 제외하고 매년 14~60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근대화와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많은 농촌인구가 서울로 유입되었고,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자연증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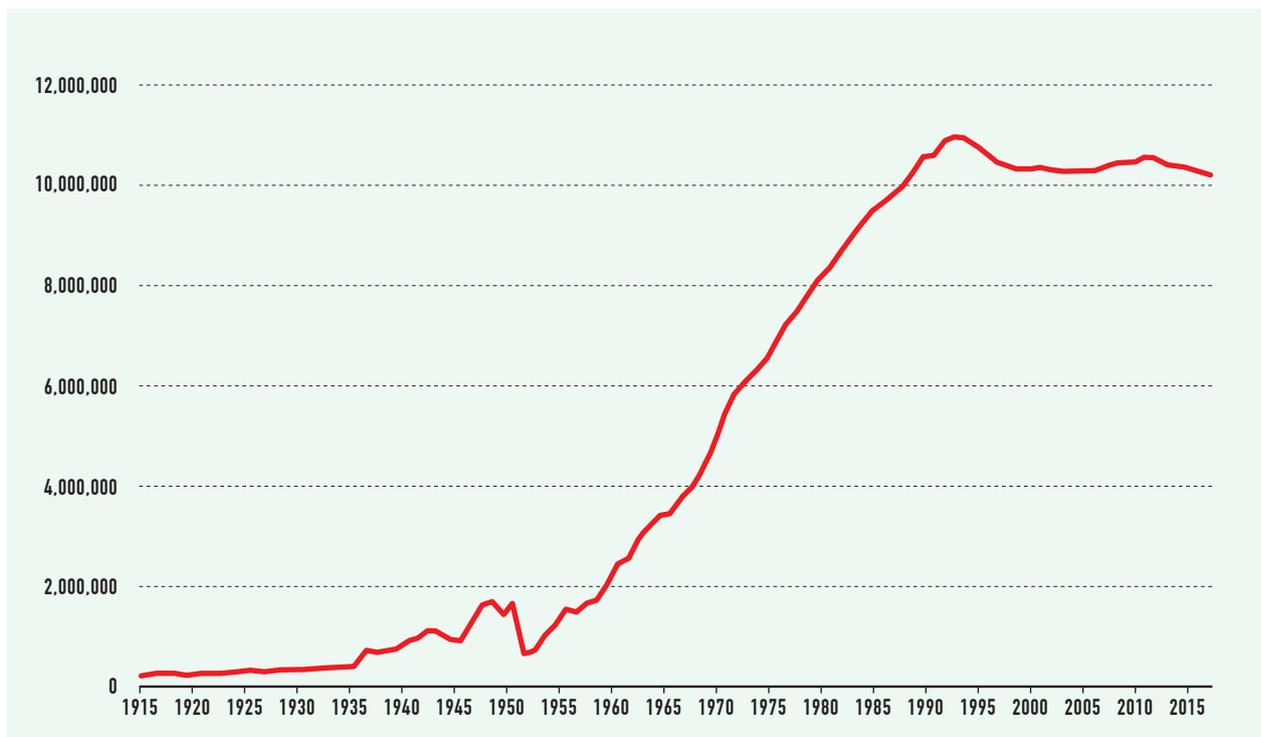
이에 따라 서울 인구는 1953년 100만 명에서 6년 후인 1959년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시 4년 후인 1963

년에 300만 명, 5년 후인 1968년에 400만 명, 그리고 1970년 500만 명을 넘어섰다. 197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1972년에 600만 명을 돌파하였고, 4년 후인 1976년에 700만 명, 3년 후인 1979년에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서울의 인구 증가는 행정구역 확대의 산물이다. 한두 해 만에 분당, 일산 등 신도시의 인구만큼 늘어나는 세계 도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로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서울은 강남 지역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퍼센트 정도로 완화되었으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약 4~5년마다 인구가 100만 명씩 늘어나는 급속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800만 명을 넘어선 서울 인구는 4년 후인 1983년에 9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5년 후인 1988년에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하였

|그림 1.1-1| 인구 증가 추이

단위: 명



다. 총인구가 100만 명이었던 1953년 이후 35년 만에 10배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거대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이는 1990년대에 들면서 둔화되었으며, 1992년 1097만 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외화 현상 때문이며, 1995년에는 약 20만 명이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 인구는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국제결혼이주자 수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방문취업 자격자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세기 동안 급속하게 증가했던 서울 인구는 2010년에 들어 거의 100년 만에 안정 단계에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인구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말 기준 서울 인구는 102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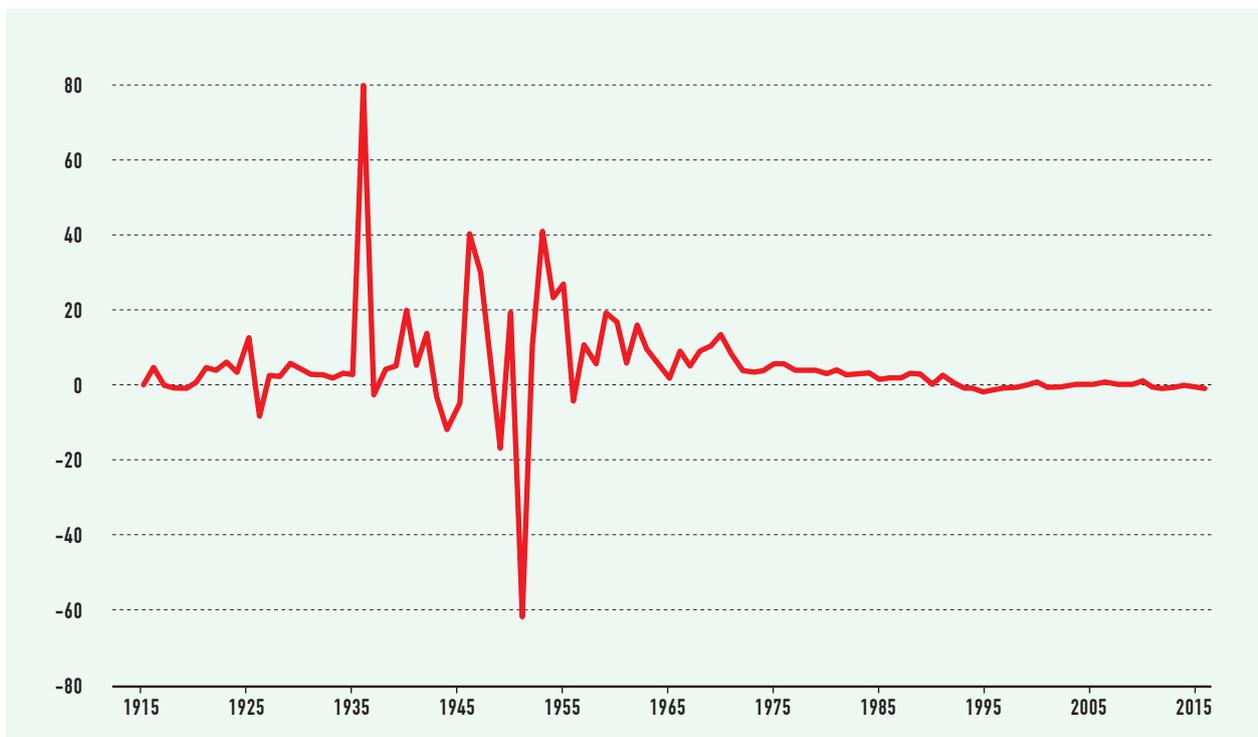
서울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2016년 기준 2.7퍼센트로 외국인 집계가 처음 시작된 1955년 0.39퍼센트에 서 약 7배 증가하였다.

남녀 성비

표 1.1-1에 연도별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가 수록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 차이가 현격했던 것은 아니지

| 그림 1.1-2 | 인구증감률

단위: 퍼센트



만 1930년대까지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았고, 1930년대 초반부터 해방이 된 1945년까지는 대체로 여성인구가 많다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까지 다시 남성인구가 더 많았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여성인구가 많았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은 남초현상(男超現象)을 보였다.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여초현상(女超現象)을 보인 것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강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남성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까지 남성인구가 다시 늘어난 것은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로 이주하였던 남자들이 대거 귀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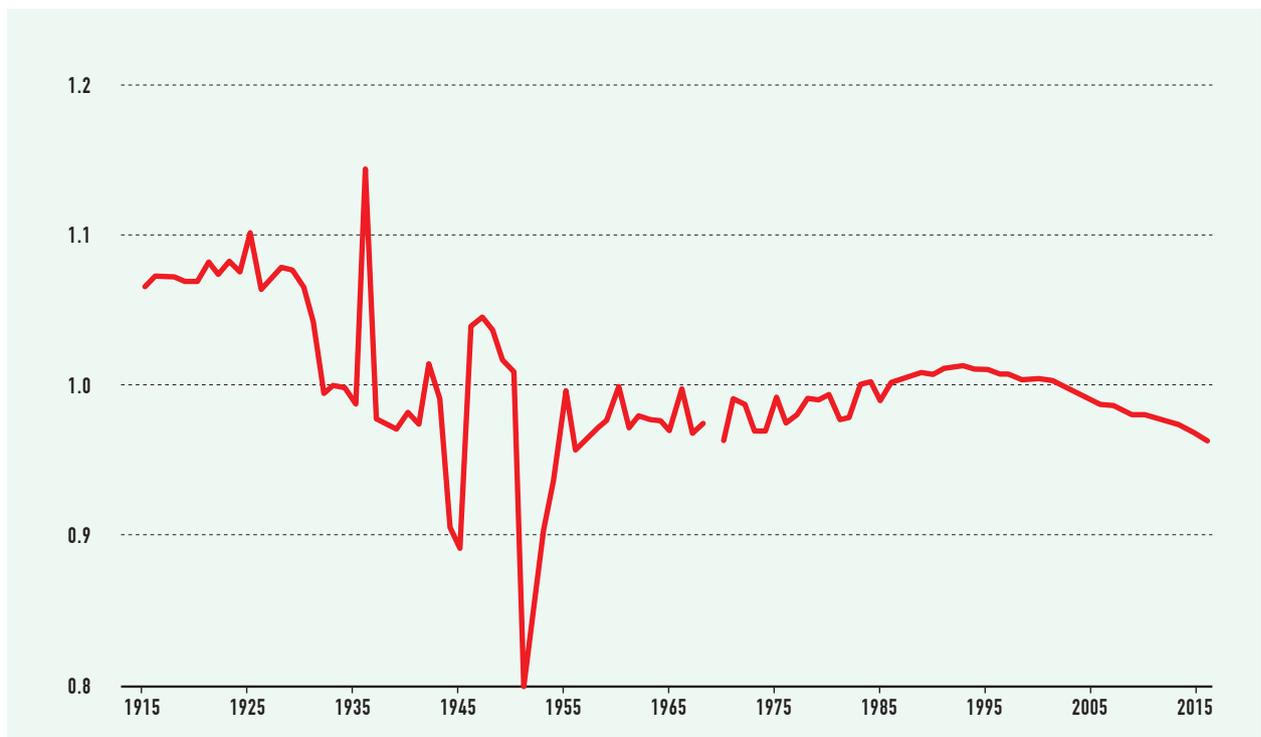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해 많은 남성이 참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전쟁에서 전사하여 여초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60~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근대화, 산업화라는 사회 변화와 관계가 있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던 산업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인데, 많은 농촌 여성이 제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으로 진입한 데서 기인한다. 1983년부터 2002년까지는 여성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다시 남초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3년 이후부터 출생 성비는 안정된 반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긴 평균수명을 가진 고령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초현상이 나타났다.

1960년 이전까지 서울 인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사회변동 속에서 남초현상이나 여초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인구구성이 불균형하였다. 1930년 이전 남자가

|그림 1.1-3 | 남녀 성비

단위: 남/여



조사	연도	전체 인구		유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		전체 부양비	노년 부양비
				계	퍼센트	계	퍼센트	계	퍼센트		
인구총조사	1955	내국인	1,568,746	605,988	38.6	930,261	59.3	32,497	2.1	68.6	3.5
	1960	내국인+외국인	2,445,402	901,468	36.9	1,489,580	60.9	52,673	2.2	64.1	3.5
	1966	내국인+외국인	3,793,280	1,437,174	37.9	2,283,657	60.2	72,427	1.9	66.1	3.2
	1970	내국인	5,525,262	1,986,732	36.0	3,438,354	62.2	100,176	1.8	60.7	2.9
	1975	내국인	6,879,464	2,311,634	33.6	4,422,848	64.3	144,977	2.1	55.5	3.3
	1980	내국인	8,350,616	2,602,264	31.2	5,540,397	66.3	207,953	2.5	50.7	3.8
	1985	내국인	9,625,755	2,719,335	28.3	6,626,464	68.8	279,647	2.9	45.3	4.2
	1990	내국인	10,603,250	2,625,368	24.8	7,615,226	71.8	362,653	3.4	39.2	4.8
주민등록인구	1995	내국인	10,550,871	2,242,408	21.3	7,849,545	74.4	458,918	4.3	34.4	5.8
	2000	내국인	10,311,314	1,915,717	18.6	7,837,031	76.0	558,566	5.4	31.6	7.1
		(내국인+외국인)	10,373,234	1,928,361	18.6	7,884,427	76.0	560,446	5.4	31.6	7.1
	2005	내국인	10,167,344	1,705,769	16.8	7,530,226	74.1	731,349	7.2	32.4	9.7
		(내국인+외국인)	10,297,004	1,715,719	16.7	7,845,383	76.2	735,902	7.1	31.2	9.4
	2010	내국인	10,312,545	1,434,580	13.9	7,875,195	76.4	1,002,770	9.7	30.9	12.7
		(내국인+외국인)	10,575,447	1,444,419	13.7	8,123,456	76.8	1,007,572	9.5	30.2	12.4
	2015	내국인	10,022,181	1,201,105	12.0	7,558,640	75.4	1,262,436	12.6	32.6	16.7
	(내국인+외국인)	10,297,138	1,215,919	11.8	7,813,656	75.9	1,267,563	12.3	31.8	16.2	

용어설명

1. 유년 인구는 만 14세 이하, 청장년 인구는 만 15세부터 만 64세까지, 노년 인구는 만 65세 이상임
2. 부양비 = (유년 인구+노년 인구)/청장년 인구×100
3. 노년부양비 = 노년 인구/청장년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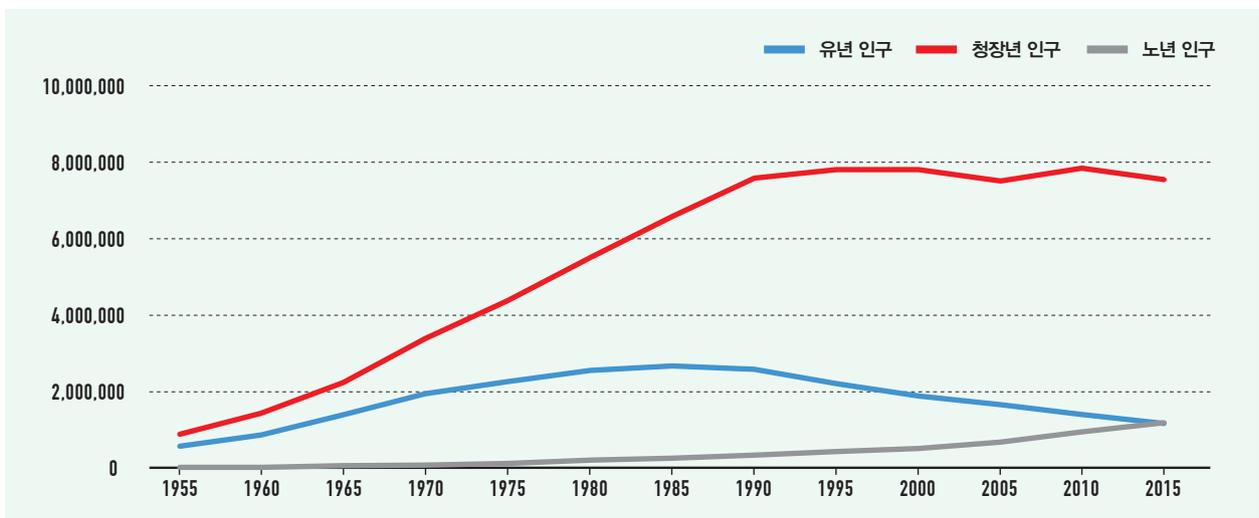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55년,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 총괄-서울특별시 총조사인구 총괄(읍면동/성/연령별)(1949~201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2. 199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6회 1996년 서울통계연보(1995년 기준)
3. 2000년(내국인)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1회 2001년 서울통계연보(2000년 기준)
3-1. 2000년(내국인+외국인)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8회 2008년 서울통계연보(2007년 기준)

- 4. 2005년(내국인)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6회 2006년 서울통계연보(2005년 기준)
- 4-1. 2005년(내국인+외국인)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8회 2008년 서울통계연보(2007년 기준)
- 5. 2010년(내국인)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주민등록인구-2000~2010-2010-2010년 4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
- 5-1. 2010년(내국인+외국인)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1회 2011년 서울통계연보(2010년 기준)
- 6. 2015년 : 서울통계-주제별-인구-주민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cot=017&sr_dtl=1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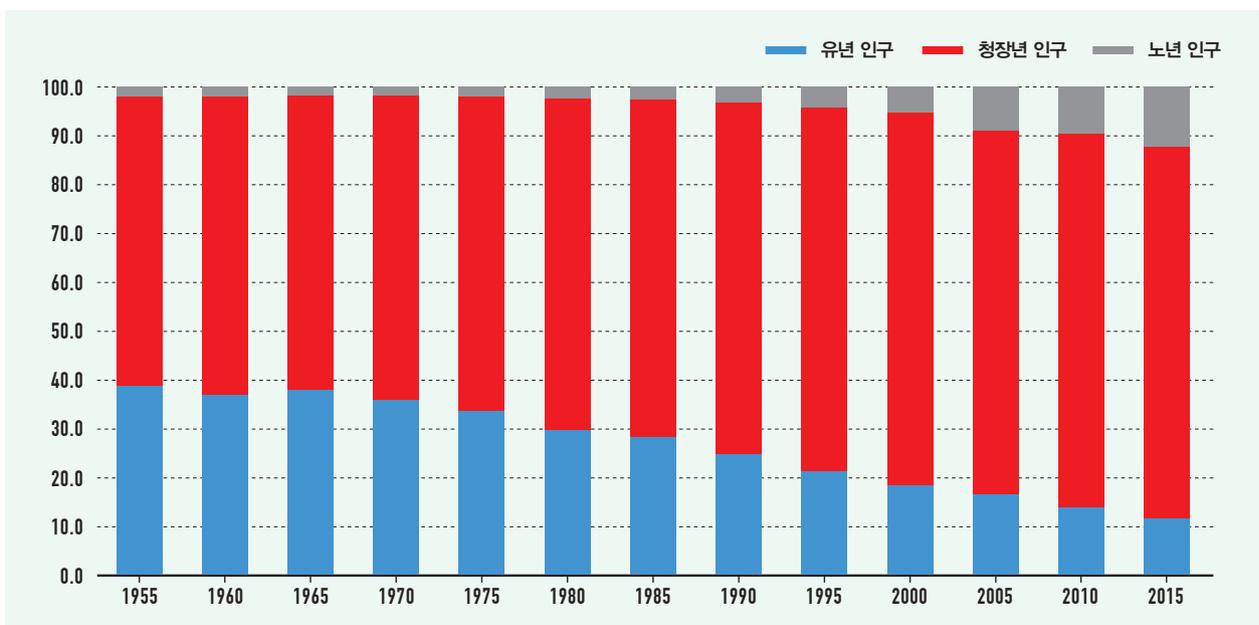
| 그림 1.1-4 |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 그림 1.1-5 | 연령별 인구 비율

단위 : 퍼센트



많은 시기의 성비는 106~110퍼센트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 1960년부터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최근 성비는 2000년 100.4퍼센트, 2010년 98.1퍼센트, 2015년 96.8퍼센트로 점차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여성인구가 우세하며, 성비 간격 또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의 쇠퇴와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연령별 인구구성

정부와 서울시의 공식적인 통계는 1955년부터 연령별로 구분된 인구구성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연령별 인구구성은 유년 인구(만 14세 이하), 청장년 인구(만 15세부터 64세), 노년 인구(만 65세 이상)로 나누어진다. 단 1965년 이전의 노년 인구는 당시 관념상의 노인 기준인 60세 이상의 인구로 구분하였고, 주로 내국인 자료가 기준이 되었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연령별 인구구성 특징을 살펴보면 유년 인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절대 규모가 감소하다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년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률 감소로 전 기간에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내국인 기준으로 볼 때 만 14세 이하 유년 인구의 구성비는 1955년 38.6퍼센트에서 2015년 12.0퍼센트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장년 인구의 구성비는 1955년 57.7퍼센트에서 2015년 75.4퍼센트로 1.3배 증가하였다. 1960~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젊은 노동 인력이 서울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증가세를 유지하던 청장년 인구의 절대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청장년층 구성비가 계속 증가한 것은 이 연령대의 절대 인구 증가보다 유년 인구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실제 청장년층의 절대 인구가 평균 20퍼센트 내외로 증가했던 1980~1985년에 비해 1990~1995년에는 증가율이 3퍼센트에 불과하였고, 1995~2000년에는 절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5~2010년 청장년층 인구는 증가하다가 2015년 다시 감소하였으나, 구성비는 76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년 인구 구성비는 1960~1970년대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노년 인구는 1955년 전체 인구의 2.1퍼센트에서 1970년 1.8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노년 인구의 기준을 달리 하여 나타난 차이로 1965년까지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반면, 1970년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노년 인구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60~1970년대 청장년층의 서울 유입으로 인해 노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노년 인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 5.4퍼센트에 불과하던 노년 인구가 2005년 7.2퍼센트로 증가하여 서울시는 고령화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 9.7퍼센트,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들어서서 노년 인구수가 유년 인구수를 역전하였으며 이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감소분에 따른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한 결과이다.

부양비

인구 자료가 공식 통계로 잡힌 이래 전체 부양비(청장년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 인가와 노년 인구의 비율((유년 인구 + 노년 인구)/청장년 인구×100)는 1955년 68.6퍼센트에서 2015년 32.6퍼센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55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유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6퍼센트인데 반하여 노년 인구는 2.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유년 인구 비율이 11.8퍼센트, 노년 인구 비율이 12.3퍼센트를 차지하여 유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전체 부양비 비율이 30.2퍼센트에서 31.8퍼센트로 큰 변동 없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유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년 인구의 증가가 큰 특징이고, 특히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는 노년 인구 부양비가 1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6.7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노년 인구를 만 65세 이상이라고 명명한 시점인 1970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청장년 100명이 2.9명의 노인만 부양하면 되는 1970년에 비해, 2010년에는 12.7명, 2015년 16.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들어서서 유년 인구수에 대한 노년 인구수의 역전현상과 유년 인구의 감소 속도가 노년 인구의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을 감안한다면 노년 인구의 비율 증가로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후에도 노년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의 부양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자연적 증감

1-2

출생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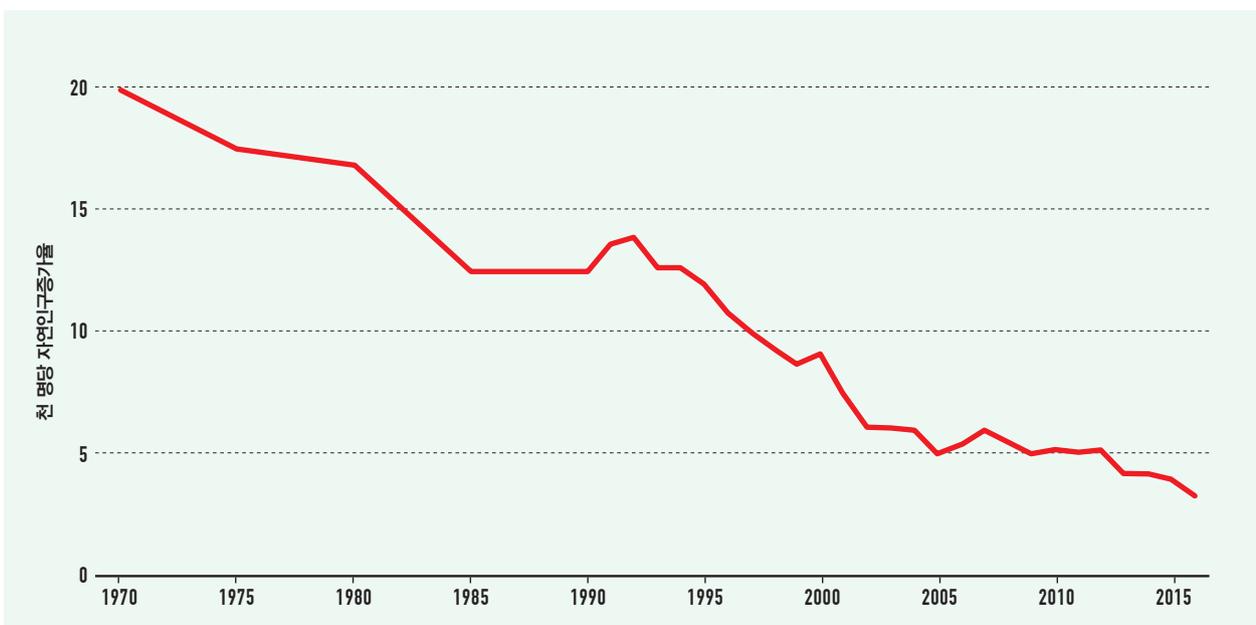
표 1.2-1은 서울시의 출생과 사망 현황을 보여 준다. 이 표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서울시의 자연 증감으로 인한 인구 규모 변화를 알 수 있다. 통계청을 통해 1990년까지는 5년 단위로 계산된 연평균 자료를, 그 이후는 1년 단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서울시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1970년부터 최근까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70년 23.9명에서 2016년 7.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 이후 출생률의 감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효과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여성의 가임 기간이 줄어든 것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난 것도 원

| 그림 1.2-1 | 자연적 인구 증감



연도	출생		사망		자연인구증가율
	출생 건수(명)	조출생률(천 명당)	사망 건수(명)	조사망률(천 명당)	자연증가율(천 명당)
*1970	152,000	23.9	25,000	3.9	19.9
*1975	167,000	21.5	31,000	4.1	17.5
*1980	188,000	20.6	34,000	3.7	16.8
*1985	163,000	16.1	37,000	3.7	12.5
1990	168,838	16.1	38,266	3.7	12.5
1991	180,301	17.2	38,552	3.7	13.6
1992	182,691	17.5	37,856	3.6	13.9
1993	175,827	16.1	38,213	3.5	12.6
1994	175,707	16.2	39,267	3.6	12.6
1995	166,236	15.6	38,577	3.6	12.0
1996	152,140	14.5	38,612	3.7	10.8
1997	141,204	13.6	37,661	3.6	10.0
1998	133,174	12.9	37,692	3.7	9.3
1999	126,742	12.3	37,596	3.7	8.7
2000	131,935	12.8	38,815	3.8	9.1
2001	113,632	11	37,979	3.7	7.4
2002	100,928	9.9	38,491	3.8	6.1
2003	100,137	9.8	37,693	3.7	6.0
2004	98,790	9.7	37,872	3.7	5.0
2005	89,489	8.8	38,365	3.8	5.4
2006	92,885	9.1	38,117	3.7	6.0
2007	100,107	9.8	38,645	3.8	5.5
2008	94,736	9.3	38,298	3.8	5.0
2009	89,595	8.8	38,790	3.8	5.2
2010	93,268	9.2	40,130	3.9	5.2
2011	91,526	9.0	40,320	4.0	5.1
2012	93,914	9.3	41,514	4.1	5.2

연도	출생		사망		자연인구증가율
	출생 건수(명)	조출생률(천 명당)	사망 건수(명)	조사망률(천 명당)	자연증가율(천 명당)
2013	84,066	8.4	42,063	4.2	4.2
2014	83,711	8.4	42,153	4.2	4.2
2015	83,005	8.4	43,053	4.3	4.0
2016	75,536	7.7	43,540	4.4	3.3

주석

1. '**' 표시는 5년간 평균 수치를 의미함
2. 본 자료의 출생통계(1981~2008), 사망통계(1983~2007), 혼인통계(1981~2008) 및 이혼통계(1981~2008)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원과 집계 방식을 단일화하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 자료와 차이가 있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총 출생아 수와 총 사망자 수는 국내 거주 출생아 수, 사망자 수만을 집계(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용어설명

1. 조출생률 : 특정인구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는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2. 조사망률 : 한 인구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 연도의 연간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는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 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자료출처

1.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2. 1990~2016년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 가구-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1990~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3

인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출생률 역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2006~2007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전년 대비 4.1퍼센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부터 약 8퍼센트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인구 천 명당 조사망률은 1970년 3.9명에서 1975년 4.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3.5~3.9명의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약 3.8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사망자 수는 2010년에 4만 명대로 증가하였다. 조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 천 명당 10명 이하). 특히 2016년에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며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3.3퍼센트를 나타냈다.

시내 이동

서울 시민의 시내 이동 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주거 이동 성향을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서울 총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1970년 한 해 동안 22.7명이 이사를 하였으며 1980년에는 23.7명, 1990년에는 18.6명, 2000년에는 15.3명이 이사

를 하였다. 시내 이동 빈도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5년으로 전체 서울 시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0명당 34.9명이 한 해 동안 이사를 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서 2015년은 인구 100명당 11명이 시내에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낮은 주거 이동 성향을 보였다.

| 표 1.3-1 | 인구이동 : 전입과 전출

단위 : 명

연도	서울 내 이동	전출			전입				순 전입
	서울→서울	서울→인천·경기	서울→비수도권	합계	인천·경기→서울	비수도권→서울	합계	*합계(국외 및 기타 포함)	전입-전출
1970	1,232,619	130,149	86,217	216,366	95,388	414,227	509,615	510,194	293,828
1971	1,158,556	150,313	110,147	260,460	95,423	417,726	513,149	513,149	252,689
1972	985,945	93,333	131,281	224,614	90,470	272,918	363,388	363,388	138,774
1973	1,345,508	143,234	158,526	301,760	107,177	378,086	485,263	486,350	184,590
1974	1,511,726	149,045	158,889	307,934	107,518	424,478	531,996	538,666	230,732
1975	2,401,970	253,705	281,418	535,123	207,641	784,985	992,626	994,692	459,569
1976	2,041,724	202,276	251,620	453,896	144,524	567,935	712,459	714,786	260,890
1977	2,212,213	207,722	258,072	465,794	154,021	526,150	680,171	681,190	215,396
1978	2,518,286	237,684	272,941	510,625	164,771	605,064	769,835	789,153	278,528
1979	1,883,742	278,411	279,089	557,500	168,188	533,926	702,114	705,925	148,425

연도	서울 내 이동	전출			전입				순 전입
	서울→서울	서울→인천·경기	서울→비수도권	합계	인천·경기→서울	비수도권→서울	합계	*합계(국외 및 기타 포함)	전입 - 전출
1980	1,985,766	297,539	319,607	617,146	231,651	549,139	780,790	782,050	164,904
1981	2,090,599	306,952	313,927	620,879	229,369	539,533	768,902	769,261	148,382
1982	2,200,559	366,052	299,383	665,435	241,516	555,498	797,014	797,295	131,860
1983	2,510,626	458,833	322,894	781,727	287,329	623,626	910,955	923,558	141,831
1984	2,208,384	418,953	292,475	711,428	284,569	558,365	842,934	844,174	132,746
1985	2,007,557	458,155	288,311	746,466	278,047	498,395	776,442	776,830	30,364
1986	1,934,992	471,126	282,718	753,844	281,149	466,637	747,786	748,021	-5,823
1987	2,015,454	463,948	289,597	753,545	354,224	483,720	837,944	837,944	84,399
1988	2,431,698	483,242	284,891	768,133	468,144	488,545	956,689	956,689	188,556
1989	2,186,860	486,271	266,342	752,613	396,074	466,183	862,257	862,257	109,644
1990	1,972,421	577,422	267,641	845,063	326,161	427,910	754,071	754,071	-90,992
1991	1,764,051	465,329	244,737	710,066	301,258	371,929	673,187	673,187	-36,879
1992	1,764,955	500,441	235,302	735,743	298,937	331,922	630,859	630,859	-104,884
1993	1,648,211	570,296	223,458	793,754	300,365	310,757	611,122	611,122	-182,632
1994	1,666,106	606,689	203,788	810,477	303,631	270,349	573,980	573,980	-236,497
1995	1,603,840	662,106	221,284	883,390	304,494	256,998	561,492	561,492	-321,898
1996	1,571,154	579,197	220,441	799,638	333,744	254,657	588,401	588,401	-211,237
1997	1,485,450	556,268	211,485	767,753	339,191	250,243	589,434	589,434	-178,319
1998	1,256,643	460,996	219,305	680,301	315,089	231,199	546,288	546,288	-134,013
1999	1,668,474	525,984	224,653	750,637	389,245	280,270	669,515	669,515	-81,122
2000	1,582,429	488,402	195,515	683,917	358,586	278,392	636,978	636,978	-46,939
2001	1,658,076	552,440	199,217	751,657	365,951	271,757	637,708	637,708	-113,949
2002	1,672,647	572,265	179,560	751,825	366,561	278,843	645,404	645,404	-106,421
2003	1,609,693	502,643	199,355	701,998	368,210	264,820	633,030	633,030	-68,968
2004	1,345,348	441,773	186,318	628,091	328,876	252,011	580,887	580,887	-47,204
2005	1,397,713	460,933	183,110	644,043	351,864	241,172	593,036	593,036	-51,007
2006	1,521,108	497,099	192,251	689,350	400,152	252,647	652,799	652,799	-36,551
2007	1,448,604	482,938	199,386	682,324	378,233	251,208	629,441	629,441	-52,883

연도	서울 내 이동	전출			전입				순 전입
	서울→서울	서울→인천·경기	서울→비수도권	합계	인천·경기→서울	비수도권→서울	합계	*합계(국외 및 기타 포함)	전입 - 전출
2008	1,426,213	462,901	194,238	657,139	363,994	235,151	599,145	599,145	-57,994
2009	1,286,855	443,674	194,923	638,597	356,810	229,523	586,333	586,333	-52,264
2010	1,199,708	456,817	191,513	648,330	321,633	211,674	533,307	533,307	-115,023
2011	1,215,122	425,412	194,272	619,684	305,415	201,211	506,626	506,626	-113,058
2012	1,069,300	403,775	185,853	589,628	286,391	199,590	485,981	485,981	-103,647
2013	1,053,008	388,225	179,407	567,632	279,481	187,601	467,082	467,082	-100,550
2014	1,098,023	375,997	187,405	563,402	284,081	191,490	475,571	475,571	-87,831
2015	1,129,529	404,252	192,906	597,158	273,127	186,775	459,902	459,902	-137,256
2016	1,061,915	414,505	179,439	593,944	266,843	186,844	453,687	453,687	-140,257

주석

1. 순 전입 : 전입 합계(국외 및 기타 코드 포함) -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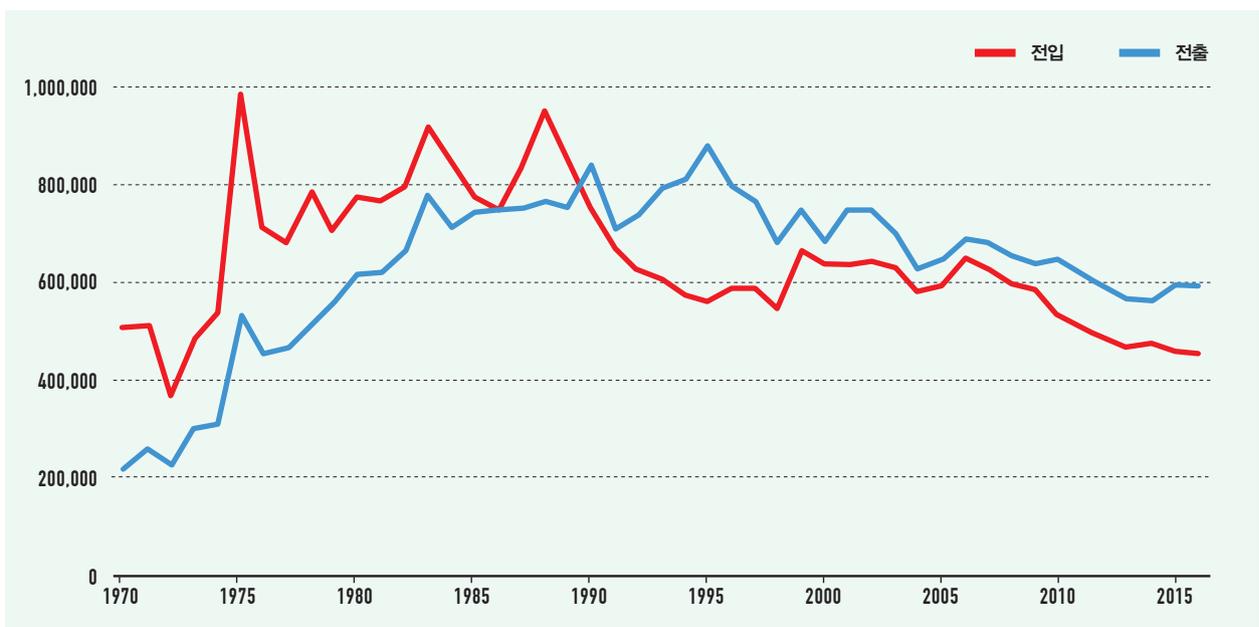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70~2016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가구 - 인구이동 -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 수(1970~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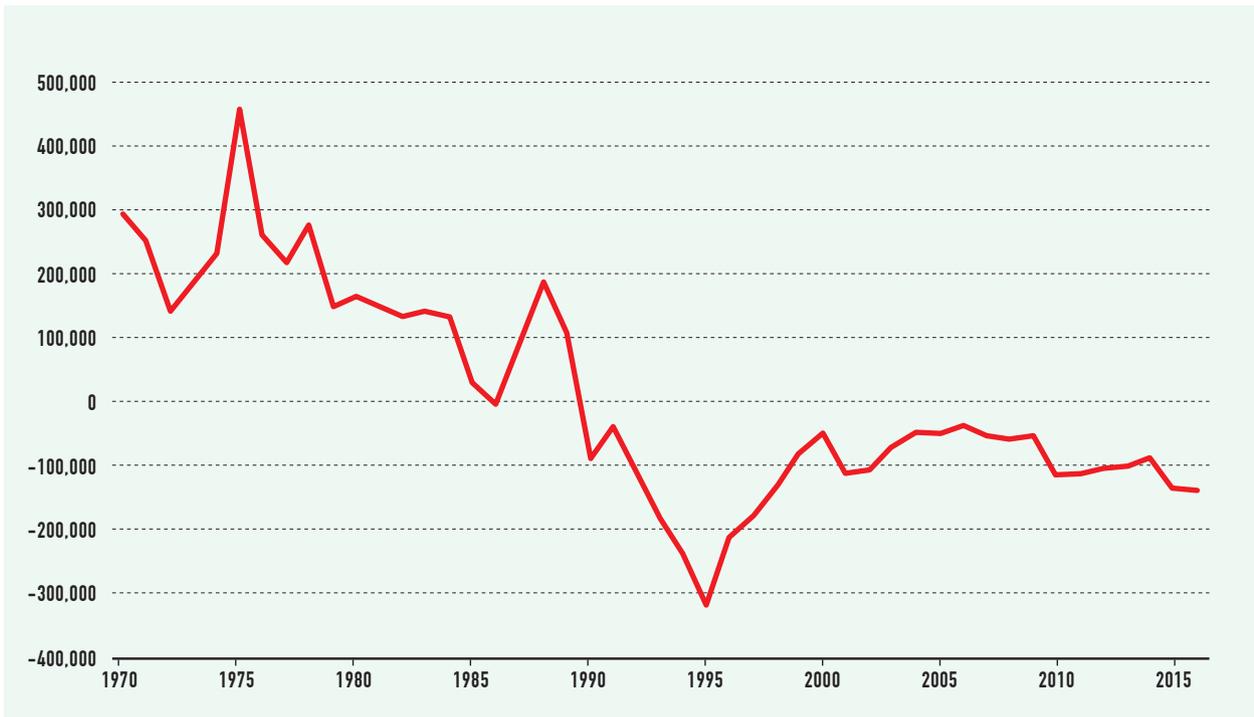
| 그림 1.3-1 | 인구의 전입과 전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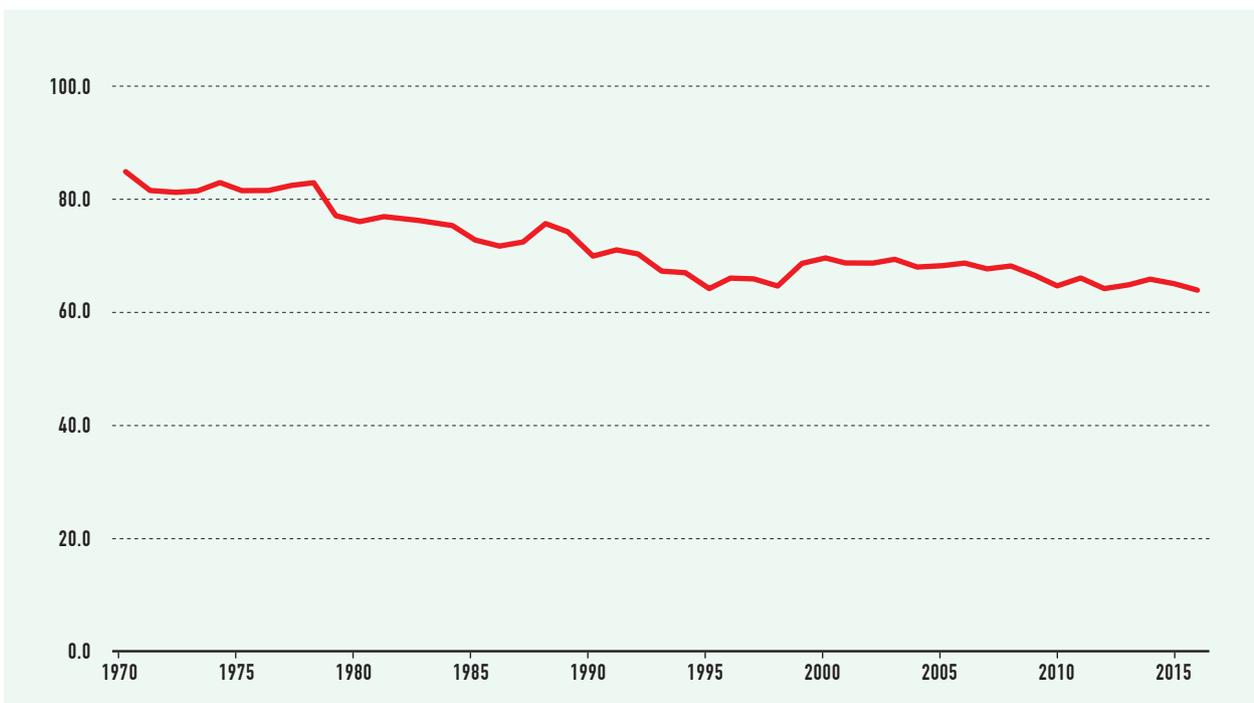
| 그림 1.3-2 | 순 전입 = 전입 - 전출

단위: 명



| 그림 1.3-3 | 서울시 총 전출 중 서울 내 이동 비율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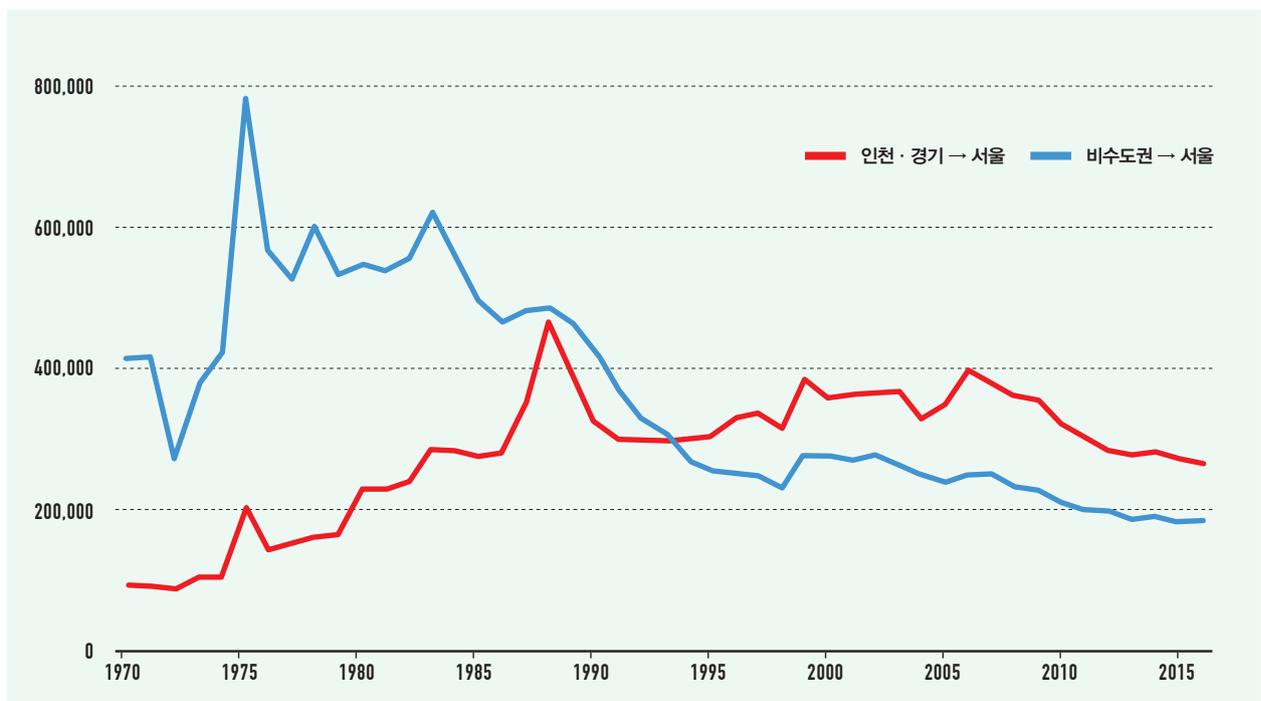
시외 이동 : 서울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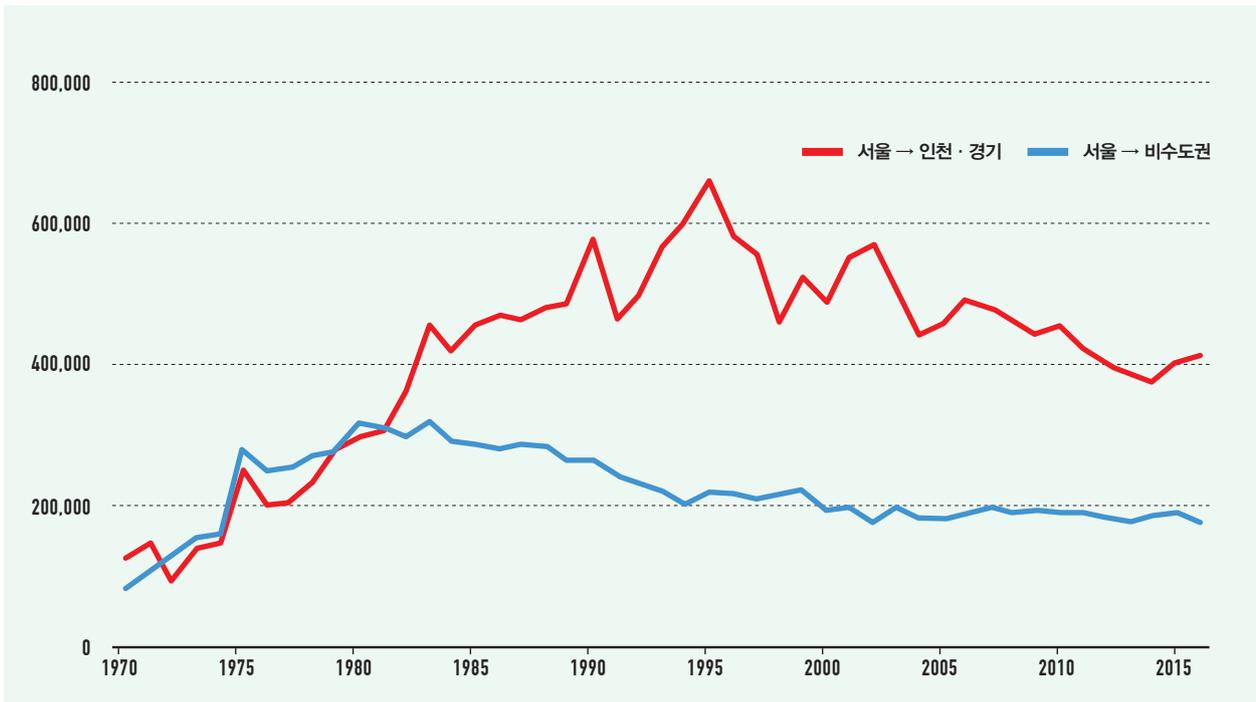
1970년부터 1989년까지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서울시로 전입한 인구가 전출한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연도는 1975년으로 이 시기의 순 전입인구(전입-전출)는 약 46만 명에 달했다. 전입인구의 증가가 1960~1970년대 서울의 인구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인으로 당시 서울의 인구 증가가 자연증가보다 인구이동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990년 이후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는 1995년으로 순 전출인구(전출-전입)는 32만 명 정도였다. 전출인구 규모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990년대 이후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은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전국 각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시기별로 유입되는 지역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울 이외 지역을 인천·경기 지역과 그 외 기타(이하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할 때, 1980년대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되는 인구가 더 많았다. 이 시기 전입인구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추이를 반영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 서울의 인구집중은 1980년대까지 전국적인 유입 양상을 보이는 반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주변 대도시권에서 유입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입에 따른 유입량보다 전출에 따른 유출량이 점차 많아져, 2016년 서울 인구의 순 전입은 마이너스 14만 명 정도로 감소 폭이 늘어났다.

| 그림 1.3-4 | 서울시로의 전입

단위 : 명





시외 이동 : 서울 전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인천·경기 지역으로의 전출이 급증하였다가 그 간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980년대 초까지 인천·경기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하는 규모가 유사하였지만, 1982년을 기점으로 인천·경기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로도 인천·경기 지역으로 전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었다. 그림 1.3-5와 같이 서울의 인구 전출이 전입과 마찬가지로 주변 대도시권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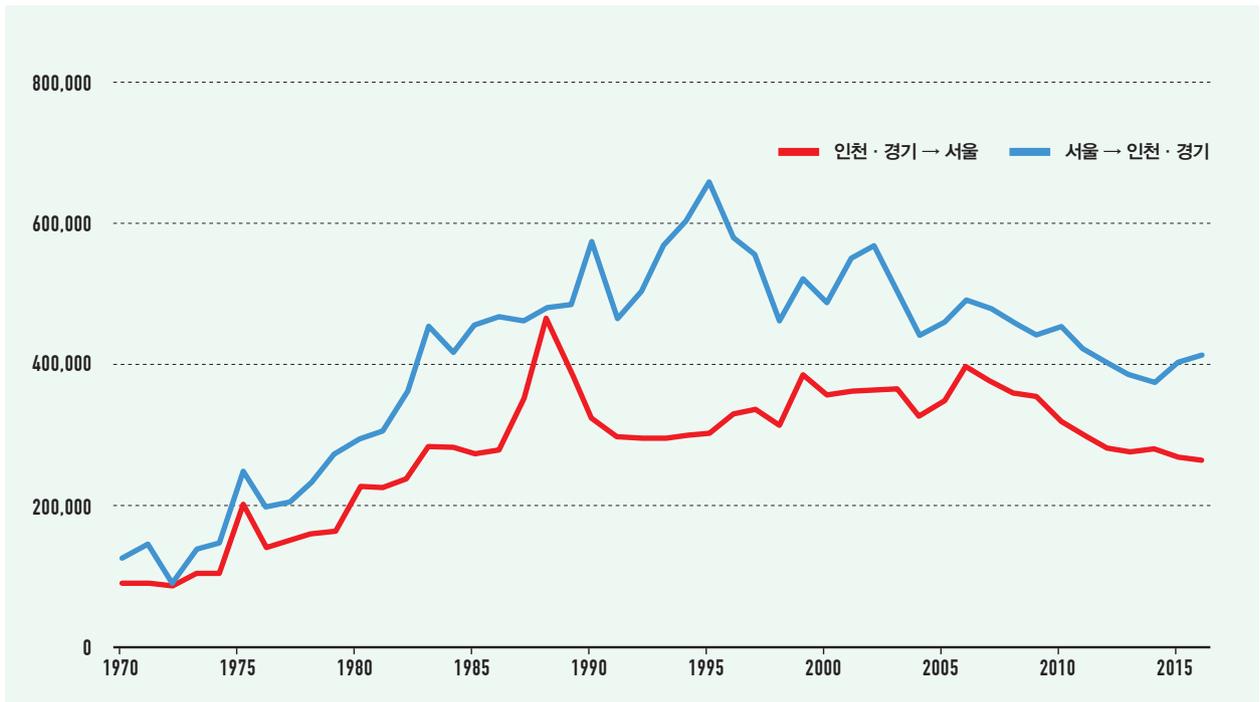
서울의 인구집중과 분산은 1980년대까지 국가의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절대 인구가 안정화되면서 서울의 광역화와 교외화 차원에서 인구가동이 일어났다.

서울과 주변의 인천·경기 지역은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성장하여 그 안에서 활발한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 신도시 건설, 외곽 주택지 개발, 고용의 외연적 확산 등이 서울 인구의 전출을 유발하고 있으며, 서울이 제공하는 취업, 교육, 문화적 기회 등이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인천·경기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에 비해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에는 그 차이가 약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출인구 증가로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절대적인 인구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순 전입인구는 매년 10만 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 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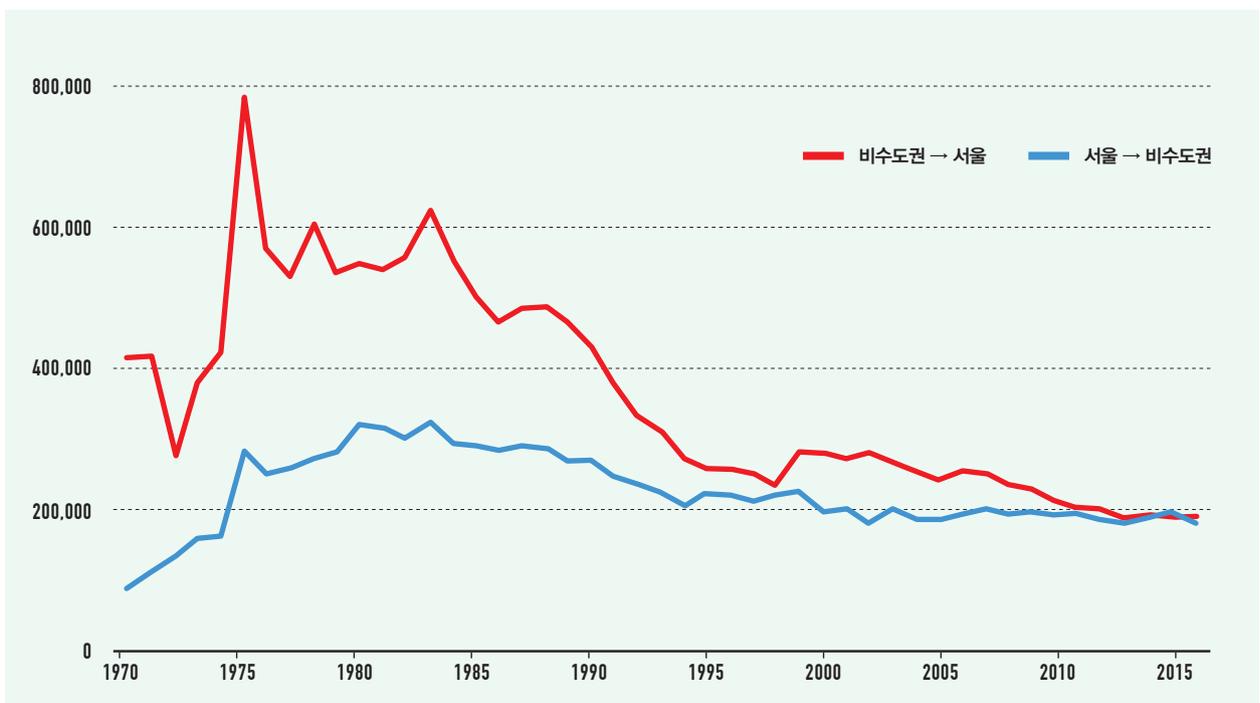
| 그림 1.3-6 | 서울시와 인천·경기 지역 사이의 이동

단위: 명



| 그림 1.3-7 | 서울시와 비수도권 사이의 이동

단위: 명



전국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구성장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 인구는 196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절대 인구 규모의 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서울의 인구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전국 대비 서울의 인구는 1970년 17.6퍼센트에서 1990년 24.4퍼센트로 성장한 이후, 2015년 기준 19.4퍼센트로 감소하였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는 1970년 10.7퍼센트에서 2015년 30.1퍼센트로 급증하

였다.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1970년 28.2퍼센트에서 2015년 49.5퍼센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60~1970년 기간에 서울이 전국 인구 증가분의 47.8퍼센트를, 인천·경기 지역이 9.4퍼센트를 흡수하는 등 전국 인구 증가분의 과반수가 수도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는 1990~2000년이었다. 이 기간에는 전국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는 26.3퍼센트 감소했다. 그에 비해 인천·경기의 인구는 전국 인구 증가분보다 약 1.3배 더 증가한 것

표 1.3-2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인구 규모와 증감 비율

단위: 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인구 규모 (명)	서울	5,525,262	8,364,379	10,612,577	9,895,217	9,794,304	9,904,312
	인천·경기	3,353,272	4,933,862	7,973,551	11,459,273	14,041,968	15,369,512
	수도권	8,878,534	13,298,241	18,586,128	21,354,490	23,836,272	25,273,824
	전국	31,435,252	37,436,315	43,410,899	46,136,101	48,580,293	51,069,375
인구 비율 (퍼센트)	서울/전국	17.6	22.3	24.4	21.4	20.2	19.4
	인천·경기/전국	10.7	13.2	18.4	24.8	28.9	30.1
	수도권/전국	28.2	35.5	42.8	46.3	49.1	49.5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0	2010~2015
인구 증감 규모 (명)	서울	3,079,860	2,839,117	2,248,198	-717,360	-100,913	110,008
	인천·경기	604,507	1,580,590	3,039,689	3,485,722	2,582,695	1,327,544
	수도권	3,684,367	4,419,707	5,287,887	2,768,362	2,481,782	1,437,552
	전국	6,446,011	6,001,063	5,974,584	2,725,202	2,444,192	2,489,082
인구 증감 비율 (퍼센트)	서울/전국	47.8	47.3	37.6	-26.3	-4.1	4.4
	인천·경기/전국	9.4	26.3	50.9	127.9	105.7	53.3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01.6	101.5	57.8

주석

1. 본 자료는 통계청의 총조사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1980년부터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내국인 자료(총조사인구 총괄)와 외국인 자료(연도별 총조사인구)의 합계

자료출처

1. 1960년(총인구), 1970년(총인구), 1980년(내국인), 1990년(내국인), 2000년(내국인), 2010년(내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 총괄-총조사인구 총괄(시도/성/연령별) (1925~201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3
2. 1960년(외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1960)-전수부문-시도/국적/성별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6007&conn_path=3
3. 1970년(외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1970)-전수부문-시도/성/연령/국적별 외국인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7005&conn_path=3
4. 1980년(외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1980)-전수부문-시도/성/연령별 외국인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8005&conn_path=3
5. 1990년(외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1990)-전수부문-시도/성/연령별 외국인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9006&conn_path=3
6. 2000년(외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00)-전수부문-시도/성/연령별 외국인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9&conn_path=3
7. 2010년(외국인)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0)-전수부문-성 및 연령별 외국인-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A1002&conn_path=3
8. 2015년(총인구)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5)-전수부문-인구, 가구 및 주택-읍면동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3

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까지 이러한 증감 현상은 지속되어 인구이동 및 증가가 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2015년 사이는 증가 폭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의 인구

증가 비율은 2000~2010년 마이너스 4.1퍼센트에서 2010~2015년 4.4퍼센트를 나타냈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를 멈추고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구 변화

1-4

가구

서울의 가구수는 인구 규모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15년 약 5.5만 가구였던 서울의 가구수는 1936년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1946년에 다시 20여만 가구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성장과 함께 서울의 가구수는 1970년 드디어 100만 가구를 돌파하였고 1982년에 200만 가구, 1991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007년 400만 가구를 넘어서서 2010년 422만 가구로 최고 정점을 맞이한 이래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19만 가구가 되었다.

인구와 가구수 증가는 약간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인구 규모는 1960~1970년대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가구수는 1980년대에 매년 10만 가구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라 가구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핵가족 확산에 따라 가구분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감소하고,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 한 부모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표 1.4-1 | 가구 변화

단위 : 수

연도	총인구	내국인	등록외국인	가구수(세대수)	세대당 인구
1915	241,085			55,367	4.35
1916	253,068			58,028	4.36
1917	253,154			58,063	4.36
1918	250,942			57,381	4.37
1919	248,684			57,029	4.36
+1920	250,208			54,614	4.58
1921	261,698			57,029	4.59
1922	271,414			59,689	4.55

연도	총인구	내국인	등록외국인	가구수(세대수)	세대당 인구
1923	288,260			63,863	4.51
1924	297,465			66,151	4.50
+1925	336,349			70,192	4.79
1926	306,363			68,863	4.45
1927	315,006			70,288	4.48
1928	321,848			71,201	4.52
1929	340,290			74,331	4.58
+1930	355,426			74,909	4.74
1931	365,432			77,701	4.70
1932	374,909			78,261	4.79
1933	382,491			79,519	4.81
1934	394,511			80,961	4.87
+1935	404,202			82,822	4.88
1936	727,241			138,583	5.25
1937	706,396			144,252	4.90
1938	737,214			148,856	4.95
1939	774,286			154,223	5.02
+1940	930,547			164,110	5.67
1941	974,933			173,162	5.63
1942	1,114,004			193,610	5.75
1943	1,078,178			199,190	5.41
+1944	947,630			193,915	4.89
1945	901,371			189,590	4.75
1946	1,266,057			234,819	5.39
1947	1,646,902			293,139	5.62
1948	1,707,522			308,287	5.54
※1949	1,418,025			272,314	5.21
1950	1,693,224			318,673	5.31

연도	총인구	내국인	등록외국인	가구수(세대수)	세대당 인구
1951	648,432			134,822	4.81
1952	716,865			147,502	4.86
1953	1,010,416			195,829	5.16
1954	1,242,880			230,716	5.39
※1955	1,574,868	1,568,746	6,122	259,660	6.07
1956	1,503,865			275,652	5.46
1957	1,666,005			303,780	5.48
1958	1,756,406			319,674	5.49
1959	2,093,969			385,076	5.44
※1960	2,445,402	2,436,630	8,772	446,874	5.47
1961	2,577,018			485,129	5.31
1962	2,983,324			554,136	5.38
1963	3,254,630			597,132	5.45
1964	3,424,385			633,026	5.41
1965	3,470,880			649,290	5.35
※1966	3,793,280	3,783,200	10,080	725,130	5.23
1967	3,969,218			754,261	5.26
1968	4,334,973			837,362	5.18
1969	4,776,928			961,491	4.97
※1970	5,433,198	5,422,735	10,463	1,096,871	4.95
1971	5,850,925			1,151,078	5.08
1972	6,076,143			1,182,655	5.14
1973	6,289,556			1,215,538	5.17
1974	6,541,500			1,273,678	5.14
※1975	6,889,502	6,879,464	10,038	1,409,577	4.89
1976	7,254,958			1,461,009	4.97
1977	7,525,629			1,529,323	4.92
1978	7,823,195			1,609,121	4.86

연도	총인구	내국인	등록외국인	가구수(세대수)	세대당 인구
1979	8,114,021			1,713,193	4.74
※1980	8,364,379	8,350,616	13,763	1,836,903	4.55
1981	8,676,037			1,915,104	4.53
1982	8,916,481			2,000,678	4.46
1983	9,204,344			2,116,334	4.35
1984	9,501,413			2,245,598	4.23
1985	9,639,110	9,625,755	13,355	2,324,219	4.15
1986	9,798,542			2,428,173	4.04
1987	9,991,089			2,518,128	3.97
1988	10,286,503			2,658,371	3.87
1989	10,576,794			2,816,510	3.76
※1990	10,612,577	10,603,250	9,327	2,817,762	3.77
1991	10,904,527			3,330,317	3.27
1992	10,969,862	10,935,230	34,632	3,359,075	3.26
1993	10,925,464	10,889,499	35,965	3,408,080	3.20
1994	10,798,700	10,759,454	39,246	3,429,629	3.14
1995	10,595,943	10,550,871	45,072	3,417,958	3.09
1996	10,469,852	10,418,076	51,776	3,421,087	3.05
1997	10,389,057	10,336,134	52,923	3,462,552	2.99
1998	10,321,496	10,270,506	50,990	3,458,511	2.97
1999	10,321,449	10,264,260	57,189	3,490,616	2.94
2000	10,373,234	10,311,314	61,920	3,540,492	2.91
2001	10,331,244	10,263,336	67,908	3,570,228	2.87
2002	10,280,523	10,207,295	73,228	3,623,929	2.82
2003	10,276,968	10,174,086	102,882	3,714,697	2.74
2004	10,287,847	10,173,162	114,685	3,780,305	2.69
2005	10,297,004	10,167,344	129,660	3,871,024	2.63
2006	10,356,202	10,181,166	175,036	3,978,938	2.56

연도	총인구	내국인	등록외국인	가구수(세대수)	세대당 인구
2007	10,421,782	10,192,710	229,072	4,046,086	2.52
2008	10,456,034	10,200,827	255,207	4,097,562	2.49
2009	10,464,051	10,208,302	255,749	4,116,660	2.48
2010	10,575,447	10,312,545	262,902	4,224,181	2.44
2011	10,528,774	10,249,679	279,095	4,192,752	2.44
2012	10,442,426	10,195,318	247,108	4,177,970	2.44
2013	10,388,055	10,143,645	244,410	4,182,351	2.43
2014	10,369,593	10,103,233	266,360	4,194,176	2.41
2015	10,297,138	10,022,181	274,957	4,189,948	2.39
2016	10,204,057	9,930,616	273,441	4,189,839	2.37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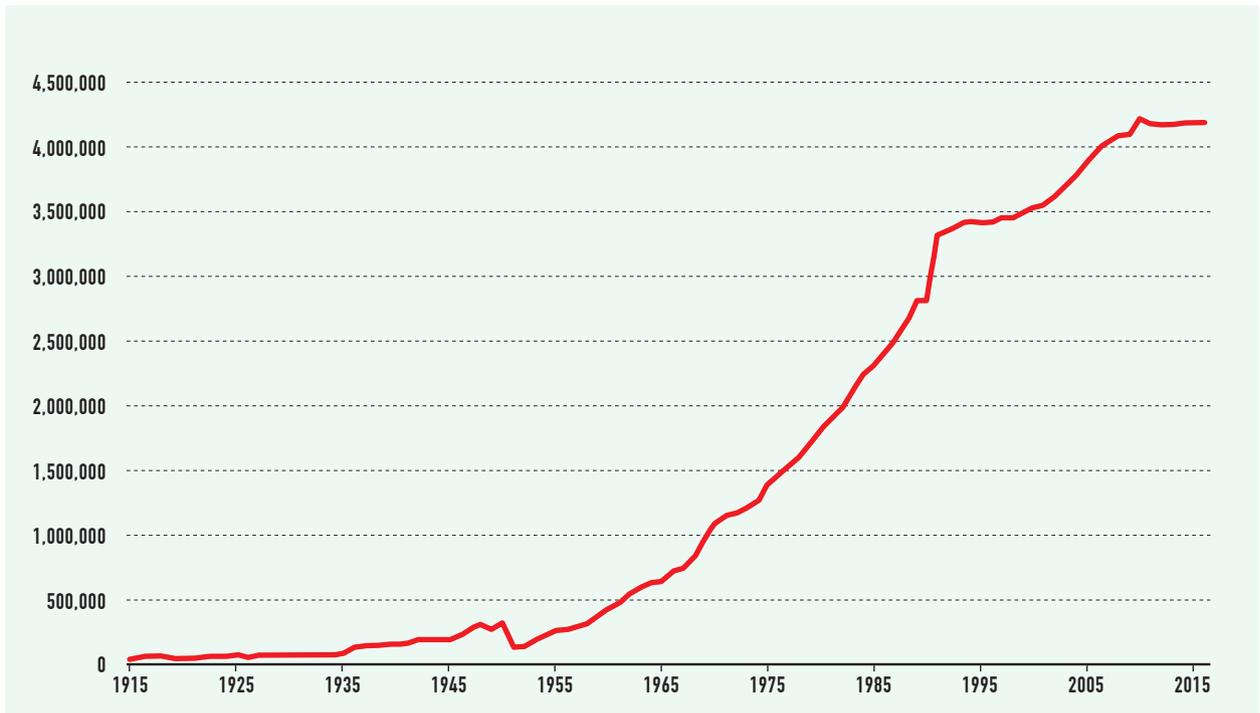
- 1936년 이전 인구수는 경성부사에 의한 수입(서울통계연보)
- '+' 표시는 해방 전 국세조사인구(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 '※' 표시는 총인구조사(1949년), 간이총인구조사(1960년), 국세조사인구(1960년), 인구주택총조사(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1년(12월 31일 기준) 상주인구조사에서는 현역군인, 외국인,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보호자 등이 제외되었으므로 통계표에서 여자가 남자 수보다 많은 것은 특수기관의 집단된 남자 인구가 제외된 것에 기인함(서울통계연보)
- 1965년, 1967년, 1968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상주인구조사는 10월 1일 실시
- 1969년 인구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10월 1일 기준)
- 1986년, 1987년 상주인구조사는 11월 1일 실시
- 1991년부터 상주인구조사 폐지. 1992~2016년은 주민등록인구조사에 의한 자료
- 세대당 평균 인구는 1991년까지는 총인구(내국인+외국인)를, 1992년 이후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계산됨(주민등록인구는 행정안전부 등록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이 포함 안 됨)

자료출처

- 1915~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 1965~199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해당 연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 1992~2015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 201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주민등록인구 - 2016 - 2016년 4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 1992~2016년 세대수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주민등록인구 현황 -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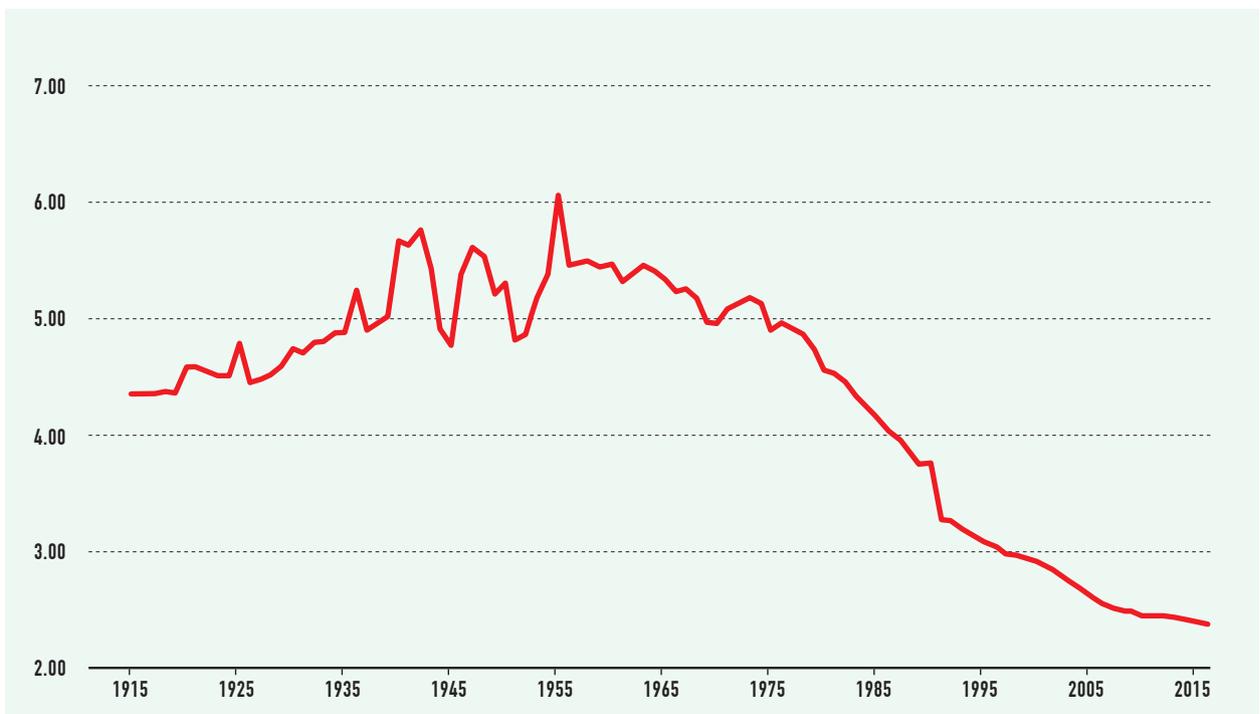
| 그림 1.4-1 | 가구수

단위: 명



| 그림 1.4-2 | 가구당 인구수

단위: 인/호



서울의 가구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여 5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4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1년 들어서 서울의 가구당 인구수는 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말 2.3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가구당 인구수가 가장 많던 1955년 6.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혼인과 이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자료는 1990년부터 얻을 수 있다. 서울시 혼인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5년 혼인율은 6.5퍼센트로 2000년 7.7퍼센트에 비해 1.2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 적령기 인구가 학업 연장이나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결혼을 늦추고, 그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0

| 표 1.4-2 | 혼인과 이혼

단위 : 퍼센트

연도	혼인		이혼	
	혼인 건수(명)	조혼인율(천 명당)	이혼 건수(명)	조이혼율(천 명당)
1990	103,843	9.9	12,432	1.2
1991	108,370	10.4	12,937	1.2
1992	107,821	10.3	13,461	1.3
1993	103,511	9.5	14,548	1.3
1994	100,960	9.3	16,324	1.5
1995	98,525	9.2	16,296	1.5
1996	105,100	10.0	18,464	1.8
1997	93,932	9.1	20,391	2.0
1998	88,219	8.6	26,090	2.5
1999	85,215	8.3	25,917	2.5
2000	78,745	7.7	25,477	2.5
2001	77,376	7.5	28,962	2.8
2002	72,696	7.1	29,351	2.9
2003	72,750	7.1	32,499	3.2
2004	71,553	7.0	26,994	2.7
2005	71,286	7.0	25,300	2.5
2006	73,924	7.3	24,354	2.4

연도	혼인		이혼	
	혼인 건수(명)	조혼인률(천 명당)	이혼 건수(명)	조이혼률(천 명당)
2007	76,399	7.5	24,615	2.4
2008	71,753	7.0	23,319	2.3
2009	68,841	6.7	23,920	2.3
2010	70,466	6.9	21,768	2.1
2011	71,519	7.1	20,617	2.0
2012	71,695	7.1	20,177	2.0
2013	68,819	6.9	20,126	2.0
2014	64,823	6.5	19,477	2.0
2015	64,193	6.5	18,176	1.8
2016	57,643	5.9	17,777	1.8

주석

1. 본 자료의 혼인통계(1981~2008)와 이혼통계(1981~2008)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원 및 집계 방식을 단일화하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 자료와 차이가 있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혼인 및 이혼통계는 신고 기준이며,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집계함(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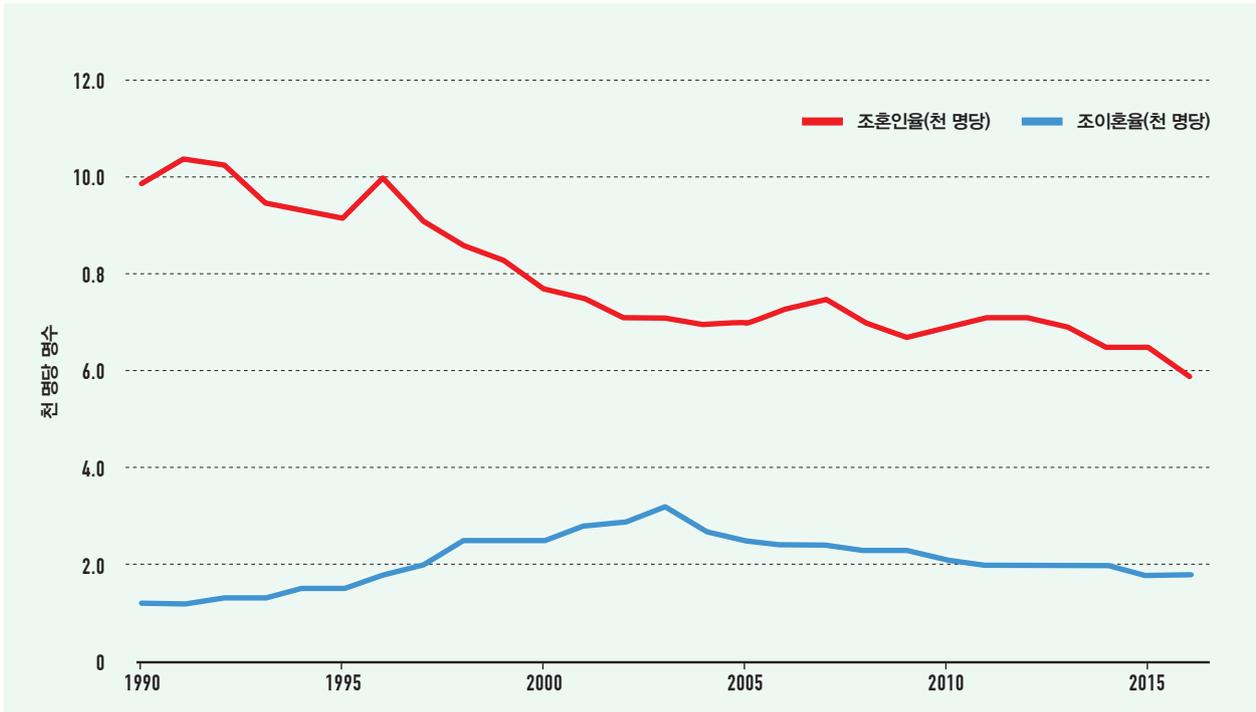
용어설명

1. 조혼인율 : 1년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 건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2. 조이혼율 : 1년간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자료출처

1. 1990~2016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가구 - 인구동향조사 -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1990~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3

| 그림 1.4-3 | 혼인율과 이혼율



년 기준 서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8세로 1990년 대비 4.3세, 2000년 대비 2.5세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 역시 2010년 32.2세로 1990년 대비 3.9세, 2000년 대비 2.5세 높아졌다. 한편 혼인율 감소는 초혼 연령의 증가뿐 아니라 독신 선호자 증가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혼율은 1990년에는 인구 천 명당 1.2명이 이

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3.2명이 이혼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이혼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조이혼율은 1.8명이다. 이혼율 증가는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점점 줄었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와 고용

경제활동인구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1979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이전 통계는 『지표로 본 서울 변천 II』(2010)에 기재된 값으로 작성하였다.

15세 이상 인구(1986년 이전은 14세 이상)는 1970년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856만여 명으로 2.82배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학생, 군인, 주부 등 비경제활

동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45퍼센트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1994년 60퍼센트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표 1.5-1 | 경제활동별 인구

단위 : 천 명, 퍼센트

연도	15세 이상 인구	구직기간 1주 기준						구직기간 4주 기준					
		합계	경제활동인구					합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
1962	1,838	862	721	39.2	141	16.4	976						
1963	2,031	896	702	34.6	194	21.7	1,135						
1964	2,109	988	759	36.0	229	23.2	1,121						
1965	2,157	992	788	36.5	204	20.6	1,165						
1966	2,181	998	810	37.1	188	18.8	1,183						
1967	2,463	1,100	924	37.5	177	16.1	1,363						
1968	2,596	1,220	1,033	39.8	186	15.3	1,376						
1969	2,741	1,318	1,123	41.0	195	14.8	1,423						

연도	15세 이상 인구	구직기간 1주 기준						구직기간 4주 기준					
		합계	경제활동인구					합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인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인
1970	3,039	1,450	1,257	41.4	193	13.3	1,589						
1971	3,494	1,769	1,576	45.1	194	10.9	1,725						
1972	3,816	1,812	1,619	42.4	194	10.7	2,003						
1973	4,201	2,012	1,811	43.1	200	10.0	2,190						
1974	4,307	1,981	1,755	40.7	226	11.4	2,326						
1975	4,752	2,248	1,998	42.1	249	11.1	2,504						
1976	4,880	2,257	1,993	40.8	264	11.7	2,623						
1977	5,135	2,389	2,153	41.9	236	9.9	2,746						
1978	5,350	2,480	2,309	43.2	171	6.9	2,870						
1979	5,564	2,506	2,297	41.3	209	8.4	3,058						
1980	5,847	2,665	2,391	40.9	274	10.3	3,182						
1981	6,143	2,715	2,461	40.1	254	9.4	3,428						
1982	6,133	2,813	2,569	41.9	244	8.7	3,319						
1983	6,281	2,912	2,665	42.4	246	8.5	3,370						
1984	6,653	3,108	2,856	42.9	252	8.1	3,545						
1985	6,855	3,202	2,926	42.7	277	8.6	3,652						
1986	7,153	3,388	3,130	43.8	258	7.6	3,765						
1987	7,337	3,648	3,404	46.4	244	6.7	3,689						
1988	7,401	3,607	3,415	46.1	192	5.3	3,794						
1989	7,502	4,456	4,271	56.9	186	4.2	3,046						
1990	7,641	4,607	4,424	57.9	183	4.0	3,034						
1991	7,759	4,778	4,618	59.5	160	3.3	2,981						
1992	7,799	4,752	4,598	59.0	155	3.3	3,047						
1993	7,836	4,797	4,631	59.1	167	3.5	3,039						
1994	7,869	4,884	4,749	60.4	136	2.8	2,985						
1995	7,905	4,953	4,823	61.0	129	2.6	2,953						
1996	7,887	4,952	4,830	61.2	122	2.5	2,934						
1997	7,891	4,979	4,843	61.4	136	2.7	2,912						
1998	7,908	4,783	4,418	55.9	365	7.6	3,125						

연도	15세 이상 인구	구직기간 1주 기준						구직기간 4주 기준					
		합계	경제활동인구					합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
1999	7,944	4,820	4,485	56.5	335	7.0	3,124						
2000	8,015	4,904	4,668	58.2	236	4.8	3,111	4,917	4,668	58.2	250	5.1	3,097
2001	8,042	4,952	4,727	58.8	224	4.5	3,091	4,965	4,727	58.8	237	4.8	3,078
2002	8,038	4,992	4,783	59.5	209	4.2	3,046	4,999	4,783	59.5	216	4.3	3,039
2003	8,027	4,977	4,753	59.2	224	4.5	3,050	4,981	4,753	59.2	228	4.6	3,046
2004	8,039	5,062	4,831	60.1	232	4.6	2,976	5,068	4,831	60.1	237	4.7	2,971
2005	8,115	5,129	4,890	60.3	239	4.7	2,986	5,135	4,890	60.3	246	4.8	2,980
2006	8,161	5,132	4,906	60.1	227	4.4	3,028	5,138	4,906	60.1	232	4.5	3,023
2007	8,187	5,144	4,940	60.3	203	3.9	3,044	5,148	4,940	60.3	207	4.0	3,040
2008	8,258	5,120	4,922	59.6	199	3.9	3,138	5,122	4,922	59.6	201	3.9	3,136
2009	8,322	5,058	4,835	58.1	223	4.4	3,264	5,064	4,835	58.1	228	4.5	3,259
2010	8,384	5,170	4,936	58.9	235	4.5	3,214	5,180	4,936	58.9	244	4.7	3,205
2011	8,399	5,236	5,012	59.7	224	4.3	3,163	5,252	5,012	59.7	239	4.6	3,147
2012	8,442	5,247	5,036	59.7	212	4.0	3,195	5,258	5,036	59.7	222	4.2	3,184
2013	8,520	5,297	5,097	59.8	200	3.8	3,223	5,307	5,097	59.8	210	4.0	3,213
2014	8,519	5,374	5,146	60.4	228	4.2	3,145	5,386	5,146	60.4	241	4.5	3,132
2015	8,561							5,362	5,135	60.0	227	4.2	3,199
2016	8,526							5,353	5,124	60.1	228	4.3	3,173

주석

1. 1986년 이전 자료는 14세 이상 인구임
2.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용어설명

1. 경제활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의미함. 다만 수입이 있더라도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 도박, 매춘 등),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③ 경매, 경료,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 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의미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취업자는 ①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것을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의미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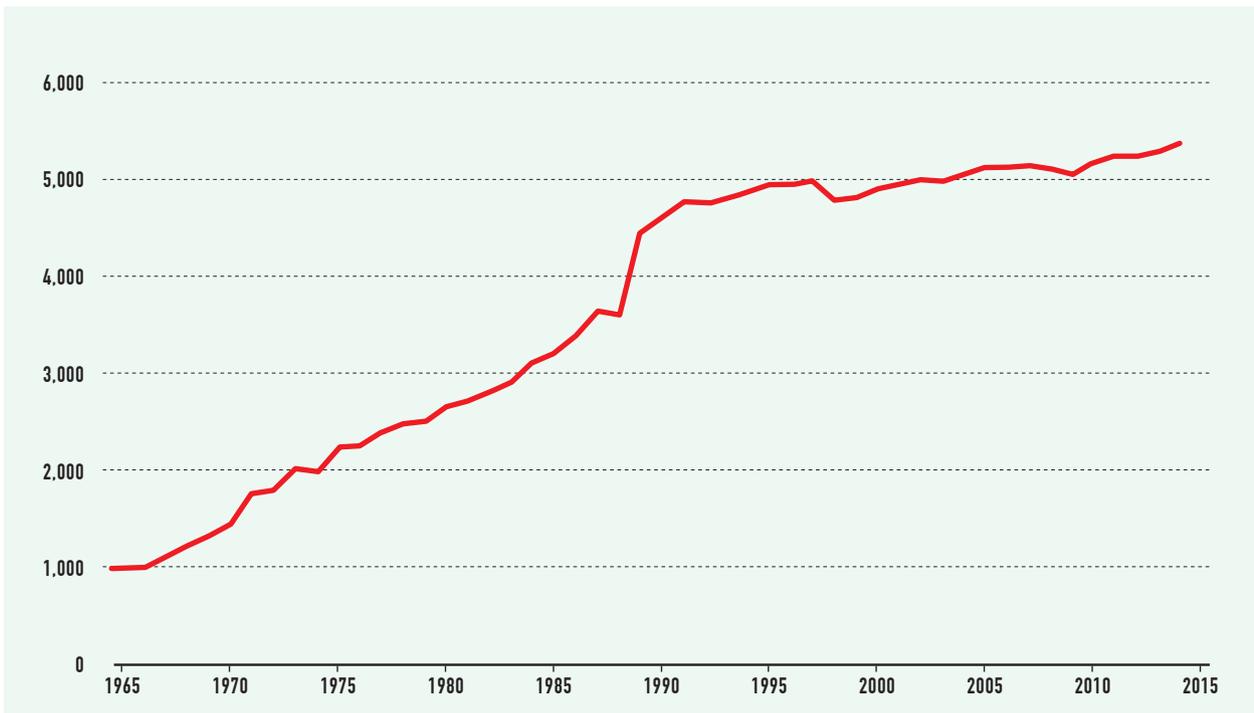
5.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7.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 인구)×100

자료출처

1. 1962~1978년 : 『지표로 본 서울 변천 II』(2010) 참고
2. 1979~198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3. 1984~1988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4. 1989~2014년(구직기간 1주 기준) : 통계청-주제별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89~2014년 12월)-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07004&conn_path=3
5. 2000~2016년(구직기간 4주 기준) : 통계청-주제별통계-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총괄(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준, 1999년 6월~2015년 12월)-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conn_path=3

| 그림 1.5-1 | 경제활동인구(고용기간 1주 자료)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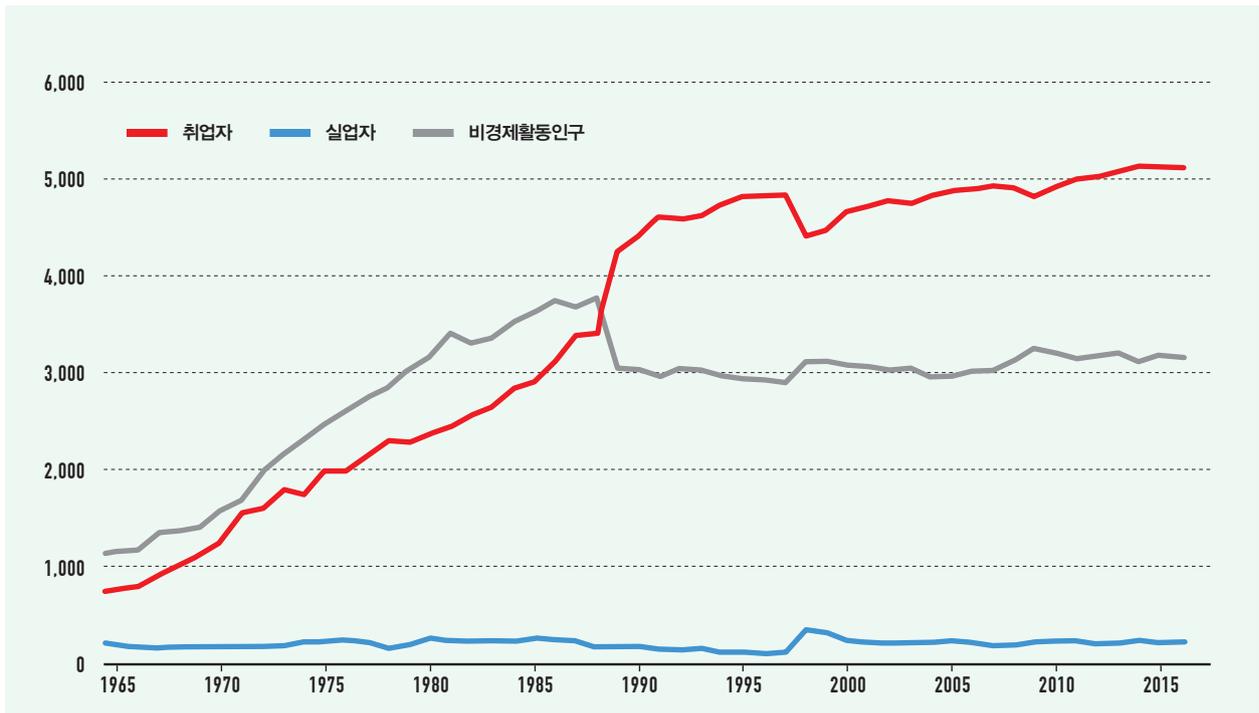
실업률과 고용률

통계청에서는 서울시 실업률 자료를 고용기간이 1주인 자료(1989년부터 제공)와 4주인 자료(2000년부터 제공) 모두

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식 실업률은 고용기간이 4주인 자료로 명시되므로 2000년 이전에는 고용기간 1주 자료를, 이후에는 고용기간 4주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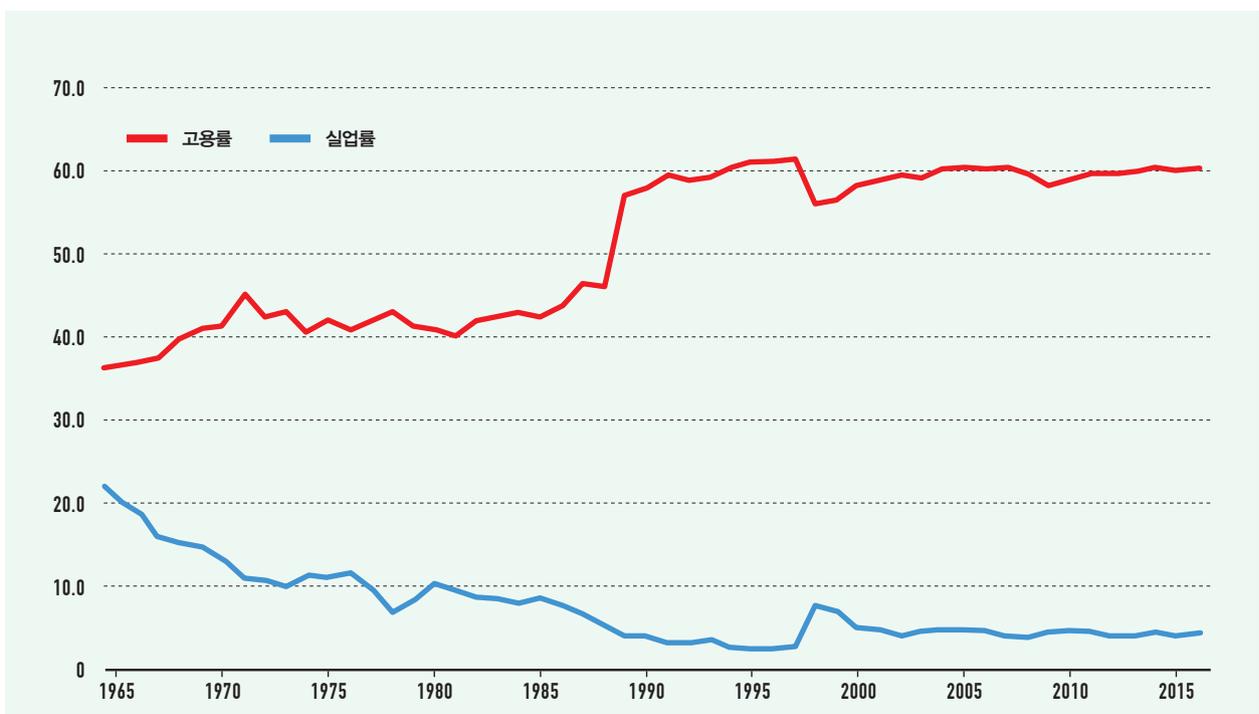
| 그림 1.5-2 | 취업자와 실업자

단위: 천 명



| 그림 1.5-3 |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퍼센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제로 취업하는 비율은 1960년대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다. 표 1.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률은 1970년 중반까지 두 자리 수를 보였으며, 1964년에는 최대 23.2퍼센트까지 올랐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제조업을 비롯한 근대화 사업이 발달하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1977년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수인 9.9퍼센트를 기록하였으며, IMF사태 직전에는 2.5퍼센트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IMF사태 직후인 1998년 다시 7.6퍼센트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고용 기간 4주 자료 기준)에 들어서는 실업률이 약 4~5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 4.3퍼센트로 나타

났다.

하지만 실업률은 불경기에 구직을 단념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실망실업자로 인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고용률 지표를 병행하여 살펴봐야 한다. 고용률은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 지표로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고용률은 1960~1970년대에 40퍼센트대를 유지하고 1997년에 61.4퍼센트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IMF사태 직후 약 55.9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후 점차 증가하며 2000년대에 들어 약 58~60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1퍼센트로 나타났다.

면적과 인구밀도

1-6

행정구역 면적

조선시대 이른바 성저십리(城底十里)라고 불리며 도성 밖 약 10리 범위에 걸쳐 있던 서울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후반인 1939년 134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이는 일제의 군수산업 기지로 개발된 영등포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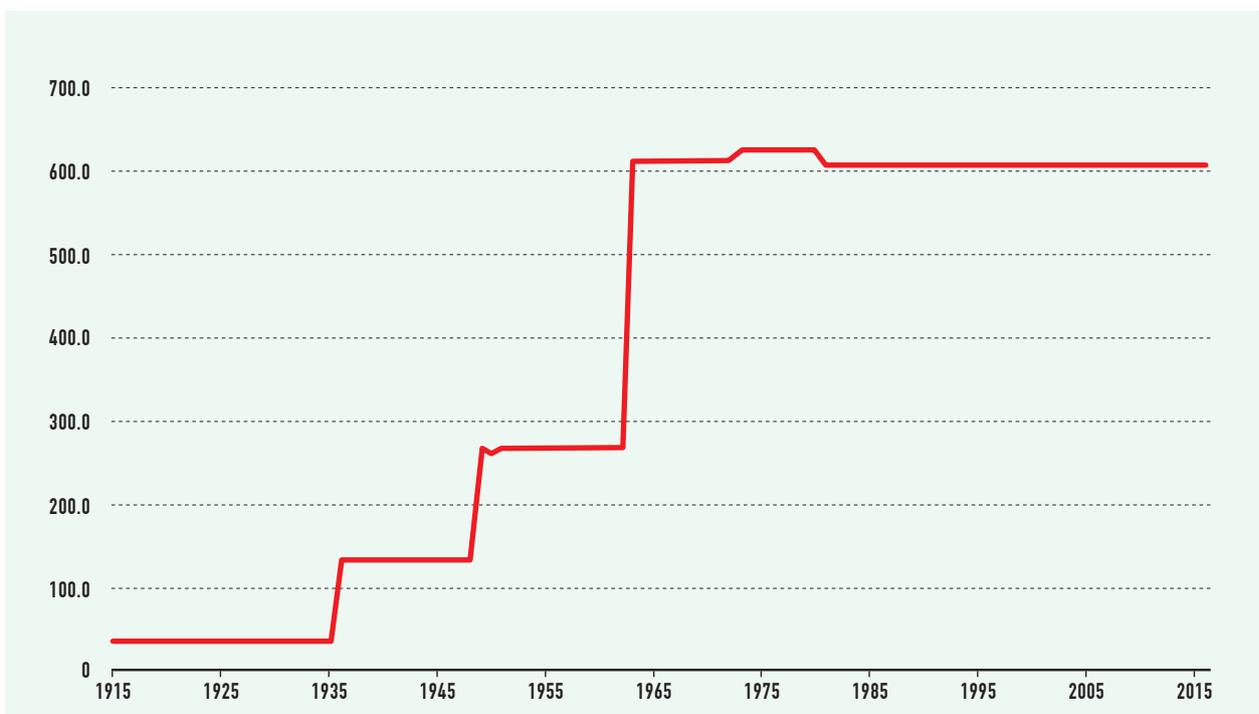
해방 후인 1949년 서울은 서울특별시로 승격·개칭되

었고, 이때 성북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면적이 268.35제곱킬로미터로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은 1960년대에 급속히 확장된 결과이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은 인근의 경기도 지역까지 대폭 확장되어 전체 면적이 613.04제곱킬로미터로 2.3배 증가하였다. 당시 경기도의 양주군·광주군·김포군·부천군 등에 속해 있던 망우리 일대, 송파구 일대, 창동·상계동 일대, 마

| 그림 1.6-1 | 행정구역 면적 변화

단위 : 제곱미터



곡·목동·화곡 등 강서구 일대, 강남구 일대, 시흥·가리봉·신림 등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 등이 서울에 새로이 편입되었다.

1973년에도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확대에 의하여 서울의 면적은 627.06제곱킬로미터로 증가하였다. 경기도 시흥군의 광명리 일부와 경기도 고양군 구파발리·진관내리·진관외리 등 일부가 서울에 편입된 결과였다. 이후 서울시가 자치구를 새로이 신설하고 조정하면서 행정구역이 소폭 조정되었고, 실측에 따라 면적이 재조정되었다. 2016년 말 기준 서울의 면적은 605.25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동일 시점 국토면적(10만 33제곱킬로미터) 기준으로 볼 때 약 0.6퍼센트를 차지한다.

인구밀도

서울의 인구밀도는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49년과 1962년 행정구역의 확장에 따라 인구밀도가 전년도 대비 각각 42퍼센트와 52퍼센트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 감소 현상이었고,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비슷한 613.04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었을 때,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309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하면서 1973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만 명을 상회하였고, 다시 10년 후인 1983년에는 1.5만 명을 돌

| 표 1.6-1 | 인구밀도

단위 : 명, 제곱킬로미터

연도	총인구(명)	인구밀도	
		인구밀도(명/제곱킬로미터)	면적(제곱킬로미터)
1915	241,085	6,663.5	36.2
1916	253,068	6,994.7	36.2
1917	253,154	6,997.1	36.2
1918	250,942	6,935.9	36.2
1919	248,684	6,873.5	36.2
+1920	250,208	6,915.6	36.2
1921	261,698	7,233.2	36.2
1922	271,414	7,501.8	36.2
1923	288,260	7,967.4	36.2
1924	297,465	8,221.8	36.2
+1925	336,349	9,296.5	36.2
1926	306,363	8,467.7	36.2
1927	315,006	8,706.6	36.2
1928	321,848	8,895.7	36.2

연도	총인구(명)	인구밀도	
		인구밀도(명/제곱킬로미터)	면적(제곱킬로미터)
1929	340,290	9,405.5	36.2
+1930	355,426	9,823.8	36.2
1931	365,432	10,100.4	36.2
1932	374,909	10,362.3	36.2
1933	382,491	10,571.9	36.2
1934	394,511	10,904.1	36.2
+1935	404,202	11,172.0	36.2
1936	727,241	5,429.6	133.9
1937	706,396	5,274.0	133.9
1938	737,214	5,501.6	134.0
1939	774,286	5,778.3	134.0
+1940	930,547	6,944.4	134.0
1941	974,933	7,275.6	134.0
1942	1,114,004	8,313.5	134.0
1943	1,078,178	8,046.1	134.0
+1944	947,630	6,967.9	136.0
1945	901,371	6,627.7	136.0
1946	1,266,057	9,309.2	136.0
1947	1,646,902	12,109.6	136.0
1948	1,707,522	12,555.3	136.0
※1949	1,418,025	5,284.2	268.4
1950	1,693,224	6,429.6	263.4
1951	648,432	2,416.4	268.4
1952	716,865	2,671.4	268.4
1953	1,010,416	3,765.3	268.4
1954	1,242,880	4,631.6	268.4
※1955	1,574,868	5,868.7	268.4
1956	1,503,865	5,604.1	268.4
1957	1,666,005	6,208.3	268.4
1958	1,756,406	6,545.2	268.4
1959	2,093,969	7,803.1	268.4

연도	총인구(명)	인구밀도	
		인구밀도(명/제곱킬로미터)	면적(제곱킬로미터)
※1960	2,445,402	9,112.7	268.4
1961	2,577,018	9,603.2	268.4
1962	2,983,324	11,117.3	268.4
1963	3,254,630	5,309.0	613.0
1964	3,424,385	5,585.9	613.0
1965	3,470,880	5,661.8	613.0
※1966	3,793,280	6,187.7	613.0
1967	3,969,218	6,474.6	613.0
1968	4,334,973	7,071.3	613.0
1969	4,776,928	7,792.2	613.0
※1970	5,433,198	8,862.7	613.0
1971	5,850,925	9,544.1	613.0
1972	6,076,143	9,911.5	613.0
1973	6,289,556	10,030.2	627.1
1974	6,541,500	10,432.0	627.1
※1975	6,889,502	10,987.0	627.1
1976	7,254,958	11,569.8	627.1
1977	7,525,629	12,001.4	627.1
1978	7,823,195	12,476.0	627.1
1979	8,114,021	12,939.8	627.1
※1980	8,364,379	13,339.0	627.1
1981	8,676,037	14,334.4	605.3
1982	8,916,481	14,730.4	605.3
1983	9,204,344	15,206.0	605.3
1984	9,501,413	15,695.2	605.4
※1985	9,639,110	15,922.7	605.4
1986	9,798,542	16,184.7	605.4
1987	9,991,089	16,502.7	605.4
1988	10,286,503	16,991.3	605.4
1989	10,576,794	17,470.8	605.4
※1990	10,612,577	17,529.9	605.4

연도	총인구(명)	인구밀도	
		인구밀도(명/제곱킬로미터)	면적(제곱킬로미터)
1991	10,904,527	18,014.2	605.3
1992	10,969,862	18,121.2	605.4
1993	10,925,464	18,046.7	605.4
1994	10,798,700	17,836.4	605.4
1995	10,595,943	17,491.4	605.8
1996	10,469,852	17,289.0	605.5
1997	10,389,057	17,157.2	605.5
1998	10,321,496	17,045.7	605.5
1999	10,321,449	17,045.6	605.5
2000	10,373,234	17,131.7	605.5
2001	10,331,244	17,061.8	605.5
2002	10,280,523	16,978.0	605.5
2003	10,276,968	16,975.2	605.4
2004	10,287,847	16,993.8	605.4
2005	10,297,004	17,008.6	605.4
2006	10,356,202	17,108.4	605.3
2007	10,421,782	17,219.0	605.3
2008	10,456,034	17,275.0	605.3
2009	10,464,051	17,288.8	605.3
2010	10,575,447	17,472.9	605.3
2011	10,528,774	17,396.9	605.3
2012	10,442,426	17,255.1	605.3
2013	10,388,055	17,164.7	605.3
2014	10,369,593	17,134.2	605.3
2015	10,297,138	17,013.0	605.3
2016	10,204,057	16,859.2	605.3

주석

1. 1936년 이전 인구수는 경성부사에 의한 수임(서울통계연보)
2. '+' 표시는 해방 전 국세조사인구(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3. '*' 표시는 총인구조사(1949년), 간이총인구조사(1960년), 국세조사인구(1960년), 인구주택총조사(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4.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1년(12월 31일 기준) 상주인구조사에서는 현역군인, 외국인,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보호자 등이 제외되었으므로 통계표에서 여자가 남자 수보다 많은 것은 특수기관의 집단된 남자 인구가 제외된 것에 기인함(서울통계연보)
5. 1965년, 1967년, 1968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상주인구조사는 10월 1일 실시
6. 1969년 인구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10월 1일 기준)
7. 1986년, 1987년 상주인구조사는 11월 1일 실시
8. 1991년부터 상주인구조사 폐지. 1992~2016년은 주민등록인구조사에 의한 자료
9.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인구는 통계청 총조사인구이므로 서울통계연보의 인구밀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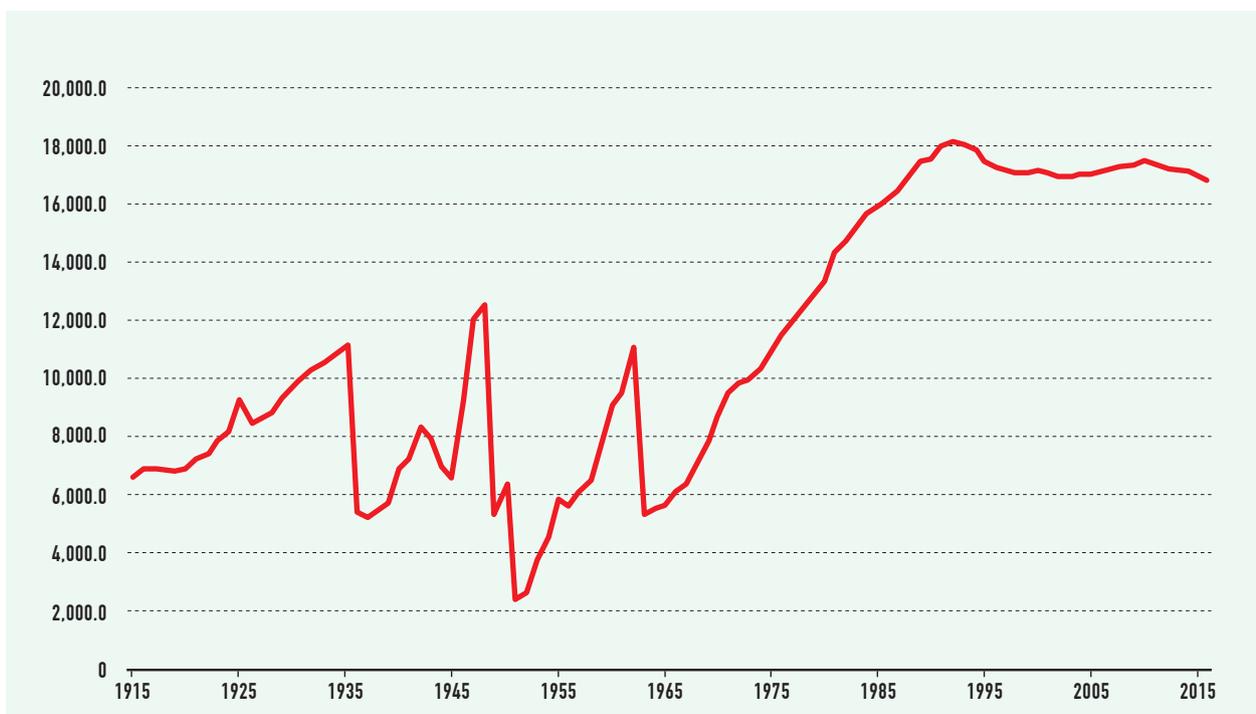
1. 1915~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2. 1965~1991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3.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통계청-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해당 연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ld=A#SubCont
4. 1992~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인구-주민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파하였다. 서울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인구 규모가 정점에 달했던 1992년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약 1만 8,000명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인구성

장이 정체되면서 1제곱킬로미터당 1.7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만 6,859명이다.

| 그림 1.6-2 | 인구밀도 변화 추이

단위 : 명/제곱킬로미터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

표 1.6-2는 세계 대도시들의 인구밀도를 보여 준다. 2010년을 기준으로 면적은 런던(1,572제곱킬로미터), 베이징(1,368제곱킬로미터), 뉴욕(784제곱킬로미터), 싱가포르(712제곱킬로미터), 도쿄(622제곱킬로미터), 서울(605제곱킬로미터), 파리(105제곱킬로미터) 순이며, 서울은 다른 6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면적이 작았다. 그러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밀도를 비교하면 파리(2만 1,289명), 서울(1만 6,181명), 도쿄(1만 4,386명), 뉴욕(1만 430명), 베

이징(8,563명), 싱가포르(7,126명), 런던(5,1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세계에서 조밀한 도시 중 하나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인구밀도 수준은 행정구역 전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이다. 실제 서울의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1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원녹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인구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시가화 면적에 대비한 인구밀도를 산출한 국제 도시 간의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밀도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 표 1.6-2 | 세계 대도시의 인구밀도 비교

도시 구분	총인구(명)	인구밀도	
		인구밀도(명/제곱킬로미터)	면적(제곱킬로미터)
서울	9,794,304	16,181	605
도쿄	8,945,304	14,386	622
베이징	11,716,620	8,563	1,368
싱가포르	5,076,732	7,126	712
뉴욕	8,175,133	10,430	784
런던	8,173,941	5,199	1,572
파리	2,243,833	21,289	105

주석

1. 기준 연도는 2010년

자료출처

1.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통계연구시리즈 - 서울과 세계대도시 - 인구 가구 주거 - 면적과 인구 규모 <http://data.si.re.kr/seoul-and-world-cities>



소비자 물가지수

2-1

물가상승

표 2.1-2는 2015년을 1로 놓고 해당 연도의 소비자 물가를 지수화한 표이다. 이 표를 통해 연도별 상대적인 물가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5년의 물가지수 비교 값은 2015년의 35분의 1이므로 1965년에 비해 2015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5배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3년 후인 1978년에 5배 증가하였고 1983년에 10배, 1991년에 15배, 그리고 1997년에 20배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컸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이다. 1973년에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고, 제2차 석유파동이 있던 1980년에는 기름값이 100퍼센트

인상되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으로 이 시기에는 3저 현상, 즉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 농산물 작황도 좋았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세부 품목별 지수는 조사 품목 변경으로 1985년 자료부터 구득이 가능하다. 물가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교육으로, 1985년에 비해 2015년 무려 5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교통, 음식 및 숙박 항목이 1985년에 비해서 2015년 물가지수가 4배 증가하였다. 이는 총 물가지수가 1985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으리라 추측된다.

| 표 2.1-1 | 물가지수 추이

연도	총 지수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965	2.88	-	-	-	-	-	-	-	-	-	-	-	-
1966	3.22	-	-	-	-	-	-	-	-	-	-	-	-
1967	3.57	-	-	-	-	-	-	-	-	-	-	-	-
1968	3.97	-	-	-	-	-	-	-	-	-	-	-	-

연도	총 지수	식품·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 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969	4.37	-	-	-	-	-	-	-	-	-	-	-	-
1970	4.92	-	-	-	-	-	-	-	-	-	-	-	-
1971	5.53	-	-	-	-	-	-	-	-	-	-	-	-
1972	6.19	-	-	-	-	-	-	-	-	-	-	-	-
1973	6.37	-	-	-	-	-	-	-	-	-	-	-	-
1974	7.88	-	-	-	-	-	-	-	-	-	-	-	-
1975	9.95	-	-	-	-	-	-	-	-	-	-	-	-
1976	11.49	-	-	-	-	-	-	-	-	-	-	-	-
1977	12.67	-	-	-	-	-	-	-	-	-	-	-	-
1978	14.49	-	-	-	-	-	-	-	-	-	-	-	-
1979	17.10	-	-	-	-	-	-	-	-	-	-	-	-
1980	22.00	-	-	-	-	-	-	-	-	-	-	-	-
1981	26.68	-	-	-	-	-	-	-	-	-	-	-	-
1982	28.64	-	-	-	-	-	-	-	-	-	-	-	-
1983	29.65	-	-	-	-	-	-	-	-	-	-	-	-
1984	30.30	-	-	-	-	-	-	-	-	-	-	-	-
1985	31.05	24.18	24.07	36.16	30.62	48.49	37.91	26.55	146.59	66.10	18.89	24.16	38.16
1986	31.88	24.66	24.83	36.98	31.45	49.73	39.42	27.03	155.53	67.39	19.56	25.20	39.69
1987	32.94	25.66	25.14	38.14	32.21	51.51	40.78	27.67	158.46	68.70	20.70	26.16	40.71
1988	35.20	28.26	25.57	40.98	33.37	54.58	43.59	29.05	158.38	71.01	22.76	28.58	41.05
1989	37.17	30.08	26.71	45.93	34.94	58.22	44.80	29.69	141.27	72.68	24.64	32.31	41.18
1990	40.46	32.97	27.94	50.19	38.08	62.35	48.13	30.37	152.81	75.77	28.15	37.18	42.72
1991	44.40	36.52	28.79	53.07	42.63	65.72	51.18	33.99	146.88	78.39	31.35	45.06	44.65
1992	46.91	37.91	30.03	56.21	45.44	67.42	52.67	36.95	146.51	80.10	34.15	49.75	47.27
1993	49.24	39.32	31.79	57.66	48.06	68.52	54.15	39.90	145.27	83.72	37.40	52.92	49.17
1994	52.21	42.93	35.09	58.71	50.09	71.39	55.79	42.56	141.37	86.02	40.87	57.46	50.92
1995	54.23	43.01	35.63	59.28	52.57	71.88	58.78	44.98	137.76	89.47	46.40	60.64	52.31
1996	56.53	43.09	39.05	59.84	54.84	73.51	61.55	48.58	137.59	92.68	50.81	63.75	55.44
1997	58.91	44.79	41.80	60.70	57.40	74.18	64.19	53.81	134.37	93.01	53.45	65.44	57.51
1998	63.30	50.48	43.90	63.05	61.14	78.28	67.21	62.97	134.08	95.84	54.88	68.10	62.71
1999	63.83	53.65	46.91	64.52	58.95	77.24	68.68	64.60	133.45	95.92	55.44	67.10	61.34

연도	총 지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000	65.45	54.63	47.47	65.52	60.61	75.22	73.95	67.82	130.38	94.98	58.18	67.75	62.67
2001	68.29	57.30	49.97	67.34	64.76	76.52	82.50	70.71	126.23	95.10	61.08	68.88	64.34
2002	70.54	59.84	53.64	69.37	67.83	76.70	81.83	71.70	120.51	96.04	64.74	71.05	66.63
2003	73.23	62.86	55.22	71.92	71.05	78.23	83.56	74.78	114.27	96.61	68.74	73.69	68.65
2004	76.08	68.58	55.62	72.29	73.48	79.49	84.55	77.85	112.44	96.50	72.94	76.47	69.70
2005	78.07	71.42	64.05	72.98	74.49	79.85	86.46	81.54	110.34	96.80	76.09	77.96	70.91
2006	79.69	71.66	63.99	74.92	76.35	80.00	87.99	84.78	109.16	94.68	79.74	79.39	73.98
2007	81.77	73.41	64.20	76.89	78.21	82.14	89.94	88.27	107.11	93.16	84.34	80.90	77.70
2008	85.18	76.67	64.54	78.79	81.10	85.37	91.75	95.33	105.62	94.71	88.45	84.12	84.44
2009	87.69	82.52	65.21	82.76	83.06	89.39	93.74	92.44	105.47	96.72	90.26	87.25	90.82
2010	90.15	87.07	65.48	85.16	85.04	89.31	95.10	96.61	104.51	97.47	92.32	89.99	94.02
2011	93.59	93.86	65.87	87.93	88.73	92.20	96.70	102.18	102.83	99.46	94.12	94.00	96.76
2012	95.91	97.33	66.75	91.97	93.00	96.55	97.74	106.68	100.17	99.61	95.16	94.92	93.96
2013	97.25	97.58	67.80	94.58	96.56	96.52	98.29	106.44	100.09	100.62	96.02	96.12	94.14
2014	98.76	97.81	67.60	98.41	99.71	97.78	98.94	105.18	100.09	100.95	97.94	97.29	97.70
201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6	101.18	102.07	100.99	101.75	99.74	101.63	100.98	99.56	100.09	101.95	101.68	102.73	103.22

주석

1.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수(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임(서울시 기준)

자료출처

1. 1965~2016년 :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물가·가계 -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5001&conn_path=I2

| 표 2.1-2 | 물가지수 현재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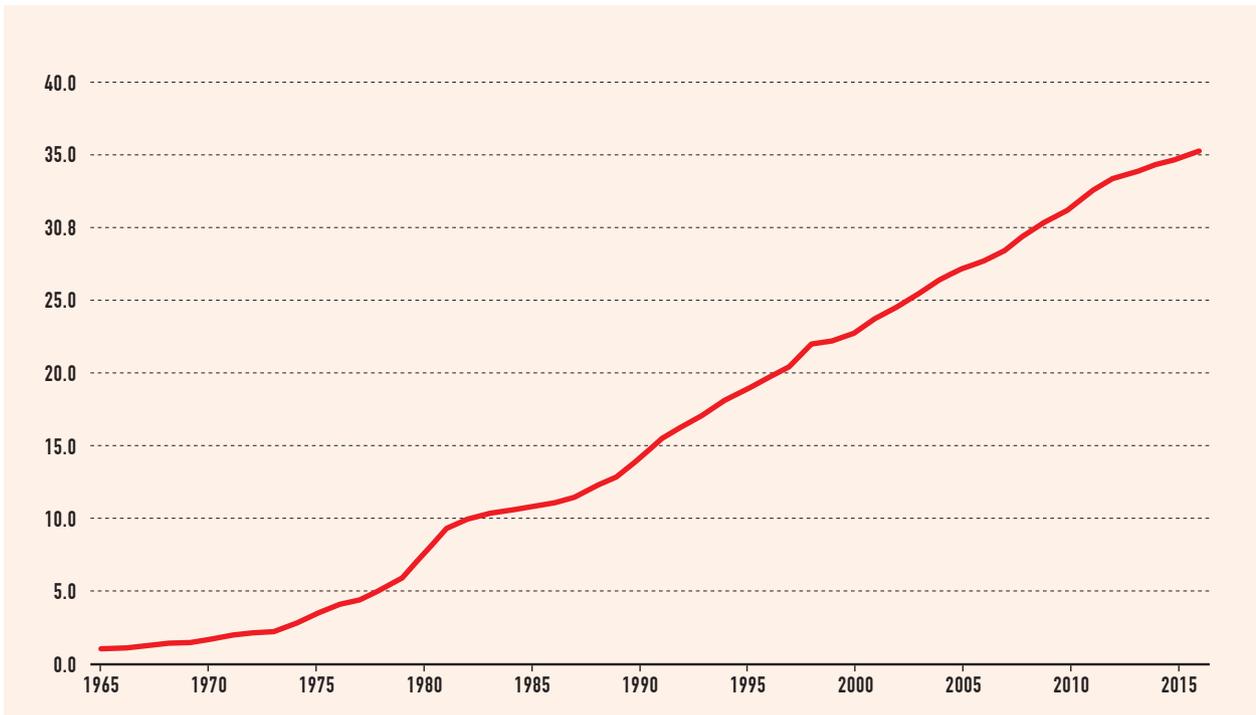
연도	총 지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965	1/35	-	-	-	-	-	-	-	-	-	-	-	-
1970	1/20	-	-	-	-	-	-	-	-	-	-	-	-
1975	1/10	-	-	-	-	-	-	-	-	-	-	-	-
1980	1/5	-	-	-	-	-	-	-	-	-	-	-	-
1985	1/3	1/4	1/4	1/3	1/3	1/2	1/3	1/4	1	1/2	1/5	1/4	1/3
1990	1/2	1/3	1/4	1/2	1/3	1/2	1/2	1/3	1	1	1/4	1/3	1/2
1995	1/2	1/2	1/3	1/2	1/2	1	1/2	1/2	1	1	1/2	1/2	1/2
2000	1/2	1/2	1/2	1/2	1/2	1	1	1	1	1	1/2	1	1/2
2005	1	1	1/2	1	1	1	1	1	1	1	1	1	1
2010	1	1	1/2	1	1	1	1	1	1	1	1	1	1
2015	1	1	1	1	1	1	1	1	1	1	1	1	1

주석

1. 2015년 지수를 1로 한 분수 값임(예를 들면 1965년의 총 물가지수 2.88은 2015년 지수인 100의 약 35분의 1임을 의미함)
2.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자료출처

1. 1965~2016년 :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물가·가계 - 물가 - 소비자물가조사(2015=100) -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5001&conn_path=2



교통 요금 종합

1970년대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요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1974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30원, 택시 요금은 160원이었다.

1970년 초까지는 택시 요금이 버스 요금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90원인 반면, 택시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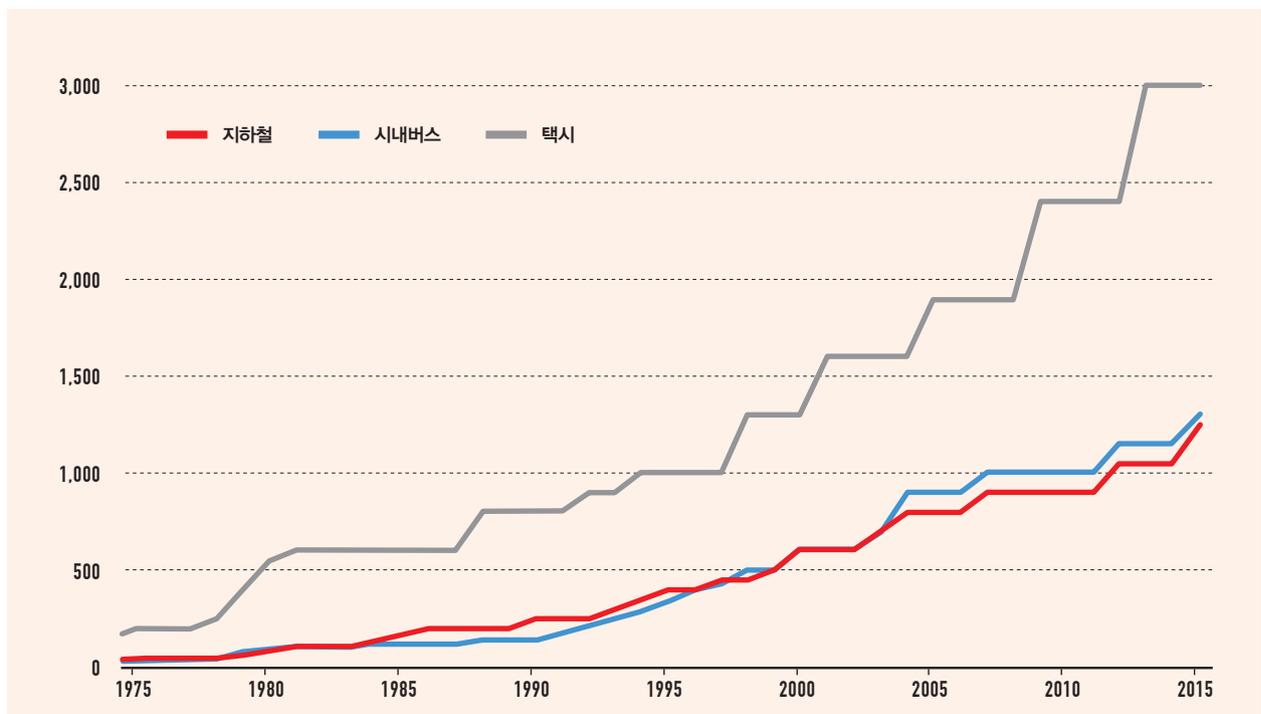
본요금은 500원으로 약 5.5배 차이가 난다. 대중교통 요금은 1990년 이전에는 택시 기본요금에 비해 증가 폭이 완만했으나, 1990년 이후 증가 폭이 커졌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1983년까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이 더 높아졌다. 당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하철 3, 4호선 건설에 따른 적자 운영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좌석 버스나 직행 버스, 광역 버스 등 다양

| 그림 2.2-1 | 교통 요금 종합

단위 : 원



한 유형의 버스를 도입하였고, 이와 더불어 버스 요금도 다양화되었다. 버스(도시형)의 요금은 다시 지하철 요금을 상회하고 있다.

2017년 서울의 지하철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1,250원, 버스 요금은 1,300원이며,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이다.

지하철 요금

서울에 지하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4년 지하철 1호

선이 개통되면서부터다. 당시 기본구간 요금은 30원이었으며, 이후 10~30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981년 100원이 되었다.

지하철의 요금체계는 초기에는 기본구간 요금을 결정하고 초과구간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다 1985년부터 구역제로 바뀌어 기본구간을 1구간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는 외곽 지역을 2구간으로 정하여 총 2개 구간의 요금을 구분하여 책정하였다. 1985년 1구간은 170원, 초과구간인 2구간은 250원이었다. 이후 지하철 요금은 50원 단위로

| 표 2.2-1 | 지하철 요금

단위: 원

조정일자	기본구간 요금	초과구간 요금	운임제도
1974-08-15	30	3.0	거리비례제
1975-07-01	40	3.6	"
1978-06-21	50	4.2	"
1979-05-01	60	4.6	"
1980-01-05	80	5.2	"
1980-08-15	90	6.4	"
1981-06-01	100	7.5	"
1981-12-15	110	7.8	"
1982-07-01	110	8.2	"
1982-12-15	110	8.6	"
1984-08-18	140	10.0	"
조정일자	1구간	2구간	운임제도
1985-10-18	170	250	구역제
1986-12-29	200	300	"
1990-12-31	250	350	"
1993-02-10	300	400	"
1994-01-15	350	450	"

계속 인상되어 2003년 1구간은 700원, 2구간은 800원이었다.

2004년부터 지하철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변경되었다. 일정 거리에 대한 기본요금과 함께 초과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기본 10킬로미터에 1,250원이며, 초과 5킬로미터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지하철 개선 및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꾸준히 인상되었다. 특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80년 중반에서 1990년 중반까지 지하철 3, 4호선 건설 시 투입된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은 운영원

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환승 할인 등을 고려한 승객 1인당 평균 운임은 수송원가의 7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시내버스 요금

화폐단위가 '원'으로 통일된 1965년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요금은 1967년 10원에서 2015년 1,300원(현금 기준)으로 130배 증가하였다. 1970년대 버스 요금은 15~80원으로 100원 미만이었으며, 1980년대에도 200원 미만을 유지하였다. 버스 요금이 200원을 넘어선 것은 1992년 이후이며 이후 200~500원대를 거

1995-11-20	400	500	"
1997-07-04	450	550	"
1999-02-18	500	600	"
2000-09-01	600	700	"
2003-03-01	700	800	"

조정일자	기본구간 요금	초과구간 요금	운임제도
2004-07-01	800(기본 12km)	초과 6km당 (42km 초과 시 12km마다) 100원	거리비례제
2007-04-01	900(기본 10km)	초과 5km당 (40km 초과 시 10km마다) 100원	"
2012-02-25	1,050(기본 10km)	"	"
2015-06-27	1,250(기본 10km)	초과 5km당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

자료출처

1. 1974~1997년 : 서울특별시, 1998, 『통계로 본 서울교통』
2. 1999~2015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중합물가총람』

| 표 2.2-2 | 시내버스 요금

조정일자	일반	도시형	
	현금	현금	카드
1945-08-15	15전		
1945-12-21	50전		
1950-12-01	100원(圓)		
1951-12-01	200원(圓)		
1952-12-01	500원(圓)		
1953-12-01	10환		
1954-12-01	20환		
1957-12-01	30환		
1961-03-03	50환		
1961-07-25	40환		
1962-04-01	50환		
1965-05-01	8원		
1967-10-21	10원		
1970-10-06	15원(입석)		
1972-02-11	20원(입석)		
1974-02-04	25원	30원	
1975-07-01	30원	35원	
1977-10-01	35원	40원	
1978-06-13	45원	50원	
1979-04-15	60원	60원	
1979-12-19		80원	
1980-08-06		90원	
1981-06-10		110원	
1984-08-18		120원	

조정일자	일반	도시형	
	현금	현금	카드
1988-02-08		140원	
1991-02-20		170원	
1992-02-16		210원	
1993-01-25		250원	
1994-02-27		290원	
1995-03-20		320원	
1995-07-15		340원	
1996-07-01		400원	
1997-05-26		430원	
1998-01-15		500원	
2000-07-01		600원	550원
2003-03-10		700원	650원
2004-07-01		900원	800원
2007-04-01		1,000원	900원
2012-02-25		1,150원	1,050원
2015-06-27		1,300원	1,200원

주석

1. 버스 요금 중 '일반'요금을 기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서는 (광의의) 시내버스는 ① 광역급행형, ② 직행좌석형, ③ 좌석형, ④ 일반형으로 구분하며, 도시형 버스는 (시내)일반형 버스를 의미함

자료출처

1. 1945~1998년 : 서울특별시, 1998, 『통계로 본 서울교통』
2. 1999~2015년 :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버스이용안내 - 요금변천사 - 연도별 요금 변천사 http://www.sbus.or.kr/bus_info/bus_04.htm

조정일자	지불방식	일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좌석
1974-02-04	현금	30	20		
1975-07-01	현금	35	25		
1977-10-01	현금	40	30	30	
1978-06-13	현금	50	35	35	
1979-04-15	현금	60	50	50	
1979-12-19	현금	80	55	55	300
1980-08-06	현금	90	65	65	300
1981-06-10	현금	110	85	60	350
1984-08-18	현금	120	90	60	350
1988-02-08	현금	140	100	70	400
1991-02-20	현금	170	120	80	470
1992-02-16	현금	210	150	100	500
1993-01-25	현금	250	180	120	550
1994-02-27	현금	290	200	140	600
1995-03-20	현금	320	240	150	700
1995-07-15	현금	340	240	150	700
1996-07-01	현금	400	270	160	800
1997-05-26	현금	430	290	170	850
1998-01-15	현금	500	340	200	1,000
2000-07-01	현금	600	600	250	1,200
	카드	550	410		1,100
2003-03-10	현금	700	700	300	1,300
	카드	650	490		1,200
2004-07-01	현금	900	900	400	1,500
	카드	800	640	400	1,400
2007-04-01	현금	1,000	1,000	450	1,800

조정일자	지불방식	일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좌석
	카드	900	720	450	1,700
2012-02-25	현금	1,150	1,000	450	1,800
	카드	1,050	720	450	1,700
2015-06-27	현금	1,300	1,000	450	2,400
	카드	1,200	720	450	2,300

주석

- 2000년부터 도시형 버스는 간선·지선 버스를 기준으로 함
- 2000년부터 좌석 버스는 광역 버스의 일반인 요금을 기준으로 함

자료출처

- 1945~1998년 : 서울특별시, 1998, 『통계로 본 서울교통』
- 1999~2015년 :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이용안내-요금변천사-연도별 요금 변천사 http://www.sbus.or.kr/bus_info/bus_04.htm

쳐 2000년에는 600원에 이르렀고, 2007년에 1,000원에 도달했다.

버스 요금의 지불방식도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1977년 10월 요금 인상과 함께 주화식 승차표(토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선불카드인 버스카드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듬해 7월부터는 버스카드 이용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 요금

서울에 택시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택시 요금 산정에 있어 기본구간이 2킬로미터가 된 것은 1949년 4월 1일 이후이다. 기본요금이 200원(圓)으로, 당시는 화폐 개혁 전이어서 현재의 '원' 개념과 다르다.

1970년대 이전 자료는 구득이 어려워 1972년 이후 자료만 기록하였다. 1972년 당시 기본요금은 90원이었고, 이후 여섯 번의 요금 인상을 거쳐 1980년 550원이 되었다. 1982년에는 기본요금 600원에 심야시간 할증제가 시행되었다. 1982년 1월 6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운행이 요구되었고, 평상시 요금의 20퍼센트를 할증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교통혼잡이 심해져, 택시운전사가 교통혼잡 지역의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1985년부터 운행 거리뿐 아니라 운행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증가하는 거리시간 상호병산제가 도입되었다. 1985년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600원, 400미터당 50원, 96초당 50원을 합산하여 부과되었다. 택시 기본요금은 1994년에 1,000원이 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 2013년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조정일자	기본요금(2킬로미터)	거리당 요금	시간당 요금	비고
1972-02-01	90	500미터 / 20원		
1974-02-04	160	500미터 / 30원		
1975-07-01	200	500미터 / 20원		
1978-06-14	250	400미터 / 30원		
1979-05-01	300	400미터 / 40원		
1979-12-19	400	400미터 / 40원		
1980-02-05	500	400미터 / 50원		
1980-12-21	550	400미터 / 50원		
1981-08-10	600	400미터 / 50원		
1982-01-05	600	400미터 / 50원		심야 20퍼센트 할증 시행
1983-02-12	600	400미터 / 40원		
1983-12-22	600	400미터 / 50원		
1985-11-01	600	400미터 / 50원	96초 / 50원	거리시간 상호병산제 시행
1988-04-15	800	600미터 / 100원	114초 / 100원	중형택시제도 시행
1989-07-01	800	483미터 / 100원	116초 / 100원	
1991-02-20	800	424미터 / 100원	102초 / 100원	
1992-06-14	900	381미터 / 100원	92초 / 100원	
1994-02-15	1,000	279미터 / 100원	67초 / 100원	거리시간 상호병산제 시행
1995-09-01	1,000	247미터 / 100원	60초 / 100원	
1998-02-20	1,300	210미터 / 100원	51초 / 100원	
2001-09-01	1,600	168미터 / 100원	41초 / 100원	
2005-06-01	1,900	144미터 / 100원	35초 / 100원	
2009-06-01	2,400	144미터 / 100원	35초 / 100원	
2013-10-12	3,000	142미터 / 100원	35초 / 100원	

주석

자료출처

1. 1998년부터 중형택시 기준

1. 1972~1998년 : 서울특별시, 1998, 『통계로 본 서울교통』

2. 1999~2013년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이용안내-교통 요금-서울 중형택시 요금 변동 추이 http://www.stj.or.kr/use_03.html

공중전화 요금

공중전화 요금은 매우 완만한 변화를 보인다. 1970년 5원에서 시작하여 1977년 10원, 1982년 20원, 1993년 30원, 1994년 40원, 1997년 50원으로 올랐으며, 2002년

70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 5원에 비해 14배 증가한 요금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동전화의 급속히 확산되어 공중전화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중전화기 보급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 표 2.2-5 | 공중전화 요금

단위 : 원

연도	기본요금	연도	기본요금	연도	기본요금
1970	5	1986	20	2002	70
1971	5	1987	20	2003	70
1972	5	1988	20	2004	70
1973	5	1989	20	2005	70
1974	5	1990	20	2006	70
1975	5	1991	20	2007	70
1976	5	1992	20	2008	70
1977	10	1993	30	2009	70
1978	10	1994	40	2010	70
1979	10	1995	40	2011	70
1980	10	1996	40	2012	70
1981	10	1997	50	2013	70
1982	20	1998	50	2014	70
1983	20	1999	50	2015	70
1984	20	2000	50		
1985	20	2001	50		

주석

1. 전국 기준 요금

자료출처

1. 1970~2015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텔레비전 시청 요금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시청료는 100 원이었다. 이후 4~5년마다 100~200원씩 증가하여 1980년 8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듬해인 1981년에는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어 시청료가 2,5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흑백텔레비전 시청료는 1984년 12월부터 없어지게 되었다. 컬러텔레비전 시청료는 흑백 텔레비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값으로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과 함께 징수되었다.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시청료는 2015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표 2.2-6 | 텔레비전 시청 요금

단위: 원

연도	시청 요금	연도	시청 요금	연도	시청 요금
1963	100	1981	2,500	1999	2,500
1964	150	1982	2,500	2000	2,500
1965	200	1983	2,500	2001	2,500
1966	200	1984	2,500	2002	2,500
1967	200	1985	2,500	2003	2,500
1968	200	1986	2,500	2004	2,500
1969	300	1987	2,500	2005	2,500
1970	300	1988	2,500	2006	2,500
1971	300	1989	2,500	2007	2,500
1972	300	1990	2,500	2008	2,500
1973	300	1991	2,500	2009	2,500
1974	500	1992	2,500	2010	2,500
1975	500	1993	2,500	2011	2,500
1976	500	1994	2,500	2012	2,500
1977	500	1995	2,500	2013	2,500
1978	500	1996	2,500	2014	2,500
1979	600	1997	2,500	2015	2,500
1980	800	1998	2,500		

주석
1. 전국 기준 요금

자료출처
1. 1963~2015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쌀 가격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쌀 가격의 변화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1970년 2,880원이던 쌀 가격(40킬로그램 기준)은 1975년 이후 1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984년 3만 원, 1991년 5만 원을 넘었다. 2000년 8만 2천 원이 될 때까지 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쌀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2003년 8만 4천 원이던 쌀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여 2007년 7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 이듬해 다시 7만 8천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0년 6만 6천 원이 되었다. 이후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15년 일반미 중품 40킬로그램 기준으로 7만 6천 원을 기록하였다.

쌀 가격 인상률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1980년

| 표 2.2-7 | 쌀 가격

단위 : 원

연도	가격	연도	가격	연도	가격
1970	2,880	1986	34,750	2002	80,000
1971	3,440	1987	-	2003	84,000
1972	4,400	1988	42,225	2004	76,000
1973	5,500	1989	44,100	2005	70,000
1974	8,500	1990	49,200	2006	72,000
1975	10,400	1991	50,000	2007	72,000
1976	13,000	1992	50,200	2008	78,000
1977	12,500	1993	51,800	2009	66,000
1978	17,250	1994	60,000	2010	66,000
1979	19,500	1995	56,000	2011	80,000
1980	28,000	1996	69,700	2012	86,000
1981	29,500	1997	71,000	2013	85,000
1982	29,500	1998	76,000	2014	80,000
1983	29,000	1999	80,200	2015	76,000
1984	30,000	2000	82,000		
1985	32,250	2001	76,000		

주석
1. 전국 기준 금액 2. 일반미(중품 40킬로그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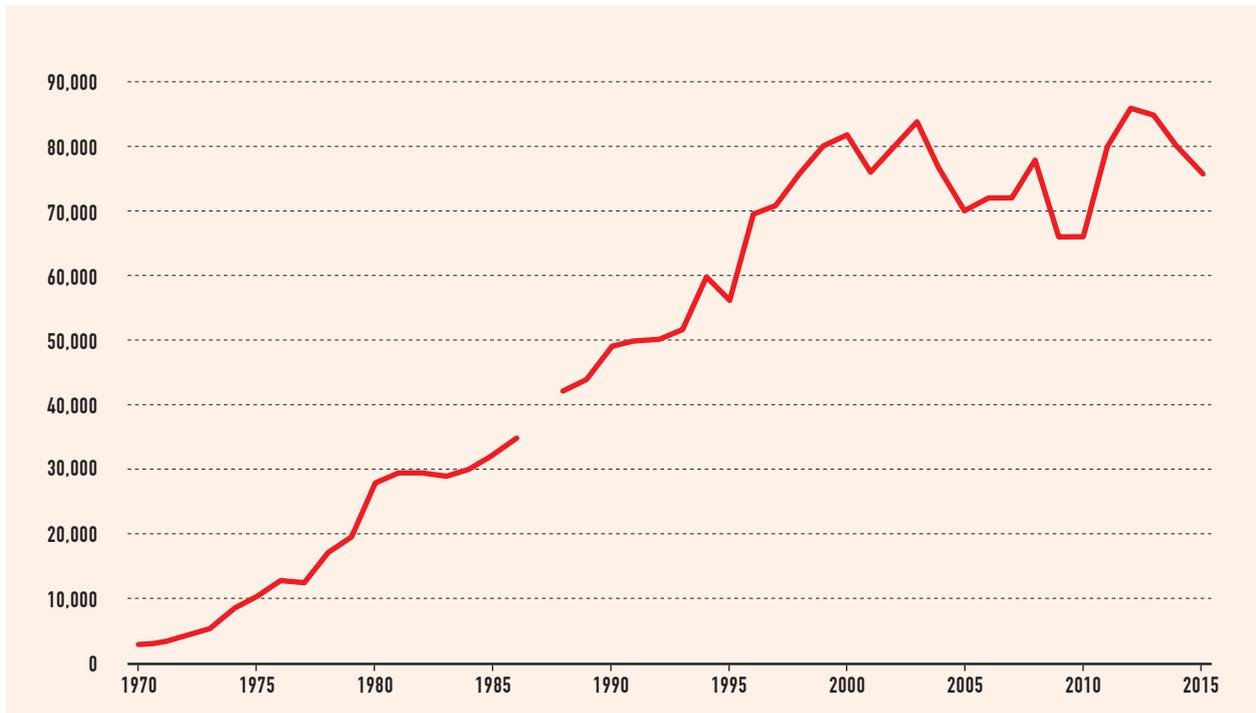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70~2015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전후이다. 이 시기는 유가 파동으로 대부분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던 때이다. 쌀 가격은 1980~1990년 사이 한 자리 수 인상률을 보이다 1990년, 1994년, 1996년에 다

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보였다. 2003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모두 전년도 대비 하락하는 추세이다.

| 그림 2.2-2 | 쌀 가격 추이(40킬로그램 기준)

단위: 원



짜장면 가격

중국 음식점의 대표적인 메뉴인 짜장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외식 메뉴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을 잘 보여 주는 지표이다.

최근의 짜장면 가격은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1975년의 가격과 연도별 지수 값을 이용하여 가격을 산출하였다. 1970년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으며,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1990년 처음으로 1,000원을 넘어 1,084원이 되었다. 1996년 2,000원을 넘어섰으며, 2007년 3,000원을 넘은 뒤 2010년 3,566원을

기록했다. 짜장면 가격은 지난 40년 동안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전국 가격 기준이며,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이용하여 가격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면 2011년부터 서울시 기준 짜장면 가격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 짜장면 가격은 4,273원으로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았던 2010년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2011년 이후 짜장면 가격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4,731원이 되었다.

연도	가격	지수	연도	가격	지수	연도	가격	지수
(전국 기준)			1988	757	21.24	2003	2,833	79.46
1970	100	2.80	1989	896	25.12	2004	2,900	81.33
1975	138	3.87	1990	1,084	30.39	2005	2,912	81.67
1976	152	4.27	1991	1,312	36.80	2006	2,951	82.75
1977	195	5.46	1992	1,466	41.10	2007	3,061	85.84
1978	204	5.72	1993	1,585	44.44	2008	3,461	97.07
1979	278	7.79	1994	1,748	49.01	2009	3,522	98.77
1980	348	9.76	1995	1,863	52.24	2010	3,566	100.00
1981	470	13.18	1996	2,025	56.79	(서울시 기준)		
1982	527	14.78	1997	2,144	60.13	2011	4,273	
1983	525	14.73	1998	2,445	68.58	2012	4,364	
1984	568	15.93	1999	2,359	66.15	2013	4,409	
1985	614	17.22	2000	2,392	67.09	2014	4,500	
1986	643	18.03	2001	2,422	67.93	2015	4,682	
1987	674	18.89	2002	2,565	71.94	2016	4,731	

주석

1. 1970~2010년 자료는 2010=100으로 하는 지수임
2. 1970~2010년 자료는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2010)의 1975년 짜장면 가격과 2010년 기준 연도별 지수 값을 이용하여 가격을 산출함
3. 1970~2010년 자료는 전국 기준 자료
4. 2011~2016년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물가공개 자료를 이용(서울시 기준)
5. 2011~2016년 자료는 각 연도 12월 기준

자료출처

1. 1970년, 1975년 짜장면 가격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2. 1975~2014년 짜장면 가격 지수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3. 2011~2016년 : 행정안전부 지방물가공개 <http://www.mois.go.kr/frt/sub/a02/mulMain/screen.do>

개봉극장 관람 요금

우리나라 최초 영화 상영은 1898년 미국인 이스트하우스가 남대문에서 상영한 것이었으며 1919년 단성사에서 처음 한국 무성영화 「의리적 구토」가 상영되었다. 1935년에는 최초의 우리말 발성영화 「춘향전」이, 이듬해인 1936년에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다.

한국영화의 전성기라고 하는 1960년대 관람 요금은 12원부터 시작하여 63원까지 인상되었다. 관람 요금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1974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1984년까지 매년 관람 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79년으로 1978년 389원에서 715원으로 83.8퍼센트 인상되었다.

1980년대 이후 관람 요금의 인상 폭은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인상이어 2002년 6,000원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국 기준 영화 관람 요금은 7,895원이다.

| 표 2.2-9 | 개봉극장 관람 요금

단위: 원

연도	한국영화 관람 요금	외국영화 관람 요금	평균 관람 요금
1961			12
1962			18
1963			20
1964			23
1965			23
1966			31
1967			41
1968			51
1969			63
1970			73
1971			80
1972			83
1973			88
1974			104
1975			168
1976			207

연도	한국영화 관람 요금	외국영화 관람 요금	평균 관람 요금
1977			307
1978			389
1979			715
1980			957
1981			1,097
1982			1,300
1983			1,326
1984			1,532
1985			1,432
1986			1,533
1987			1,637
1988			1,847
1989			2,271
1990			2,602
1991	2,898	3,070	3,034
1992	3,299	3,510	3,471
1993	3,573	3,736	3,711
1994	3,839	3,909	3,895
1995	4,163	4,295	4,268
1996	4,698	4,867	4,828
1997	4,952	5,040	5,017
1998	4,996	5,202	5,150
1999	5,192	5,256	5,230
2000	5,324	5,371	5,355
2001	5,823	5,898	5,860
2002	6,071	6,001	6,035
2003	5,981	6,026	6,002
2004	6,295	6,275	6,287

연도	한국영화 관람 요금	외국영화 관람 요금	평균 관람 요금
2005	6,176	6,166	6,172
2006	6,043	6,018	6,034
2007	6,222	6,271	6,247
2008	6,494	6,494	6,494
2009			6,970
2010			7,834
2011			7,737
2012			7,466
2013			7,271
2014			7,738
2015			7,895

주석

1. 전국 기준 금액

자료출처

1. 1961~2008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2. 2009~2014년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동향·현황자료 - 201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http://www.mcst.go.kr/web/s_data/statistics/statView.jsp?pSeq=794&pMenuCD=0408010000&pCurrentPage=1&pTypeDept=05&pSearchType=01&pSearchWord=퍼센트EC퍼센트98퍼센트81퍼센트ED퍼센트99퍼센트94퍼센트EC퍼센트82퍼센트B0퍼센트EC퍼센트97퍼센트85

담배 가격

담배 '화랑'은 1949년 출시되어 1962년까지 4원(40환)에 판매되었으며, 1963년 5원으로 인상된 후 가격을 유지하다 1974년 10원으로 판매되고, 그해 판매 중단되었다.

1955년부터 서민층의 담배로 많이 소비되었던 '과랑새'는 1962~1968년까지 6원에 판매되었다. '진달래'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57년으로 당시 가격은 10원(100환)이었으며, 1964년부터 13원으로 판매되었다. 이는 '과랑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진달래'보다 고급 담배로 1958년 '아리랑'이 20원(200환)으로 출시되었는데, 1967년 35원으로 인상된 후 1974년에는 100원, 1976년에는 150원으로 인상되었다. 아리랑은 1976년

까지 판매되고 잠시 중단되었다가, 1984~1988년까지 500원으로 다시 판매되었다.

1961년에는 '과고다'가 30원(300환)으로 최고급 담배였다. 1972년부터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었고, 1979년까지 판매되었다. '과고다'보다 더 비싼 가격인 50원으로 출시된 '신탄진'은 1970년에 6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가 1974년 다시 50원으로 인하되었다.

'청자'는 1969년 100원에 출시되어 1976년 150원으로 인상된 후 1979년까지 판매되었다. '청자가 최고급 담배로 자리매김하던 1970년대 초반, '태양'과 '거북선'이 1974년 200원 가격에 출시되었고 최종적으로 500원으로 인상되어 판매되었다.

1980년에는 450원의 가격으로 '솔'이 출시되었고,

| 표 2.2-10 | 담배 가격

단위: 원

연도	화랑	과랑새	진달래	아리랑	과고다	신탄진	청자	태양	거북선	솔	88라이트	THIS	ESSE	THIS PLUS	Time	RAISON	더원	보햄시가
1949	40환																	
1950	40환																	
1951	40환																	
1952	40환																	
1953	40환																	
1954	40환																	
1955	40환	50환																
1956	40환	50환																
1957	40환	50환	100환															
1958	40환	50환	100환	200환														
1959	40환	50환	100환	200환														

연도	화랑	파랑새	진달래	아리랑	파고다	신탄진	청자	태양	거북선	슬	88라이트	THIS	ESSE	THIS PLUS	Time	RAISON	더원	보렘시가
1960	40환	50환	100환	200환														
1961	40환	50환	100환	200환	300환													
1962	4	6	10	20	30													
1963	5	6	10	20	30													
1964	5	6	13	20	30													
1965	5	6	13	20	30	50												
1966	5	6	10	20	30	50												
1967	5	6		35	30	50												
1968	5	6		35	30	50												
1969	5			35	30	50	100											
1970	5			35	30	60	100											
1971	5			35	30	60	100											
1972	5			35	35	60	100											
1973	5			35	35	60	100											
1974	10			100	50	50	100	200	200									
1975				100	50		100	200	200									
1976				150	50		150	200	200									
1977					50		150	300	300									
1978					50		150	300	300									
1979					70		150	450	300									
1980								450	300	450								
1981								450	300	450								
1982								500	300	450								
1983									300	450								
1984				500					300	450								
1985				500					500	450								
1986				500					500	450								

연도	화랑	파랑새	진달래	아리랑	파고다	신탄진	청자	태양	거북선	솔	88라이트	THIS	ESSE	THIS PLUS	Time	RAISON	더원	보렘시가
1987				500					500	450								
1988				500					500	450	600							
1989									500	450	600							
1990										450	600							
1991										450	600							
1992										450	600							
1993										450	600							
1994										450	600	900						
1995										450	600	900						
1996										450	600	900	1,300					
1997										450	600	900	1,300					
1998										450	600	1,000	1,300					
1999										450	600	1,100	1,500	1,300				
2000										200	1,000	1,100	1,500	1,300	1,400			
2001										200	1,100	1,300	1,700	1,400	1,600			
2002										200	1,400	1,500	2,000	1,600	1,800	2,000		
2003										200	1,400	1,500	2,000	1,600	1,800	2,000	2,000	
2004										200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005										200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006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007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08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09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10											1,900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11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12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13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연도	화랑	파랑새	진달래	아리랑	파고다	신탄진	청자	태양	거북선	솔	88라이트	THIS	ESSE	THIS PLUS	Time	RAISON	더원	보험시가
2014												2,000	2,500	2,100	2,300	2,500	2,500	2,500
2015												4,000	4,500	4,100	4,300	4,500	4,500	4,500

주석

1. 전국 기준 금액
2. 각 연도 12월 기준 가격
3. 20분 기준
4. 전반적인 가격 변화는 '종합물가총람'(2015)을 참고하였으며, '88라이트', '솔', 'THIS', 'ESSE'의 경우 일부 연도의 세부적인 가격 변화는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2010)를 참고함

자료출처

1. 1949~2015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2. 1988~2010년 88라이트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3. 1998~2000년 솔, THIS, ESSE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1988년에는 '88라이트'가 600원으로 출시되었다. 하지만 1994년 900원짜리 'THIS'가 출시되면서 고급 담배의 위치가 바뀌었다. 2000년대 들어서 '88라이트'는 1,000원, 'THIS'는 1,100원까지 인상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ESSE', 'THIS PLUS', 'TIME', 'RAISON', '더원', '보험시가' 등 다양한 종류의 담배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국산 담배 가격은 4,000~4,500원에 형성되었다.

새로운 담배의 개발은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려는 이유도 있지만, 가격이 높더라도 건강에 해를 덜 끼치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새로운 담배가 개발되고 판매될 때마다 가격은 100원에서 300원 정도 상승하였다. 반면 동일 종류의 담배는 가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이는 새로운 담배가 시판되면서 이전 담배는 생산이 중단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1970년 당시 담뱃값

은 최고급품을 기준으로 볼 때 100원이고, 시내버스 요금은 15원, 짜장면은 100원, 극장 관람 요금(전국 기준)은 73원이다. 당시 담뱃값은 짜장면 한 그릇과 동일하였으며, 버스 요금보다 6.7배 비쌌다. 2015년 담뱃값은 4,500원이며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 짜장면은 3,977원, 극장 요금은 7,895원이다. 1970~2010년 사이 담뱃값의 인상 폭은 45배, 시내버스 요금은 약 87배, 짜장면은 약 40배, 극장 관람 요금은 108배 상승하였다.

국·공립학교 수업료와 사교육비

1970년 중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2만 700원이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9년에는 10만 9,680원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으며, 1985년에는 20만 원을 넘었다.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50만 원, 2003년에는 80만 원까지 도달하

연도	중학교(국·공립)		고등학교(일반계)		대학교(4년제 인문계)		대학교(4년제 자연계)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1970	9,900	20,700	14,470	27,320	-	33,000	-	45,400
1971	12,900	30,170	15,910	32,190	29,400	57,200	29,400	73,600
1972	15,760	35,830	19,840	37,820	-	65,200	-	73,600
1973	15,760	35,830	19,840	37,820	49,140	76,300	48,000	84,400
1974	-	-	-	-	-	-	-	-
1975	34,720	56,310	49,240	78,100	97,000	178,100	103,000	203,500
1976	37,660	72,290	67,440	108,240	102,400	199,900	102,400	180,800
1977	48,640	84,050	76,800	126,600	138,520	207,200	149,800	212,800
1978	54,220	96,890	86,280	145,320	-	-	-	-
1979	59,640	109,680	92,560	160,800	176,000	210,000	184,000	250,000
1980	68,640	125,880	113,500	196,360	243,000	280,500	268,000	301,500
1981	88,560	160,560	148,360	252,640	336,000	388,000	386,000	422,000
1982	97,440	180,240	174,760	304,480	396,000	722,000	671,000	820,000
1983	102,360	189,360	183,400	319,480	432,000	777,000	469,000	876,000
1984	108,000	196,800	186,000	324,000	-	-	-	-
1985	106,200	202,300	192,000	334,200	745,000	788,000	850,000	893,000
1986	110,640	211,400	199,920	348,720	767,000	812,000	875,000	920,000
1987	110,640	211,400	199,920	348,720	798,000	844,000	911,000	957,000
1988	113,280	246,600	231,240	415,800	836,000	884,000	955,000	1,003,000
1989	126,600	266,800	265,800	458,640	851,000	940,000	970,000	1,193,000
1990	142,800	302,400	295,200	516,000	851,000	953,000	987,000	1,508,000
1991	129,000	318,000	293,400	543,000	921,000	1,049,000	1,069,000	1,217,000
1992	141,600	355,200	326,400	609,600	1,011,000	1,153,000	1,206,000	1,357,000
1993	157,200	392,400	356,160	668,520	1,150,000	1,272,000	1,827,000	2,090,000
1994	169,200	433,500	412,500	756,000	1,330,000	1,430,000	1,999,000	2,660,000
1995	183,600	500,400	471,600	883,200	1,468,000	1,849,000	1,949,000	2,828,000
1996	195,600	549,120	498,000	969,200	1,543,000	1,874,000	2,114,000	2,557,000
1997	75,600	580,800	456,000	1,023,600	1,637,000	3,052,000	2,373,000	3,118,000

연도	중학교(국·공립)		고등학교(일반계)		대학교(4년제 인문계)		대학교(4년제 자연계)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1998	75,600	580,800	456,000	1,023,600	1,637,000	3,052,000	2,373,000	3,118,000
1999	79,200	673,200	541,200	1,124,400	1,281,400	2,168,000	2,565,500	3,364,900
2000	210,000	694,000	573,600	1,226,400	1,383,400	3,158,000	1,414,000	4,775,300
2001	217,200	694,800	586,800	1,226,400	1,828,000	3,632,000	1,828,000	4,215,000
2002	217,200	759,600	631,200	1,345,200	1,931,000	3,094,000	2,291,000	5,572,000
2003	92,400	802,800	655,200	1,459,200	2,034,400	3,996,100	2,449,400	6,070,600
2004	97,200	210,000	693,600	1,561,200	2,288,700	4,534,700	2,687,000	6,776,300
2005	111,600	216,000	709,200	1,636,800	2,505,500	4,883,000	2,911,200	6,530,600
2006	116,400	228,000	726,000	1,689,600	2,768,000	5,494,000	2,764,000	7,024,000
2007	102,000	237,600	788,400	1,772,400	2,997,000	6,127,000	3,040,000	7,675,000
2008	104,500	240,000	764,900	1,772,400	3,008,000	6,540,000	3,475,000	8,190,000
2009	124,000	249,600	760,800	1,786,800	2,350,000	9,764,100	2,616,100	11,803,800
2010	124,000	249,600	760,800	1,786,800	2,857,000	9,900,000	3,164,000	8,240,000
2011	-	-	-	-	-	-	-	-
2012	84,600	207,240	347,100	1,792,000	1,744,560	9,794,870	2,105,540	11,392,020
2013	-	-	347,100	1,796,870	1,744,577	9,715,450	2,105,444	11,470,952
2014	-	-	760,800	1,807,660	1,745,202	9,700,450	2,105,612	11,688,000

주석

1. 전국 기준 금액
2. 위의 금액은 1인당 연액
3. 학생회비(학도호국단비)는 제외된 금액임
4. '-'는 자료 없음
5.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 9월부터 폐지됨

자료출처

1. 1961~2008년 : 한국물가정보, 2015, 『종합물가총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평균										
합계	222,000	233,000	242,000	240,000	240,000	236,000	239,000	242,000	244,091	256,000
일반교과	178,000	188,000	197,000	195,000	193,000	193,000	191,000	191,000	190,217	191,000
예체능교과	43,000	44,000	45,000	45,000	46,000	42,000	47,000	50,000	52,875	63,000
취업 관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시										
합계	284,000	296,000	331,000	321,000	328,000	312,000	328,000	335,000	338,000	352,000
일반교과	235,000	242,000	266,000	256,000	263,000	261,000	268,000	268,000	268,000	271,000
예체능교과	48,000	53,000	65,000	65,000	64,000	50,000	59,000	65,000	69,000	80,000
취업 관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1,000	1,000	1,000

주석

1. 일반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논술을 포함
2. 예체능교과는 음악, 미술, 체육, 취미·교양을 포함

자료출처

1. 2007~2016년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통계 - 교육·문화·과학 - 교육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특성 및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2&conn_path=3

였는데 이는 1970년 당시 수업료에 비해 38.8배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수업료는 20만 원대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중학교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1970년에 이미 중학교 수업료의 1.3배였다. 고등학교 수업료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업료 상승률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중학교와 수업료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70~2014년 동안 고등학교 수업료는 66.2배 늘

어났다.

학교 수업료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대학의 수업료이다. 4년제 인문계 대학의 수업료는 1970~2014년 동안 약 294배 늘어났으며, 자연계의 경우 약 257배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인문계 대학의 연간 수업료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970만 원 정도이며, 자연계 대학의 연간 수업료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1150만 원을 넘고 있다.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국 기준으로 2007년 월평균 22만 2천 원이던 사교육비는 2016년 25만 6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컴

퓨터, 논술을 포함하는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약 75퍼센트 정도 차지한다. 한편 서울시의 2016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2천 원으로 전국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1.37배로 나타났다.

가전기기 보급률

1960년대 일반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가전기기는 라디오였다. 라디오는 1961년 36.6퍼센트 가정에만 보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9년 보급률이 61.6퍼센트로 일반화되었다. 1989년에는 보급

률이 96퍼센트로 거의 대부분 가정에 보급되었다. 보급이 보편화된 라디오는 1990년 이후부터 가전기기 보유에 대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컴퓨터 등의 보급으로 라디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주요 가전기기로 간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감소된 것은 대체로 텔레비전 보급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텔레비전방송이 시작된 것은 1966년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1960년대 텔레비전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1969년 15.6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5년에 이미 흑백텔레비전과 컬러텔레비전을 포

| 표 2.2-13 | 가전기기 보급률

단위 : 퍼센트(대/가구×100)

연도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정수기
1961	36.6	1.4								
1962	39.0	3.4								
1963	37.8	3.9								
1964	46.5	4.1								
1965	48.7	4.9								
1966	49.9	4.7								
1967	54.1	6.1								
1968	59.7	7.8								
1969	61.6	15.6								
1970	66.3	22.1								
1971	71.2	32.0								
1972	72.9	43.1								
1973	86.4	41.1								
1974	90.0	46.4								

연도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정수기
1975	90.8	51.1								
1980	-	86.8	-	-	-	-	-	-	-	-
1984	-	81.8	-	-	-	-	-	-	-	-
1985	-	122.0	-	57.0	2.0	98.0	-	-	-	-
1987	88.0	127.0	5.0	65.0	6.0	103.0	-	-	-	-
1989	96.0	126.0	7.0	83.0	14.0	103.0	-	-	-	-
1990	-	77.7	-	-	-	-	-	-	-	-
1991	-	141.0	21.0	93.0	12.0	106.0	-	-	-	-
1993	-	141.0	43.0	97.0	15.0	109.0	-	-	-	-
1994	-	139.0	-	97.0	15.0	109.0	-	56.0	2.0	-
1996	-	138.0	98.0	95.0	18.0	106.0	-	52.0	3.0	19.0
1997	-	141.0	38.0	98.0	28.0	105.0	-	75.0	2.0	8.0
2000	-	154.0	84.0	98.0	39.0	124.0	-	74.0	5.0	24.0
2002	-	154.0	83.0	97.0	52.0	105.0	39.0	77.0	2.0	22.0
2004	-	156.0	83.0	96.0	52.0	105.0	59.0	82.0	2.0	22.0
2006	-	146.0	88.0	99.0	58.0	103.0	64.0	78.0	5.0	38.0
2009	-	144.0	86.0	99.0	71.0	102.0	79.0	82.0	7.0	51.0
2011	-	145.0	90.0	99.0	65.0	98.0	77.0	79.0	12.0	51.0
2013	-	116.0	69.0	102.0	74.0	103.0	88.0	72.0	4.0	35.0

주석

1. 서울시 기준 보급률
2. 텔레비전은 흑백텔레비전과 컬러텔레비전을 모두 합한 값
3. '-'는 자료 없음
4. 2013년 이후 작성이 중단됨

자료출처

1. 1961~196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회 1964년 서울통계연보(1963년 기준)
2. 1964~197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80년, 1984년, 1990년 :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통계로 본 서울의 변화(1995)
4. 1985년, 1986년, 1987년, 1991년, 1993년 : 서울연구원, 2003, 『지표로 본 서울 변천』 (단 원자료 출처는 확인 불가)
5. 1994~2013년 :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과거 · 중지통계 - 작성중지통계 -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조사 -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8&tblId=TX_38802_A003&conn_path=3

합한 텔레비전의 총 보급률이 122퍼센트로 가구당 1.2대의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컬러 방송을 시작한 이후 흑백텔레비전 보급률은 감소한 반면, 컬러텔레비전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4년부터 흑백텔레비전의 수수료는 면제되었고, 1993년에 이르러서는 가구수의 2퍼센트만이 흑백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가전기기 가운데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은 컬러텔레비전으로 1980년 3.6퍼센트에서 1987년 104퍼센트로 증가하며 7년 사이 모든 가정에 1대 이상의 컬러텔레비전이 보급되었다. 2013년 텔레비전 보급률은 116퍼센트이다.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1970년대까지 보편적인 가전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조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부터 포함되었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1970년대부터 조금씩 사용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세탁기는 102퍼센트, 냉장고는 103퍼센트의 보급률(김치냉장고 제외)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사용한다. 특히 1990년 후반에 개발된 김

치냉장고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2013년에는 88퍼센트의 가구가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레인지 보급률도 꾸준히 증가하며 2013년 총 가구의 72퍼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과 컴퓨터의 보급률은 198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에어컨은 1985~2013년 동안 보급률이 2퍼센트에서 74퍼센트로 37배 증가하였고, 컴퓨터는 1987년 5퍼센트에서 2013년 69퍼센트로 13.8배 증가하였다.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소비수준이 향상되면서 식기세척기와 정수기 보급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4년 2퍼센트에 불과하던 식기세척기의 보급률은 2011년 12퍼센트까지 증가하였으며, 정수기 보급률 역시 1996년 19퍼센트에서 2013년 35퍼센트까지 약 1.8배 증가하였다.

전화 시설 가입자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기이고,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일반 가정에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그러나 전화

| 표 2.2-14 | 전화 시설 및 가입자

단위: 개소, 명

연도	전화 시설(개소)	전화 가입자(명)	가구수당 가입자 (명/가구)	공중전화(개소)
1957	-	17,136	0.06	-
1958	-	22,951	0.07	-
1959	-	28,708	0.07	-
1960	-	34,727	0.08	-
1961	-	38,129	0.08	-
1962	-	53,558	0.10	-

연도	전화 시설(개소)	전화 가입자(명)	가구수당 가입자 (명/가구)	공중전화(개소)
1963	-	65,325	0.11	1,023
1964	-	87,402	0.14	1,276
1965	-	96,940	0.15	1,417
1966	-	121,978	0.17	1,861
1967	-	147,371	0.20	2,094
1968	-	166,833	0.20	2,329
1969	-	193,070	0.20	2,466
1970	-	206,532	0.19	2,956
1971	-	234,870	0.20	3,981
1972	-	271,191	0.23	4,808
1973	-	330,394	0.27	5,062
1974	-	369,365	0.29	5,990
1975	443,600	426,912	0.30	7,769
1976	538,800	511,718	0.35	9,609
1977	661,200	618,081	0.40	13,840
1978	779,000	740,308	0.46	20,387
1979	932,000	892,077	0.52	27,271
1980	1,049,000	1,014,894	0.55	30,105
1981	1,229,000	1,140,456	0.60	31,068
1982	1,680,500	1,479,628	0.74	35,269
1983	1,933,500	1,741,869	0.82	40,363
1984	2,333,126	2,039,095	0.91	42,943
1985	2,669,550	2,218,015	0.95	46,392
1986	3,018,786	2,481,862	1.02	52,745
1987	3,239,788	2,747,125	1.09	56,661
1988	3,489,856	3,202,211	1.20	61,897
1989	3,899,000	3,588,459	1.27	62,537
1990	4,383,800	3,929,984	1.39	68,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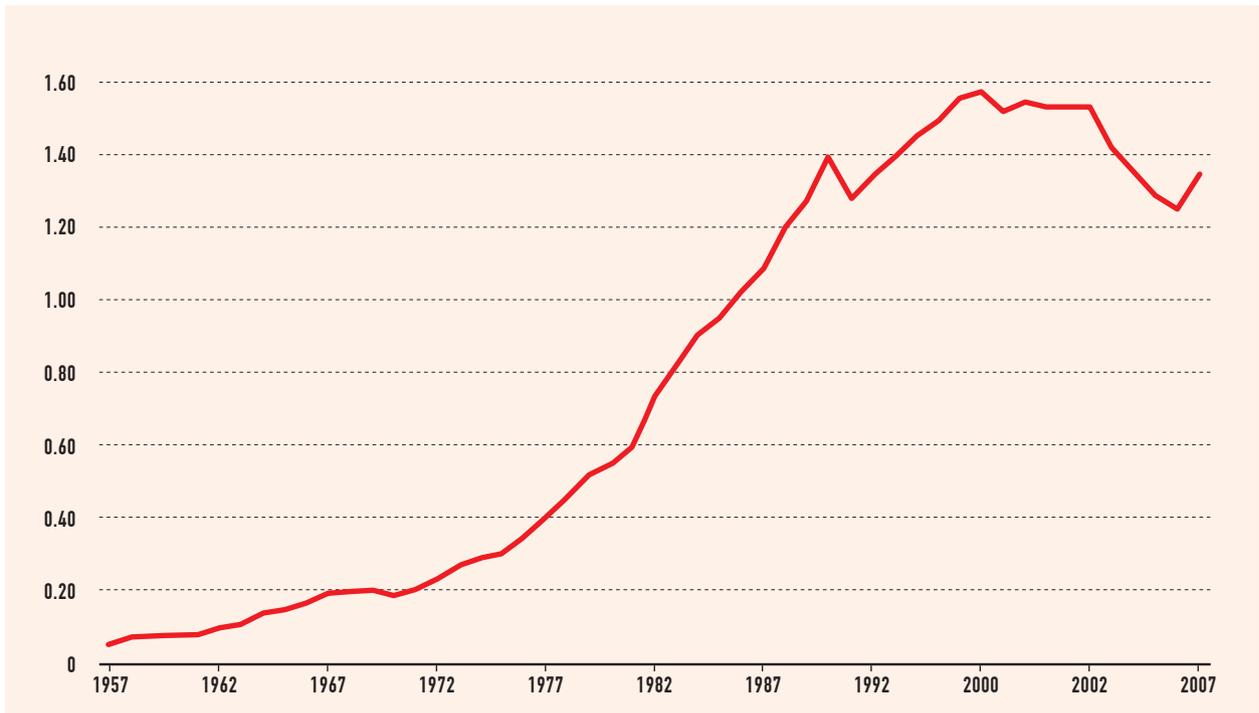
연도	전화 시설(개소)	전화 가입자(명)	가구수당 가입자 (명/가구)	공중전화(개소)
1991	4,973,200	4,258,014	1.28	71,899
1992	5,362,200	4,508,109	1.34	73,636
1993	5,618,000	4,751,445	1.39	75,709
1994	5,739,000	4,973,770	1.45	77,776
1995	5,929,000	5,120,131	1.50	80,474
1996	6,201,600	5,326,052	1.56	83,840
1997	6,332,100	5,461,920	1.58	93,745
1998	6,357,100	5,258,276	1.52	105,787
1999	6,348,500	5,404,002	1.55	116,600
2000	6,261,008	5,433,794	1.53	109,656
2001	6,311,074	5,480,463	1.54	99,849
2002	6,393,030	5,557,271	1.53	85,603
2003	7,949,162	5,283,639	1.42	73,107
2004	8,099,018	5,114,764	1.35	61,897
2005	8,334,955	4,994,351	1.29	51,509
2006	8,546,133	4,979,918	1.25	42,086
2007	10,620,226	5,441,792	1.34	34,958

주석

1. 서울시 기준 통계
2. 통계작성기관을 통한 자료 생산 어려움으로 2007년 이후 생산 중단
3.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57~1962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회 1964년 서울통계연보(1963년 기준)
2. 1963~1967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8회 1968년 서울통계연보(1967년 기준)
3. 1968~197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75~1980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1회 1981년 서울통계연보(1980년 기준)
5. 1981~198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6회 1986년 서울통계연보(1985년 기준)
6. 1985~2007년 : 서울통계-주제별-정보통신-정보통신기반-전화 시설 및 가입자수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는 정부 고위층이나 부유층만이 사용할 수 있던 시설로 1960년대 중반까지 가구수당 가입자는 10가구당 1명 정도가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전화 가입률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1979년에는 가구당 0.52명을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1997년에 가구당 1.58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전화 가입자는 2000년대 초반 정체 상태를 보인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에는 가구당 평균 1.34명이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이동전화 이용률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중전화 보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 텔레비전 가입자

표 2.2-15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국 인구를 기준으로 가입률을 보여 주고 있다. 유선전화 가입자는 2000년 중반까지 인구 백 명당 약 48명의 가입률을 보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동전화는 1989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급속하게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990년에는 가입률이 0.2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6년 118.6에 도달하였다. 이 통계는 모든 연령층을 포함한 것이므로 성인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동전화 보급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또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도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가입률	가입자 수	가입률	가입자 수	가입률
1989	1,179	27.8	4	0.1	-	-
1990	1,328	31.0	8	0.2	-	-
1991	1,457	33.7	17	0.4	-	-
1992	1,559	35.6	27	0.6	-	-
1993	1,663	37.6	47	1.1	-	-
1994	1,765	39.5	96	2.2	-	-
1995	1,860	41.2	164	3.6	-	-
1996	1,960	43.1	318	7.0	-	-
1997	2,042	44.4	683	14.9	-	-
1998	2,009	43.4	1,398	30.2	-	-
1999	2,058	44.1	2,344	50.3	-	-
2000	2,099	44.6	2,682	57.0	387	8.2
2001	2,273	48.0	2,905	61.3	781	16.5
2002	2,349	49.3	3,234	67.9	1,041	21.9
2003	2,288	47.8	3,359	70.2	1,118	23.4
2004	2,287	47.6	3,659	76.2	1,192	24.8
2005	2,292	47.6	3,834	79.7	1,219	25.3
2006	2,312	47.9	4,020	83.2	1,404	29.1
2007	2,313	47.7	4,350	89.8	1,471	30.4
2008	2,213	44.7	4,561	92.1	1,547	31.2
2009	2,009	40.4	4,794	96.3	1,635	32.8
2010	1,927	38.2	5,077	100.5	1,722	34.1
2011	1,863	36.7	5,251	103.5	1,786	35.2
2012	1,846	36.2	5,362	105.3	1,825	35.8
2013	1,762	34.5	5,468	106.9	1,874	36.6
2014	1,694	33.0	5,729	111.6	1,916	37.3
2015	1,634	31.7	5,894	114.4	2,002	38.9
2016	1,575	30.5	6,130	118.6	2,056	39.8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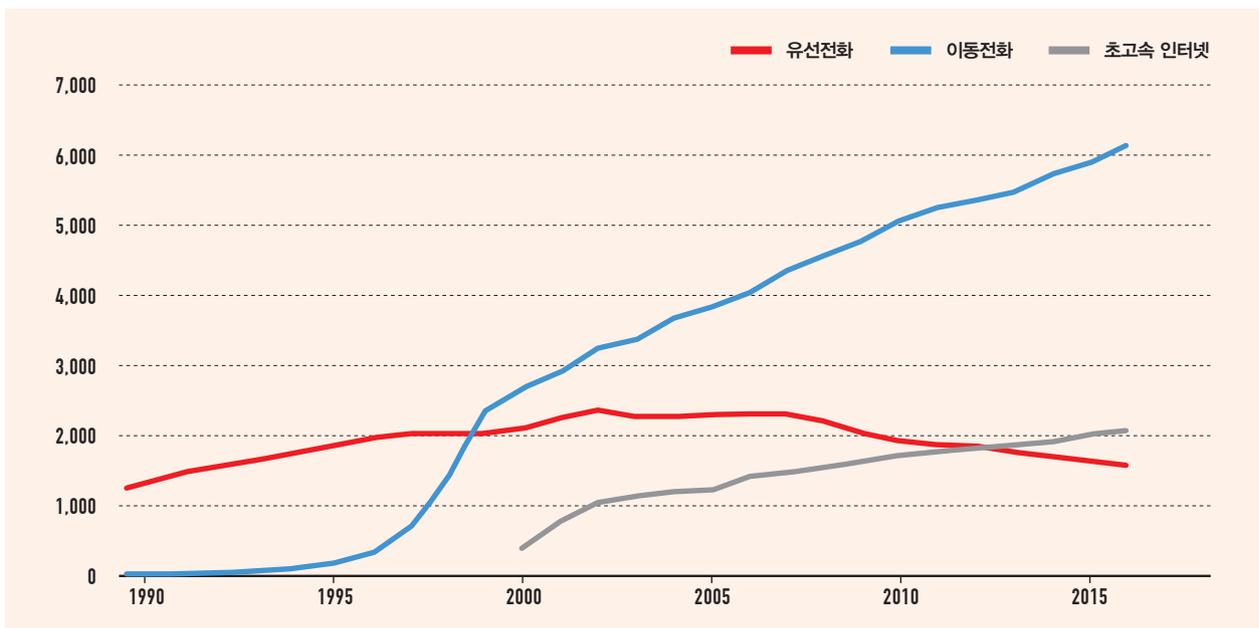
1. 전국 기준 통계
2. 2008~2016년 자료는 12월 기준임
3.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89~2007년 :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원자료 출처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2. 2008~2016년 : ITC통계포털 - 통신/방송 - 통신서비스 가입자 <http://www.itstat.go.kr/stat.it?no=1136>

| 그림 2.2-4 |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인구 백 명당 가입률은 8.2명이었으나 2016년 39.8명으로 약 4.9배 증가하였다.

유통시설 현황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품의 구매 장소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반시장(재래시장)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대형마트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체

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은 크게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등록시장은 대규모점포의 요건인 3천 제곱미터 규모를 갖추고 있어 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인정시장은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시장 형태를 갖추고 있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을 의미한다.

신세계, 화신, 미도파, 신신 등 일부 백화점이 도심부에 위치하였지만 여전히 재래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일상 쇼핑의 중심지였다. 시장의 수는 1960년 37개에서 1969년 100개를 초과하였고 1973년에는 200개, 1983년에는 438개소에 이르렀다. 이후 2000년대 초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재래시장의 성장세가 멈춘데 반해, 백화점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백화점 수는 1980년대 초반 10개소를 넘어서서 1995년 30개에 이르렀다.

1980년대 강남, 목동, 상계 등 대단위 신시가지가 건설되고 인구가 급증하며 소득수준이 향상된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쇼핑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쇼핑센터는 2004년부터 할인점과 전문점으로 구분되었으며, 1990년 6개소였던 기타 대규모점포는 2008년 84개소, 2015년 301개소로 증가하였다. 할인점도 2004년 36개소에서 2016년 62개소로 약 1.7배 증가하여 이전의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다.

| 표 2.2-16 | 유통시설 현황

단위: 개

연도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	할인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1960	37	-	-	-	-	-	-
1961	44	-	-	-	-	-	-
1962	63	-	-	-	-	-	-
1963	77	-	-	-	-	-	-
1964	70	-	-	-	-	-	-
1965	86	-	-	-	-	-	-
1966	85	-	-	-	-	-	-
1967	87	-	-	-	-	-	-
1968	95	-	-	-	-	-	-
1969	117	-	-	-	-	-	-
1970	146	-	-	-	-	-	-
1971	185	-	-	-	-	-	-
1972	195	-	-	-	-	-	-
1973	209	-	-	-	-	-	-
1974	213	-	-	-	-	-	-
1975	229	-	-	-	-	-	-

연도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	할인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1976	254	-	-	-	-	-	-
1977	275	8	-	-	-	-	-
1978	295	8	-	-	-	-	-
1979	334	8	-	-	-	-	-
1980	377	8	-	-	-	-	-
1981	275	8	-	-	-	-	-
1982	433	8	-	-	-	-	-
1983	438	14	-	-	-	-	-
1984	422	14	-	-	-	-	-
1985	388	12	5	1	-	-	-
1986	387	17	6	1	-	-	-
1987	365	19	6	3	-	-	-
1988	363	22	9	4	-	-	-
1989	360	24	11	5	-	-	-
1990	368	24	12	6	-	-	-
1991	370	27	13	6	-	-	-
1992	382	28	13	5	-	-	-
1993	390	30	13	6	-	-	-
1994	407	32	13	7	-	-	-
1995	392	30	13	8	-	-	-
1996	395	29	11	12	-	-	-
1997	392	30	11	13	-	-	-
1998	393	29	11	14	-	-	-
1999	396	26	8	24	-	-	-
2000	393	28	12	24	-	-	-
2001	393	29	13	24	-	-	-
2002	346	28	12	45	-	-	-
2003	355	28	13	50	-	-	-

연도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	할인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2004	340	28	16	10	36	14	-
2005	301(20)	27	19	49	39	15	-
2006	298(44)	28	20	53	44	17	-
2007	236(43)	27	27	77	46	27	-
2008	214(43)	36	39	84	55	22	-
2009	-	28	32	152	60	20	-
2010	-	29	32	154	62	20	-
2011	-	31	30	160	63	24	-
2012	-	33	32	167	58	23	-
2013	-	31	41	195	58	24	-
2014	-	32	33	303	62	23	11
2015	-	32	35	301	61	23	9
2016	-	32	35	309	62	22	10

주석

1. 서울시 기준 통계
2. '-'는 자료 없음
3. 1982~1984년은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구분하지 않음
4. 1985~1993년 기타 대규모점포는 대형점과 도매센터의 합계
5. 1995~2008년은 '등록시장' 수, ()는 '인정시장' 수
 - *1990년 중반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래시장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됨
 - 1) 등록시장: 3천 제곱미터의 대규모점포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장
 - 2) 인정시장: 대규모점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시장 형태를 갖추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
6.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 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됨
7. 2014년부터 복합쇼핑몰 항목 추가(2013년 이전 쇼핑센터에 포함), 대규모점포 내 대형마트 포함

자료출처

1. 1960~1964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8회 1968년 서울통계연보(1967년 기준)
2. 1965~1968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3. 1969~1975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76~1981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2회 1982년 서울통계연보(1981년 기준)
5. 1982~1983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6. 1984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5회 1985년 서울통계연보(1984년 기준)
7. 1985~1993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8. 1994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5회 1995년 서울통계연보(1994년 기준)
9. 1995~2016년: 서울통계-주제별-산업-유통업-유통업체 현황(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소매업태별 판매 비중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해 생활물품의 구매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보면 백화점, 슈퍼마켓,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은 반면, 편의점과 무점포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은 기준연도

(2010년)에 비해 2016년 판매 금액 지수가 무려 2.5배로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는 무점포 소매업의 판매액 지수 변화를 항목별로 보여 준다. 인터넷쇼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홈쇼핑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2-17 | 소매업태별 판매 금액 지수

단위: 지수

연도	총 지수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	전문 소매점				무점포 소매				
							소계	가전·컴퓨터·통신	문화상품	기타 전문점	소계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	방문 및 배달
1995	37.5	45.1	2.0	53.4	10.5	-	-	-	-	-	-	-	-	-	-
1996	42.7	52.2	5.6	62.5	12.1	-	-	-	-	-	-	-	-	-	-
1997	45.8	52.4	9.6	69.1	13.4	-	-	-	-	-	-	-	-	-	-
1998	42.3	47.7	14.9	53.4	12.7	-	-	-	-	-	-	-	-	-	-
1999	48.5	55.8	22.7	67.8	13.3	-	-	-	-	-	-	-	-	-	-
2000	54.7	62.8	31.4	70.5	16.4	-	-	-	-	-	26.1	6.2	-	-	46.9
2001	60.4	68.6	41.3	72.6	24.7	-	-	-	-	-	38.1	8.9	-	-	68.7
2002	67.7	74.5	52.1	75.5	35.6	-	-	-	-	-	50.0	12.1	-	-	89.7
2003	67.0	72.3	58.4	77.5	43.7	-	-	-	-	-	48.9	14.5	-	-	84.4
2004	69.1	69.1	64.3	77.2	48.5	-	-	-	-	-	50.6	22.9	-	-	77.8
2005	73.7	71.9	70.4	78.3	54.0	73.3	83.5	-	-	-	57.2	35.8	-	-	76.2
2006	77.6	75.9	76.3	81.1	58.2	78.3	84.6	-	-	-	63.3	49.5	-	-	75.5
2007	82.2	78.2	84.2	82.2	64.7	81.4	90.6	-	-	-	68.5	60.8	-	-	75.3
2008	87.8	81.4	89.2	90.4	75.1	89.8	91.8	-	-	-	77.0	70.9	-	-	82.4
2009	91.3	89.6	92.5	94.1	85.0	89.1	94.9	-	-	-	87.0	84.3	-	-	89.4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1	109.4	111.4	108.5	108.5	117.8	112.7	105.2	114.1	102.9	102.2	110.7	108.5	122.3	102.5	-
2012	114.2	117.4	117.8	113.7	139.4	117.4	105.2	116.2	102.9	101.4	122.9	126.3	133.4	104.5	-

연도	총 지수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	전문 소매점				무점포 소매				
							소계	가전·컴퓨터·통신	문화상품	기타 전문점	소계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	방문 및 배달
2013	115.4	120.4	120.6	117.2	150.2	117.5	102.6	108.7	101.0	100.6	131.7	136.1	141.3	112.2	-
2014	117.8	117.5	124.8	119.9	163.2	120.9	101.7	98.0	104.2	102.8	142.4	156.0	147.6	108.1	-
2015	120.7	116.9	127.7	122.9	211.6	119.7	101.7	99.4	97.4	103.0	156.0	184.2	149.5	104.1	-
2016	125.9	120.7	139.1	126.2	250.5	118.2	102.4	99.7	97.7	103.8	180.7	228.6	163.8	98.7	-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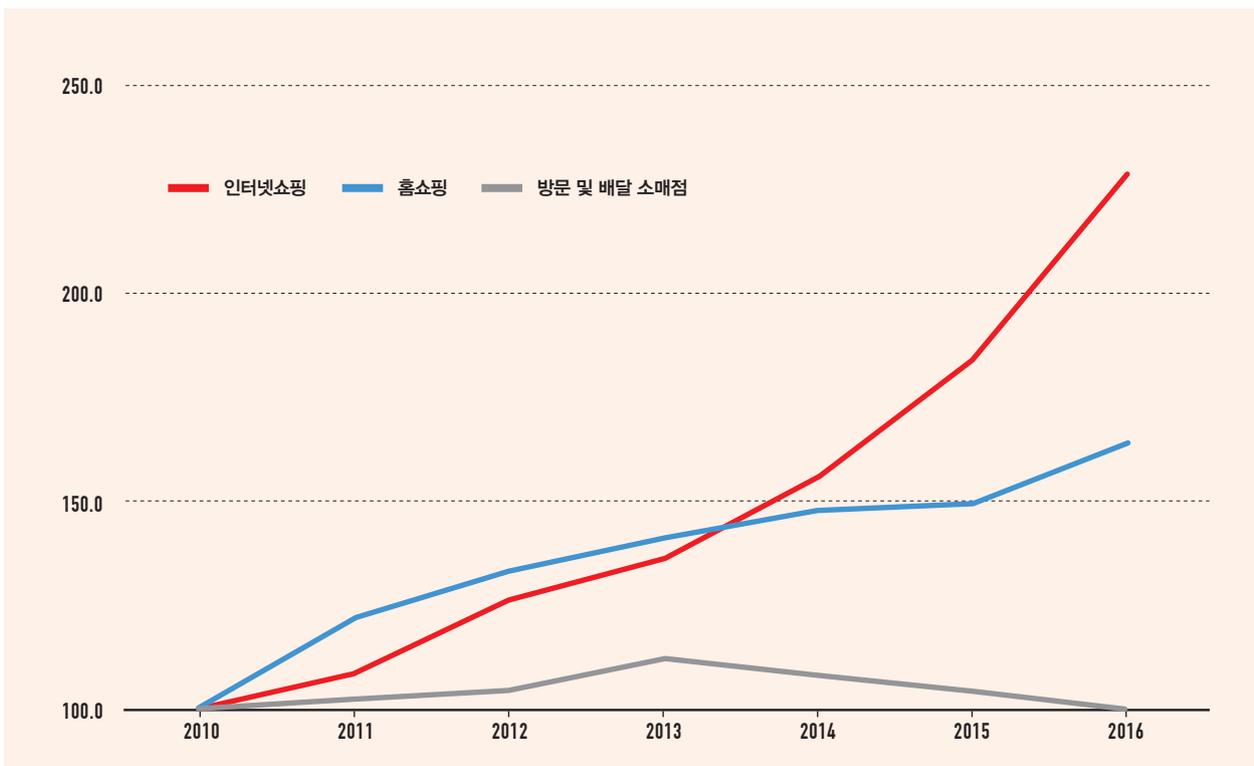
1. 전국 기준 통계
2. '-'는 자료 없음
3. 2015 = 100(경상지수)

자료출처

1. 1995~2016년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통계 - 도소매 - 서비스 - 소매판매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21013&conn_path=3

| 그림 2.2-5 | 무점포 소매 판매액 지수 변화

단위: 지수



보육시설

1970년 이후 3세대로 구성되던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핵가족 형태가 증가하였다. 또한 근래에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부모와 자녀의 구성을 전통적인 가족으로 여기던 과거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편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던 자녀양육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육시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5년 2,100개에 불과하던 보육시설은 2016년 6,368개로 증가했다.

민간 보육시설은 1995년 511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약 24.3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2,185개로 약 34.3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1995년에 404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19.2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2016년 1,071개로 16.8퍼센트가 되었다.

가정 보육시설은 전체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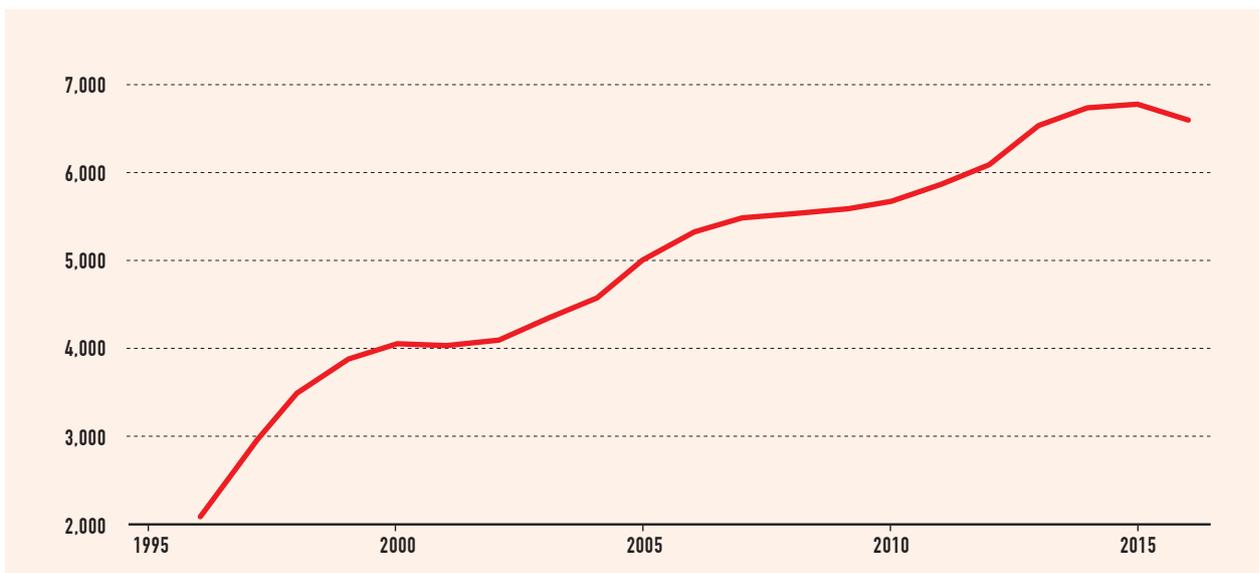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5~2000년 동안에는 51.6퍼센트에서 31.8퍼센트까지 약 20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2,824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4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00~2016년 동안 보육시설 현황을 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구로구 순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가 2016년 494개로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로구와 중구는 보육시설이 100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연령별 인구수를 구별로 비교해 보면 종로구와 중구의 0~4세, 5~9세의 인구수가 다른 구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로구와 중구가 행정관청, 금융기관, 기업체 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중심업무지구로 주거지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그림 2.2-6 | 보육시설 추이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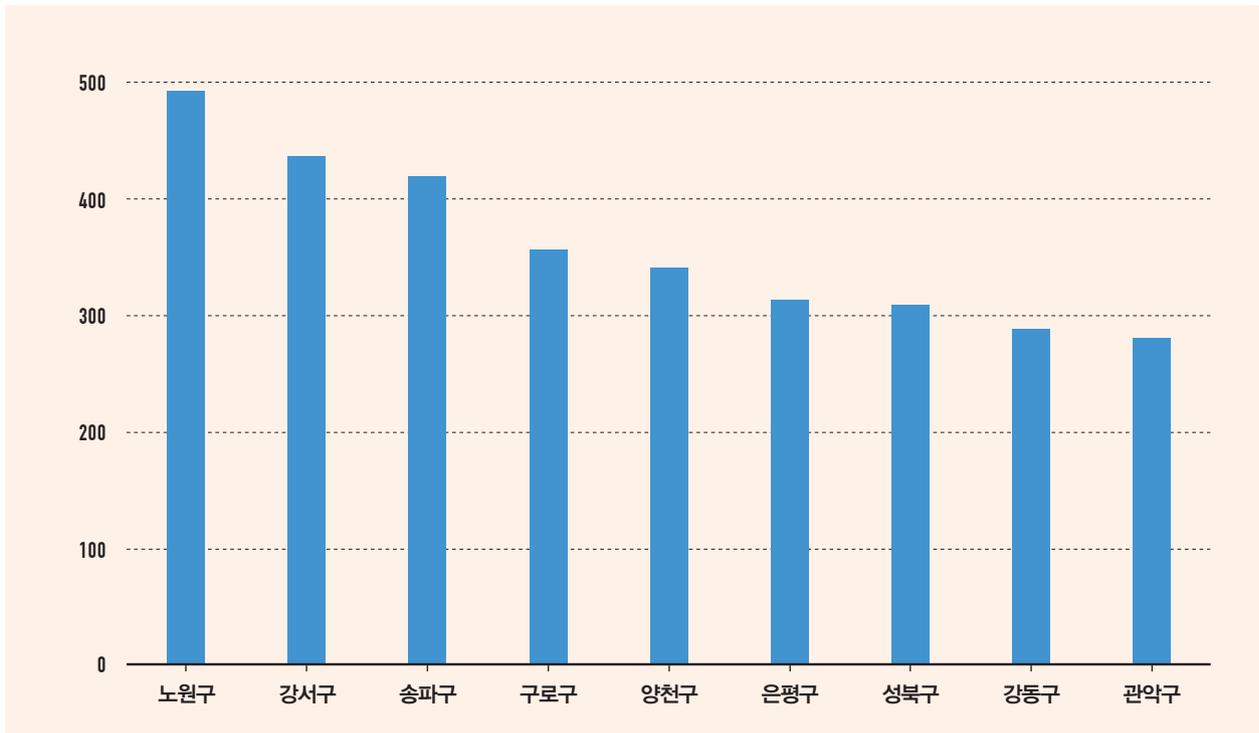
연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법인 외			
1995	2,100	404	65	511	500	11	-	37	1,083
1996	2,870	427	86	983	954	29	-	48	1,326
1997	3,531	454	114	1,452	1,402	50	-	64	1,447
1998	3,889	509	125	1,710	1,626	84	-	73	1,472
1999	4,064	537	114	1,895	1,796	99	-	74	1,444
2000	4,041	528	152	2,005	1,873	132	-	69	1,287
2001	4,116	534	115	2,089	1,969	120	-	62	1,316
2002	4,348	558	80	2,200	2,118	82	-	63	1,447
2003	4,572	548	80	2,299	2,199	100	-	62	1,583
2004	5,035	545	51	2,458	2,353	105	-	63	1,918
2005	5,328	549	57	2,549	2,338	211	10	68	2,095
2006	5,508	632	28	2,612	2,315	297	16	78	2,142
2007	5,532	637	31	2,590	2,345	245	17	83	2,174
2008	5,600	618	32	2,551	2,324	227	17	91	2,291
2009	5,684	626	44	2,497	2,278	219	17	96	2,404
2010	5,870	643	43	2,485	2,278	207	20	109	2,570
2011	6,105	658	43	2,488	2,296	192	24	126	2,766
2012	6,538	690	42	2,514	2,341	173	24	149	3,119
2013	6,742	750	39	2,504	2,337	167	26	165	3,258
2014	6,787	844	36	2,427	2,273	154	27	176	3,277
2015	6,598	922	35	2,315	2,174	141	27	194	3,105
2016	6,368	1,071	33	2,185	2,054	131	29	226	2,824

주석

1. 서울시 기준 통계
2. 본 통계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집(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의미함
3.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95~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서울통계연보 - 교육 - 영유아교육 - 보육시설(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표 2.2-19 | 구별 보육시설 현황

구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2000	65	45	66	140	180	152	203	192	156	180	292	199
2001	64	45	70	139	181	163	210	166	166	186	313	214
2002	67	46	68	142	180	170	220	197	178	203	358	225
2003	67	48	76	149	190	175	227	228	191	229	380	238
2004	69	46	84	148	204	182	243	232	201	242	466	274
2005	69	48	88	163	213	201	240	260	203	262	480	281
2006	72	47	93	159	222	206	234	278	205	268	529	277
2007	72	47	94	153	211	213	236	293	204	276	538	283
2008	69	51	96	151	208	213	237	301	199	290	531	288
2009	71	50	100	141	204	223	245	306	198	285	525	294
2010	72	52	109	146	208	222	256	326	201	297	529	302
2011	69	52	121	157	209	223	264	319	201	303	528	319
2012	71	57	130	176	223	226	273	319	210	296	566	356
2013	75	65	130	190	237	228	274	330	207	299	560	367
2014	77	65	132	194	229	233	276	338	204	296	542	356
2015	79	66	129	192	221	232	262	329	192	280	521	331
2016	81	67	125	189	217	231	260	310	182	265	494	314

자료출처

1. 2000~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서울통계연보 - 보건 및 사회복지 - 보육시설(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6	133	161	198	205	151	188	138	208	107	155	202	179
146	149	173	191	220	152	160	140	211	103	170	213	171
158	156	184	201	231	163	174	139	219	114	168	219	168
175	146	187	211	223	179	181	151	233	124	164	220	180
183	156	205	251	271	191	198	185	253	140	176	239	196
196	174	219	288	273	194	213	204	274	141	177	261	206
202	185	233	309	272	206	243	206	280	141	176	259	206
194	184	250	300	267	212	240	200	283	137	168	270	207
178	180	266	336	285	209	220	194	275	142	160	311	210
172	183	287	363	291	203	217	189	272	146	165	327	227
172	197	293	377	301	197	228	189	271	152	173	344	256
167	202	315	382	334	202	237	205	272	163	188	369	304
177	226	349	410	355	203	255	230	292	182	207	417	332
179	239	361	425	356	204	264	239	302	201	224	455	331
175	244	367	450	366	195	265	238	302	206	238	467	332
172	244	353	439	364	185	265	241	290	209	244	447	311
159	228	342	438	356	174	266	235	281	201	243	421	289

산업별 취업자 수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는 서울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한눈에 보여 준다. 1963년까지만 해도 6만 명 이상의 서울 인구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964년부터 3만 7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68년부터 2만 명대로 감소했다. 1차 산업 취업자는

1978년 전체 취업자의 1.0퍼센트로 감소한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6년 전체 취업자의 0.1퍼센트인 7천 명만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차 산업 종사자가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광업·제조업 등 2차 산업 종사자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구로공단을 비롯하여 서울에 대규모 공

표 2.3-1 |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퍼센트

연도	합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제조업	소계	비율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창고·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1963	702	62	8.8	129	18.4	123	512	72.9	30	-	-	-
1964	759	37	4.8	181	23.8	158	542	71.4	24	-	-	-
1965	777	38	4.9	150	19.4	144	589	75.8	38	-	-	-
1966	793	26	3.3	169	21.3	163	598	75.4	36	-	-	-
1967	907	37	4.1	227	25.0	222	643	70.9	34	-	-	-
1968	1,026	25	2.4	226	22.0	223	775	75.5	66	-	-	-
1969	1,120	25	2.2	244	21.7	241	852	76.0	72	-	-	-
1970	1,252	27	2.1	288	23.0	285	938	74.9	89	-	-	-
1971	1,576	25	1.6	335	21.3	332	1,216	77.1	156	-	-	-

연도	합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제조업	소계	비율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창고·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1972	1,619	22	1.4	348	21.5	345	1,248	77.1	111	-	-	-
1973	1,811	22	1.2	406	22.4	397	1,383	76.4	126	-	-	-
1974	1,755	25	1.4	398	22.7	395	1,331	75.9	123	-	-	-
1975	1,998	26	1.3	508	25.4	503	1,465	73.3	119	-	-	-
1976	1,993	31	1.6	589	29.6	586	1,373	68.9	-	-	-	-
1977	2,153	26	1.2	674	31.3	670	1,453	67.5	-	-	-	-
1978	2,309	23	1.0	750	32.5	746	1,537	66.6	-	-	-	-
1979	2,297	20	0.9	753	32.8	749	1,524	66.4	198	-	-	-
1980	2,391	21	0.9	721	30.2	718	1,649	69.0	202	-	-	-
1981	2,461	20	0.8	703	28.6	700	1,737	70.6	218	-	-	-
1982	2,569	21	0.8	764	29.7	756	1,785	69.5	233	-	-	-
1983	2,665	24	0.9	777	29.1	770	1,865	70.0	247	-	-	-
1984	2,856	21	0.7	825	28.9	819	2,011	70.4	259	-	-	-
1985	2,926	27	0.9	840	28.7	835	2,059	70.4	272	-	-	-
1986	3,130	20	0.7	918	29.3	916	2,191	70.0	282	-	-	-
1987	3,404	19	0.6	1,006	29.6	1,004	2,378	69.9	290	-	-	-
1988	3,415	17	0.5	1,048	30.7	1,046	2,350	68.8	311	-	-	-
1989	4,271	23	0.5	1,367	32.0	1,363	2,880	67.4	352	1,172	-	-
1990	4,424	21	0.5	1,325	30.0	1,320	3,078	69.6	402	1,233	-	-
1991	4,618	19	0.4	1,361	29.5	1,357	3,238	70.1	456	1,262	-	-
1992	4,598	21	0.5	1,255	27.3	1,252	3,321	72.2	440	1,263	-	-
1993	4,631	21	0.5	1,179	25.5	1,174	3,431	74.1	412	1,390	509	1,119
1994	4,749	23	0.5	1,160	24.4	1,156	3,565	75.1	405	1,502	496	1,164
1995	4,823	21	0.4	1,115	23.1	1,113	3,687	76.4	426	1,507	500	1,254
1996	4,830	20	0.4	1,050	21.7	1,049	3,760	77.8	425	1,535	522	1,278
1997	4,843	17	0.4	977	20.2	975	3,850	79.5	418	1,554	534	1,343
1998	4,418	14	0.3	828	18.7	827	3,576	80.9	336	1,463	502	1,275
1999	4,485	15	0.3	851	19.0	850	3,619	80.7	329	1,480	501	1,309
2000	4,668	10	0.2	894	19.2	893	3,764	80.6	350	1,513	519	1,381

연도	합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제조업	소계	비율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창고·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2001	4,727	9	0.2	870	18.4	867	3,848	81.4	364	1,468	528	1,488
2002	4,783	10	0.2	838	17.5	835	3,935	82.3	386	1,471	515	1,563
2003	4,753	7	0.1	786	16.5	786	3,960	83.3	406	1,466	515	1,573
2004	4,831	5	0.1	803	16.6	802	4,023	83.3	413	1,435	523	1,653
2005	4,890	5	0.1	792	16.2	791	4,093	83.7	418	1,425	523	1,727
2006	4,906	7	0.1	753	15.3	753	4,145	84.5	419	1,417	525	1,784
2007	4,940	6	0.1	697	14.1	697	4,237	85.8	425	1,359	544	1,909
2008	4,922	4	0.1	606	12.3	605	4,311	87.6	422	1,368	749	1,772
2009	4,835	4	0.1	516	10.7	516	4,315	89.2	361	1,352	753	1,848
2010	4,936	6	0.1	532	10.8	532	4,397	89.1	374	1,340	790	1,894
2011	5,012	7	0.1	517	10.3	517	4,489	89.6	378	1,320	824	1,966
2012	5,036	7	0.1	506	10.0	506	4,523	89.8	353	1,319	826	2,026
2013	5,097	4	0.1	476	9.3	474	4,618	90.6	331	1,331	871	2,085
2014	5,146	3	0.1	495	9.6	493	4,648	90.3	326	1,426	821	2,076
2015	5,135	5	0.1	502	9.8	499	4,629	90.1	324	1,428	808	2,068
2016	5,124	7	0.1	478	9.3	478	4,640	90.6	339	1,359	803	2,140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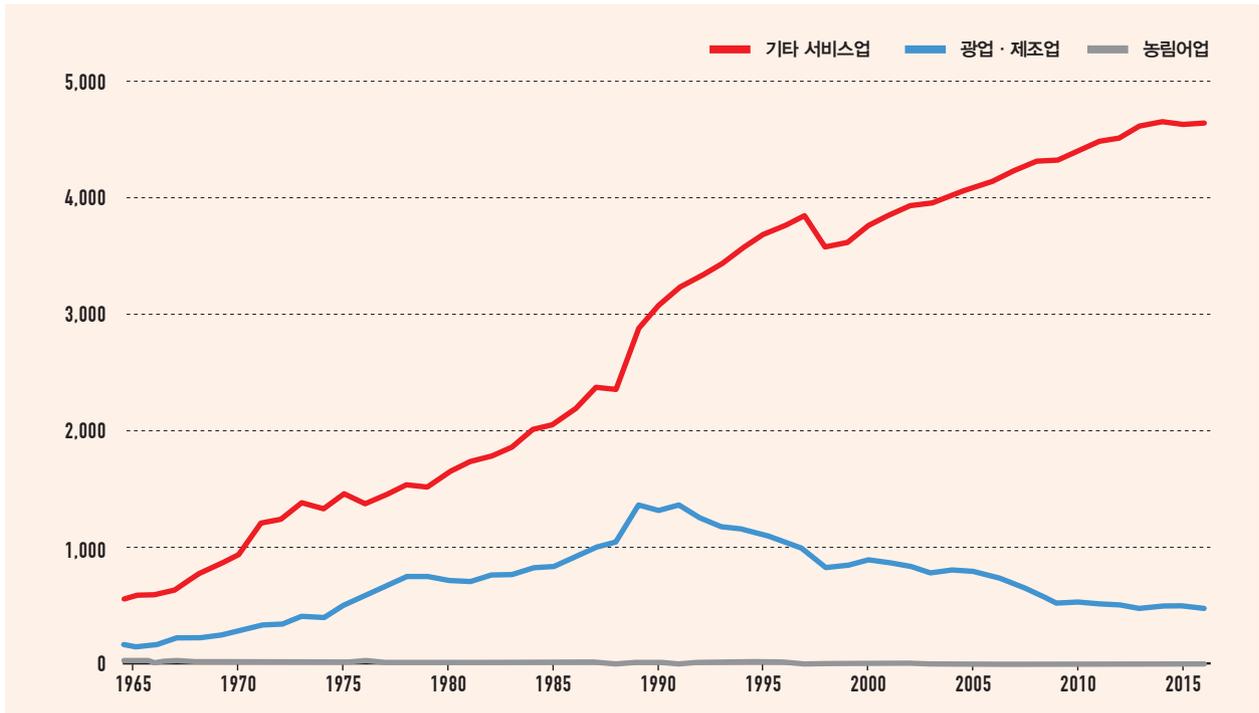
1. 서울시 기준 통계
2.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63~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2. 1965~196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3. 1967~197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76~1978년 : 서울연구원, 2003, 『지표로 본 서울 변천』
5. 1979~198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6. 1984~198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7. 1989~2015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경제 - 고용동향 - 산업별 취업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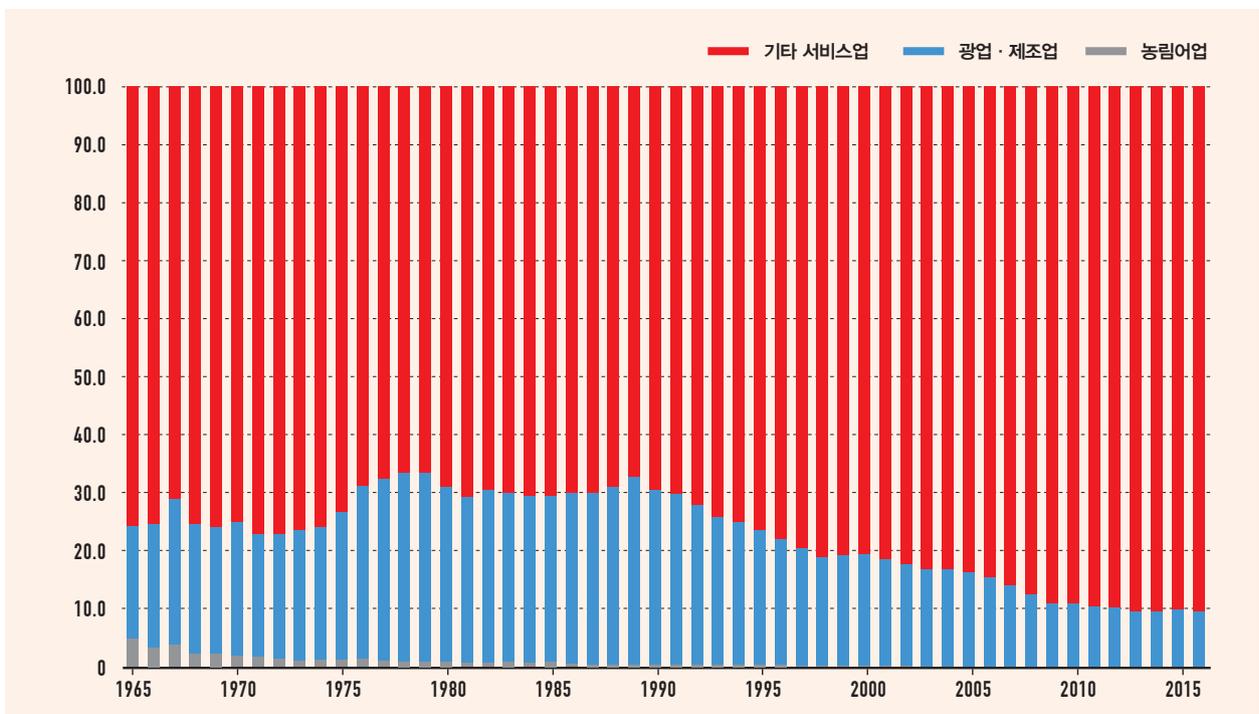
| 그림 2.3-1 |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그림 2.3-2 | 산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퍼센트



단이 들어서면서 제조업 종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차 산업 취업자 수는 절대 종사자 수뿐 아니라 구성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광공업 분야에 종사하였다. 2차 산업 취업자 수는 1979년 32.8퍼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0년까지 30퍼센트 전후의 구성비를 유지하였다.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7년에 100만 명에 도달했고, 1991년에는 최대치인 130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전체 취업자의 9.3퍼센트인 47만 8천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 기간에 걸쳐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이다. 1960년대까지는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1965년 전체 취업자의 75.8퍼센트인 58만 9천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의 4분의 3 정도가 3차 산업에 종사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제조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종사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70퍼센트 내외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에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이 쇠퇴하고 금융, 정보 등이 서울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80.9퍼센트인 357만 6천 명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16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무려 90.6퍼센트에 해당하는 464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취업자 수

표 2.3-2와 그림 2.3-3은 1960년부터 직업별 취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1961~1962년,

1976~1979년은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수록하지 못했다.

직업별 취업구조는 서울의 산업구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차 산업이 1960년 후반부터 크게 감소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농수산직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2차 산업 분야인 생산직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39.8퍼센트가 생산직 근로자였던 1964년이 가장 생산직 취업자 비율이 높은 해였다.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전체 근로자의 약 26~35퍼센트가 생산직에 종사하였다. 2016년에는 26.8퍼센트의 구성비를 보인다.

3차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가운데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6년 전문관리직 및 일반 사무직에 해당하는 비율이 35.4퍼센트로 판매서비스직 34.9퍼센트를 넘어섰다. 2016년 전체 취업자의 48.8퍼센트가 전문관리직 및 일반사무직이다.

특히 사무종사자 수는 1980년대까지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전문직 수요는 증가하고 단순 사무직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며 2016년 전체 취업자의 20.5퍼센트를 차지한다.

판매서비스직은 1960년 전체 취업자의 42.0퍼센트가 종사할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점차 비중이 감소하며 1993년에는 24.1퍼센트까지 줄어들었다. 이후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6년 24.3퍼센트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전문관리직 및 일반사무직, 생산직보다 적은 수치이다.

연도	합계	전문관리직 및 일반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수산직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생산직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계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계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차,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1960	519	106	-	-	53	218	107	111	11	184	-	-	-
1963	702	164	36	49	79	287	142	145	49	203	-	-	-
1964	759	210	10	56	144	214	57	156	33	302	-	-	-
1965	777	205	16	48	140	273	70	203	36	263	-	-	-
1966	793	218	16	53	149	308	119	189	27	241	-	-	-
1967	907	247	18	63	166	334	112	222	36	290	-	-	-
1968	1,026	283	51	58	174	418	155	263	25	300	-	-	-
1969	1,120	367	77	76	213	437	153	284	25	291	-	-	-
1970	1,252	428	95	90	243	451	177	275	30	343	-	-	-
1971	1,576	585	149	126	311	555	175	381	22	413	-	-	-
1972	1,619	529	117	122	290	662	210	451	23	405	-	-	-
1973	1,811	553	81	139	334	719	247	472	21	519	-	-	-
1974	1,755	497	74	122	302	726	248	478	25	507	-	-	-
1975	1,998	596	83	151	362	796	252	544	21	585	-	-	-
1980	2,391	747	31	153	564	900	247	654	20	723	-	-	-
1981	2,461	753	25	138	590	935	258	676	20	753	-	-	-
1982	2,569	786	48	166	572	998	292	706	23	762	-	-	-
1983	2,665	872	55	206	611	986	308	678	21	787	-	-	-
1984	2,856	967	55	264	648	1,076	323	754	17	796	-	-	-
1985	2,926	994	79	231	684	1,100	340	760	24	808	-	-	-
1986	3,130	1,103	113	259	731	1,093	389	704	14	920	-	-	-
1987	3,404	1,204	110	280	814	1,167	431	736	15	1,017	-	-	-
1988	3,415	1,152	92	262	798	1,167	428	739	12	1,084	-	-	-
1989	4,271	1,309	-	-	-	1,556	-	-	22	1,383	-	-	-
1990	4,424	1,421	-	-	-	1,554	-	-	22	1,427	-	-	-
1991	4,576	1,512	-	-	-	1,572	-	-	21	1,470	-	-	-
1992	4,607	1,639	-	-	-	1,468	-	-	22	1,479	-	-	-
1993	4,722	1,926	189	888	849	1,139	-	-	15	1,641	-	-	443
1994	4,894	2,024	212	989	823	1,188	-	-	17	1,665	-	-	481

연도	합계	전문관리직 및 일반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수산직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생산직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계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계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차,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1995	4,880	2,054	197	1,062	795	1,177	-	-	15	1,633	-	-	459
1996	4,898	2,077	200	1,088	789	1,221	-	-	15	1,585	-	-	456
1997	4,907	2,081	194	1,113	774	1,251	-	-	14	1,563	-	-	476
1998	4,452	1,889	178	1,061	650	1,215	-	-	13	1,336	-	-	406
1999	4,463	1,858	150	1,116	592	1,193	-	-	13	1,400	-	-	439
2000	4,668	1,987	156	1,183	648	1,292	653	639	10	1,379	705	283	391
2001	4,727	2,027	180	1,182	665	1,294	643	651	7	1,398	695	289	414
2002	4,783	2,062	186	1,177	699	1,295	632	663	9	1,417	694	295	428
2003	4,753	2,191	192	1,207	792	1,248	613	635	6	1,309	603	281	425
2004	4,831	2,210	179	1,249	782	1,257	641	616	6	1,359	614	297	448
2005	4,890	2,017	160	1,041	816	1,369	587	782	4	1,501	606	308	587
2006	4,906	2,067	148	1,109	810	1,349	606	743	6	1,485	569	316	600
2007	4,940	2,156	149	1,189	818	1,302	569	733	6	1,476	553	309	614
2008	4,922	2,221	133	1,280	808	1,301	590	711	5	1,395	504	319	572
2009	4,835	2,277	156	1,278	843	1,276	553	723	5	1,277	423	302	552
2010	4,936	2,291	175	1,251	865	1,250	549	701	8	1,387	467	306	614
2011	5,012	2,410	143	1,292	975	1,211	549	662	9	1,382	477	316	589
2012	5,036	2,444	122	1,284	1,038	1,209	555	654	11	1,373	459	322	592
2013	5,097	2,548	113	1,373	1,062	1,215	526	689	6	1,329	417	323	589
2014	5,146	2,512	103	1,380	1,029	1,286	536	750	6	1,342	432	313	597
2015	5,135	2,489	77	1,366	1,046	1,283	504	779	7	1,357	449	314	594
2016	5,124	2,500	79	1,370	1,051	1,243	523	720	8	1,373	451	318	604

주석

1. 서울시 기준 통계
2. '-'는 자료 없음
3. 1961~1962년, 1976~1979년은 자료 없음

4. 1967~197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5. 1980~198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6. 1984~198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7. 1989~199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8. 1993~199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5회 1995년 서울통계연보(1994년 기준)

9. 1995~199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9회 1999년 서울통계연보(1998년 기준)

10. 199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40회 2000년 서울통계연보(1999년 기준)

11. 2000~200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43회 2003년 서울통계연보(200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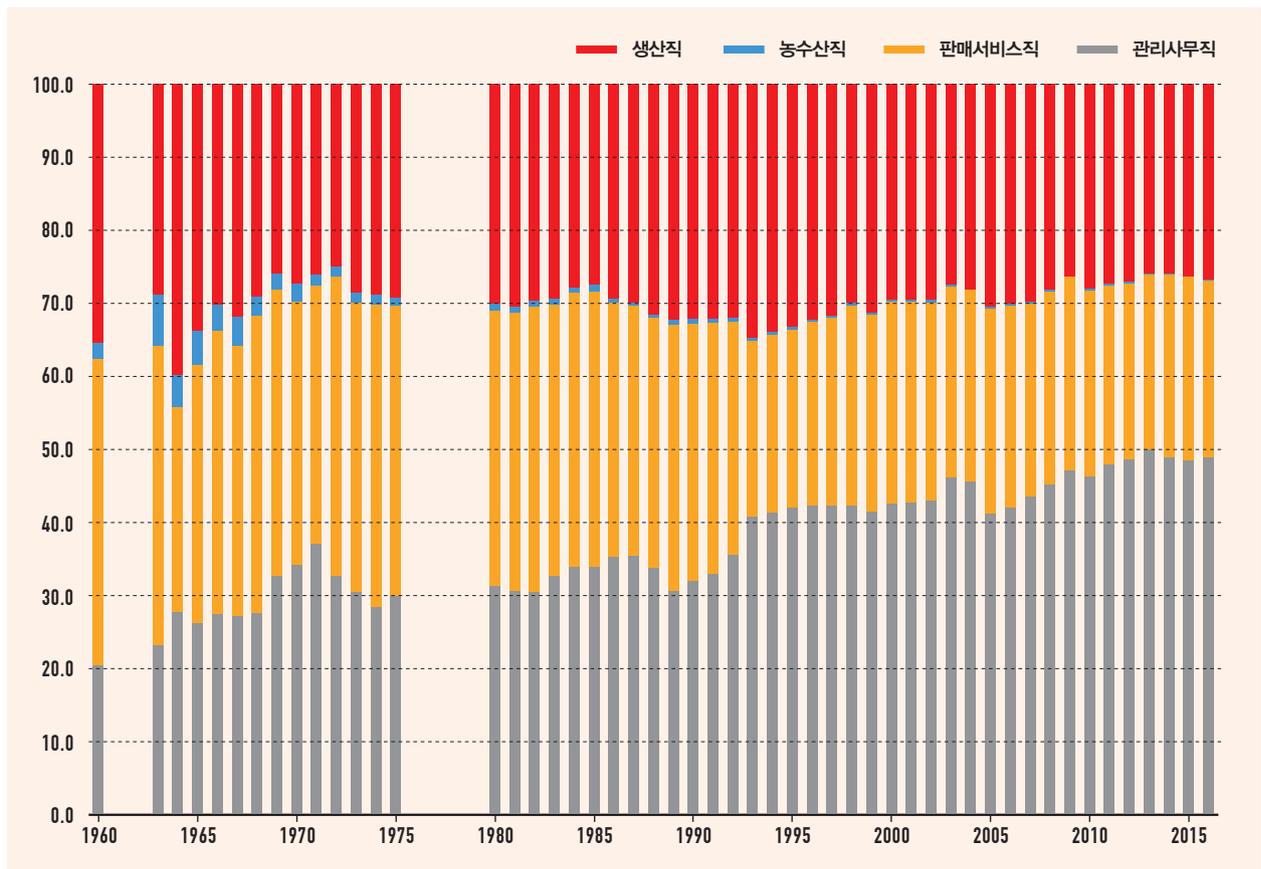
12. 2003~200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13. 2005~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경제 - 고용동향 - 직업별취업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자료출처

1. 1960년 : 서울연구원, 2010, 『자료로 본 서울 변천 II』
2. 1963~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3. 1965~196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에너지 소비

2-4

유류와 무연탄 소비량

무연탄 총 사용량은 1986년 910만 8천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상당히 적은 양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더욱 급격한 소비 감소를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사용 연료가 무연탄에서 유류로 대부분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10만 명당 소비하는 무연탄은 2,200톤에 불과하다.

유류 소비량은 199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1997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류 소비량은 무연탄 사용량이 감소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경유와 벙커시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후 1980~1995년 사이 벙커시유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한 반면, 경유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유도

| 표 2.4-1 | 유류와 무연탄 소비량

단위: 천 배럴, 천 톤

연도	등유	경유	벙커시유	기타	휘발유		무연탄	
					전체	인구 10만 명당 소비량	전체	인구 10만 명당 소비량
1965	62	455	0	302	408	11.8	-	-
1966	123	549	481	399	653	17.2	-	-
1967	512	311	2,036	195	951	24.0	-	-
1968	519	670	2,653	149	1,321	30.5	3,453	79.7
1969	881	1,324	2,435	80	1,723	36.1	4,089	85.6
1970	1,141	2,053	3,012	73	1,777	32.7	4,701	86.5
1971	1,515	2,550	3,757	50	1,966	33.6	4,918	84.1
1972	960	3,046	3,980	70	2,230	36.7	4,797	78.9
1973	871	3,301	4,488	77	2,523	40.1	4,084	64.9

연도	등유	경유	빙커시유	기타	휘발유		무연탄	
					전체	인구 10만 명당 소비량	전체	인구 10만 명당 소비량
1974	597	2,838	3,971	47	1,379	21.1	6,723	102.8
1975	926	3,167	3,891	30	1,269	18.4	6,862	99.6
1976	0	0	0	0	0	0.0	6,861	94.6
1977	0	0	0	0	0	0.0	7,446	98.9
1978	2,156	6,630	12,169	103	2,991	38.2	7,374	94.3
1979	3,002	7,188	12,479	195	3,360	41.4	6,779	83.5
1980	2,749	7,802	10,503	183	2,419	28.9	7,460	89.2
1981	2,650	8,108	7,950	123	2,054	23.7	7,429	85.6
1982	2,222	8,705	9,280	3,037	1,651	18.5	6,808	76.4
1983	2,361	11,437	11,342	3,743	1,573	17.1	7,051	76.6
1984	2,730	14,449	11,096	3,701	2,081	21.9	8,212	86.4
1985	3,003	12,459	8,208	2,127	3,107	32.2	8,766	90.9
1986	2,983	13,025	10,044	2,615	3,959	40.4	9,108	93.0
1987	2,995	13,390	9,125	1,918	5,136	51.4	8,728	87.4
1988	3,412	18,003	12,766	5,463	6,821	66.3	8,232	80.0
1989	4,885	18,234	11,217	7,316	8,513	80.5	6,792	64.2
1990	7,782	22,206	18,998	5,458	9,990	94.1	6,202	58.4
1991	7,112	25,069	15,832	4,548	11,493	105.4	4,792	43.9
1992	10,627	34,430	13,185	7,423	13,198	120.3	3,444	31.4
1993	14,846	39,217	10,103	9,534	16,559	151.6	2,339	21.4
1994	9,268	25,361	6,600	13,032	13,705	126.9	1,332	12.3
1995	11,558	30,428	15,609	666	15,153	143.0	781	7.4
1996	13,199	28,735	14,265	18,139	15,785	150.8	453	4.3
1997	12,395	26,181	6,827	36,141	15,831	152.4	292	2.8
1998	9,684	20,783	8,543	31,933	13,401	129.8	255	2.5
1999	10,902	18,217	1,509	31,964	14,242	138.0	218	2.1
2000	8,277	15,934	1,668	27,600	13,183	127.1	226	2.2
2001	7,258	17,017	2,700	30,759	12,247	118.5	223	2.2
2002	5,390	13,515	3,091	26,360	12,417	120.8	193	1.9
2003	3,589	11,063	1,584	24,962	11,338	110.3	180	1.8
2004	2,719	11,613	1,599	25,938	10,499	102.1	209	2.0

연도	등유	경유	빙커시유	기타	휘발유		무연탄	
					전체	인구 10만 명당 소비량	전체	인구 10만 명당 소비량
2005	2,218	11,480	1,594	7,568	10,415	101.1	310	3.0
2006	1,628	11,081	1,289	10,705	10,496	101.3	320	3.1
2007	1,400	11,445	1,582	11,667	10,644	102.1	298	2.9
2008	1,270	10,892	631	11,199	10,353	99.0	297	2.8
2009	1,054	9,528	387	11,748	10,580	101.1	259	2.5
2010	1,140	8,879	304	13,009	10,677	101.0	248	2.3
2011	968	9,251	492	14,570	10,408	98.9	247	2.3
2012	808	8,507	1,287	14,912	10,243	98.1	259	2.5
2013	664	9,713	2,280	14,765	10,106	97.3	290	2.8
2014	502	11,771	1,849	15,189	9,932	95.8	240	2.3
2015	505	13,091	1,156	15,676	9,981	96.9	222	2.2
2016	480	13,621	763	15,800	9,998	98.0		0.0

주석

1. 서울시 기준 통계
2. 기타는 경질중유, 중유, 제트유, 용제, 아스팔트유, 납사, AVI-GAS임(LPG 제외)
3. 1976~1977년은 유류소비량 통계가 없음

자료출처

*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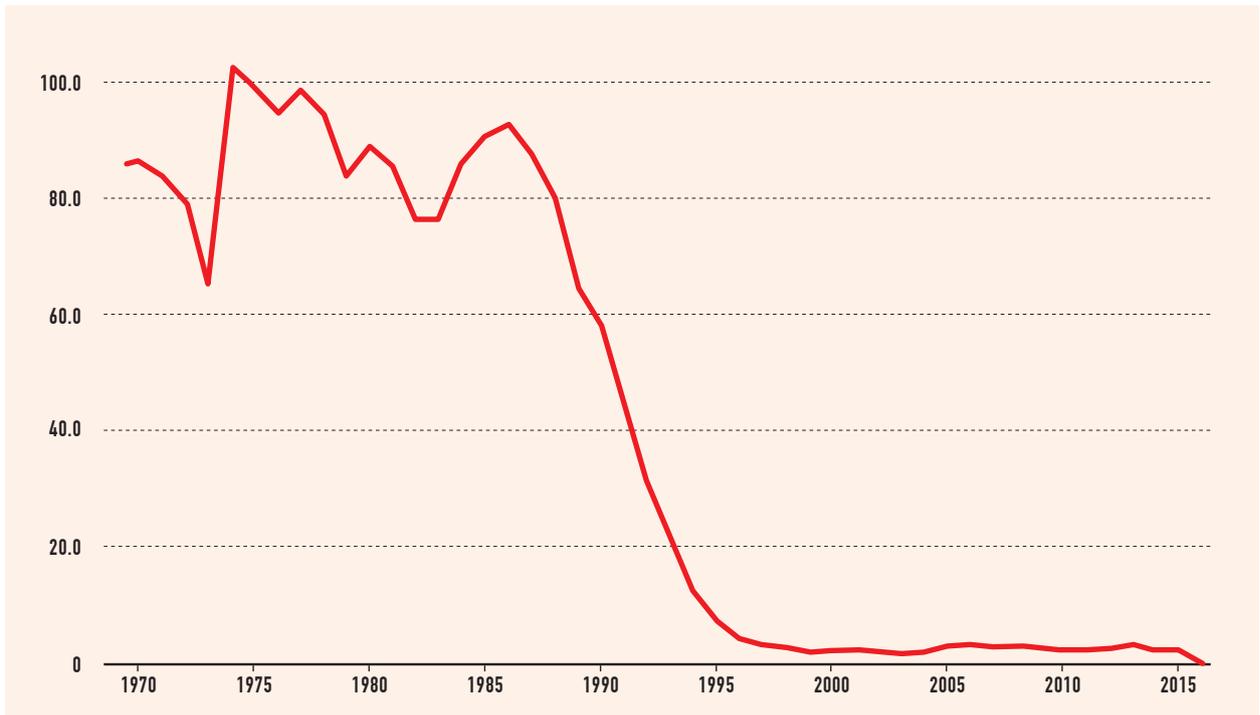
1. 1965~196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0회 1970년 서울통계연보(1969년 기준)
2. 1970~197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80~198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4. 198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5회 1985년 서울통계연보(1984년 기준)
5. 1985~199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6. 1994~200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7. 2005~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산업 - 에너지 - 석유류 소비량(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무연탄

1. 1968~1980년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2. 1981~2015년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에너지통계서비스 - 석탄 - 소비 - 지역별 무연탄 소비 <http://www.kesis.net/>

| 그림 2.4-1 | 인구 10만 명당 무연탄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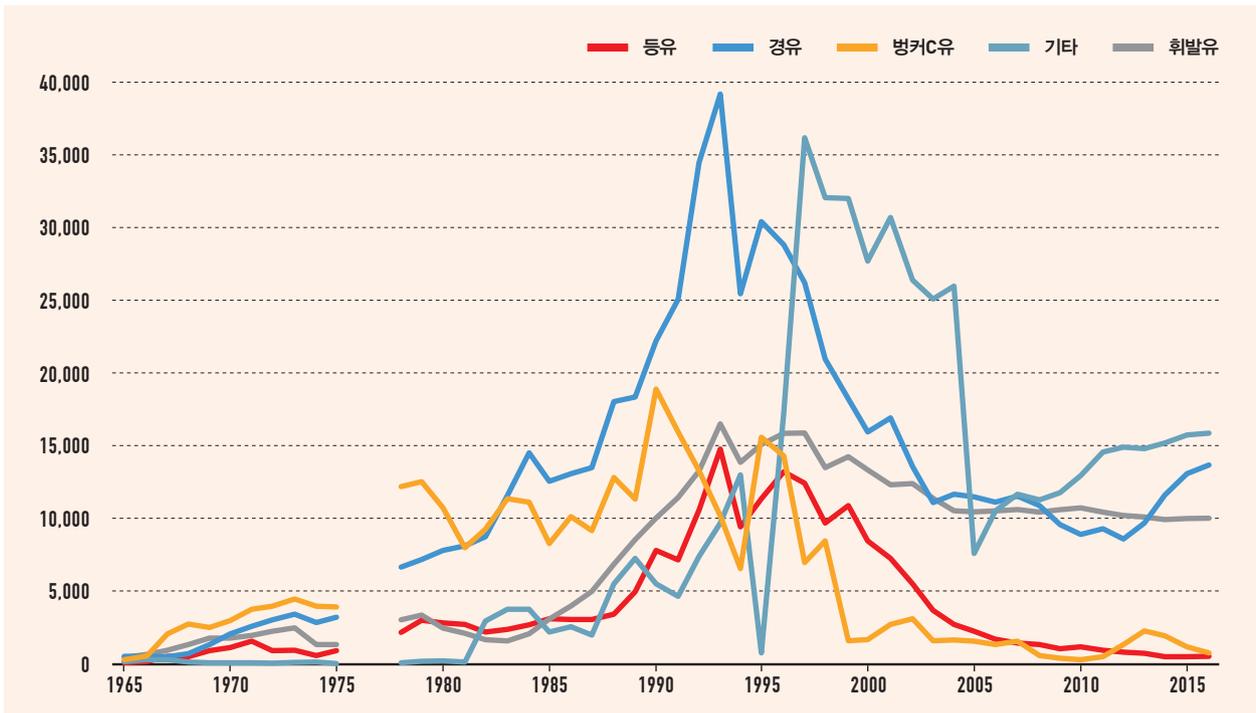
단위: 천 톤



| 그림 2.4-2 | 인구 10만 명당 휘발유 소비량

단위: 천 배럴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류이다.

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유류는 휘발유이다. 휘발유 소비량의 증가는 주로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구 10만 명당 휘발유 소비량은 9만 8천 배럴이다.

연탄과 유류 가격

연탄 가격과 관련한 자료는 1970년부터 얻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서민들의 주요 연료원이던 연탄의 1970년 가정도 가격은 18원이었고, 조금씩 상승하여 1979년에 85원이 되었다. 이후 1980년에 100원대로 상승하였고, 1990년에 200원으로 인상되었다. 연탄 가격은 1974년과 1980년 전후에 가장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시기의 발생한 석유파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석유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생산원가가 상승한 것과 동시에 비싼 석유 대신 무연탄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후에는 연탄의 가정도 가격이 제공되지 않아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설명한다. 1988~2001년 동안 공장도 가격 기준 연탄 가격은 167원으로 동결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무연탄을 대체하여 일반 가정의 연료원으로 사용되면서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들어서 184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 373.5원으로 상승한 이후 2011년까지 변동하지 않았다.

연탄 가격의 인상률은 공장도가, 도소매가, 가정도가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체로 공장도가 인상률에 비해 실제 가정에서 구입하는 가격 인상률이 낮아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연도	유류			연탄		
	실내 등유	자동차 경유	취발유	공장	판매소	가정
1970	-	-	-	14.0	15.5	18.0
1971	-	-	-	16.0	17.5	20.0
1972	-	-	-	18.0	19.5	20.0
1973	-	-	-	-	-	-
1974	-	-	-	23.5	26.5	30.0
1975	-	-	-	28.2	31.2	35.0
1976	-	-	-	29.2	32.2	36.0
1977	-	-	-	49.5	54.5	60.0
1978	-	-	-	-	-	-
1979	-	-	-	70.0	80.0	85.0
1980	-	-	-	96.5	109.0	115.0
1981	257.7	245.9	0.0	131.0	145.5	153.0
1982	292.0	278.0	0.0	135.0	150.0	158.0
1983	292.3	278.3	0.0	135.0	150.0	158.0
1984	291.0	277.0	0.0	135.0	150.0	158.0
1985	291.0	277.0	0.0	145.0	156.0	171.0
1986	249.2	238.3	0.0	151.0	168.0	178.0
1987	234.7	225.1	547.0	160.0	177.0	187.0
1988	194.7	187.3	445.6	167.3	185.0	195.0
1989	186.0	179.0	379.8	167.3	185.0	195.0
1990	191.3	179.0	383.5	167.3	185.0	200.0
1991	226.9	179.0	482.2	167.3	-	-
1992	231.1	195.1	546.0	167.3	-	-
1993	254.0	210.0	610.0	167.3	-	-
1994	252.3	219.5	611.0	167.3	-	-
1995	261.6	231.5	598.0	167.3	-	-
1996	314.3	294.1	675.9	167.3	-	-
1997	373.5	376.2	838.7	167.3	-	-

연도	유류			연탄		
	실내 등유	자동차 경유	휘발유	공장	판매소	가정
1998	231.1	195.1	546.0	167.3	-	-
1999	254.0	210.0	610.0	167.3	-	-
2000	252.3	219.5	611.0	167.3	-	-
2001	261.6	231.5	598.0	167.3	-	-
2002	314.3	294.1	675.9	-	-	-
2003	373.5	376.2	838.7	184.0	201.8	-
2004	524.2	553.5	1,122.6	184.0	201.8	-
2005	491.2	521.8	1,191.9	184.0	201.8	-
2006	559.6	612.8	1,248.4	-	-	-
2007	580.2	644.6	1,280.0	221.0	238.8	-
2008	554.4	677.6	1,269.1	287.3	305.0	-
2009	638.8	772.0	1,294.8	373.5	391.5	-
2010	752.2	907.9	1,365.3	-	-	-
2011	871.0	1,079.7	1,432.3	373.5	391.3	-
2012	931.9	1,228.2	1,492.4	-	-	-
2013	932.2	1,272.7	1,525.9	-	-	-
2014	1,238.7	1,614.4	1,692.1	-	-	-
2015	947.4	1,299.6	1,510.4	-	-	-

주석

1. 전국 기준 통계
2. 실내 등유, 자동차 경유, 휘발유는 주유소 판매가격(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3. 서울시 3.6킬로그램 연탄 가격 기준(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4. '-'는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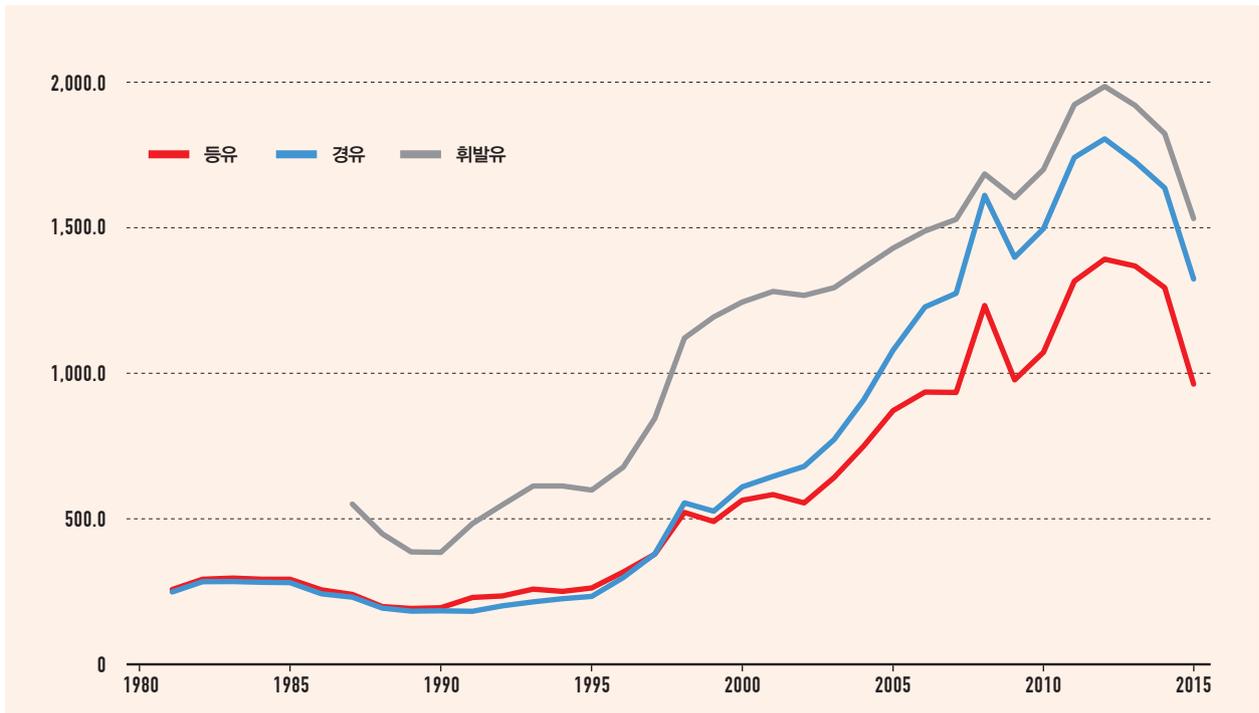
자료출처

*** 유류**

1. 1981~2015년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주제별 - 석유 - 가격 -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http://www.kesis.net/>

*** 연탄**

1. 1970~1975년 : 서울연구원, 2003, 『지표로 본 서울 변천』
2. 1976~2011년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주제별 - 석탄 - 가격 - 유통 단계별 연탄 가격 <http://www.kesis.net/>



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류 가격은 1981년부터 자료를 구득하였다. 유류 가격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감소하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외환위기 때 다소 감소한 유류 가격은 다시 증가하여 2008년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유류별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휘발유가 등유와 경유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왔다.

유류별 가격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 대

비 2015년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유류는 경유이다. 1981년 리터당 245.9원이던 경유는 2015년에 1,299원으로 약 5.3배 증가하였다. 등유는 1981년 257.7원이었으나 2015년 947.4원으로 약 3.7배 상승했다. 휘발유는 통계가 있는 1987년 547.0원에서 2015년 1,510.4원으로 약 2.8배 상승했다.

주택건설 실적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수는 1965년 약 1만 7천 호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약 3만 호가 건설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한 해 약 5만 호가 건설되었다. 1986년에는 12만 호가 넘는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특히 1990~1997년 동안 매년 평균 10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주택건설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은 1980년대 후반 정부의 강력한 주택건설 촉진정책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중산층의 폭발적인 주택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국제통화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1998년에는 주택건설 수가 3만 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10만 호 이상의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04년 이후 매년 5만 호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9만 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서울에서 매년 1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때, 뉴욕에서는 1만 호 정도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 시기 서울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주택건설이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서울의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은 당시의 주택 사정, 부동산시장 및 정부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 말은 서울의 강남 지역개발이 한참이던 시기로 투기 수요 발생과 함께 주택건설 붐이 일어난 시기이다. 특히

1978년에 건설 물량이 약 7만 9천 호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다시 침체기로 들어서는데, 이는 강남 지역개발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78년 8월 8일 발표한 소위 8.8 조치와 부동산시장 붕괴에 기인한다.

1986년 일시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약 12만 호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1990년대 초까지 주택건설의 침체기가 계속되었다. 주택건설은 1990년대 초반에 다시 활기를 띠는데, 이는 198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1990~1996년까지 거의 매년 10만 호 이상씩 주택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듬해인 1998년에는 주택건설량이 2만 8천 호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뒤 2002년 주택건설량이 약 16만 호로 다시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IMF사태 이후 주택건설의 급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보류되었던 주택건설 수요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1970~1980년대에 건설되었던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되기 시작한 것도 주택공급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해 주택건설 실적이 감소하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사전 공급되면서 2007년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이 늘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 증가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2008년 주택건설 실적은

연도	총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65	17,298	-	-	-	-	-	-	-	-
1966	19,556	-	-	-	-	-	-	-	-
1967	19,804	-	-	-	-	-	-	-	-
1968	27,739	-	-	-	-	-	-	-	-
1969	30,682	-	-	-	-	-	-	-	-
1970	36,280	-	-	-	-	-	-	-	-
1971	32,552	-	-	-	-	-	-	-	-
1972	24,029	-	-	-	-	-	-	-	-
1973	35,681	-	-	-	-	-	-	-	-
1974	45,182	34,250	75.8	9,751	21.6	1,181	2.6	-	-
1975	52,925	28,902	54.6	22,794	43.1	1,279	2.4	-	-
1976	55,847	27,271	48.8	23,926	42.8	4,650	8.3	-	-
1977	61,909	35,529	57.4	22,413	36.2	3,967	6.4	-	-
1978	79,574	32,981	41.4	37,361	47.0	9,232	11.6	-	-
1979	52,354	13,992	26.7	27,070	51.7	11,292	21.6	-	-
1980	53,375	24,869	46.6	22,791	42.7	5,715	10.7	-	-
1981	40,526	5,863	14.5	31,488	77.7	3,175	7.8	-	-
1982	63,220	11,385	18.0	36,048	57.0	15,787	25.0	-	-
1983	51,455	21,250	41.3	24,077	46.8	6,128	11.9	-	-
1984	46,060	7,193	15.6	30,297	65.8	8,570	18.6	-	-
1985	52,529	8,986	17.1	33,694	64.1	9,849	18.7	-	-
1986	123,595	8,138	6.6	77,148	62.4	38,309	31.0	-	-
1987	62,278	11,487	18.4	39,988	64.2	10,803	17.3	-	-
1988	54,443	16,065	29.5	21,987	40.4	16,391	30.1	-	-
1989	76,273	18,045	23.7	45,093	59.1	13,135	17.2	-	-
1990	120,371	34,040	28.3	53,855	44.7	32,476	27.0	-	-
1991	103,497	22,742	22.0	39,046	37.7	41,709	40.3	-	-
1992	106,441	24,271	22.8	61,260	57.6	20,910	19.6	-	-

연도	총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93	111,656	1,508	1.4	60,669	54.3	49,479	44.3	-	-
1994	86,220	15,307	17.8	65,750	76.3	5,163	6.0	-	-
1995	103,617	10,375	10.0	76,988	74.3	7,499	7.2	8,755	8.4
1996	104,801	13,041	12.4	72,443	69.1	8,732	8.3	10,585	10.1
1997	70,446	4,800	6.8	52,023	73.8	6,997	9.9	6,626	9.4
1998	28,994	946	3.3	24,619	84.9	1,602	5.5	1,827	6.3
1999	61,460	1,082	1.8	54,146	88.1	1,416	2.3	4,816	7.8
2000	96,936	2,478	2.6	72,149	74.4	2,763	2.9	19,546	20.2
2001	116,590	3,598	3.1	39,420	33.8	2,971	2.5	70,601	60.6
2002	159,767	4,707	2.9	51,815	32.4	2,827	1.8	100,418	62.9
2003	115,755	2,068	1.8	83,611	72.2	924	0.8	29,152	25.2
2004	58,122	983	1.7	49,587	85.3	294	0.5	7,258	12.5
2005	51,797	812	1.6	44,084	85.1	270	0.5	6,631	12.8
2006	39,694	896	2.3	30,351	76.5	513	1.3	7,934	20.0
2007	62,842	774	1.2	50,028	79.6	455	0.7	11,585	18.4
2008	48,417	1,044	2.2	21,938	45.3	705	1.5	24,730	51.1
2009	36,090	1,226	3.4	26,626	73.8	328	0.9	7,910	21.9
2010	69,190	2,133	3.1	51,370	74.2	298	0.4	15,389	22.2
2011	88,060	2,063	2.3	47,107	53.5	1,045	1.2	37,845	43.0
2012	86,123	1,697	2.0	43,002	49.9	1,699	2.0	39,725	46.1
2013	77,621	1,444	1.9	45,104	58.1	699	0.9	30,374	39.1
2014	65,249	1,627	2.5	29,009	44.5	1,022	1.6	33,591	51.5
2015	101,235	2,419	2.4	41,351	40.8	1,011	1.0	56,454	55.8
2016	74,739	3,758	5.0	25,226	33.8	686	0.9	45,069	60.3

주석

1. '-'는 자료 없음
2. 1975년, 1978년, 1979년 자료는 농촌주택 및 기타 주택을 단독주택에 포함
3. 1973년의 주택건설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건설통계편람(1974)에 정 보가 누락됨.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2010)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값 사 용함
4. 1987~1994년에 해당하는 건설통계편람에는 시도별 주택건설 실적에 대 한 정보가 없어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2010)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값을 사용함

자료출처

1. 1965~1972년 : 건설통계편람(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 가능.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2. 1973년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단 해당 원자료 출처 확인 불가)
3. 1974~1986년 : 해당 연도 건설통계편람
국가기록원에서 확인 가능.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4. 1987~1994년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단 해당 원자료 출처 확인 불가)
5. 1995~2016년 : 국토교통 통계누리 -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주택건설 실적이 다시 증가하여 2015년 주택건설 실적은 10만 호를 넘었으며, 2016년에 약 7만 4천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서 소형주택이 늘고, 다세대·다가구 등의 건립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매년 건설되는 주택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건설되는 주택 유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이었으며, 당시만 해도 단독주택이 가장 보편적인 주택 양식이었다. 단독주택의 집계에는 통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므로 순수한 단독주택의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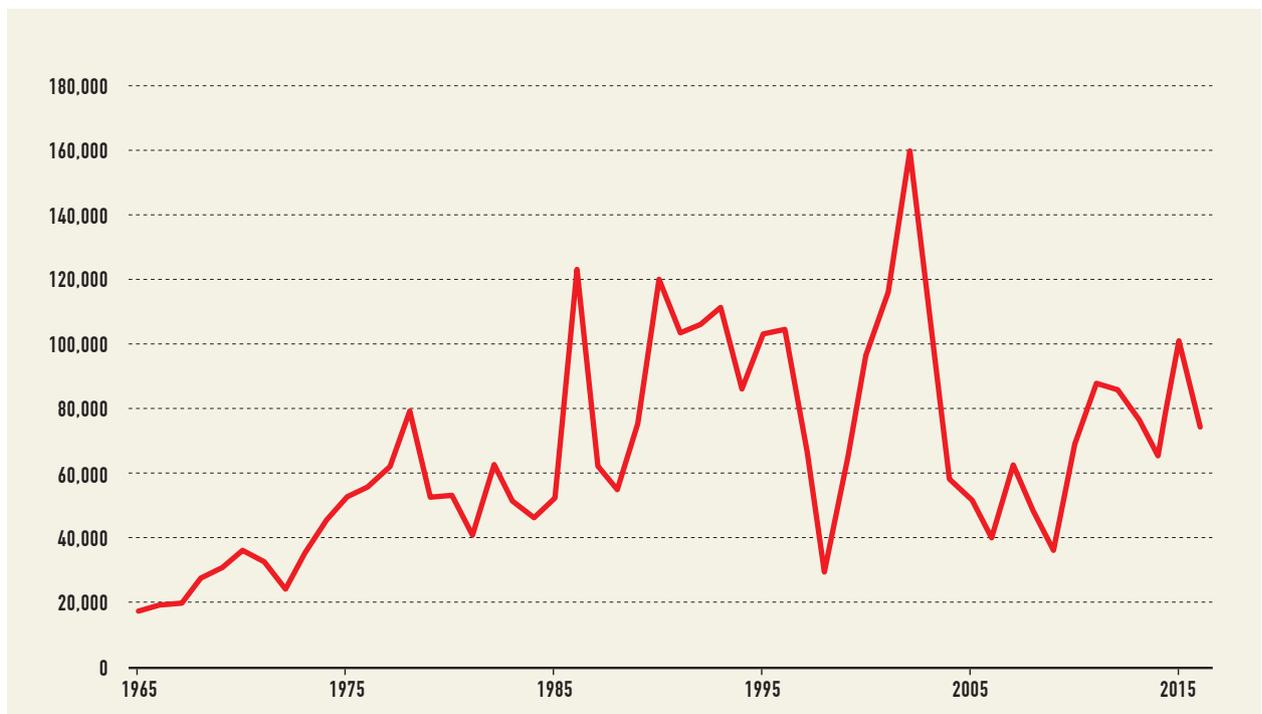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 건설량은 급감하고 있다. 즉 1979년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건설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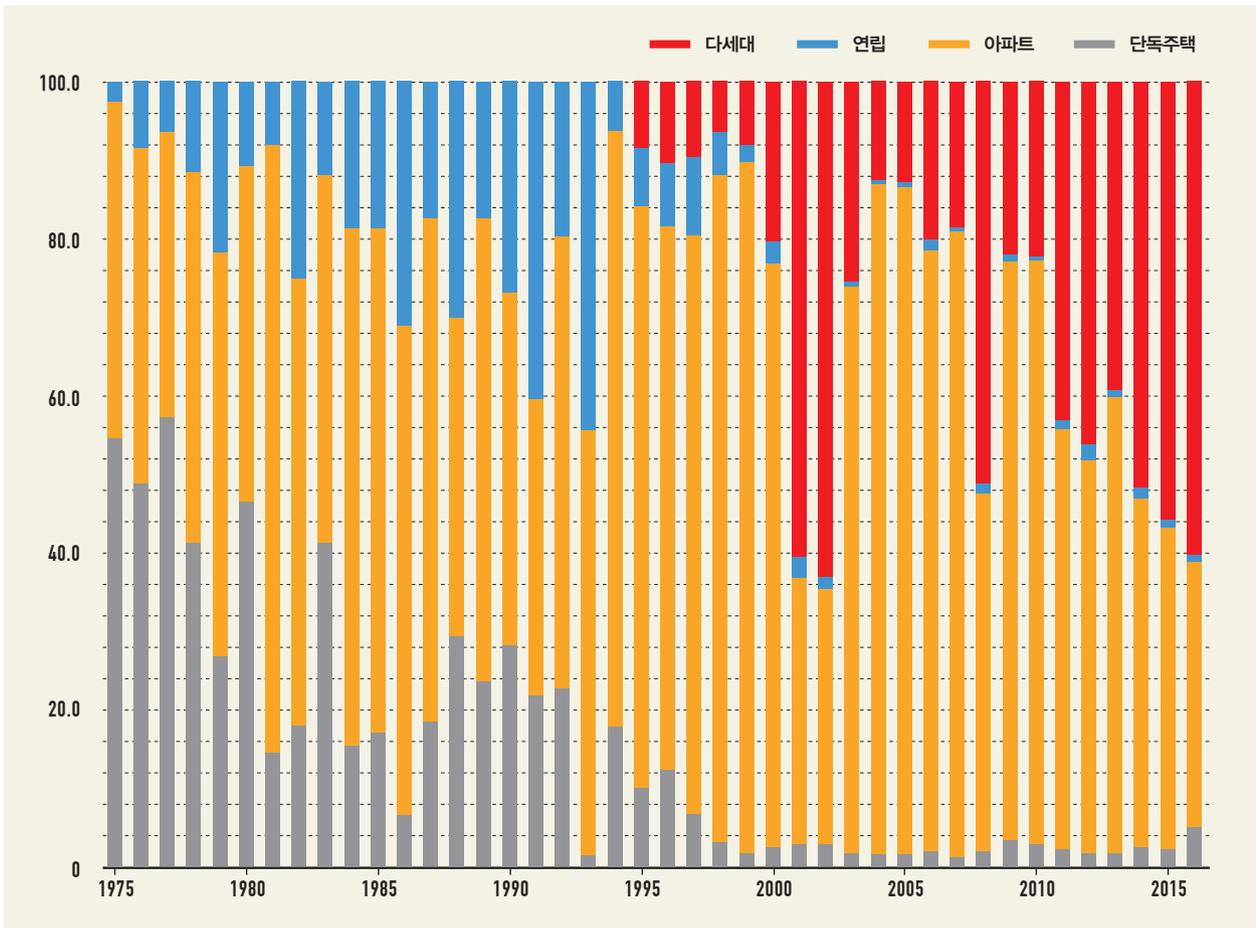
반 10퍼센트 미만 수준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1.6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반면 아파트 건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강남 개발과 함께 아파트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1981년 이후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시장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70퍼센트 이상이 아파트이며, 1999년에는 88.1퍼센트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2001년 아파트의 건설 비중이 급감하고 다세대주택이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급격한 변화가 잠시 있었으나, 2003년 아파트의 건설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으로 다시 급증하였으며, 2008년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70퍼센트대를 상회하였다. 2011년 아파트의 건설 비중은 53.5퍼센트로 하락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33.8퍼센트를 나타냈다.

1970년대에는 연립주택도 활발히 건설되었는데, 특

| 그림 3.1-1 |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호





히 1979년에 전체 주택 공급량의 21.6퍼센트가 연립주택이었다. 연립주택 건설은 매년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1993년 전체 주택 공급량의 4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주요한 주택 유형이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공급량의 0.9퍼센트에 불과하다.

연립주택 공급의 감소는 다세대주택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 실제로 연립주택 건설이 감소한 1994년 이후부터 다세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세대주택 공급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주택건설 실적의 62.9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4년 51.5퍼센트로 아파트 건설 물량을 추월하였다.

2016년 다세대주택 공급은 전체 주택건설 실적의 60.3퍼센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보급률

지난 20세기 동안 서울의 주택보급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 3.1-2는 일제강점기 경성일보사에서 발행한 『경성연감』,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통계연보』,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주택핸드북』에서 제시된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자료의 출처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자료의 기록을 따랐다.

연도	기존 산정방식			변경된 산정방식		
	주택수	가구수	주택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주택보급률
1926	64,889	68,862	94.2			
1931	69,453	77,701	89.4			
1932	57,965	78,261	74.1			
1933	70,599	79,519	88.8			
1934	68,186	80,961	84.2			
1935	101,767	131,239	77.5			
1936	107,946	138,583	77.9			
1944	132,000	220,938	59.8			
1960	267,889	433,445	61.8			
1961	275,436	485,129	56.8			
1962	306,289	554,136	55.3			
1963	322,386	597,132	54.0			
1964	331,133	633,026	52.3			
1965	345,657	649,290	53.2			
1966	361,943	724,043	50.0			
1967	406,119	754,261	53.8			
1968	506,810	837,362	61.7			
1969	543,645	961,491	56.5			
1970	583,612	1,029,483	56.7			
1975	744,247	1,321,160	56.3			
1980	968,133	1,724,212	56.1			
1985	1,176,000	2,126,000	55.3			
1990	1,458,000	2,518,000	57.9			
1995	1,728,000	2,541,000	68.0			
1996	1,787,000	2,563,000	69.7			
1997	1,864,000	2,610,000	71.4			
1998	1,880,000	2,659,000	70.7			
1999	1,923,000	2,710,000	71.0			
2000	1,973,000	2,548,000	77.4			

연도	기존 산정방식			변경된 산정방식		
	주택수	가구수	주택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주택보급률
2001	2,032,000	2,550,000	79.7			
2002	2,103,000	2,551,000	82.4			
2003	2,203,000	2,553,000	86.3			
2004	2,278,000	2,554,000	89.2			
2005	2,321,949	2,587,500	89.7	3,102,404	3,309,900	93.7
2006	2,369,743	2,596,800	91.3	3,151,268	3,349,700	94.1
2007	2,391,036	2,604,800	91.8	3,172,505	3,403,200	93.2
2008	2,451,082	2,612,800	93.8	3,231,707	3,453,600	93.6
2009	2,478,582	2,620,800	94.6	3,257,736	3,500,900	93.1
2010	2,525,210	2,610,400	96.7	3,399,773	3,504,300	97.0
2011	2,576,041	2,617,000	98.4	3,449,176	3,552,500	97.1
2012	2,625,932	2,622,900	100.1	3,497,951	3,594,600	97.3
2013	2,677,967	2,629,200	101.9	3,547,725	3,637,600	97.5
2014	2,736,092	2,635,800	103.8	3,603,751	3,681,500	97.9
2015				3,633,021	3,784,500	96.0

주석

- 1961~1969년의 주택보급률은 해당 연도 서울통계연보(간행물)에 정보가 누락되어,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2010)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값을 사용함
- 2005년 이전과 이후의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기존 산정방식과 변경된 산정방식 모두 표기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도의 주택보급률은 추정치임
- 기존 산정방식(1960~2014년)
 -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변경된 산정방식(2005~2014년)
 -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일반가구수×100)
 - 일반가구수: 보통가구 + 1인 가구 + 5인 이하 비혈연가구
 - 주택수: 현행 주택수 + 다가구주택의 거주호수별로 집계한 수

자료출처

- 1926~1944년: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 1960년, 1970년, 1975년, 1980년: 대한주택공사, 1986, 「주택핸드북」
- 1961~1969년: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 1985년, 1990년, 1995~1999년: 대한주택공사, 2000, 「주택핸드북」
- 2000~2004년: 대한주택공사, 2006, 「도시주택핸드북」
- 2005~2015년: 서울통계-주제별-주택·건설-주택 현황-주택 현황 및 보급률(기존 산정방식)/주택 현황 및 보급률(변경된 산정방식)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따라서 각기 다른 자료를 취합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926~1944년, 1961~1969년 자료는 『지표로 본 서울 변천 II』(2010년)를 참고하였으나 1926~1944년에 해당하는 원자료인 경성일보사에서 발행한 『경성연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1961~1969년에 해당하는 원자료인 『서울통계연보』에서도 주택 부족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표로 본 서울 변천 II』(201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 3.1-2는 지난 20세기 동안 서울의 주택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서울의 주택수는 6만 호를 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주택보급률은 94.2퍼센트로 보급률 측면으로만 본다면 주택 사정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해방 무렵인 1944년 서울의 주택수는 약 13만 호에 이르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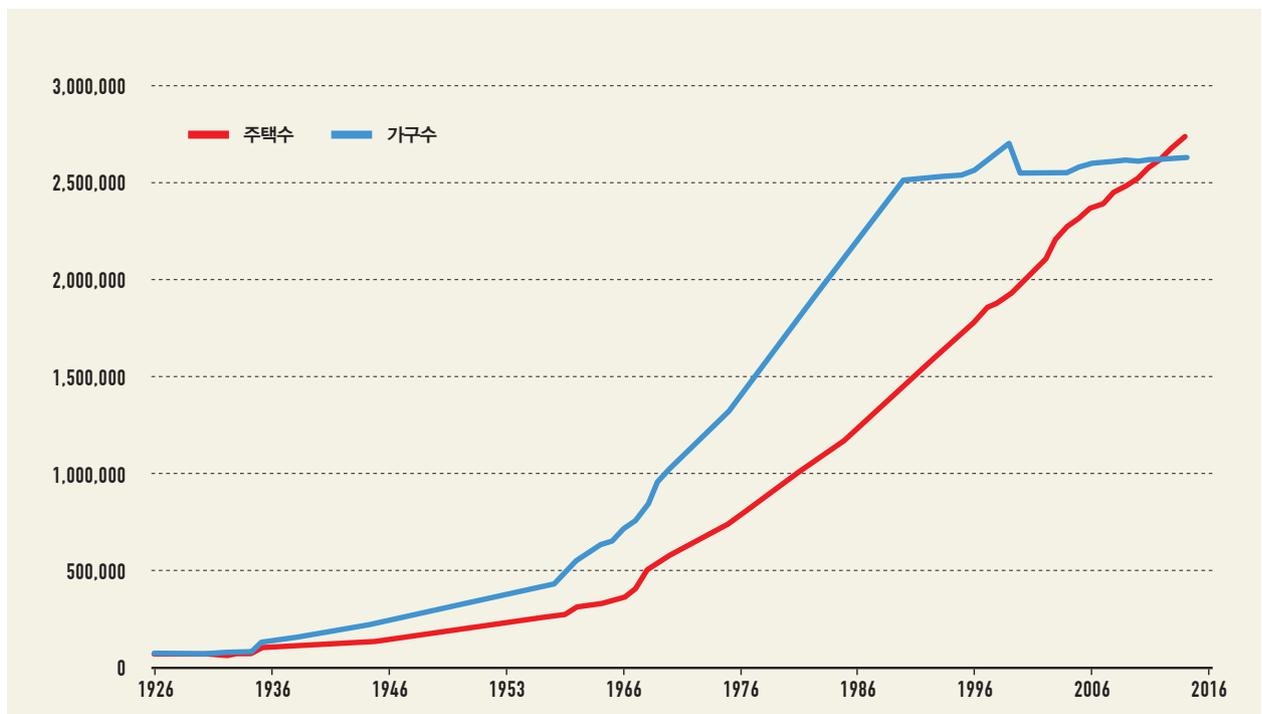
나, 일제강점기 후반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보급률은 약 60퍼센트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악화된 주택 사정은 일제강점기 이후 199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70퍼센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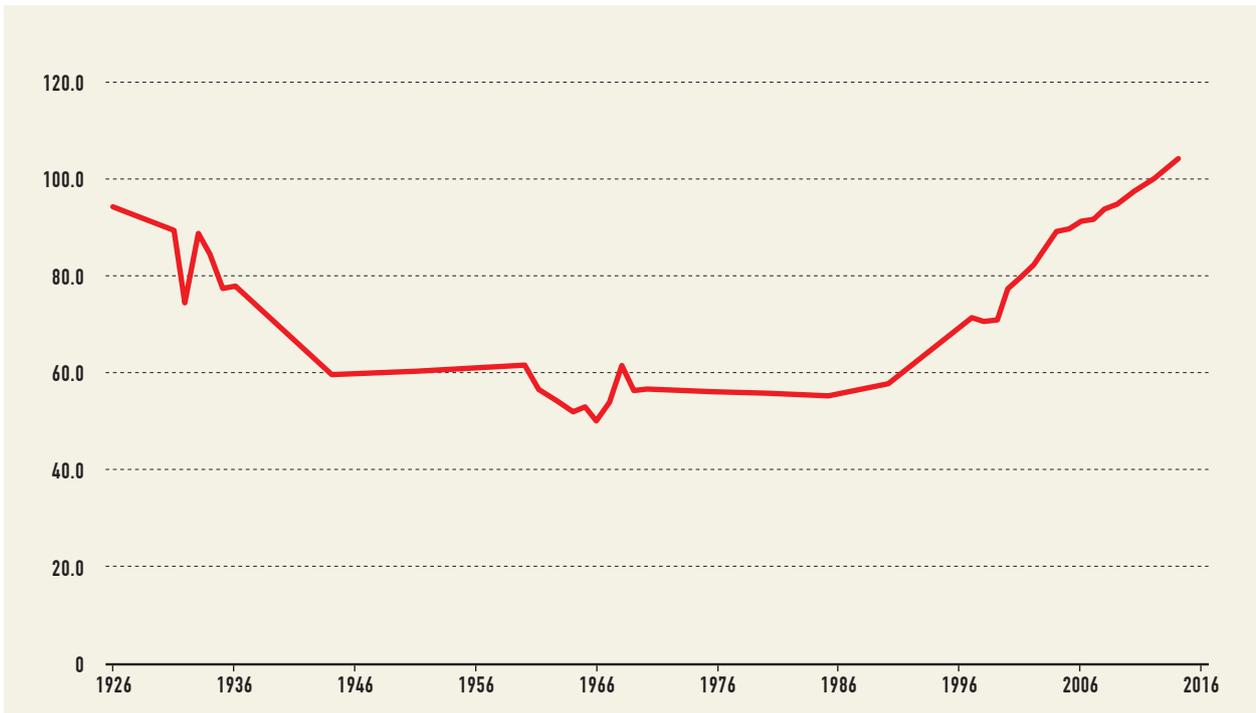
서울의 주택수 증가는 가구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폭발적인 인구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에 주택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하였다.

기존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이다. 이때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하였고, 다가구주택을 1호로 반영하였다. 그러다 2005년부터 변경된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보통가구수, 1인 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이다. 이때 주택수는 기존 주택수 산정

| 그림 3.1-3 | 주택수 및 가구수(기존 산정방식)

단위 : 호





방식에 다가구주택을 거주호수별로 집계한 수를 반영하였다. 현재 통계청이나 서울통계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시계열로 볼 수 있도록, 기존 산정방식과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한 주택보급률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926년 당시 주택보급률은 94.2퍼센트로 매우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6년 50퍼센트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서울의 주택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가구수가 주택수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택보급률은 196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1990년대 주택보급률이 개선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영향과 1990년대 들어 서울의 가구수 증가율이 둔화된 데 따른 결과이다. 2011년 주택보급률은 98.4퍼센트(기존 산정방식), 2012년에는 100.1퍼센트로 주택보급률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초로 100퍼센트를 상회하였

다. 2016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3.8퍼센트이다.

주택보급률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 주택 재고가 그곳에 거주하는 가구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 주는 양적지표이다. 주택 재고의 절대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주택정책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이 주택수에서 누락되었고, 주택보급률 지표가 주택 재고의 배분 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 상태(주거수준)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형별 주택 재고

서울의 주택 유형은 지난 30년간 현격하게 바뀌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가운데 80퍼센트 이

산정 방식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단독	다가구	계	비율	계	비율	연립	다세대	계	비율	계	비율
기존	1970	515,916	-	515,916	88.4	23,987	4.1	34,418	-	34,418	5.9	9,291	1.6
	1975	618,045	-	618,045	83.0	58,459	7.9	39,583	-	39,583	5.3	28,160	3.8
	1980	684,083	-	684,083	70.7	183,846	19.0	68,885	-	68,885	7.1	31,319	3.2
	1985	688,740	-	688,740	58.6	306,398	26.1	137,011	-	137,011	11.6	44,013	3.7
	1990	659,552	-	659,552	46.1	502,501	35.1	181,156	48,762	229,918	16.1	39,010	2.7
	1991	800,858	-	800,858	50.1	545,775	34.1	-	-	252,656	15.8	-	0.0
	1992	825,506	-	825,506	48.8	592,121	35.0	-	-	275,280	16.3	-	0.0
	1993	828,018	-	828,018	45.8	679,551	37.6	-	-	301,896	16.7	-	0.0
	1994	819,409	-	819,409	44.3	705,972	38.2	-	-	322,443	17.4	-	0.0
	1995	781,613	-	781,613	41.9	737,632	39.6	-	-	344,211	18.5	39,010	2.1
	1996	768,314	-	768,314	40.5	772,814	40.8	156,783	197,023	353,806	18.7	-	0.0
	1997	759,325	-	759,325	39.3	809,576	41.9	159,263	203,984	363,247	18.8	-	0.0
	1998	756,613	-	756,613	38.4	842,643	42.8	161,883	206,915	368,798	18.7	-	0.0
산정 방식	1999	751,955	-	751,955	37.2	896,359	44.4	161,528	209,560	371,088	18.4	-	0.0
	2000	498,346	-	498,346	25.3	1,011,158	51.2	220,866	182,588	403,454	20.4	60,221	3.1
	2001	599,483	113,188	712,671	33.3	1,012,904	47.3	150,886	264,214	415,100	19.4	-	0.0
	2002	581,927	114,922	696,849	31.1	1,052,401	46.9	146,243	348,502	494,745	22.0	-	0.0
	2003	569,064	116,097	685,161	29.2	1,120,107	47.8	139,411	398,020	537,431	22.9	-	0.0
	2004	561,317	116,234	677,551	28.0	1,191,002	49.2	134,276	415,843	550,119	22.7	-	0.0
	2005	248,880	206,977	455,857	19.6	1,258,658	54.2	146,877	430,502	577,379	24.9	30,055	1.3
	2006	243,581	207,237	450,818	19.6	1,307,113	55.2	145,278	436,479	581,757	24.5	30,055	1.3
	2007	236,477	207,225	443,702	18.6	1,330,658	55.7	143,852	442,769	586,621	24.5	30,055	1.3
	2008	229,207	206,861	436,068	17.8	1,381,252	56.4	143,565	460,142	603,707	24.6	30,055	1.2
	2009	224,319	206,078	430,397	17.4	1,407,114	56.8	143,135	467,899	611,034	24.7	30,037	1.2
	2010	165,295	240,280	405,575	16.1	1,485,869	58.8	145,914	463,417	609,331	24.1	24,435	1.0
	2011	157,185	239,421	396,606	15.4	1,522,637	59.1	144,419	487,944	632,363	24.5	24,435	0.9
	2012	174,365	238,860	413,225	15.7	1,546,509	58.9	143,772	497,991	641,763	24.4	24,435	0.9
	2013	167,516	238,113	405,629	15.1	1,578,361	58.9	143,370	526,172	669,542	25.0	24,435	0.9
	2014	160,675	237,450	398,125	14.6	1,613,849	59.0	142,704	556,979	699,683	25.6	24,435	0.9

산정 방식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단독	다가구	계	비율	계	비율	연립	다세대	계	비율	계	비율
변경된 산정 방식	2005	248,880	987,432	1,236,312	39.9	1,258,658	40.6	146,877	430,502	577,379	18.6	30,055	1.0
	2006	243,581	988,762	1,232,343	39.1	1,307,113	41.5	145,278	436,479	581,757	18.5	30,055	1.0
	2007	236,477	988,694	1,225,171	38.6	1,330,658	41.9	143,852	442,769	586,621	18.5	30,055	0.9
	2008	229,207	987,486	1,216,693	37.6	1,381,252	42.7	143,565	460,142	603,707	18.7	30,055	0.9
	2009	224,319	985,232	1,209,551	37.1	1,407,114	43.2	143,135	467,899	611,034	18.8	30,055	0.9
	2010	165,295	1,114,843	1,280,138	37.7	1,485,869	43.7	145,914	463,417	609,331	17.9	24,435	0.7
	2011	157,185	1,112,556	1,269,741	36.8	1,522,637	44.1	144,419	487,944	632,363	18.3	24,435	0.7
	2012	174,365	1,110,879	1,285,244	36.7	1,546,509	44.2	143,772	497,991	641,763	18.3	24,435	0.7
	2013	167,516	1,107,871	1,275,387	35.9	1,578,361	44.5	143,370	526,172	669,542	18.9	24,435	0.7
	2014	160,675	1,105,109	1,265,784	35.1	1,613,849	44.8	142,704	556,979	699,683	19.4	24,435	0.7
2015	137,423	1,057,393	1,194,816	32.9	1,636,896	45.1	117,235	654,372	771,607	21.2	29,702	0.8	

주석

1. 기존 산정방식에서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2. 변경된 산정방식에서 다가구주택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됨
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법률상 용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택으로, 영업용 목적의 건물 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5년 단위 주택총조사에서만 조사됨
4.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70년 : 통계청 - 주택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1970) - 시도/주택의 종류/거주인수/사용방수별 주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7002&conn_path=3
2. 1975년 : 통계청 - 주택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1975) - 시도/주택의종류/거주 가구수별 주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7502&conn_path=3
3. 1980년 : 통계청 - 주택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1980) - 행정구역/주택의 종류/점유형태별 주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8002&conn_path=3
4. 1985년 : 통계청 - 주택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1985) - 행정구역/주택의 종류/점유형태별 주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8501&conn_path=3
5. 1990년 : 통계청 - 주택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1990) - 행정구역/주택의종류/점유형태별 주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9001&conn_path=3
6. 1991~199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6회 1996년 서울통계연보(1995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7. 1996~2015년 : 서울통계 - 주택별 - 주택 · 건설 - 주택 현황 - 주택 현황 및 보급률(기존 산정방식)/주택 현황 및 보급률(변경된 산정방식)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상은 단독주택이었으며, 아파트는 약 4~8퍼센트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독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반면, 강남 개발로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고 일부 단독주택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개발되면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대로 감소하면서 서울에는 공동주택이 가장 보편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공동주택 가운데서는 특히 아파트의 급성장이 눈에 띈다. 이는 앞서 주택공급 실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주택공급 물량이 아파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6년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40.8퍼센트로 40.5퍼센트를 차지하는 단독주택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아파트의 재고가 단독주택 재고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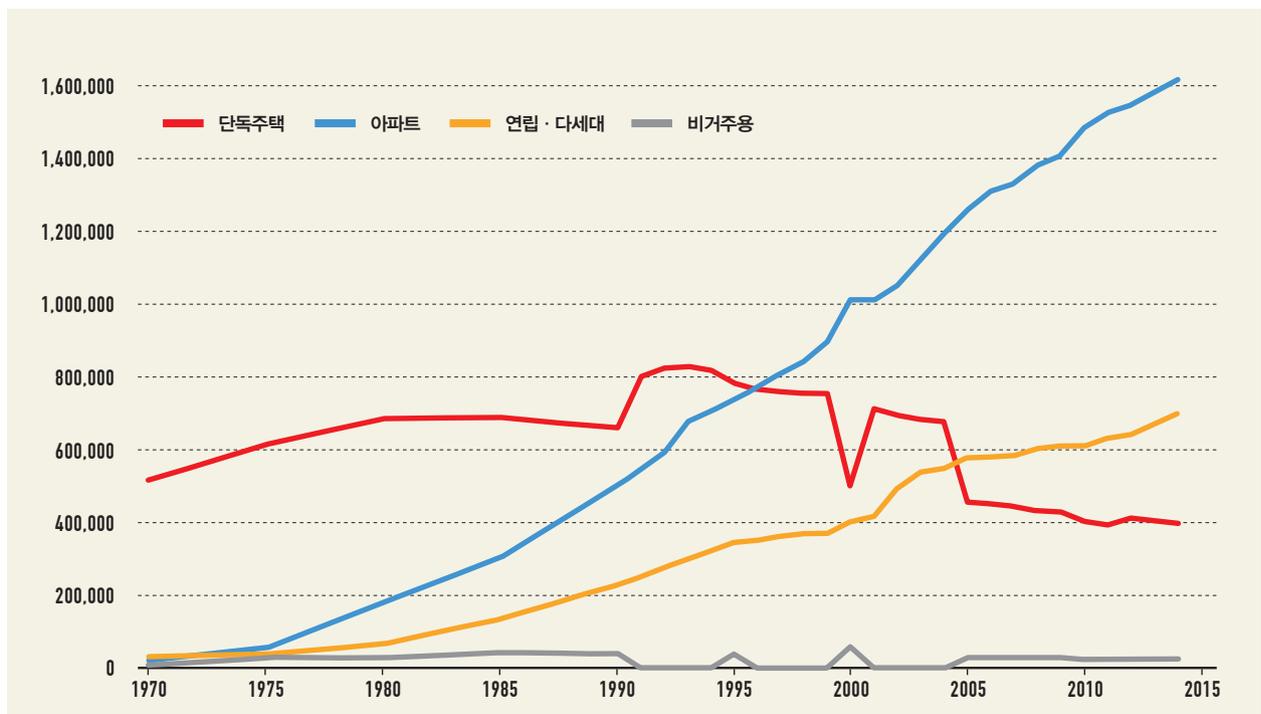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14년 아파트는 주택 재고

의 59.0퍼센트(기존 산정방식)를 차지하는 반면, 단독주택은 14.6퍼센트(기존 산정방식)에 그치고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990년 주택 재고의 16.1퍼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5.6퍼센트(기존 산정방식)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45년 전인 1970년 88.4퍼센트가 단독주택이었던 서울은 이제 84.6퍼센트(기존 산정방식)가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산정방식과 변경된 산정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산정방식에서는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 1동)으로 산정되어 주택 재고량이 산출되었으며, 변경된 산정방식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거주호수별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변경된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2015년 단독주택 재고는 32.9퍼센트, 아파트는 45.1퍼센트, 연립 및 다세대는 21.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그림 3.1-5 | 유형별 주택 재고 추이(기존 산정방식)

단위 : 호



주택가격지수

현재 통계청에서는 '전국주택가격동향(구)'과 '전국주택 가격동향(신)'을 제공한다. 전국주택가격동향(구)은 2011년 기준지수로 KB국민은행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2013년 한국감정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산정방식과

표본설계에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 전국주택 가격동향(신)이며 2015년을 기준지수로 한다. 전국주택 가격동향(구)은 1986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계열 확인이 용이하지만, 전국주택가격 동향(신)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2004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 표 3.1-4 | 유형별 주택 재고

단위 : 2015년 6월 = 기준지수 100

연도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2004	68.4	68.9	68.7	68.3	61.0	55.0	64.8	79.1
2005	68.7	70.8	66.0	67.9	57.1	53.2	58.9	70.2
2006	74.8	79.2	69.5	72.2	61.2	58.9	61.6	71.0
2007	87.9	93.8	81.7	81.7	66.7	63.9	67.8	76.9
2008	101.0	105.1	98.0	93.7	71.7	65.8	76.8	86.2
2009	100.5	102.9	98.6	95.7	70.4	63.8	76.0	86.1
2010	103.5	105.2	102.7	98.8	76.5	70.5	82.1	89.7
2011	103.3	104.2	103.2	100.1	83.1	78.0	88.3	94.4
2012	101.1	100.3	103.0	99.5	86.4	81.6	92.1	95.9
2013	97.3	95.4	100.1	99.0	89.2	84.8	94.9	97.6
2014	97.3	96.0	99.1	99.2	95.2	93.1	97.9	98.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103.0	104.3	101.5	101.2	104.6	106.8	102.4	101.2

주석

1. 매년 6월 기준
2. 주택가격지수(KHPI: Korea Housing Price Index)는 2012년 1월부터 표본, 조사방법, 지수산정방식 등의 개편사항을 반영한 시계열로 구축되어 있으나, 중장기 추이 분석을 위하여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표본가격을 협조 받아 개선된 지수산정에 의해 2003년 11월부터 시계열을 연장하였음(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보고서(2015.12))

자료출처

1. 2004~2016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신) - 유형별 매매가격지수(2015.6 = 10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1&conn_path=3
2. 2004~2016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건설 - 주택 - 토지 - 주택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신) - 유형별 전세가격지수(2015.6 = 10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2&conn_path=3

다. 여기서는 전국주택가격동향(신)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전세가격지수의 변화를 보여 주고자 한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6월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68.7에서 2008년 101.0으로 이 시기에 매우 높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2012년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2015년 기준지수 100을 넘었으며, 이는 당시 주택매매가격이 상당히 높았음을 나타낸다. 특히 2010년 아파트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5.2로 최고치를 보여 주고 있다. 2010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조금씩 감소하였고, 2015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04년 61.0에서 2016년 104.6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주택전세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연도는 2011년으로 2010년 76.5에서 6.6이 증가한 83.1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전세가격

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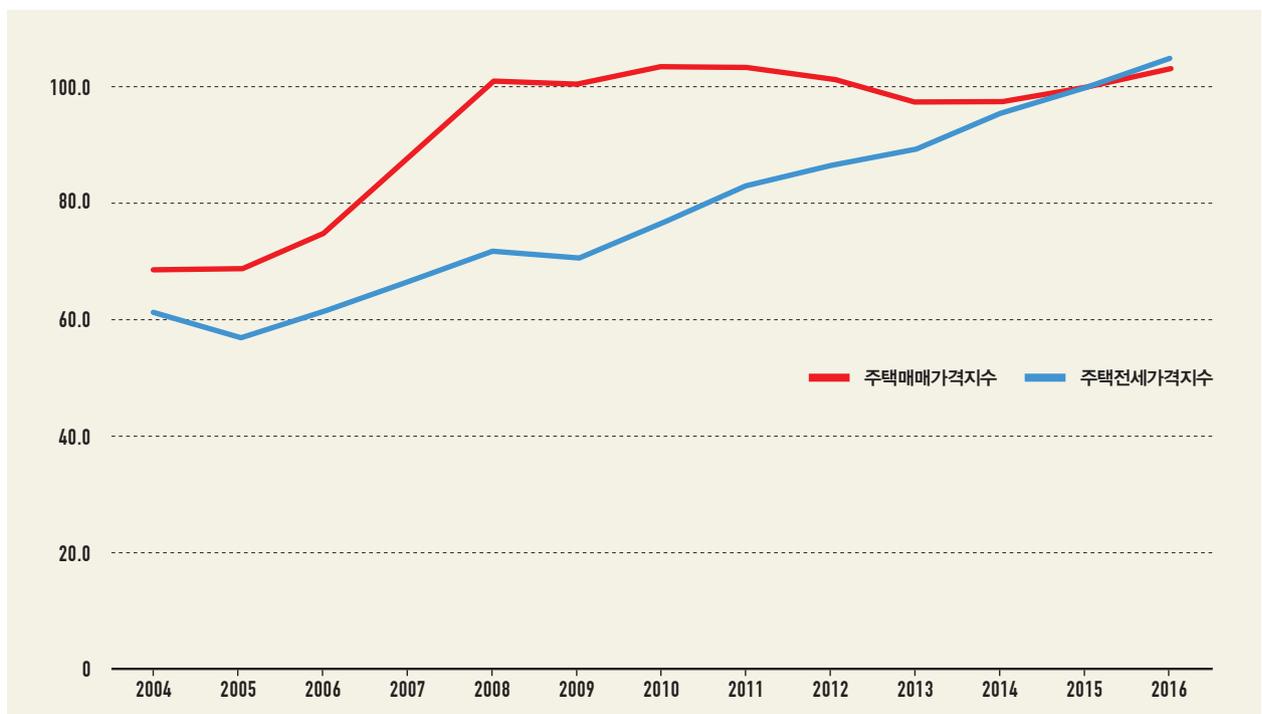
다만 2012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12년 86.4에서 2016년 104.6으로 약 21퍼센트 증가하였다.

주택 점유 형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주택 점유 형태는 점유 형태별 주택(호)수와 점유형태별 가구수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점유 형태별 주택(호)수는 2000년까지 실시하였다가 통계조사 후 집계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주택 점유 형태의 변화는 점유 형태별 가구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1960년과 197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점유 형태별 가구수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수록하지 못하였다.

| 그림 3.1-6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단위 : 지수



연도	총계	자가		임대				무상		미상	
		계	비율	전세	비율	월세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55	281,601	128,063	45.5	88,124	31.3	43,195	15.3	12,208	4.3	10,011	3.6
1975	1,381,109	635,673	46.0	531,293	38.5	190,113	13.8	22,048	1.6	1,982	0.1
1980	1,836,903	817,120	44.5	693,694	37.8	302,633	16.5	0	0.0	23,456	1.3
1985	2,324,219	949,388	40.8	856,130	36.8	456,896	19.7	61,805	2.7	0	0.0
1990	2,814,845	1,070,951	38.0	1,135,344	40.3	551,332	19.6	57,218	2.0	0	0.0
1995	2,965,794	1,178,893	39.7	1,300,169	43.8	444,722	15.0	42,010	1.4	0	0.0
2000	3,085,936	1,263,357	40.9	1,271,330	41.2	502,623	16.3	48,619	1.6	7	0.0
2005	3,309,890	1,475,848	44.6	1,100,175	33.2	679,980	20.5	53,887	1.6	0	0.0
2010	3,504,297	1,439,338	41.1	1,152,714	32.9	862,870	24.6	49,375	1.4	0	0.0
2015	3,785,433	1,595,013	42.1	992,393	26.2	1,076,752	28.4	121,275	3.2	0	0.0

주석

- 1960년, 197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점유 형태별 가구수 조사 미 실시
- 무상은 관사 또는 사택 등
- 월세는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를 포함
- 2000년부터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인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함

자료출처

- 1995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995) - 행정구역/주택거주상활별 가구 및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5504&conn_path=3
- 1975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975) - 시도/가구원수/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7504&conn_path=3
- 1980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980) - 행정구역/거처의 종류/점유형태별 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8005&conn_path=3
- 1985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985) - 행정구역/거처의 종류/점유형태별 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8510&conn_path=3
- 1990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990) - 행정구역/거처의 종류/점유형태별 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9009&conn_path=3
- 1995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995) - 행정구역/거처의 종류/점유형태별 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9509&conn_path=3
- 2000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2000) - 전수부문 - 행정구역/거처의 종류/점유형태/이용방수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10&conn_path=3
- 2005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2005) - 전수 - 거처의 종류/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8&conn_path=3

9. 2010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2010) - 전수 -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03&conn_path=3

10. 2015년 : 통계청 - 주제별통계 - 인구 · 가구 - 인구총조사 -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2015) - 표본부문 -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02&conn_path=3

서울에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주택보급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기보다 임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1975년 46.0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 4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자가 가구비율은 42.1퍼센트이다.

월세와 전세를 포함한 임대주택에 사는 비율은 1955년 46.6퍼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59.9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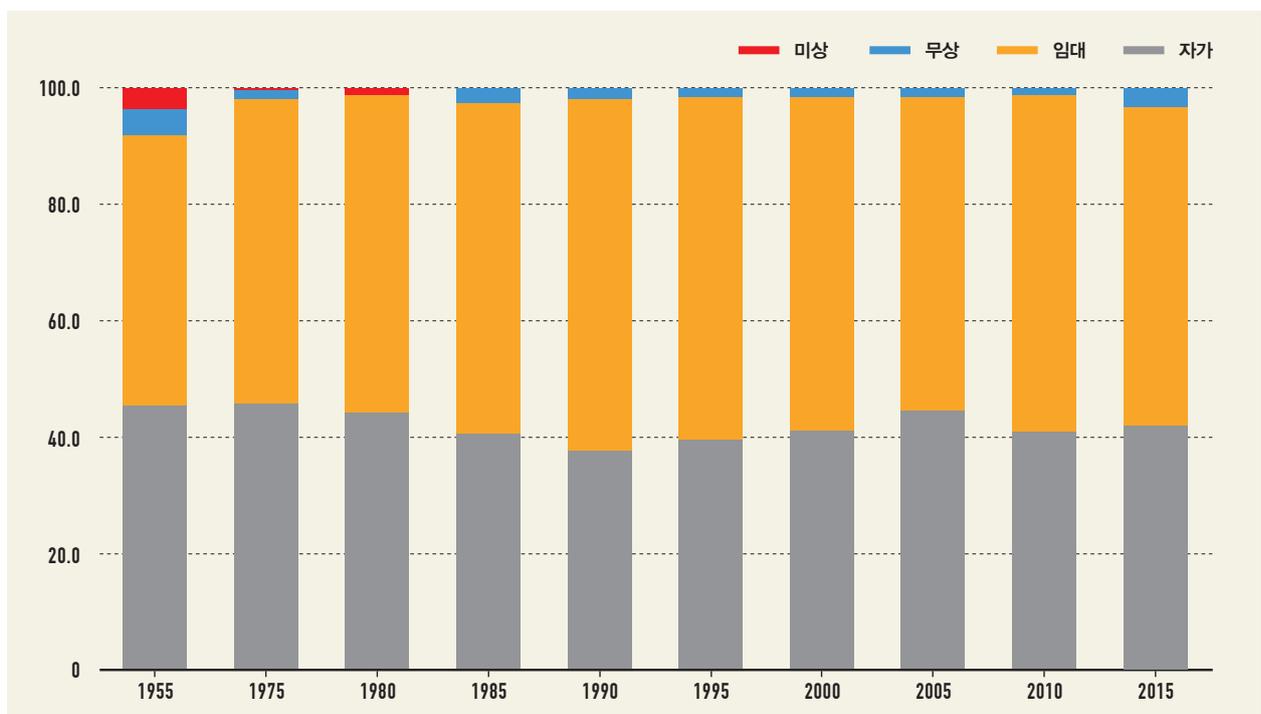
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2000년에 57.5퍼센트, 2015년에 54.7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자가율이 감소한 것은 이 기간의 주택가격 상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IMF사태 이후인 1998~1999년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많은 가구가 자가보다 전세를 선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1955년 31.3퍼센트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 그림 3.1-7 | 주택 점유 비율

단위 : 퍼센트



하여 1995년 43.8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15년 26.2퍼센트로 나타났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1955년 15.3퍼센트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에 전세 가구보다 많은 28.4퍼센트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점점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비율 차이가 감소하여 2015년 월세가구 비율이 전세가구 비율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전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조별 건축허가 면적

표 3.2-1은 서울의 건물 구조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2-1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건물의 동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1960년대부터 경제수준의 향상과 건축자재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서울의 건물들은 전통적인 목조 구조에서 벽돌건물(이하 조적조)로 대체되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철근콘크리트로 대체되었다.

1950년대까지는 목조건물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지

만, 1960년대 들면서 공급량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963년 이후 목조건물은 전체 건물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다가 1960년대 후반 들어 1퍼센트 이하로 비중이 낮아졌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에는 조적조가 목조를 대체하여 대표적인 건축 구조로 자리 잡았으며, 1967년에는 건축허가 건물면적의 75.9퍼센트를 조적조 건물이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조적조와 함께 철근콘크리

| 표 3.2-1 | 구조별 건축허가 면적

단위 : 제곱미터, 퍼센트

연도	총계	철근과 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57	610,788	131,091	21.5	234,340	38.4	245,357	40.2	-	0.0
1958	427,979	57,478	13.4	119,467	27.9	250,923	58.6	111	0.0
1959	969,946	204,421	21.1	420,161	43.3	345,364	35.6	-	0.0
1960	983,778	203,321	20.7	501,495	51.0	278,880	28.3	82	0.0
1961	828,030	341,886	41.3	392,133	47.4	93,661	11.3	350	0.0
1962	1,031,678	297,489	28.8	631,840	61.2	96,926	9.4	5,423	0.5
1963	1,404,954	364,287	25.9	982,750	69.9	54,513	3.9	3,404	0.2
1964	1,782,299	357,033	20.0	1,339,818	75.2	74,677	4.2	10,771	0.6
1965	2,196,385	510,121	23.2	1,536,474	70.0	81,229	3.7	68,561	3.1

연도	총계	철근과 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66	2,409,573	414,840	17.2	1,804,508	74.9	57,754	2.4	132,471	5.5
1967	3,275,552	514,087	15.7	2,484,544	75.9	41,337	1.3	235,584	7.2
1968	5,017,305	1,444,841	28.8	2,889,717	57.6	196,946	3.9	485,801	9.7
1969	4,257,855	2,096,355	49.2	1,625,013	38.2	35,259	0.8	501,228	11.8
1970	4,783,856	2,220,937	46.4	2,253,810	47.1	46,553	1.0	262,556	5.5
1971	3,783,656	1,754,143	46.4	1,833,981	48.5	18,017	0.5	177,515	4.7
1972	3,043,594	1,020,117	33.5	1,897,256	62.3	12,833	0.4	113,388	3.7
1973	5,106,312	1,528,783	29.9	3,287,958	64.4	4,268	0.1	285,303	5.6
1974	6,615,184	2,097,188	31.7	4,280,394	64.7	13,834	0.2	223,768	3.4
1975	7,359,927	3,116,326	42.3	4,059,974	55.2	14,103	0.2	169,524	2.3
1976	6,266,158	2,498,861	39.9	3,626,900	57.9	21,109	0.3	119,288	1.9
1977	6,640,521	1,848,643	27.8	4,662,679	70.2	21,935	0.3	107,264	1.6
1978	6,704,599	1,941,617	29.0	4,692,815	70.0	47,916	0.7	22,251	0.3
1979	5,325,767	2,462,007	46.2	2,845,866	53.4	13,084	0.2	4,810	0.1
1980	6,215,999	3,866,716	62.2	2,328,669	37.5	16,047	0.3	4,567	0.1
1981	5,960,558	4,431,415	74.3	1,511,949	25.4	15,786	0.3	1,408	0.0
1982	9,633,926	6,767,673	70.2	2,849,257	29.6	13,829	0.1	3,167	0.0
1983	12,360,705	8,446,842	68.3	3,890,794	31.5	3,328	0.0	19,741	0.2
1984	10,322,846	8,437,172	81.7	1,846,054	17.9	938	0.0	38,682	0.4
1985	10,171,599	8,169,296	80.3	1,994,686	19.6	2,111	0.0	5,506	0.1
1986	15,924,979	12,795,687	80.3	3,122,837	19.6	2,744	0.0	3,711	0.0
1987	12,393,592	9,748,288	78.7	2,616,991	21.1	8,766	0.1	19,547	0.2
1988	13,840,340	9,929,966	71.7	3,888,449	28.1	1,284	0.0	20,641	0.1
1989	17,782,650	13,342,879	75.0	4,428,261	24.9	1,286	0.0	10,224	0.1
1990	20,352,247	13,832,693	68.0	6,509,075	32.0	3,196	0.0	7,283	0.0
1991	20,531,747	15,253,935	74.3	5,247,344	25.6	542	0.0	29,926	0.1
1992	17,531,372	12,518,455	71.4	4,802,629	27.4	732	0.0	209,556	1.2
1993	20,208,815	15,725,121	77.8	4,146,490	20.5	2,769	0.0	334,435	1.7
1994	15,023,567	13,064,057	87.0	1,852,233	12.3	2,540	0.0	104,737	0.7
1995	18,966,956	16,750,071	88.3	2,154,570	11.4	1,578	0.0	60,737	0.3
1996	19,642,181	18,230,537	92.8	1,298,768	6.6	3,891	0.0	108,985	0.6

연도	총계	철근과 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97	13,055,434	12,460,679	95.4	499,796	3.8	1,266	0.0	93,693	0.7
1998	5,873,429	5,780,187	98.4	45,794	0.8	3,514	0.1	43,934	0.7
1999	7,607,735	7,445,368	97.9	39,001	0.5	2,739	0.0	120,627	1.6
2000	11,031,121	10,750,210	97.5	38,795	0.4	1,427	0.0	240,689	2.2
2001	15,755,218	15,495,159	98.3	27,123	0.2	1,400	0.0	231,536	1.5
2002	28,192,014	28,056,409	99.5	129,157	0.5	5,380	0.0	1,068	0.0
2003	27,402,024	27,203,727	99.3	140,840	0.5	57,457	0.2	-	0.0
2004	11,959,615	11,834,990	99.0	118,807	1.0	5,818	0.0	-	0.0
2005	24,085,657	17,728,282	73.6	6,353,259	26.4	4,116	0.0	-	0.0
2006	31,694,843	31,378,126	99.0	210,202	0.7	14,712	0.0	91,803	0.3
2007	47,660,683	47,332,349	99.3	289,102	0.6	20,907	0.0	18,325	0.0
2008	14,432,457	14,230,556	98.6	185,586	1.3	15,459	0.1	856	0.0
2009	8,499,572	8,326,553	98.0	156,282	1.8	14,783	0.2	1,954	0.0
2010	49,549,715	49,340,990	99.6	149,046	0.3	11,762	0.0	47,917	0.1
2011	81,334,155	81,188,796	99.8	135,135	0.2	10,224	0.0	-	0.0
2012	73,751,193	73,615,354	99.8	121,506	0.2	14,333	0.0	-	0.0
2013	43,399,353	43,265,792	99.7	121,889	0.3	11,672	0.0	-	0.0
2014	41,055,994	40,896,033	99.6	145,726	0.4	14,235	0.0	-	0.0
2015	37,195,557	37,034,094	99.6	140,382	0.4	21,081	0.1	-	0.0
2016	37,094,690	36,950,067	99.6	117,911	0.3	26,712	0.1	-	0.0

주석

1. 철근과 철골조는 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을 모두 포함

자료출처

1. 1957~196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6회 1966년 서울통계연보(1965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2. 1966~1999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3. 2000~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주택·건설-건축-건축허가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트 건물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부터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건축이 조적조 건물보다 많아지면서 이후 대부분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조적조 건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26.4퍼센트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2005년을 제외하고 신축건물 면적의 97퍼센트 이상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99.6퍼센트가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다.

2005년도에 조적조 건축허가 면적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신축건물의 증가가 아닌 99퍼센트가 기존 조적조 건물에 대한 증축, 개축, 이전, 수선 및 용도변경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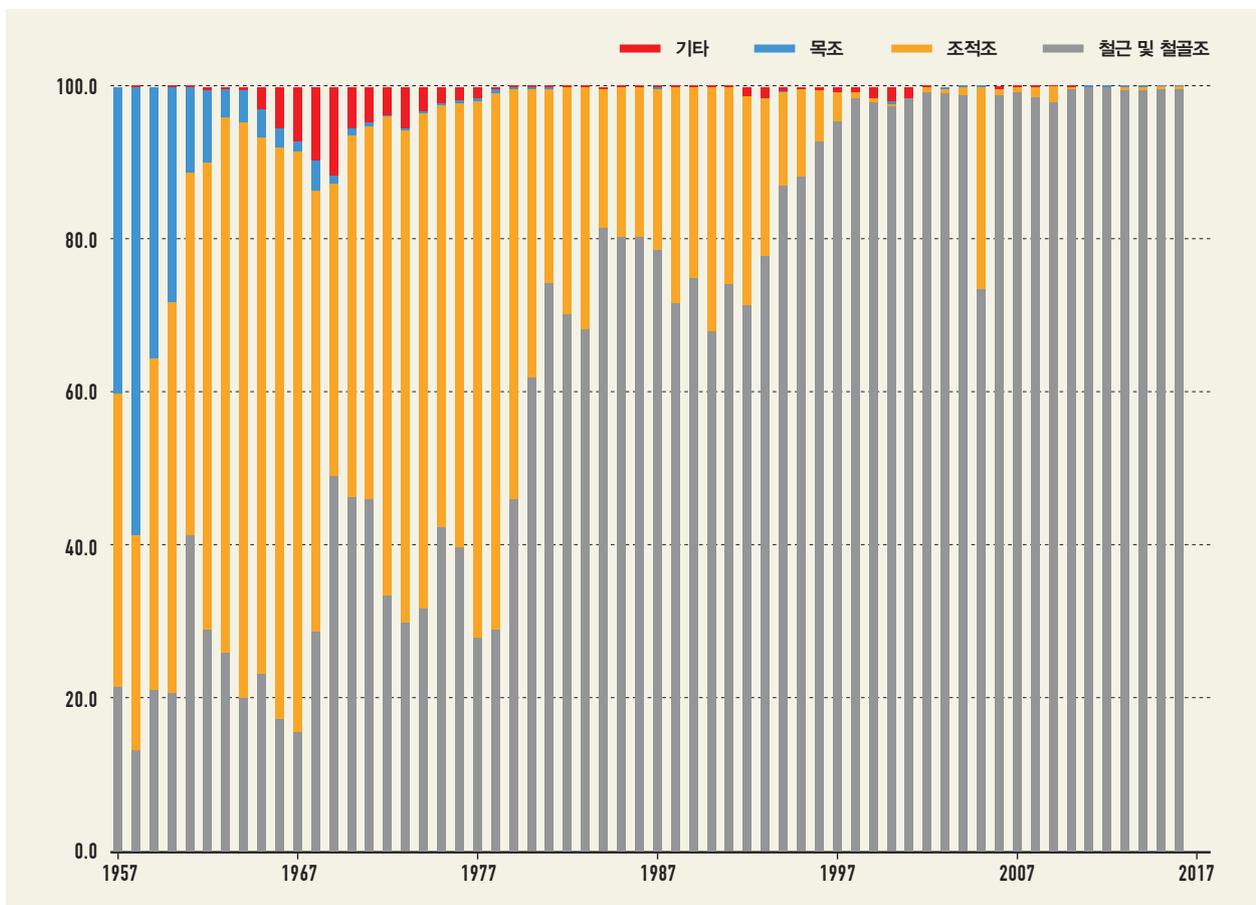
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자료들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동수와는 차이가 있다.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는 건물이 주로 대형인 점을 감안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구성비는 실제 건물 동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과다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

표 3.2-2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용도를 19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 3.2-3은 1981년 이후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

| 그림 3.2-1 | 구조별 건축허가 면적 비율

단위 : 퍼센트



타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년 허가된 건축물 면적은 약간 기복이 있지만 1980년대 이래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981년 약 6백만 제곱미터였던 건축허가 면적은 1983년 이후 1천만 제곱미터를 넘어섰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2천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였다. 이후 약간의 기복을 보이다가 IMF사태의 영향으로 1998년 580만 제곱미터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들어서 다시 1천만 제곱미터를 넘어서서 2005년 2400만 제곱미터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2008~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약 3700만 제곱미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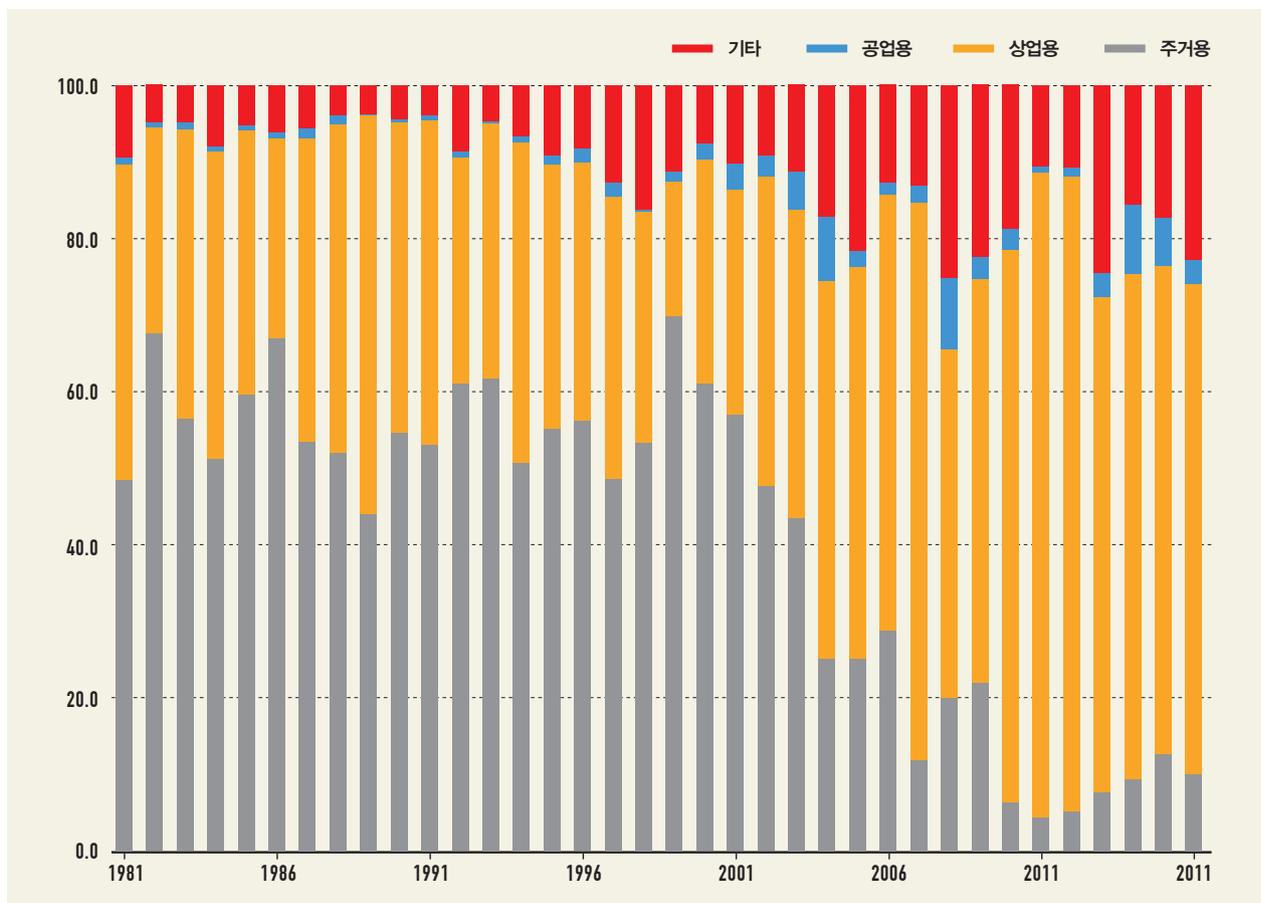
표 3.2-3에 따르면 1981년 이후 전체 건축허가 건수 가운데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69.8퍼센트

로 가장 높았으며, 2000년 전까지 대체로 50퍼센트를 넘었다. 그러나 2002년 47.7퍼센트로 50퍼센트 이하로 감소하였고, 상업용이 40.6퍼센트, 기타 용도가 9.1퍼센트였다. 이후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4퍼센트로 가장 낮았으며, 2016년 10퍼센트를 나타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된다.

반면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9.3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84.1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 64.1퍼센트에 이르렀다.

| 그림 3.2-2 |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 비율

단위 : 퍼센트



| 표 3.2-2 |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1)

연도	계	주택	공공주택	주택 사무실병용 점포	점포	차고	여관 숙박소	창고	요리 음식점	옥탕
1966	2,409,573	959,009	72,409	189,354	69,741	7,955	27,358	154,993	11,344	13,875
1967	3,275,552	1,742,680	41,904	328,558	102,861	7,533	32,605	105,007	4,859	21,771
1968	5,017,305	2,450,001	259,075	409,844	193,743	9,219	205,430	108,225	9,526	41,778
1969	4,257,855	1,509,485	210,810	735,894	209,784	33,532	82,369	79,178	19,543	61,533
1970	4,783,856	1,966,435	469,444	519,710	105,600	6,257	209,734	55,244	1,958	40,130
1971	3,783,656	1,632,528	578,588	520,835	95,005	32,183	38,367	49,251	2,269	47,814
1972	3,043,594	1,685,146	95,550	308,439	84,631	11,874	6,178	62,695	1,401	34,423
1973	5,106,312	2,924,896	464,002	414,780	169,910	11,433	139,200	84,333	1,732	59,518
1974	6,615,184	3,491,121	935,747	758,984	115,225	8,062	259,830	100,491	12,453	14,321
1975	7,359,927	3,168,812	1,818,506	963,303	153,155	2,469	34,356	102,971	21,745	14,383
1976	6,266,158	2,411,678	921,172	1,003,855	320,380	4,518	304,146	96,066	27,889	10,795
1977	6,640,521	3,418,325	480,847	1,191,682	350,620	5,270	55,481	88,624	23,337	8,330
1978	6,704,599	2,991,029	1,269,092	740,743	322,685	10,151	77,327	57,098	149,495	28,226
1979	5,325,767	1,394,658	1,016,193	970,083	485,237	14,810	122,705	59,416	64,027	23,236
1980	6,215,999	1,176,556	1,164,736	1,530,915	807,901	5,910	105,466	36,788	76,440	22,051

주석

1. 1966~1980년의 건축허가 면적 자료에는 용도를 위와 같이 분류함

자료출처

1.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사무소은행	극영화관	시장	공장	위험물저장고	관공서	학교	병원진료소	교회	기타
172,011	4,241	30,574	295,915	6,944		211,757	46,351	22,984	112,758
165,755	9,659	20,276	318,815	2,858	786	233,783	31,334	31,601	72,907
408,285	49,582	67,103	338,892	9,596	14,753	294,626	54,651	31,751	61,225
245,007	43,663	94,386	273,000	17,098		149,757	56,419	28,752	407,645
85,164	6,349	341,458	304,768	6,758	1,232	132,731	123,630	59,893	347,361
19,946	10,962	143,357	223,324	3,402	3,387	122,095	54,055	35,278	171,010
101,980	7,474	49,590	264,475	4,144		188,533	23,924	25,600	87,537
132,200		36,706	374,776	480	1,343	99,307	35,049	38,787	117,860
234,419	7,994	70,737	239,442	1,899	2,878	101,678	37,860	42,676	179,367
464,194	4,675	70,427	189,012	1,380	1,010	122,713	59,566	55,433	111,817
438,213		92,485	317,934	3,436		77,756	34,946	86,535	114,354
421,001	140	55,595	75,663	1,141	1,909	160,981	68,159	91,179	142,237
371,256	225	33,202	90,200	1,246	387	174,627	117,607	88,136	181,867
365,689		48,801	23,764	990	11,086	123,160	103,565	111,452	386,895
616,549		73,136	23,896	2,378	23,712	130,000	90,109	125,220	204,236

연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81	5,960,558	2,880,432	48.3	2,471,008	41.5	51,282	0.9	557,836	9.4
1982	9,633,926	6,518,898	67.7	2,588,800	26.9	75,339	0.8	450,889	4.7
1983	12,360,705	7,011,646	56.7	4,647,098	37.6	122,401	1.0	579,560	4.7
1984	10,322,846	5,315,360	51.5	4,121,172	39.9	70,599	0.7	815,715	7.9
1985	10,171,599	6,080,523	59.8	3,515,880	34.6	61,260	0.6	513,936	5.1
1986	15,924,979	10,684,712	67.1	4,124,471	25.9	167,574	1.1	948,222	6.0
1987	12,393,592	6,636,787	53.6	4,896,253	39.5	179,092	1.4	681,460	5.5
1988	13,840,340	7,205,153	52.1	5,955,635	43.0	149,773	1.1	529,779	3.8
1989	17,782,650	7,866,655	44.2	9,213,006	51.8	55,552	0.3	647,437	3.6
1990	20,352,247	11,116,772	54.6	8,267,801	40.6	80,394	0.4	887,280	4.4
1991	20,531,747	10,908,697	53.1	8,688,874	42.3	150,173	0.7	784,003	3.8
1992	17,531,372	10,733,971	61.2	5,185,248	29.6	109,780	0.6	1,502,373	8.6
1993	20,208,815	12,512,544	61.9	6,734,521	33.3	63,259	0.3	898,491	4.4
1994	15,023,567	7,624,645	50.8	6,293,716	41.9	113,667	0.8	991,539	6.6
1995	18,966,956	10,464,166	55.2	6,590,409	34.7	205,354	1.1	1,707,027	9.0
1996	19,642,181	11,048,943	56.3	6,620,425	33.7	405,089	2.1	1,567,724	8.0
1997	13,055,434	6,361,262	48.7	4,803,255	36.8	238,814	1.8	1,652,103	12.7
1998	5,873,429	3,141,632	53.5	1,774,278	30.2	15,054	0.3	942,465	16.0
1999	7,607,735	5,309,103	69.8	1,351,862	17.8	105,557	1.4	841,213	11.1
2000	11,031,121	6,734,701	61.1	3,216,780	29.2	261,135	2.4	818,505	7.4
2001	15,755,218	9,007,707	57.2	4,631,797	29.4	537,129	3.4	1,578,585	10.0
2002	28,192,014	13,440,576	47.7	11,436,044	40.6	762,106	2.7	2,553,288	9.1
2003	27,402,024	11,914,818	43.5	11,054,616	40.3	1,399,566	5.1	3,033,024	11.1
2004	11,959,615	3,012,464	25.2	5,892,226	49.3	1,018,238	8.5	2,036,687	17.0
2005	24,085,657	6,087,500	25.3	12,323,078	51.2	510,049	2.1	5,165,030	21.4
2006	31,694,843	9,174,623	28.9	17,988,185	56.8	581,607	1.8	3,950,428	12.5
2007	47,660,684	5,696,011	12.0	34,690,232	72.8	1,054,278	2.2	6,220,163	13.1
2008	14,432,457	2,932,249	20.3	6,548,128	45.4	1,341,140	9.3	3,610,940	25.0

연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09	8,499,572	1,878,711	22.1	4,479,614	52.7	235,689	2.8	1,905,558	22.4
2010	49,549,715	3,212,854	6.5	35,727,461	72.1	1,353,788	2.7	9,255,612	18.7
2011	81,334,155	3,597,039	4.4	68,413,331	84.1	836,828	1.0	8,486,957	10.4
2012	73,751,193	3,912,667	5.3	61,188,286	83.0	736,727	1.0	7,913,513	10.7
2013	43,399,353	3,405,670	7.8	28,067,113	64.7	1,365,727	3.1	10,560,843	24.3
2014	41,055,994	3,891,924	9.5	27,096,807	66.0	3,720,213	9.1	6,347,050	15.5
2015	37,195,557	4,711,292	12.7	23,712,029	63.7	2,333,235	6.3	6,439,001	17.3
2016	37,094,690	3,713,122	10.0	23,772,047	64.1	1,246,502	3.4	8,363,019	22.5

주석

1. 기타는 농림수산업용, 공공용, 문교용·사회용을 포함

자료출처

1. 1981~1999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2. 2000~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주택·건설-건축-건축허가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1960대부터 주택 부족과 높은 주택가격은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문제로 인식되었다. 서울시는 증가한 주택수요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불량·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대규모 철거를 통한 아파트 건설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 방식은 현재까지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성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6년 「도시재개발법」과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시행되었다.

2003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계획 후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3년 강북뉴타운을 시작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역 단위의 정비사업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확대, 철거, 민간자본 유치 등을 강조하였다는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으며, 과도한 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하였다. 또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제도의 장기적 폐지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계획체계 중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 3.3-1은 1973년부터 주택정비사업의 연도별 지정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1973년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141개 구역에 이르는 대대적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 구역을 지정하여 2016년 총 사업 구역은 947개에 이르렀고, 면적으로는 약 5,022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다.

연도	지정 구역 수	면적	연도	지정 구역 수	면적
1973	141	7,919,192	1998	9	192,651
1975	7	264,556	1999	15	363,826
1976	123	5,775,899	2000	11	206,701
1979	4	323,975	2001	13	415,458
1981	8	195,218	2002	3	103,588
1982	3	112,818	2003	9	272,890
1984	8	217,632	2004	14	3,951,508
1985	13	316,070	2005	50	2,170,142
1987	12	343,722	2006	46	3,058,864
1988	3	97,169	2007	74	3,419,007
1989	8	393,390	2008	104	6,051,603
1990	2	40,893	2009	72	4,799,923
1991	7	430,467	2010	42	2,015,444
1992	14	535,067	2011	23	1,357,107
1993	10	463,158	2012	19	1,324,366
1994	11	333,717	2013	11	651,120
1995	10	566,347	2014	20	632,898
1996	9	206,226	2015	10	375,252
1997	3	177,672	2016	6	143,471

주석

1. 정비사업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공동), 재건축(단독), 재건축(아파트지구), 뉴타운사업을 모두 포함
2. 2016년 12월 기준 현황자료로서 기존에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출처

1. 1973~2016년 : 서울정보소통광장 - 속속정보 - 사전정보공표 - 2017년 1월 정비사업 통계 현황(2016년 12월 기준) <http://opengov.seoul.go.kr/public/11004353>

도로 일반

서울시의 도로 총연장은 1960년 1,337킬로미터에서 2016년 약 8,241킬로미터로 6.1배 증가하였다. 서울시 도로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는 1966~1970년으로 5년 사이에 1,440킬로미터에서 5,292킬로미터로 약 3.7배 증가하였다. 1967~1969년 사이 도로연장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연도별 값을 비교할 수 없지만, 1966~1970년 동안 도로 건설이 집중된 것은 제3공화국 시기인 1960년대 돌격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대대적으로 간선가로의 확충사업이 전개되었고, 행정구역이 확장되며 외곽도로가 추가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도 도로는 활발히 건설되었다. 연도

| 표 4.1-1 | 도로 개괄

단위 : 미터, 퍼센트

연도	도로 총 합계					고속 도로	일반 국도	특별 시도	1인당 도로 연장	세대당 도로 연장
	합계	포장도로		미포장도로						
		연장	비율	연장	비율					
1960	1,337,000	292,000	21.8	1,045,000	78.2	0	67,000	1,270,000	0.55	2.99
1961	1,342,940	311,129	23.2	1,031,811	76.8	0	67,033	1,275,907	0.52	2.77
1962	1,350,950	337,447	25.0	1,013,503	75.0	0	67,033	1,283,917	0.45	2.44
1963	1,433,881	376,409	26.3	1,057,472	73.7	0	105,915	1,327,966	0.44	2.40
1964	1,435,920	342,338	23.8	1,093,582	76.2	0	105,915	1,330,005	0.42	2.27
1965	1,439,523	342,338	23.8	1,097,185	76.2	0	105,915	1,333,608	0.41	2.22
1966	1,443,743	464,007	32.1	979,736	67.9	0	105,915	1,337,828	0.38	1.99
1967	-	-	-	-	-	-	-	-	-	-
1968	-	-	-	-	-	-	-	-	-	-
1969	-	-	-	-	-	-	-	-	-	-
1970	5,292,140	1,540,556	29.1	3,751,584	70.9	0	133,298	5,158,842	0.97	4.82

연도	도로 총 합계					고속 도로	일반 국도	특별 시도	1인당 도로 연장	세대당 도로 연장
	합계	포장도로		미포장도로						
		연장	비율	연장	비율					
1971	5,471,578	1,933,528	35.3	3,538,050	64.7	0	133,298	5,338,280	0.94	4.75
1972	5,568,082	2,267,379	40.7	3,300,703	59.3	0	137,920	5,430,162	0.92	4.71
1973	5,594,442	2,396,779	42.8	3,197,663	57.2	0	137,920	5,456,522	0.89	4.60
1974	5,658,895	2,635,497	46.6	3,023,398	53.4	0	137,920	5,520,975	0.87	4.44
1975	5,766,899	3,039,033	52.7	2,727,866	47.3	0	137,920	5,628,979	0.84	4.09
1976	6,005,483	3,455,038	57.5	2,550,445	42.5	0	137,920	5,867,563	0.83	4.11
1977	6,164,735	3,609,835	58.6	2,554,900	41.4	0	137,920	6,026,815	0.82	4.03
1978	6,329,239	3,955,930	62.5	2,373,309	37.5	0	137,268	6,191,971	0.81	3.93
1979	6,556,800	4,314,300	65.8	2,242,500	34.2	18,400	117,000	6,421,400	0.81	3.83
1980	6,610,400	4,490,900	67.9	2,119,500	32.1	18,400	117,000	6,475,000	0.79	3.60
1981	6,684,300	4,622,000	69.1	2,062,300	30.9	20,300	180,400	6,483,600	0.77	3.49
1982	6,738,600	4,831,600	71.7	1,907,000	28.3	20,300	168,900	6,549,400	0.76	3.37
1983	6,777,300	4,875,600	71.9	1,901,700	28.1	18,000	168,900	6,590,400	0.74	3.20
1984	6,843,400	5,179,400	75.7	1,664,000	24.3	18,000	168,900	6,656,500	0.72	3.05
1985	6,974,800	5,401,900	77.4	1,572,900	22.6	12,500	168,900	6,793,400	0.72	3.00
1986	7,058,000	5,547,000	78.6	1,511,000	21.4	12,500	168,900	6,876,600	0.72	2.91
1987	7,322,000	5,827,000	79.6	1,495,000	20.4	16,000	169,000	7,137,000	0.73	2.91
1988	7,250,000	5,785,000	79.8	1,465,000	20.2	16,000	169,000	7,065,000	0.70	2.73
1989	7,323,000	6,038,000	82.5	1,285,000	17.5	16,000	169,000	7,138,000	0.69	2.60
1990	7,374,000	6,236,000	84.6	1,138,000	15.4	16,000	169,000	7,189,000	0.69	2.62
1991	7,426,700	6,313,700	85.0	1,113,000	15.0	17,900	168,880	7,240,000	0.68	2.23
1992	7,515,900	6,403,600	85.2	1,112,300	14.8	17,900	168,880	7,329,200	0.69	2.24
1993	7,561,429	6,437,409	85.1	1,124,020	14.9	17,920	168,880	7,374,629	0.69	2.22
1994	7,621,605	6,498,988	85.3	1,122,617	14.7	17,920	168,880	7,434,805	0.71	2.22
1995	7,674,674	6,552,057	85.4	1,122,617	14.6	23,080	168,880	7,482,714	0.72	2.25
1996	7,689,163	6,713,552	87.3	975,611	12.7	23,080	168,880	7,497,203	0.73	2.25
1997	7,737,101	6,766,784	87.5	970,317	12.5	23,080	168,880	7,545,141	0.74	2.23
1998	7,801,225	6,831,048	87.6	970,177	12.4	23,080	168,880	7,609,265	0.76	2.26
1999	7,842,567	6,875,623	87.7	966,944	12.3	23,080	168,880	7,650,607	0.76	2.25
2000	7,888,764	7,048,934	89.4	839,830	10.6	23,080	168,880	7,696,804	0.76	2.23

연도	도로 총 합계					고속 도로	일반 국도	특별 시도	1인당 도로 연장	세대당 도로 연장
	합계	포장도로		미포장도로						
		연장	비율	연장	비율					
2001	7,935,089	7,922,930	99.8	12,159	0.2	28,980	168,880	7,737,229	0.77	2.22
2002	7,972,801	7,960,782	99.8	12,019	0.2	22,146	168,880	7,781,775	0.78	2.20
2003	7,988,060	7,977,121	99.9	10,939	0.1	22,890	168,880	7,796,290	0.78	2.15
2004	8,010,671	8,000,174	99.9	10,497	0.1	22,890	168,880	7,818,901	0.78	2.12
2005	8,045,932	8,035,295	99.9	10,637	0.1	22,890	168,880	7,854,162	0.78	2.08
2006	8,067,201	8,065,206	100.0	1,995	0.0	26,550	168,880	7,871,771	0.78	2.03
2007	8,078,293	8,077,003	100.0	1,290	0.0	26,550	168,880	7,882,863	0.78	2.00
2008	8,092,960	8,092,960	100.0	0	0.0	26,550	168,880	7,897,530	0.77	1.98
2009	8,101,593	8,101,593	100.0	0	0.0	26,550	168,880	7,906,163	0.77	1.97
2010	8,142,122	8,142,122	100.0	0	0.0	26,550	168,880	7,946,692	0.77	1.93
2011	8,147,579	8,147,579	100.0	0	0.0	26,550	168,880	7,952,149	0.77	1.94
2012	8,173,509	8,173,509	100.0	0	0.0	26,550	168,880	7,978,079	0.78	1.96
2013	8,197,932	8,197,932	100.0	0	0.0	26,550	168,880	8,002,502	0.79	1.96
2014	8,214,475	8,214,475	100.0	0	0.0	26,550	168,880	8,019,045	0.79	1.96
2015	8,215,127	8,215,127	100.0	0	0.0	26,550	168,880	8,019,697	0.80	1.96
2016	8,240,571	8,240,571	100.0	0	0.0	26,550	168,880	8,045,141	0.81	1.97

주석

1. 1960~1966년 미포장도로는 사리도와 미개수도의 합계
2. 1960~1965년은 특별시도에 기타 도로 포함됨,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966년부터 기타 도로는 특별시도에 포함됨
3. 1967~1970년에 해당하는 서울통계연보(간행물)에는 도로 내용이 누락됨
4. 1973년 일반국도에는 고속도로 연장(17,800미터)이 포함됨(서울통계)
5. 1인당 도로연장 = 도로 총연장/ 인구
6. 세대당 도로연장 = 도로 총연장/ 세대수

자료출처

1. 1960~ 196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2. 1963~ 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3. 1965~ 196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70~ 197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5. 1972~ 197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4회 1974년 서울통계연보(1973년 기준)
6. 1974~ 197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7. 1979~ 1998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주택, 건설 - 도로 - 도로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8. 199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41회 2001년 서울통계연보(2000년 기준)
9. 2000~ 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주택, 건설 - 도로 - 도로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한 해 동안 200킬로미터가 넘는 도로가 건설되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도로 건설 속도는 현격히 줄어들어 대부분 한 해 100킬로미터 미만의 수준에서 건설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건설 길이가 줄었는데(주로 50킬로미터 내외), 이는 서울의 도시개발이 보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서울 시내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로 구성된다. 고속도로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처음 생겼다. 이후 88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마다 서울 시내 고속도로의 연장 길이가 늘어났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특정 도로가 개통될 때마다 한 시점에 도로연장 길이가 늘어나고, 다시 새로운 도로가 생길 때까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울시의 고속도로 연장은 2016년 약 26.6킬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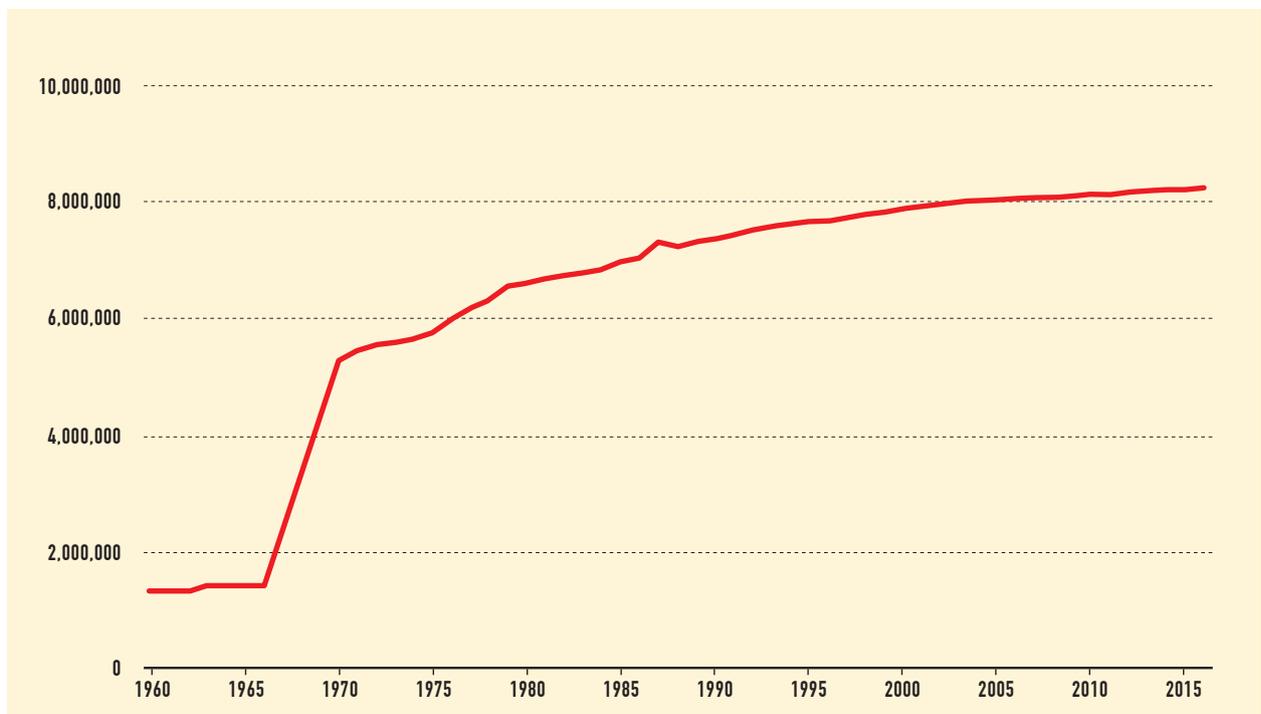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도로 총연장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특별시도인데 이는 서울 시내 일반도로를 의미한다. 특별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연장이 1960년 1,270킬로미터에서 2016년 8,045킬로미터로 약 6.3배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강남이 개발되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연장이 크게 늘어났다.

도로포장

1960년대 이후 서울시의 도로들은 대폭적으로 포장되었다. 1960년만 해도 전체 도로의 78.2퍼센트가 비포장 도로였다. 1975년 포장률은 52.7퍼센트로, 이때부터 포장률이 50퍼센트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1989년에 82.5퍼센트로 80퍼센트 선을 넘었고, 2003년에 99.9퍼센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0퍼센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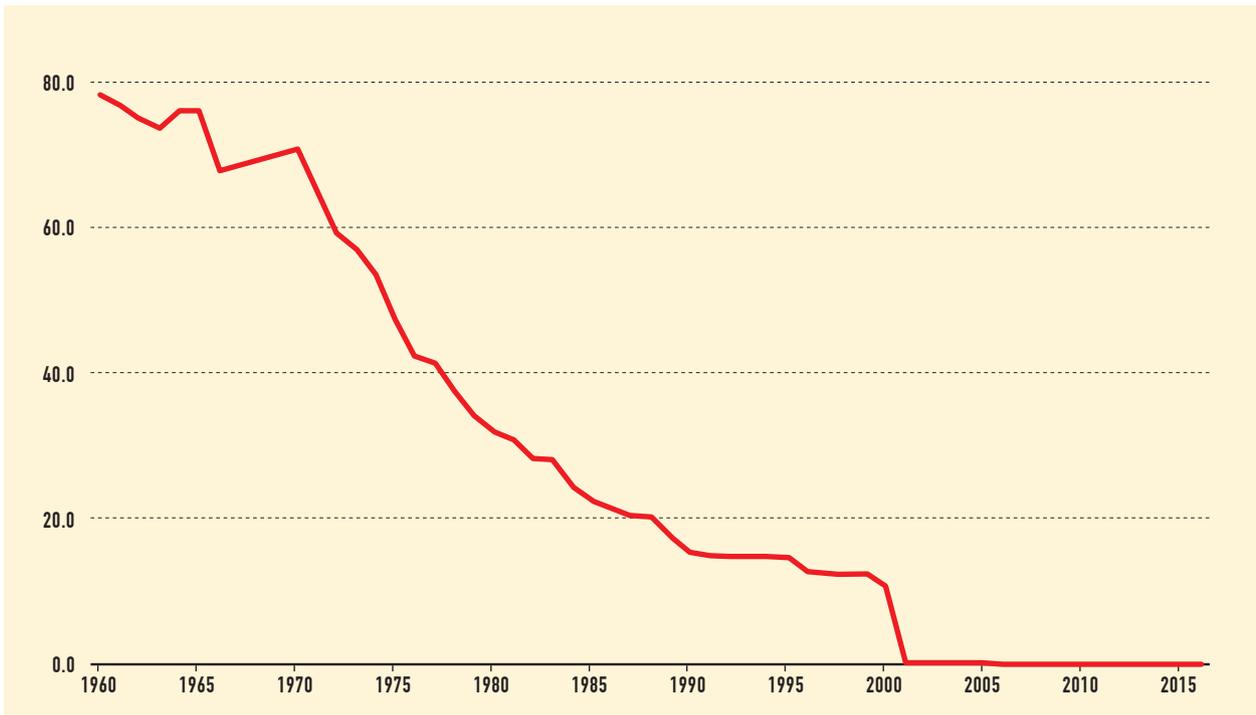
|그림 4.1-1 | 도로 총연장

단위 : 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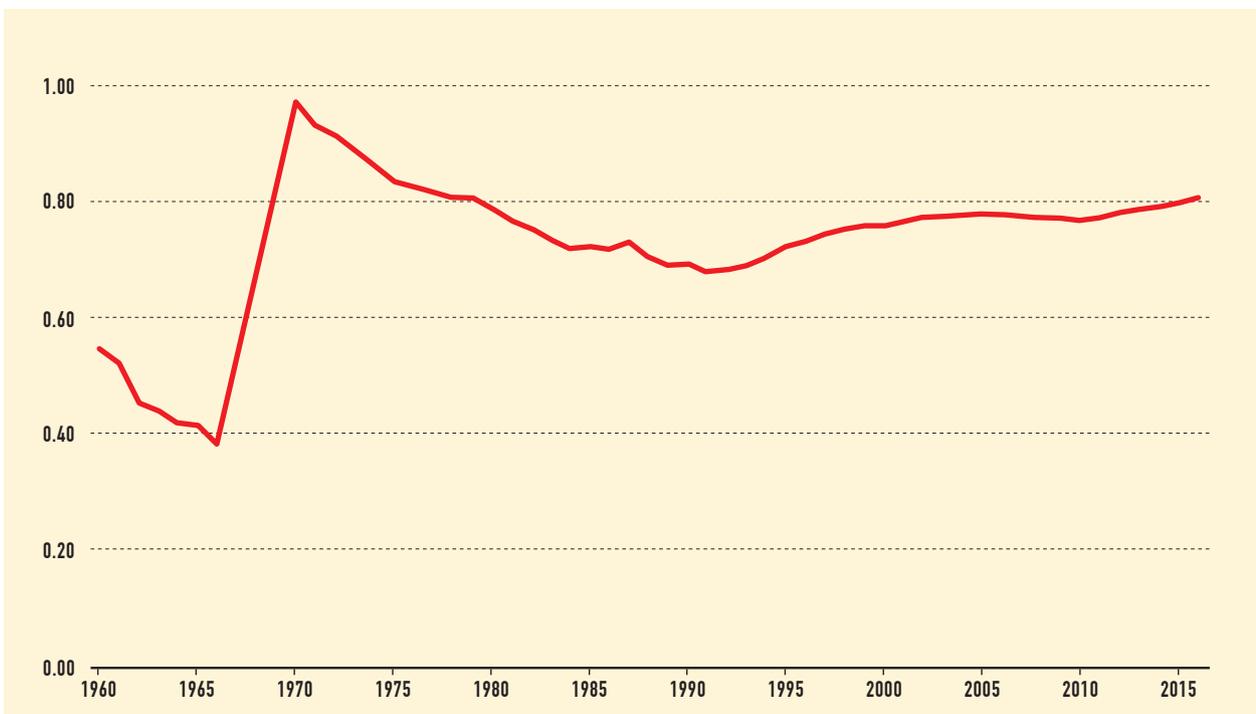
| 그림 4.1-2 | 미포장도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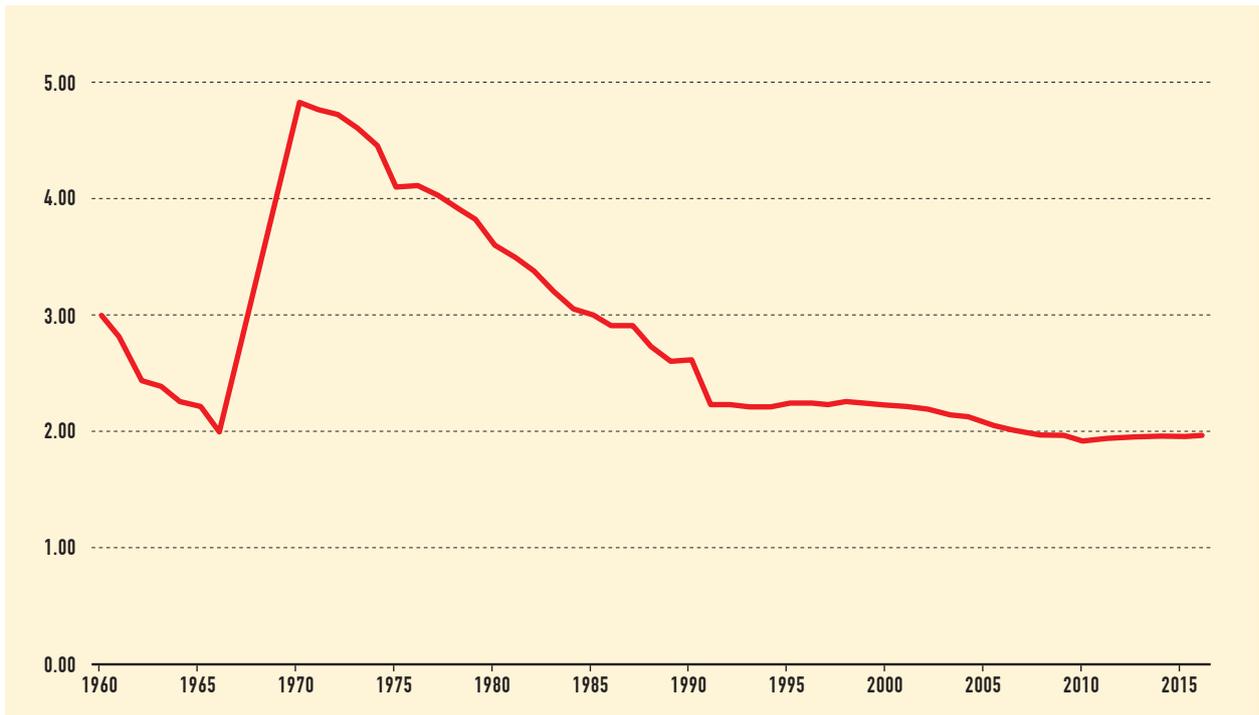
단위 : 퍼센트



| 그림 4.1-3 | 1인당 도로연장

단위 : 미터/인





주차장

4-2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합친 서울시의 주차장은 면에서 398만 3,297면으로 약 54배 늘어났다. 급증하는 자동차 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차장이 처음으로 공공시설물로 인식된 것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 주차장이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없

| 표 4.2-1 | 주차장 개괄

단위: 개소, 면, 대, 퍼센트

연도	주차장 개수	주차장 면수	자동차 대수	주차장 확보율
1981	3,311	73,866	221,644	33.3
1982	6,016	86,160	253,647	34.0
1983	9,648	108,358	314,777	34.4
1984	14,119	127,196	377,220	33.7
1985	18,440	157,511	445,807	35.3
1986	22,628	198,936	521,521	38.1
1987	27,081	311,068	631,794	49.2
1988	35,959	326,533	778,940	41.9
1989	52,047	359,897	991,290	36.3
1990	60,706	406,730	1,193,633	34.1
1991	73,987	582,641	1,374,677	42.4
1992	87,802	676,455	1,569,399	43.1
1993	105,439	848,528	1,750,880	48.5

연도	주차장 개수	주차장 면수	자동차 대수	주차장 확보율
1994	111,828	1,020,881	1,932,233	52.8
1995	146,798	1,123,832	2,043,458	55.0
1996	178,088	1,224,631	2,168,182	56.5
1997	146,075	1,447,877	2,248,567	64.4
1998	152,387	1,566,473	2,198,619	71.2
1999	160,428	1,581,226	2,297,726	68.8
2000	174,878	1,658,535	2,440,992	67.9
2001	172,001	1,927,313	2,550,441	75.6
2002	189,137	2,333,470	2,691,431	86.7
2003	204,049	2,568,838	2,776,536	92.5
2004	210,400	2,631,460	2,779,841	94.7
2005	230,734	2,759,689	2,808,771	98.3
2006	237,770	2,884,707	2,856,857	101.0
2007	310,287	3,035,616	2,933,286	103.5
2008	271,165	3,115,186	2,949,211	105.6
2009	277,497	3,279,967	2,954,704	111.0
2010	299,166	3,404,346	2,981,400	114.2
2011	389,358	3,595,750	2,977,599	120.8
2012	355,212	3,584,262	2,969,184	120.7
2013	299,941	3,760,461	2,973,877	126.4
2014	302,719	3,821,527	3,013,541	126.8
2015	299,904	3,877,326	3,056,588	126.9
2016	308,574	3,983,291	3,083,007	129.2

주석

1. 주차장 확보율 = 주차장 면수 / 자동차 대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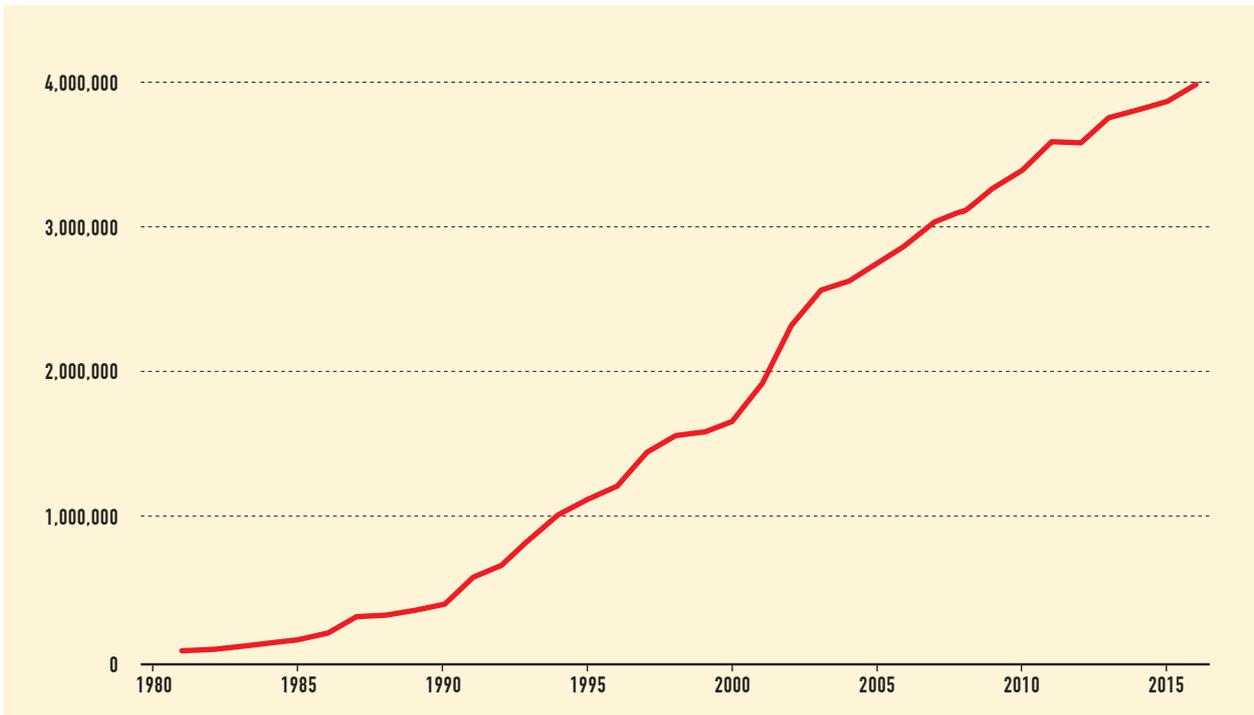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81~2016년 주차장 개수/면수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기반 - 주차장(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2. 1981~2016년 자동차 대수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수단 - 자동차등록(월별/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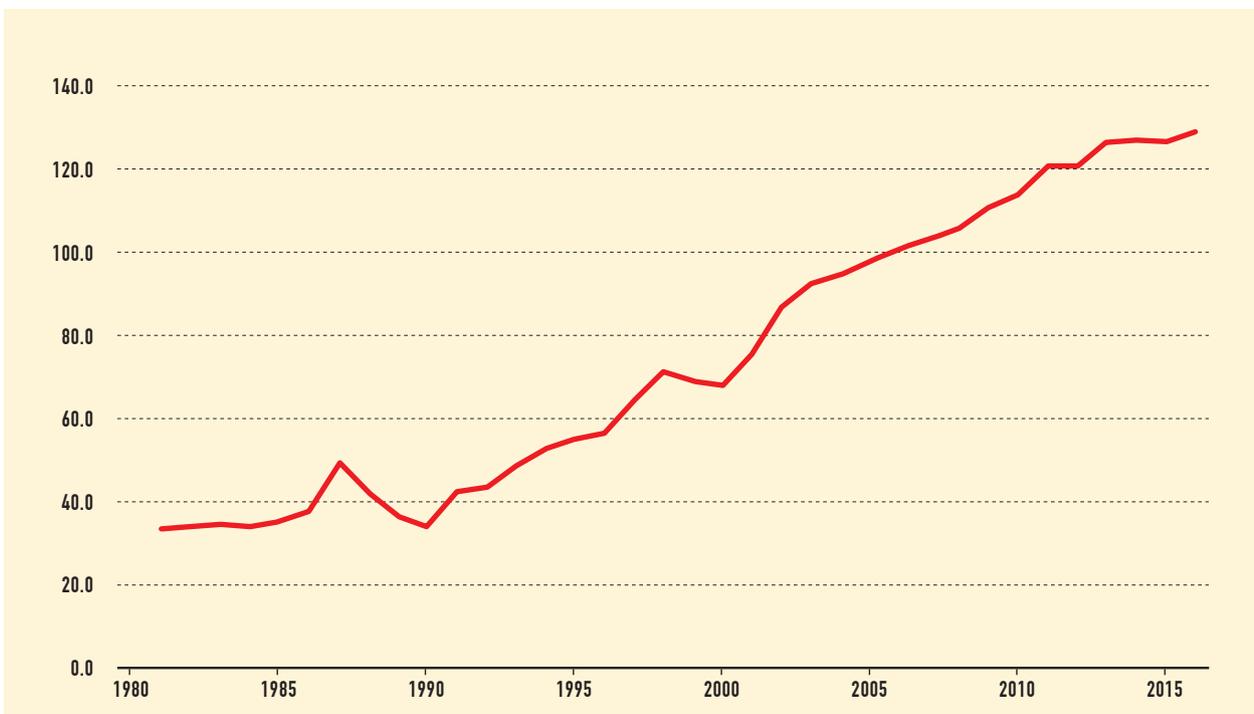
| 그림 4.2-1 | 주차장 면수

단위: 개



| 그림 4.2-2 | 주차장 확보율

단위: 퍼센트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1979년 「주차장법」이 처음으로 제정·공포되었고, 이 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체제가 정립되었다. 당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대에 이르러 도심 특정지역에서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주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1985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40만 대를 돌파하였고, 1986년 아시안게임

과 1988년 올림픽에 대비하여 공공주차장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1995년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주택가에 야간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하여 1996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었고, 2006년 주차장 확보율이 100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었다. 2016년 주차장 확보율은 129.2퍼센트이다.

지하철

4-3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 8월 1호선(서울역~청량리 구간) 7.8킬로미터가 개통된 이래 1980년 10월에는 2호선, 1985년 4월에는 4호선, 같은 해 7월에는 3호선이 개통되었다. 이후 1995년 11월에 5호선을 시작으로 1996년 11월에 6호선이 개통되었으며, 2000년 8월에 6호선, 2009년 7월에 9호선이 개통되어 총연장 331.6킬로미터, 역 수는 307개에 달하고 있다.

1974년 1호선 개통에 이어 1980년대 2~4호선이 개

| 표 4.3-1 | 지하철 개괄

단위 : 킬로미터, 개

호선	구간	건설연장(킬로미터)	착공	최초 개통 시기	역 수
1호선	서울역~청량리	7.8	1971.4.12.	1974.8.15.	10
2호선	순환(성수~성수), 지선1(신설동~성수), 지선2(신도림~까치산)	60.2	1978.3.9.	1980.10.31.	50
3호선	지축~오금	38.2	1980.2.29.	1985.7.12.	34
4호선	당고개~남태령	31.7	1980.2.29.	1985.4.20.	26
5호선	방화~상일동/마천	52.3	1990.6.27.	1995.11.15.	51
6호선	응암~봉화산	35.1	1994.1.8.	2000.8.7.	38
7호선	장암~부평구청	57.1	1990.12.28.	1996.10.11.	51
8호선	모란~암사	17.7	1990.12.29.	1996.11.23.	17
9호선	개화~종합운동장	31.5	2001.12.31.	2009.7.24.	30
합계		331.6			307

주석

1. 2016년 12월 기준
2. 단계별로 개통 시기가 다르므로 1단계 개통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출처

1.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 현황 - 지하철 운행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통되어 운영을 시작하면서 서울은 지하철 시대를 열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선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른다. 서울의 지하철노선 중 가장 길이가 긴 호선은 도심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으로 연장 길이가 60.2킬로미터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장암에서 출발하여 부평구청에 이르는 7호선이 57.1킬로미터이며, 방화에서 출발하여 도심을 경유, 상일동·마천에 이르는 지하철 5호선

이 52.3킬로미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이 2009년 개통되었으며, 개화에서 출발하여 종합운동장을 잇는 총연장 31.5킬로미터로 운행되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2015년 기준으로 총 9개 노선이 있으며 총연장은 331.6킬로미터이다.

버스전용차로

4-4

버스전용차로 총연장은 1999년 229킬로미터에서 2016년 216.8킬로미터로 조금 감소했으나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나뉘는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1999년 224.5킬로미터에서 2016년 90.7킬로미터로 감소한 반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999년 4.5킬로미터에서 2016년 126.1킬로미터로 약 28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차선이 버스 전용으로 제공되는 차로이며, 전일제(7~21시까지 14시간 운영)와 시간제(평일 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 7~10시)로 운영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 도로의 중앙차로에 전용

차로를 제공하고 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 차로이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비해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줄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늘리는 추세이다.

일반도로 최초로 천호대로에는 24시간 상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2004년 서울시 버스 개편과 함께 강남대로 등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표 4.4-1 | 버스전용차로 개괄

단위 : 킬로미터, 퍼센트

연도	버스전용차로 합계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비율	연장	비율
1999	229.0	0.222	224.5	98.0	4.5	2.0
2000	218.4	0.211	213.9	97.9	4.5	2.1
2001	218.4	0.211	213.9	97.9	4.5	2.1
2002	217.9	0.212	213.4	97.9	4.5	2.1
2003	221.7	0.216	211.5	95.4	10.2	4.6
2004	209.6	0.204	170.9	81.5	38.7	18.5
2005	210.4	0.204	150.7	71.6	59.7	28.4

연도	버스전용차로 합계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비율	연장	비율
2006	213.5	0.206	143.0	67.0	70.5	33.0
2007	201.4	0.193	130.9	65.0	70.5	35.0
2008	198.5	0.190	115.8	58.3	82.7	41.7
2009	207.4	0.198	108.0	52.1	99.4	47.9
2010	208.2	0.197	101.0	48.5	107.2	51.5
2011	210.4	0.200	89.3	42.4	121.1	57.6
2012	210.4	0.201	88.3	42.0	122.1	58.0
2013	210.4	0.203	88.3	42.0	122.1	58.0
2014	217.0	0.209	92.7	42.7	124.3	57.3
2015	217.0	0.211	90.9	41.9	126.1	58.1
2016	216.8	0.212	90.7	41.8	126.1	58.2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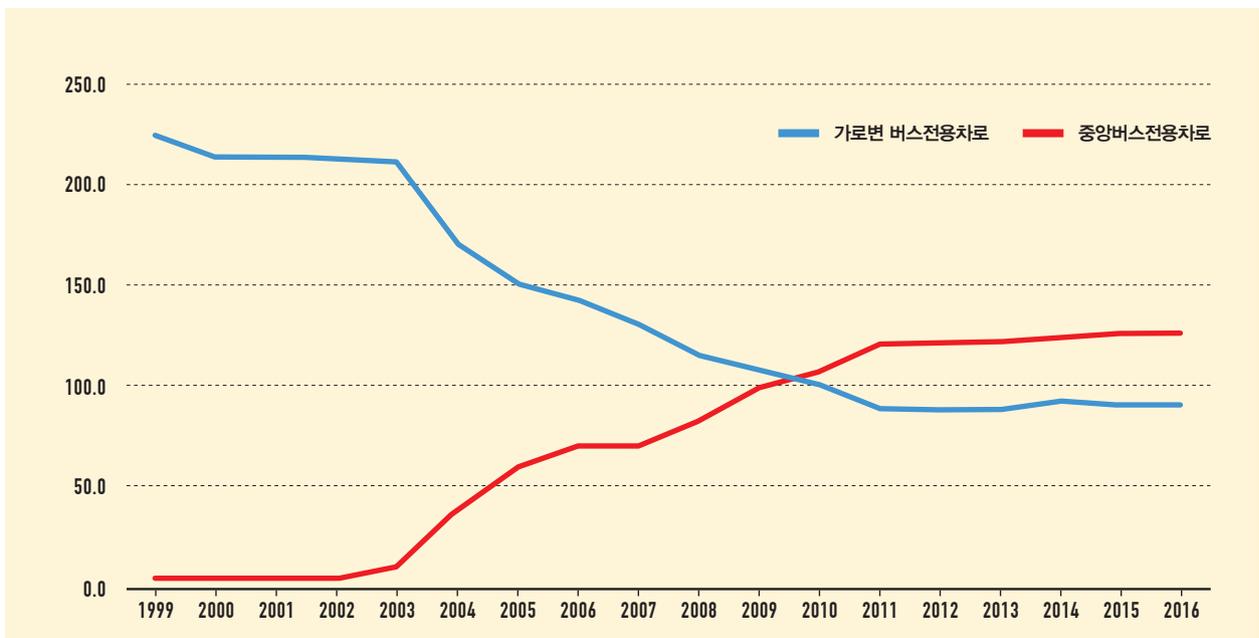
1.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합계 / 인구(만 명)

자료출처

1. 1999~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기반 - 버스전용차로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그림 4.4-1 | 버스전용차로 연장 추이

단위 : 킬로미터



자전거도로

4-5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였다. 이후 2009년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

| 표 4.5-1 | 자전거도로 개발

단위 : 킬로미터, 퍼센트

연도	자전거도로 합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1998	313.9								
1999	405.7								
2000	458.4								
2001	482.4								
2002	554.2	18.3	3.3	535.9	96.7				
2003	587.4	20.8	3.5	566.5	96.4				
2004	616.0	20.8	3.4	595.1	96.6				
2005	629.4	21.8	3.5	607.6	96.5				
2006	648.8	21.9	3.4	626.9	96.6				
2007	715.5	59.6	8.3	655.9	91.7				
2008	728.8	124.6	17.1	604.2	82.9				
2009	764.4	167.8	22.0	596.6	78.0				
2010	844.6	230.8	27.3	613.8	72.7				
2011	804.2	123.3	15.3	680.9	84.7				
2012	666.0	175.6	26.4	435.0	65.3	55.4	8.3		

연도	자전거도로 합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2013	707.6	78.1	11.0	576.7	81.5	52.9	7.5		
2014	724.6	75.0	10.4	592.8	81.8	56.8	7.8		
2015	778.8	99.5	12.8	577.8	74.2	51.8	6.7	49.7	6.4
2016	868.7	104.2	12.0	596.6	68.7	54.9	6.3	113.0	13.0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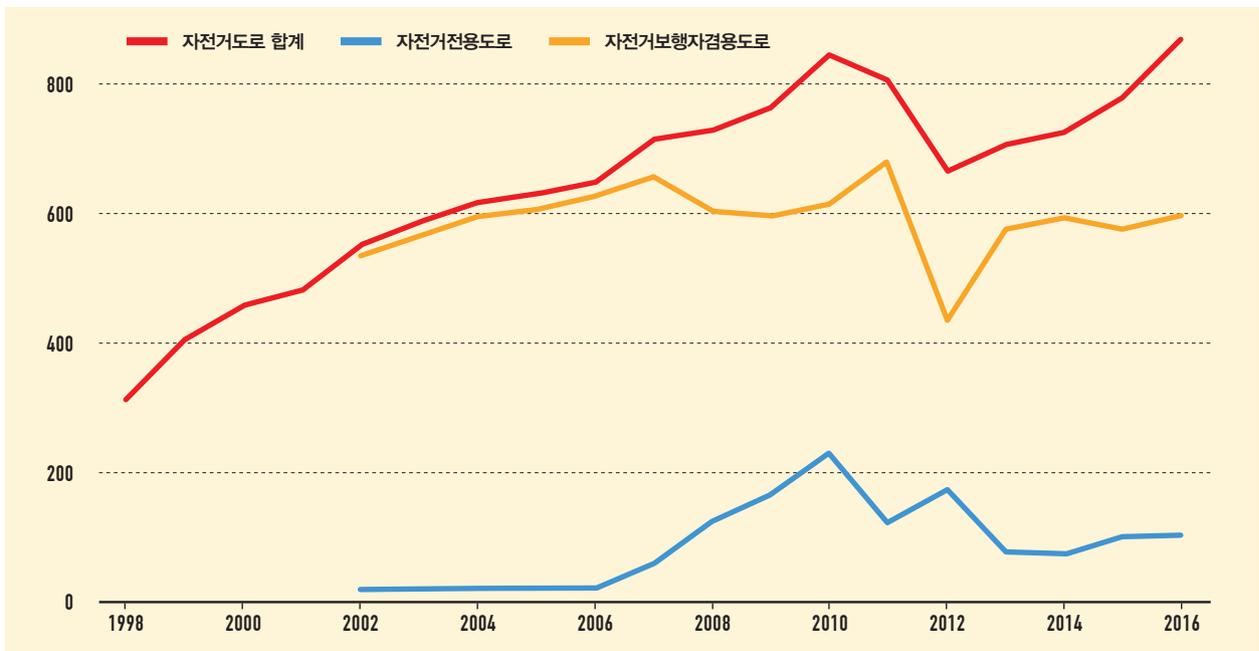
1. 자전거도로는 편도 기준(양방향인 경우 각각 인정)
2. 2011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 포함됨
3.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3)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4) 자전거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료출처

1. 1998~2001년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Ⅱ』
2. 2002~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기반 - 자전거도로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 그림 4.5-1 | 자전거도로 총계

단위 : 킬로미터



거전용차로(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로 구분하였다. 2014년에도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전거도로는 현재와 같이 4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로 분류되었다.

자전거도로는 1998년 313.9킬로미터에서 2016년

868.7킬로미터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자전거전용도로는 2002년 18.3킬로미터에서 2016년 104.2킬로미터로 약 5.7배 증가하였으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2002년 535.9킬로미터에서 2016년 596.6킬로미터로 약 1.1배 증가하였다.

교량 일반

서울의 교량 수는 1969년 301개였다.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78년 471개까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5년 292개로 줄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교량 수가 줄어든 것은 소규모 교량 혹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이

외의 교량들이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6년부터 교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431개, 2015년에는 494개다.

서울시 교량은 한강교량과 일반교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6년 499개 중 시계 내 한강교량은 21개이며, 나머지 478개는 일반교량에 포함된다.

| 표 4.6-1 | 교량 개괄

단위: 개

연도	총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1969	301	-	-
1970	331	-	-
1971	369	-	-
1972	384	-	-
1973	394	-	-
1974	420	-	-
1975	436	-	-
1976	447	-	-
1977	461	-	-
1978	471	-	-
1979	337	-	-
1980	343	-	-
1981	366	-	-

연도	총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1982	353	-	-
1983	308	-	-
1984	298	-	-
1985	292	-	-
1986	302	-	-
1987	311	-	-
1988	312	-	-
1989	303	-	-
1990	304	-	-
1991	324	-	-
1992	336	-	-
1993	336	-	-
1994	336	-	-
1995	340	-	-
1996	342	-	-
1997	362	-	-
1998	365	-	-
1999	381	-	-
2000	398	-	-
2001	431	-	-
2002	447	-	-
2003	459	-	-
2004	462	-	-
2005	497	-	-
2006	503	-	-
2007	425	-	-
2008	426	-	-
2009	427	20	407
2010	430	20	410

연도	총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2011	438	20	418
2012	447	20	427
2013	460	20	440
2014	491	21	470
2015	494	21	473
2016	499	21	478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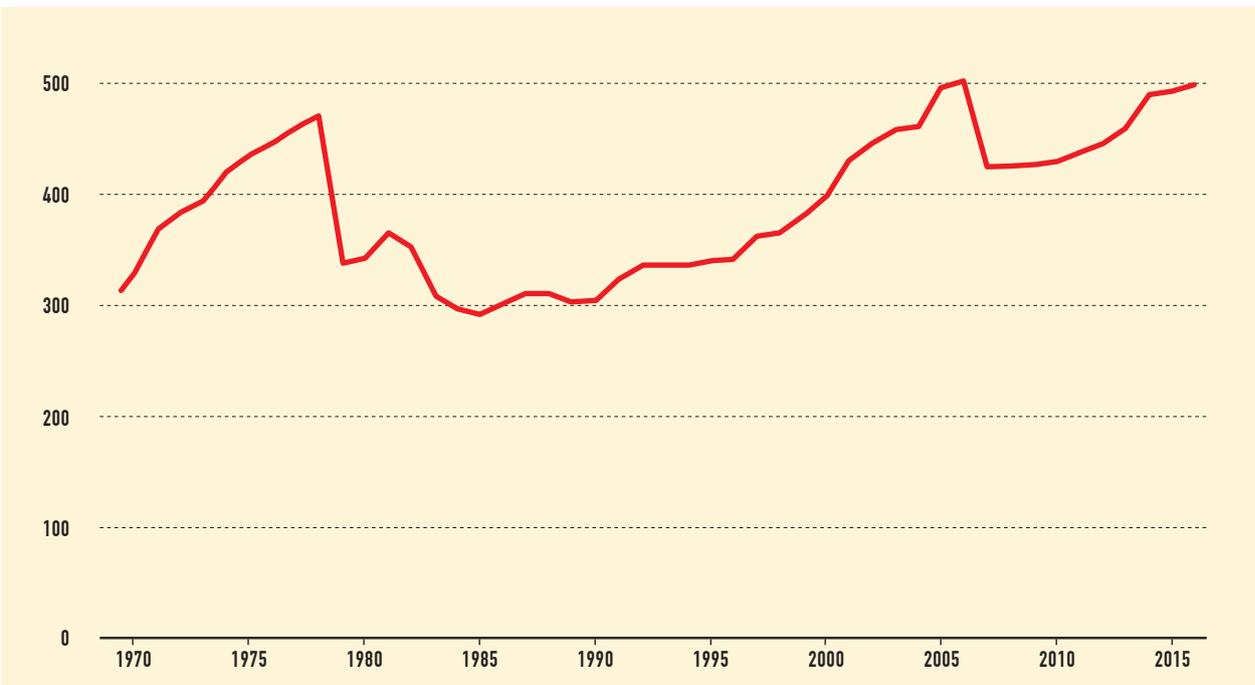
1. 1969~1980년의 교량 통계자료는 구조재료에 따라 분류함(철근콘크리트, 목조, 기타)
2. 1981~2008년에는 교량이 건설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함(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3. 2009~2016년에는 한강교량, 일반교량으로 분류함
4. 가장 최근 분류 형식(한강교량, 일반교량)에 따름

자료출처

1. 1969~197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2. 1972~199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97~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주택·건설 - 도로 - 교량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그림 4.6-1 | 교량 개소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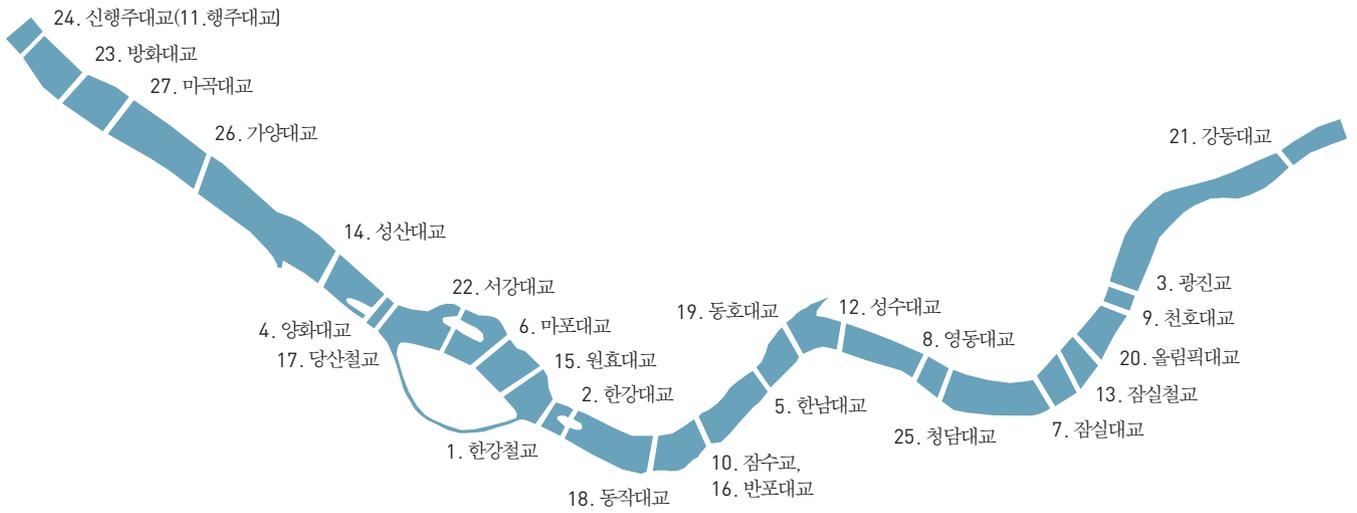
번호	교량명	준공 일자	번호	교량명	준공 일자
1	한강철도교	1990.7.5.	15	원효대교	1981.10.27.
2	한강대교	1917.10.17.	16	반포대교	1982.6.25.
3	광진교	1936.10.01.	17	당산철도교	1983.12.31.
4	양화대교	1965.1.25.	18	동작대교	1984.12.29.
5	한남대교	1969.12.25.	19	동호대교	1984.12.31.
6	마포대교	1970.5.16.	20	올림픽대교	1990.6.27.
7	잠실대교	1972.7.1.	21	강동대교	1991.12.1.
8	영동대교	1973.11.8.	22	서강대교	1999.8.14.
9	천호대교	1976.7.5.	23	방화대교	2000.11.21.
10	잠수교	1976.7.15.	24	신행주대교	2000.12.16.
11	행주대교	1978.7.22.	25	청담대교	2001.1.27.
12	성수대교	1979.10.15.	26	가양대교	2002.5.31.
13	잠실철교	1979.10.30.	27	마곡대교	2010.12.29.
14	성산대교	1980.6.30.			

주석

1. 1900년부터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된 한강교량으로서 '교량 개괄'의 개수와 다름

자료출처

1. 한강철도교, 한강대교, 광진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천호대교, 행주대교, 성수대교, 성산대교, 원효대교, 반포대교, 강동대교, 방화대교, 신행주대교 준공 일자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 『한강의 어제와 오늘』, 365~381쪽
2. 한남대교, 잠수교, 당산철도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올림픽대교, 가양대교 준공 일자 : 서울특별시, 2009, 『서울지명사전』, 1305~1493쪽
3. 잠실철교, 서강대교, 청담대교 준공 일자 : 서울시-안전-도시안전-도로교량안전사업-교량관리-한강교량 현황 <https://safe.seoul.go.kr/archives/29950>
4. 마곡대교 준공 일자 : 문화일보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301071043011010>



출처: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2010)

한강교량

서울시 교량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눈에 띄는 것은 한강에 설치된 다리이다. 최초의 한강교량은 1900년에 지어진 한강철교이며, 이어서 1917년 한강의 두 번째 교량이자 첫 번째 육상교통인 한강대교가 건설되었다. 세 번째 교량은 1936년 건설된 광진교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까지 한

강에 교량은 3개뿐이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 후반 2개의 한강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었는데, 제2한강교라고 불리는 양화대교와 제3한강교라고 불리는 한남대교이다. 그 뒤 강남 개발과 함께 서울의 급속한 도시 확산으로 한강교량은 1970년대 8개, 1980년대 6개, 1990년대 3개, 2000년대 5개 등이 건설되어 2016년 기준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는 총 27개 교량이 있다.

1967년 준공된 사직터널은 서울에 최초로 등장한 터널로 서울 도심부에 제1호 순환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직동과 행촌동을 잇는 터널이다. 이후 1970년 남산1호터널과 남산2호터널이 준공되었다.

남산3호터널이 개통된 것은 1978년인데, 당시 활발하게 터널이 건설된 이유는 도심과 강남을 연결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정부가 국가방위상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에도 원인이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구기터널과 상도터널이 개통된 데 이어 강남과 강북을 잇는 동호대교가 개통되면서 금호터널과 옥수터널이 개통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교외화로 인하여 강남과 도시 외곽을 잇는 매봉터널, 일원터널, 구룡터널이 개통되었고 도시 순환도로 건설에 따라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 등이 개통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우면산터널, 불암산터널, 세곡터널 등이 개통되었다.

| 표 4.7-1 | 터널 개괄

2015.12.31. 기준

노선	터널명	상하행	구	동	준공 일자
특별광역시도	사직터널(구)	교행	종로구	사직동	1967.5.30.
특별광역시도	삼청터널	교행	종로구	삼청동	1970.12.30.
특별광역시도	남산1호터널(구)	상행	중구	예정동	1970.8.15.
특별광역시도	남산2호터널	교행	중구	장충동2가	1970.12.4.
특별광역시도	북악터널(구)	상행	성북구	정릉동	1971.8.31.
특별광역시도	남산3호터널(상)	상행	중구	회현동2가	1978.3.31.
특별광역시도	남산3호터널(하)	하행	중구	회현동2가	1978.3.31.
특별광역시도	금화터널(상)	상행	서대문구	대신동	1979.8.16.
특별광역시도	금화터널(하)	하행	서대문구	대신동	1979.8.16.

노선	터널명	상하행	구	동	준공 일자
특별광역시도	구기터널(상)	상행	종로구	구기동	1980.12.29.
특별광역시도	구기터널(하)	하행	종로구	구기동	1980.12.29.
특별광역시도	사직터널(신)	하행	종로구	사직동	1980.8.16.
특별광역시도	상도터널(상)	상행	동작구	본동	1981.12.31.
특별광역시도	상도터널(하)	하행	동작구	본동	1981.12.31.
특별광역시도	화곡터널(상)	상행	강서구	화곡동	1983.8.20.
특별광역시도	화곡터널(하)	하행	강서구	화곡동	1983.8.20.
특별광역시도	금호터널(상)	상행	성동구	금호동3가	1984.2.29.
특별광역시도	금호터널(하)	하행	성동구	금호동3가	1984.2.29.
특별광역시도	옥수터널(상)	상행	성동구	옥수동	1984.2.29.
특별광역시도	옥수터널(하)	하행	성동구	옥수동	1984.2.29.
특별광역시도	자하문터널(상)	상행	종로구	청운동	1986.8.30.
특별광역시도	자하문터널(하)	하행	종로구	청운동	1986.8.30.
특별광역시도	산복터널(상)	상행	금천구	시흥동	1990.12.20.
특별광역시도	산복터널(하)	하행	금천구	시흥동	1990.12.20.
특별광역시도	북악터널(신)	하행	성북구	정릉동	1991.12.7.
특별광역시도	난곡터널(상)	상행	관악구	신림동	1992.6.20.
특별광역시도	난곡터널(하)	하행	관악구	신림동	1992.6.20.
특별광역시도	매봉터널(상)	상행	강남구	도곡동	1992.7.14.
특별광역시도	매봉터널(하)	하행	강남구	도곡동	1992.7.14.
특별광역시도	일원터널(상)	상행	강남구	개포동	1993.12.31.
특별광역시도	일원터널(하)	하행	강남구	개포동	1993.12.31.
특별광역시도	공릉터널	교행	노원구	공릉동	1994.3.31.
특별광역시도	남산1호터널(신)	하행	종구	예장동	1994.2.26.
특별광역시도	구룡터널(상)	상행	강남구	개포동	1998.4.30.
특별광역시도	구룡터널(하)	하행	강남구	개포동	1998.4.30.
구도	은평터널	교행	은평구	수색동	1998.12.30.
특별광역시도	정릉터널(상)	상행	성북구	정릉동	1999.1.31.

노선	터널명	상하행	구	동	준공 일자
특별광역시도	정릉터널(하)	하행	성북구	정릉동	1999.1.31.
특별광역시도	홍지문터널(상)	상행	종로구	평창동	1999.6.30.
특별광역시도	홍지문터널(하)	하행	종로구	평창동	1999.6.30.
특별광역시도	호암1터널(상)	상행	금천구	시흥동	2000.12.28.
특별광역시도	호암1터널(하)	하행	금천구	시흥동	2000.12.28.
특별광역시도	호암2터널(상)	상행	금천구	시흥동	2000.12.28.
특별광역시도	호암2터널(하)	하행	금천구	시흥동	2000.12.28.
고속국도130호선	개화터널(상)	상행	강서구	개화동	2000
고속국도130호선	개화터널(하)	하행	강서구	개화동	2000
특별광역시도	월드컵터널(상)	상행	마포구	성산동	2001
특별광역시도	월드컵터널(하)	하행	마포구	성산동	2001
특별광역시도	공동터널(상)	상행	양천구	신정동	2001.8.31.
특별광역시도	공동터널(하)	하행	양천구	신정동	2001.8.31.
특별광역시도	작동터널(상)	상행	구로구	공동	2001.8.31.
특별광역시도	작동터널(하)	하행	구로구	공동	2001.8.31.
특별광역시도	동망봉터널	교행	종로구	창신동	2002.12.31.
특별광역시도	솔샘터널	교행	강북구	미아동	2002.4.30.
특별광역시도	우면산터널(상)	상행	서초구	우면동	2003.12.31.
특별광역시도	우면산터널(하)	하행	서초구	우면동	2003.12.31.
특별광역시도	낙성대터널	교행	관악구	봉천동	2003
특별광역시도	국사봉(상)	상행	관악구	봉천동	2004.11.26.
특별광역시도	국사봉(하)	하행	관악구	봉천동	2004.11.26.
특별광역시도	무지개터널	교행	성동구	성수동1가	2005.6.30.
고속국도100호선	불암산터널(일산)	상행	노원구	상계동	2006
고속국도100호선	불암산터널(퇴계원)	하행	노원구	상계동	2006
고속도로171호선	세곡터널(상행)	상행	강남구	세곡동	2009
고속도로171호선	세곡터널(하행)	하행	강남구	세곡동	2009
구도	오패산터널	교행	도봉구	미아3동	2010.2.22.

주석

1. 준공 일자는 최초 준공 일자 기준

자료출처

1. 사직터널(구), 삼청터널, 북악터널(구), 남산3호터널(상) · (하), 구기터널(상) · (하), 사직터널(신), 상도터널(상) · (하), 화곡터널(상) · (하), 지하문터널(상) · (하), 매봉터널(상) · (하), 일원터널(상) · (하), 공릉터널, 구룡터널(상) · (하), 은평터널, 남산2호터널 : 서울특별시, 2009, 『서울지명사전』, 1305~1493쪽
2. 금화터널(상) · (하), 금호터널(상) · (하), 옥수터널(상) · (하), 산북터널(상) · (하), 난곡터널(상) · (하), 남산1호터널(신), 남산1호터널(구), 정릉터널(상) · (하), 홍지문터널(상) · (하), 호암1터널(상) · (하), 호암2터널(상) · (하), 공동터널(상) · (하), 작동터널(상) · (하), 동망봉터널, 솔샘터널, 우면산터널(상) · (하), 국사봉(상) · (하), 무지개터널, 오패산터널 : 서울특별시-정보소통광장-결재문서-결재문서 목록-2015년도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 및 터널 정보시스템 자료정비 요청-첨부문서(1) 2015년 도로시설물 현황 종합(서울시, 자치구)최종) <http://opengov.seoul.go.kr/sanction/4087176>
3. 개화터널(상) · (하), 월드컵터널(상) · (하), 낙성대터널, 불암산터널(일산) · (퇴계원), 세곡터널(상) · (하) : 국토해양부, 2016, 국토해양통계연보 <http://stat.molit.go.kr/portal/stat/yearReport.do>
4. 북악터널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II』

상수도 일반

서울의 상수도는 1903년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일본인 거주 구역에 사설로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근대적인 상수도는 1908년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상수도 보급률은 한국전쟁 이전 70퍼센트를 넘었으나,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56.8퍼센트로 급감하였고, 1961년

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초반 상수도 보급률이 60퍼센트 이하로 하락한 것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급률이 낮은 경기도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상수도 보급률은 1961년 56퍼센트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1969년 86퍼센트로 넘어섰다. 8년 사이에 무려 30퍼센트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후 상

| 표 4.8-1 | 상수도 개괄

단위 : 명, 퍼센트, 세제급미터/일, 리터, 미터

기간	급수대상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퍼센트)	사실용량 (세제급미터/일)	급수량 (세제급미터/일)	1일1인당급수량 (리터)	송수관 및 배수관 (미터)
1951	648,432	486,324	75.0	-	-	-	-
1952	716,865	537,649	75.0	-	-	-	-
1953	1,010,416	574,900	56.8	-	-	-	-
1954	1,242,880	743,611	59.8	-	-	-	-
1955	1,574,868	1,014,860	64.0	-	-	-	-
1956	1,503,865	1,017,009	68.0	-	-	-	-
1957	1,666,055	1,088,230	61.0	-	-	-	446,194
1958	1,756,406	1,097,028	62.0	-	-	-	488,549
1959	2,093,969	1,190,230	57.0	-	-	-	515,621
1960	2,445,402	1,462,361	60.0	-	-	-	546,398

기간	급수대상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퍼센트)	시설용량 (세제곱미터/일)	급수량 (세제곱미터/일)	1일1인당급수량 (리터)	송수관 및 배수관 (미터)
1961	2,577,018	1,443,779	56.0	-	-	-	576,791
1962	2,983,324	1,662,217	56.0	-	-	-	668,890
1963	3,254,630	1,976,225	61.0	-	-	-	727,938
1964	3,424,385	2,325,046	68.0	-	-	-	777,373
1965	3,470,880	2,557,209	73.0	-	-	-	818,672
1966	3,805,261	2,710,917	71.2	-	-	-	904,583
1967	3,969,218	2,972,378	75.1	-	-	-	951,527
1968	4,334,973	3,440,710	79.3	-	-	-	1,026,786
1969	4,776,928	4,106,939	86.0	-	-	-	1,158,836
1970	5,536,377	4,737,573	85.6	-	-	-	1,279,107
1971	5,850,925	5,030,000	86.0	-	-	-	1,404,241
1972	6,076,143	5,290,734	87.1	-	-	-	1,525,359
1973	6,289,556	5,530,630	87.9	-	-	-	1,635,680
1974	6,541,500	5,835,018	89.2	-	-	-	1,798,954
1975	6,889,470	6,140,000	89.1	-	-	-	1,947,169
1976	7,254,958	6,520,466	89.8	2,166,000	1,425,463	332	2,130,017
1977	7,525,629	6,744,547	89.6	2,170,000	1,542,215	321	2,415,602
1978	7,823,195	7,174,878	91.7	2,370,000	1,967,585	335	2,757,698
1979	8,114,021	7,492,937	92.3	3,070,000	2,171,540	290	3,070,340
1980	8,366,756	7,756,094	92.7	3,070,000	2,443,577	315	3,373,312
1981	8,676,037	8,130,448	93.7	3,470,000	2,588,639	318	3,765,151
1982	8,916,481	8,413,728	94.3	3,670,000	2,763,260	328	3,914,487
1983	9,204,344	8,857,205	96.2	3,670,000	3,019,919	340	4,421,166
1984	9,501,413	9,198,708	96.8	3,970,000	3,425,562	372	5,171,034
1985	9,645,932	9,403,782	97.5	3,970,000	3,591,890	382	5,672,706
1986	9,798,542	9,573,167	97.7	4,220,000	3,729,396	390	6,025,111
1987	9,991,089	9,810,492	98.2	4,720,000	3,915,298	399	6,587,036
1988	10,286,503	10,169,284	98.8	4,970,000	4,219,832	415	7,209,436

기간	급수대상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퍼센트)	시설용량 (세제급미터/일)	급수량 (세제급미터/일)	1일1인당급수량 (리터)	송수관 및 배수관 (미터)
1989	10,576,794	10,507,195	99.3	4,970,000	4,480,000	426	7,754,666
1990	10,612,577	10,585,950	99.7	5,220,000	4,841,508	457	7,963,591
1991	10,904,527	10,898,593	99.9	5,650,000	4,929,287	452	8,184,228
1992	10,969,862	10,964,120	99.9	6,190,000	5,012,262	457	8,567,963
1993	10,925,464	10,919,976	99.9	6,190,000	5,034,065	461	8,866,582
1994	10,798,700	10,791,862	99.9	6,190,000	5,137,230	476	8,982,463
1995	10,595,943	10,584,302	99.9	6,190,000	4,958,903	469	9,046,844
1996	10,469,852	10,459,075	99.9	6,190,000	4,991,280	478	9,110,404
1997	10,389,057	10,385,901	99.9	6,190,000	4,891,649	470	9,091,892
1998	10,321,496	10,319,135	99.9	6,800,000	4,585,800	444	9,153,462
1999	10,321,449	10,319,551	99.9	7,300,000	4,342,606	421	9,193,335
2000	10,373,234	10,371,861	100.0	6,900,000	4,162,143	401	9,255,645
2001	10,331,244	10,330,807	100.0	6,750,000	4,030,355	390	9,292,467
2002	10,280,523	10,280,183	100.0	6,520,000	3,780,000	368	9,419,434
2003	10,276,968	10,276,725	100.0	5,700,000	3,657,296	356	9,304,604
2004	10,287,847	10,287,604	100.0	5,400,000	3,526,370	343	9,375,523
2005	10,297,004	10,296,761	100.0	5,400,000	3,442,551	334	9,589,971
2006	10,356,202	10,356,018	100.0	5,400,000	3,351,514	324	10,483,980
2007	10,421,782	10,421,718	100.0	5,100,000	3,284,290	315	10,450,388
2008	10,456,034	10,456,034	100.0	5,100,000	3,252,788	311	10,402,248
2009	10,464,051	10,464,051	100.0	5,100,000	3,215,029	307	10,352,952
2010	10,575,447	10,575,447	100.0	4,550,000	3,217,454	304	10,361,987
2011	10,528,774	10,528,774	100.0	4,600,000	3,187,072	303	10,375,477
2012	10,442,426	10,442,426	100.0	4,350,000	3,159,095	303	10,354,321
2013	10,388,055	10,388,055	100.0	4,350,000	3,129,778	301	10,371,689
2014	10,369,593	10,369,593	100.0	4,350,000	3,093,257	298	10,340,333
2015	10,297,138	10,297,138	100.0	4,450,000	3,098,753	301	10,344,375
2016	10,204,057	10,204,057	100.0	4,450,000	3,100,748	303	10,338,113

주석

1. '-'는 자료 없음
2. 상수도 보급률은 급수대상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을 의미함

자료출처

※ 상수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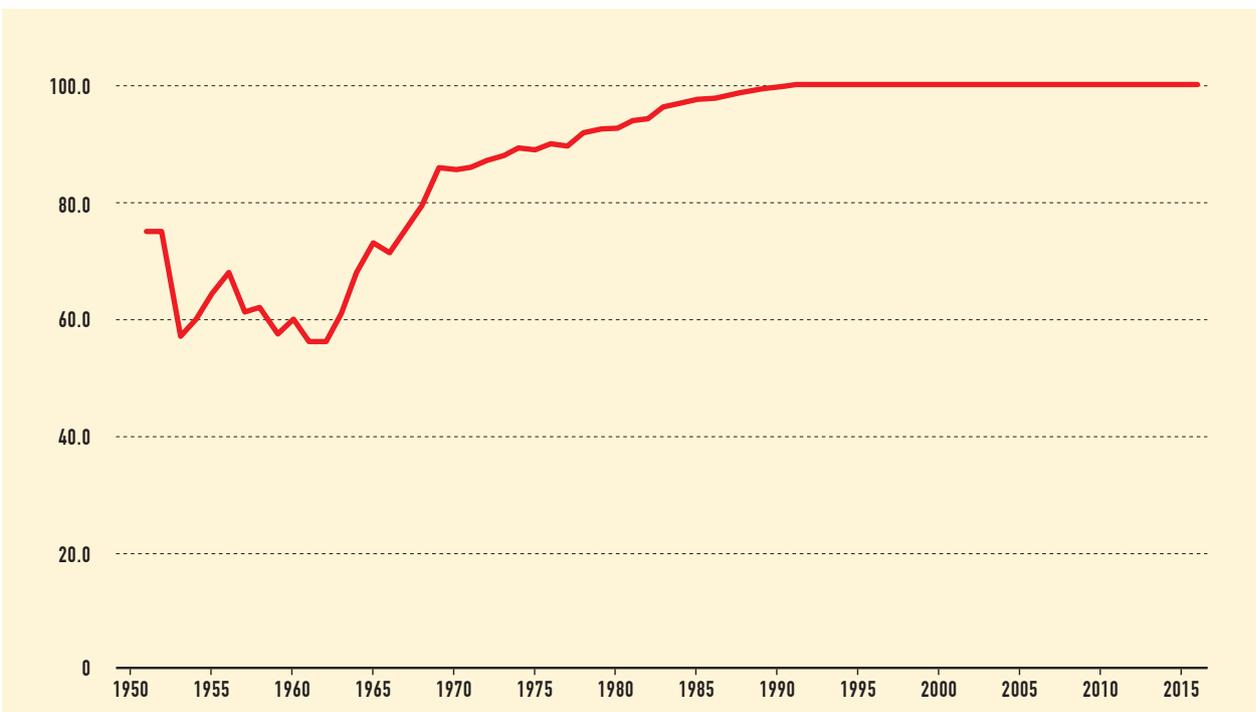
1. 1951~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2. 1965~197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76~1978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2회 1982년 서울통계연보(1981년 기준)
4. 1979~198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5. 1984~1989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6. 1990~1992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3회 1993년 서울통계연보(1992년 기준)
7. 1993~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환경-상수도-상수도급수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상수도관

1. 1957~196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6회 1966년 서울통계연보(1965년 기준)
2. 1966~197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75~197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17회 1977년 서울통계연보(1976년 기준)
4. 1977~1992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5. 1993~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환경-상수도-상수도관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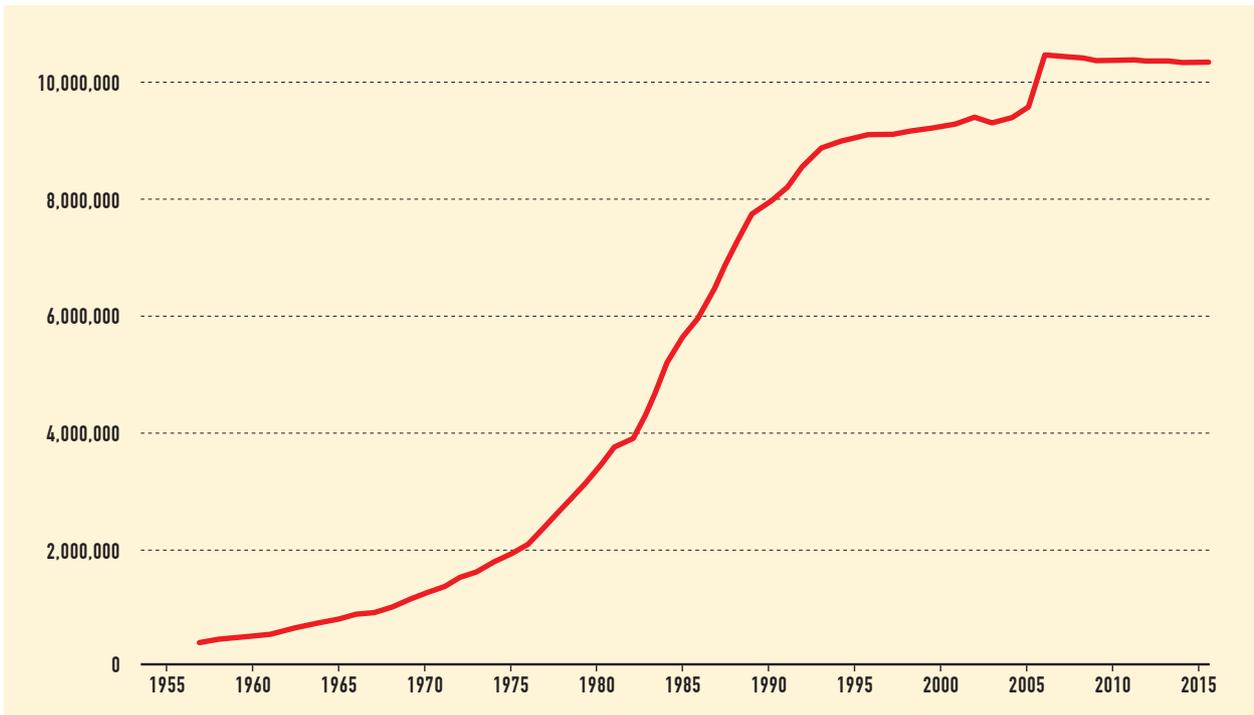
| 그림 4.8-1 | 상수도 보급률

단위 :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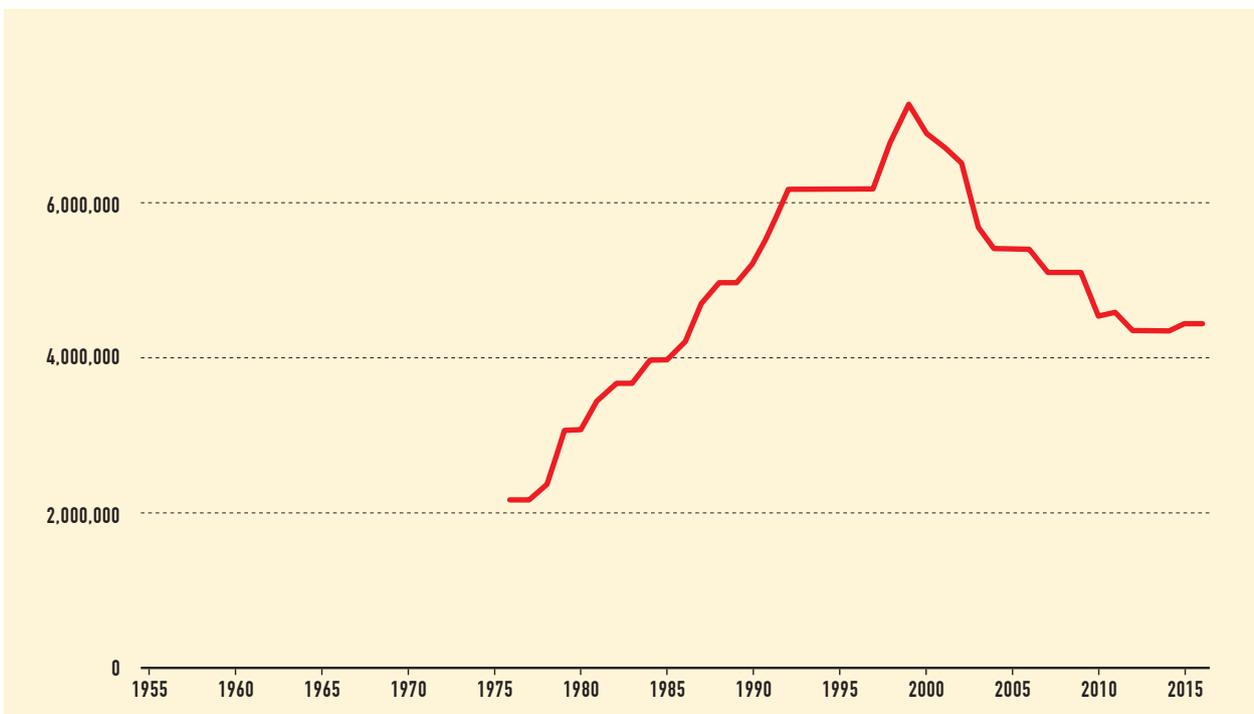
| 그림 4.8-2 | 송수관 및 배수관 총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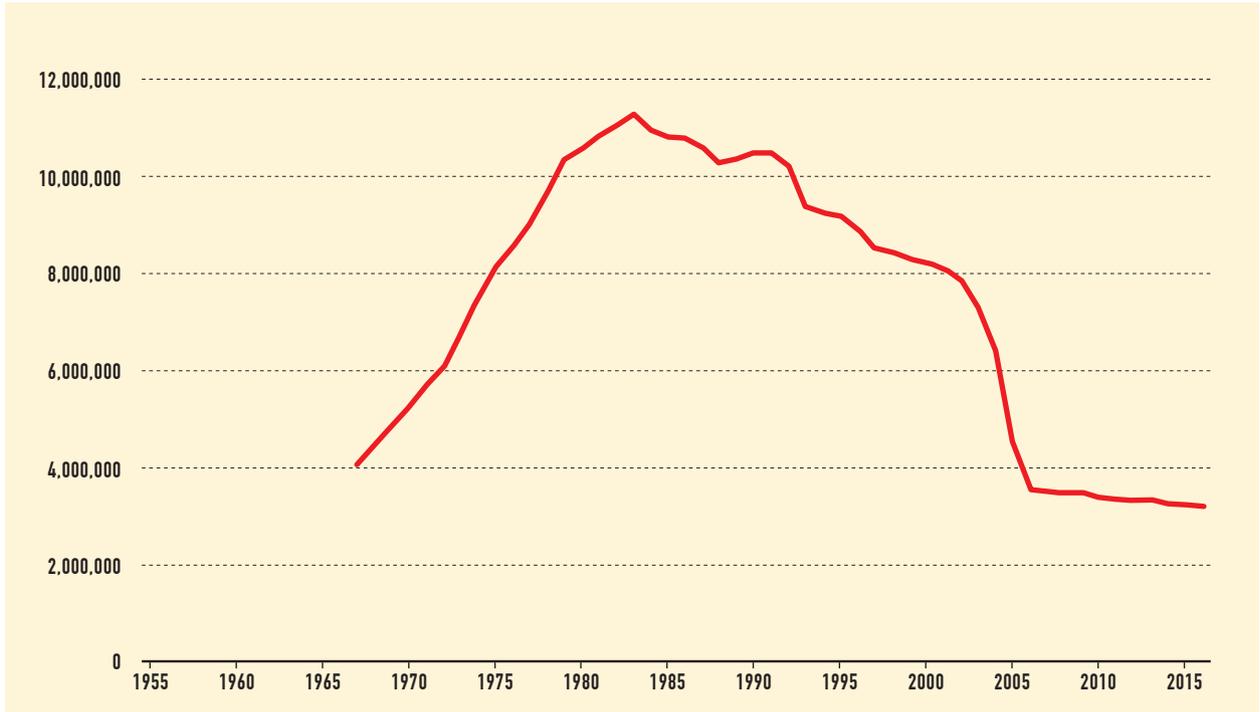
단위: 미터



| 그림 4.8-3 | 시설용량

단위: 세제곱미터/일





수도 보급률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1970년도 후반 90퍼센트를 넘어섰으며, 1990년도부터는 거의 100퍼센트 수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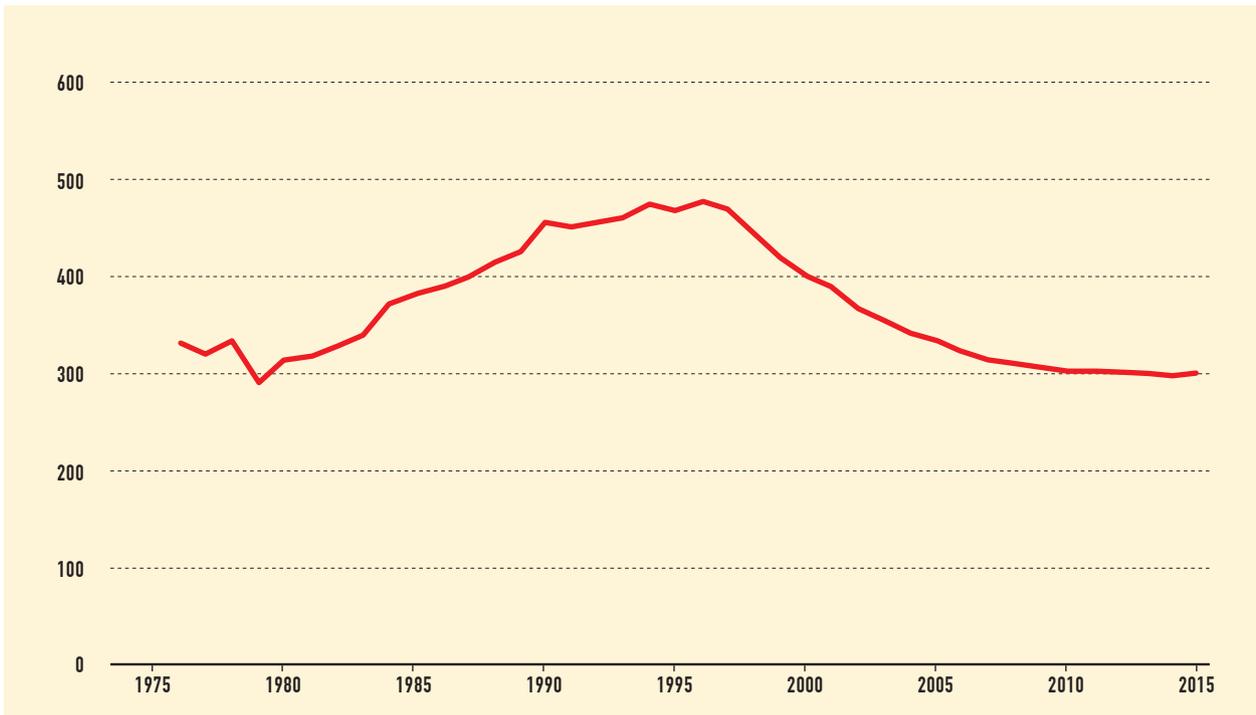
상수도 보급률이 증가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정수장 건설과 송·배수관 확충에 따른 결과이다. 상수도 시설을 보여 주는 송수관과 배수관의 총연장은 1957년 약 446킬로미터였으나 2015년 약 1만 344킬로미터로 무려 23배 증가하였다. 송수관과 배수관은 전기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1970년대 말부터 1990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송·배수관이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상수도 시설용량도 증가하였다. 1976년 시설용량은 하루당 216만 6천 세제곱미터였으나 1990년 522만 세제곱미터, 1999년 730만 세제곱미터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6년 445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용량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근소하기는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물 사용량 감소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급수량

1인당 1일 급수량은 1976년 당시 332리터였으며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996년 1인당 1일 급수량은 478리터까지 늘어났고, 점차 감소하여 2016년 303리터이다. 최근 1인당 급수량이 감소한 것은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량이 감소하고 절수기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요관리 정책에서의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물 아껴 쓰기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에 비해 하수도 보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은 편이다. 1970년에도 하수도 보급률은 27.9퍼센트로 같은 해 상수도 보급률 85.6퍼센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 생활하수와 빗물 등이 하수관거가 아니라 하천이나 지상에 그대로 방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서울의 위생 수준이 열악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 상수도 보급률은 급속하게 늘어나 1970년에 이미 85.6퍼센트를 달성한 반면,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후 서울로 몰려든 빈민들이 청계천변 판자촌에 살면서 청계천이 거의 하수처리장 역할을 했고, 그 밖에 서울 시내 작은 하천들의 상황도 청계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수도 보급률은 1977년 53퍼센트였으며, 이때부터

| 표 4.9-1 | 하수도 개발

연도	하수도 보급률(퍼센트)	배수계획 면적(제곱킬로미터)	배수구역 면적(제곱킬로미터)	하수도 총연장(킬로미터)
1970	27.93	261.70	73.10	1,463
1971	33.40	261.70	87.40	1,713
1972	36.03	261.70	94.30	1,845
1973	40.29	261.70	105.45	2,109
1974	44.11	262.40	115.74	2,343
1975	47.42	262.40	124.42	2,517
1976	48.99	262.40	128.56	2,780
1977	53.00	292.71	155.13	3,098
1978	57.00	301.23	171.70	3,639
1979	62.06	316.00	196.10	6,211

연도	하수도 보급률(퍼센트)	배수계획 면적(제공킬로미터)	배수구역 면적(제공킬로미터)	하수도 총연장(킬로미터)
1980	64.80	318.69	196.10	6,558
1981	66.80	321.38	206.63	6,790
1982	68.80	324.07	222.96	7,032
1983	85.90	315.77	271.21	7,286
1984	89.20	316.13	281.90	7,589
1985	93.00	316.22	294.31	8,294
1986	96.00	322.96	310.21	8,343
1987	97.60	323.06	315.17	8,540
1988	98.30	323.06	317.49	8,551
1989	98.60	323.10	318.67	8,977
1990	98.10	326.32	320.13	9,122
1991	98.70	327.96	323.53	9,241
1992	99.00	328.07	324.85	9,384
1993	99.10	352.50	349.21	9,487
1994	99.20	353.80	350.97	9,526
1995	99.10	357.21	354.01	9,580
1996	99.40	357.74	355.54	9,659
1997	100.00	351.17	351.17	9,705
1998	100.00	352.19	352.19	9,820
1999	100.00	352.34	352.34	9,889
2000	100.00	352.73	352.73	9,937
2001	100.00	358.28	358.28	10,015
2002	100.00	358.46	-	10,052
2003	100.00	358.55	-	10,087
2004	100.00	358.57	-	10,157
2005	100.00	358.55	-	10,228
2006	100.00	358.57	-	10,252
2007	100.00	360.48	-	10,261

연도	하수도 보급률(퍼센트)	배수계획 면적(제곱킬로미터)	배수구역 면적(제곱킬로미터)	하수도 총연장(킬로미터)
2008	100.00	361.20	-	10,283
2009	100.00	361.60	-	10,287
2010	100.00	357.19	-	10,291
2011	100.00	408.70	-	10,297
2012	100.00	408.80	-	10,487
2013	100.00	408.80	-	10,392
2014	100.00	408.90	-	10,571
2015	100.00	432.10	-	10,616
2016	100.0	408.90	-	10,682

주석

1. '-'는 자료 없음
2.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배수구역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3. 1970~2001년 하수도 보급률 = 배수구역 면적/배수계획 면적×100
4. 2002~2016년 하수도 보급률 = 배수시설 연장/배수계획 연장×100

자료출처

1. 1970~197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2. 1980~198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3회 1983년 서울통계연보(1982년 기준)
3. 1983~1991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1983~1992), p.43
4. 1992~2001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2002), p.40
5. 2002~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환경 - 하수도 - 하수관거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급속하게 확충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2~1983년에는 불과 1년 사이에 68.8퍼센트에서 85.9퍼센트로 무려 17 퍼센트포인트가 증가했다. 1985년부터 서울의 하수도 보급률은 90퍼센트를 넘어섰으며, 1990년도부터는 거의 100퍼센트를 달성하였다.

하수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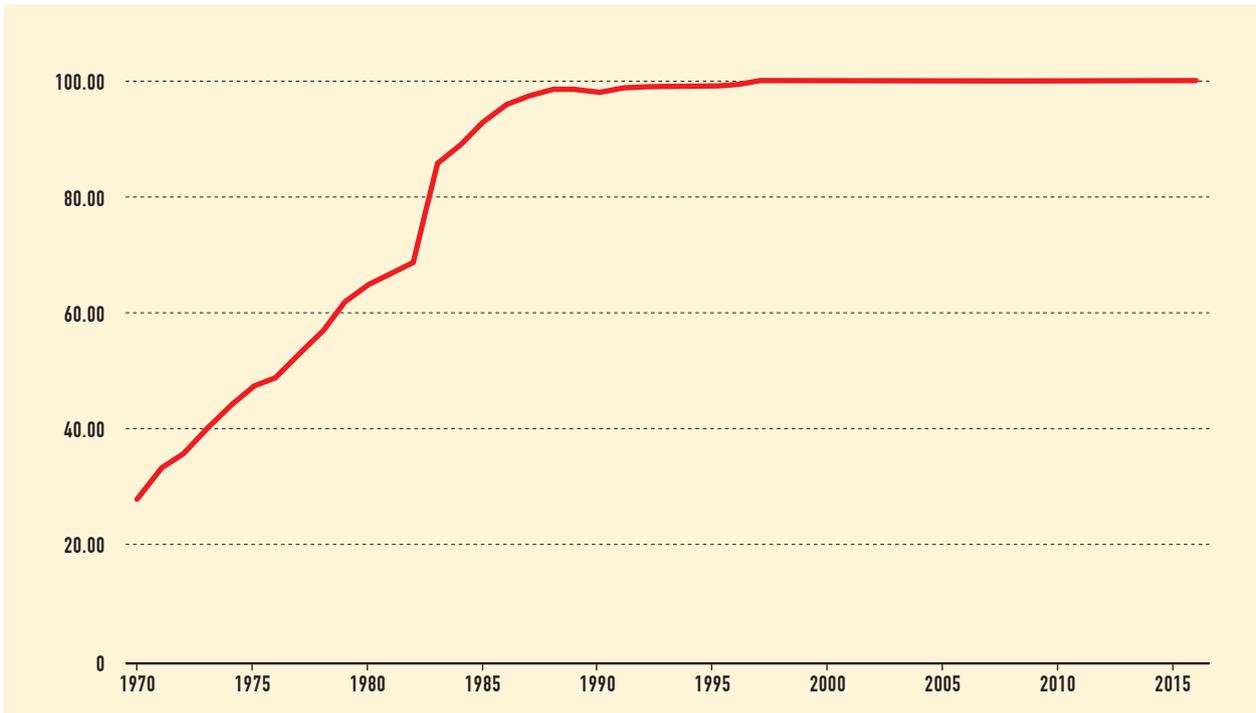
하수도 보급률의 급속한 향상은 하수도시설 설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970년 서울시의 하수도 연장은 1,463킬로미터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 6,211킬로미터로 10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1990년에 9천 킬로미터를 넘어섰으며, 2001년에는 1만 15킬로미터로 증가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1만 682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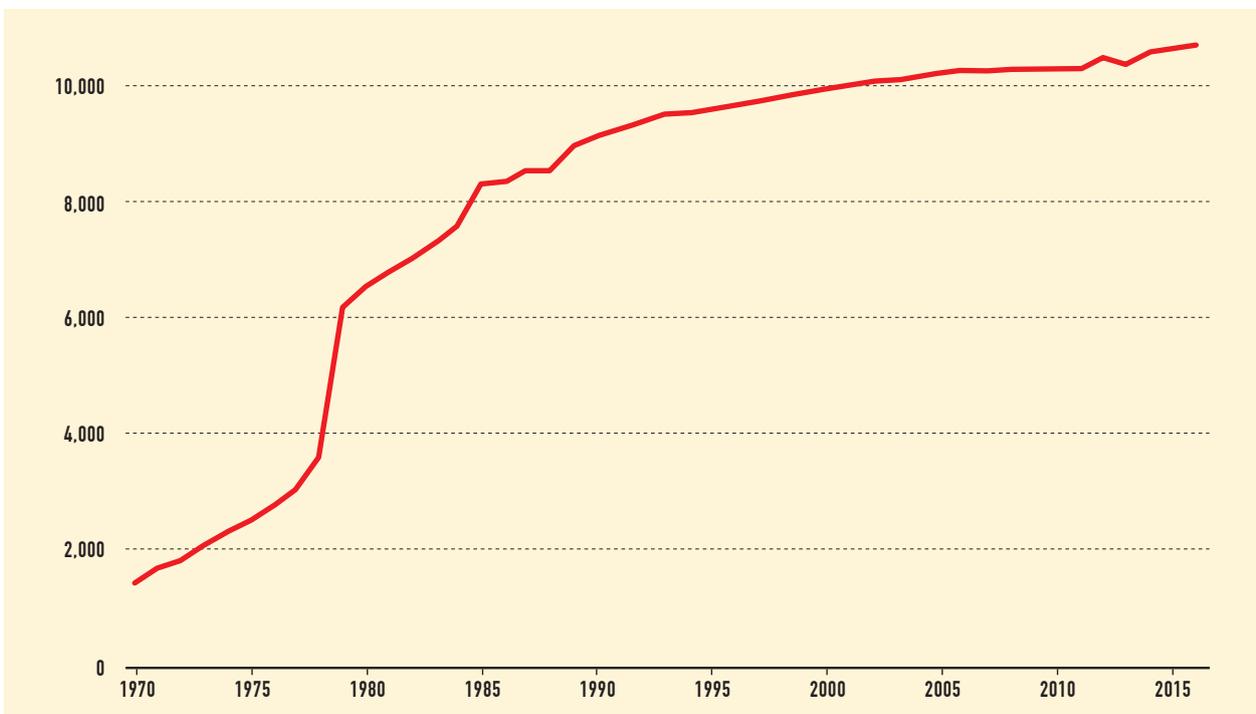
| 그림 4.9-1 | 하수도 보급률

단위 : 퍼센트



| 그림 4.9-2 | 하수도 총연장

단위 : 킬로미터



공원 및 녹지대

4-10

서울 시내 공원 개수는 1940년 142개에서 2016년 2,834개로 약 20배 증가하였고, 공원 면적도 13.8제곱킬로미터에서 168.2제곱킬로미터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증가는 인구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1인당 공원 면적은 1950~1985년까지 변동 폭이 상당했으나, 1940년과 2016년만 비교해 보면 1인당 14.8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공원 개수는 1946년부터 1963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 뒤 1970~1983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4년 393개이던 공원 수가 1983년 2,045개로 1,652개가 늘어났다. 그러나 1인당 공원 면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1인당 공원 면적은 16.4제곱미터로 공원 면적이 가장 적었던 시기인 1963년의 7.7제곱미터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

| 표 4.10-1 | 공원 및 녹지대 개괄

단위: 개, 제곱미터, 제곱미터/인

연도	공원			녹지	
	개소	면적	1인당 공원 면적	개소	면적
1940	142	13,801,580	14.83		
1941	142	13,801,580	14.16		
1942	142	13,801,580	12.39		
1943	142	13,801,580	12.80		
1944	142	13,801,580	14.56		
1945	142	13,801,580	15.31		
1946	123	25,487,564	20.13		
1947	123	25,487,564	15.48		
1948	123	25,487,564	14.93		
1949	123	25,487,564	17.97		

연도	공원			녹지	
	개소	면적	1인당 공원 면적	개소	면적
1950	123	25,487,564	15.05		
1951	123	25,487,564	39.31		
1952	123	25,487,564	35.55		
1953	123	25,487,564	25.22		
1954	123	25,487,564	20.51		
1955	123	25,487,564	16.18		
1956	123	25,487,564	16.95		
1957	123	25,487,564	15.30		
1958	123	25,487,564	14.51		
1959	123	25,487,564	12.17		
1960	124	25,220,465	10.31		
1961	124	25,220,465	9.79		
1962	136	25,044,639	8.39		
1963	136	25,044,639	7.70		
1964	152	55,812,850	16.30		
1965	152	55,812,850	16.08	40	49,629
1966	152	55,812,850	14.71	32	38,010
1967	152	55,812,850	14.06	34	48,640
1968	152	55,812,850	12.88	34	47,993
1969	254	51,048,308	10.69	44	97,310
1970	252	52,500,326	9.66	43	107,180
1971	358	141,225,878	24.14	59	229,605
1972	359	141,410,622	23.27	69	248,258
1973	364	144,427,199	22.96	82	266,915
1974	393	160,884,831	24.59	101	317,844
1975	525	161,764,605	23.48	112	410,792
1976	573	158,446,168	21.84	125	437,000
1977	564	131,794,889	17.51	157	620,742
1978	732	127,955,282	16.36	228	704,680
1979	858	127,903,685	15.76	368	1,281,226
1980	1,609	174,295,131	20.84	415	1,620,466

연도	공원			녹지	
	개소	면적	1인당 공원 면적	개소	면적
1981	1,704	174,657,613	20.13	576	2,073,620
1982	1,941	132,774,136	14.89	644	2,407,890
1983	2,045	107,753,505	11.71	673	2,631,967
1984	1,027	149,166,114	15.70	670	2,689,374
1985	1,074	153,716,676	15.95	696	2,750,926
1986	1,126	153,438,495	15.66	741	3,667,463
1987	1,213	153,799,184	15.39	788	4,753,578
1988	1,241	153,388,536	14.91	884	4,915,027
1989	1,252	152,416,219	14.41	873	5,002,977
1990	1,326	152,372,476	14.36	839	5,011,537
1991	1,357	150,944,575	13.84	857	5,052,722
1992	1,348	150,423,380	13.71	817	4,985,216
1993	1,351	150,361,379	13.76	853	5,288,182
1994	1,381	150,790,971	14.01	847	5,365,888
1995	1,404	150,842,105	14.24	884	5,730,300
1996	1,400	152,501,587	14.57	917	5,741,354
1997	1,405	154,056,697	14.83	1,139	7,848,548
1998	1,419	154,175,950	14.94	1,185	7,722,731
1999	1,423	154,228,227	14.94	1,208	7,558,280
2000	1,437	155,852,027	15.02	1,384	7,692,659
2001	1,559	157,439,000	15.11	1,632	7,847,954
2002	1,646	158,135,000	15.38	1,800	8,032,860
2003	1,687	157,828,000	15.36	1,914	8,084,159
2004	1,738	159,255,000	15.48	2,056	8,185,144
2005	1,953	164,218,000	15.95	2,224	8,708,113
2006	2,097	164,906,000	15.92	2,359	7,738,173
2007	2,182	166,049,000	15.93	2,830	9,939,149
2008	2,465	168,150,700	16.08	3,438	13,085,443
2009	2,531	169,047,000	16.16	4,714	12,888,759
2010	2,608	169,792,300	16.06	5,432	13,418,116
2011	2,643	170,002,500	16.15	5,798	13,772,994

연도	여원			녹지	
	개소	면적	1인당 공원 면적	개소	면적
2012	2,714	169,125,400	16.20	6,084	13,926,415
2013	2,782	170,080,900	16.37	6,323	14,148,342
2014	2,811	167,646,900	16.17	6,574	14,387,078
2015	2,827	167,862,000	16.30	6,938	14,669,899
2016	2,834	168,203,900	16.48	7,077	15,083,313

주석

- 1인당 공원 면적(1940~1982년) = (자연공원(대공원) + 도로공원 + 근린공원 + 운동공원 + 묘지공원 + 아동공원) ÷ 인구수
-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1983~2015년) = ((도시자연공원×0.08) +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체육공원 + 문화공원 + 역사공원 + 수변공원 + 기타 공원) ÷ 인구수. 단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면적에서 서울대공원 면적은 제외
- 녹지대는 사설녹지,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하천변 조경, 간이휴게소, 지하철 환기구 주변, 건물 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구공간조성, 기타가 포함됨

자료출처

※ 공원

1. 1940~196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0회 1970년 서울통계연보(1969년 기준)
2. 196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4회 1974년 서울통계연보(1973년 기준)
3. 1970~197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7회 1977년 서울통계연보(1976년 기준)
4. 1977~198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5. 1983~1992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1983-1992)
6. 1993~2000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2002)
7. 2001~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환경 - 자연보전 - 공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녹지

1. 1965~196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2. 196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0회 1970년 서울통계연보(1969년 기준)
3. 1970~197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7회 1977년 서울통계연보(1976년 기준)
4. 1977~198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5. 1983~1992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1983-1992)
6. 1993~2000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2002)
7. 2001~2003년 : 정보공개청구(서울특별시 조경과)
8. 2004~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환경 - 자연보전 - 녹지 현황(총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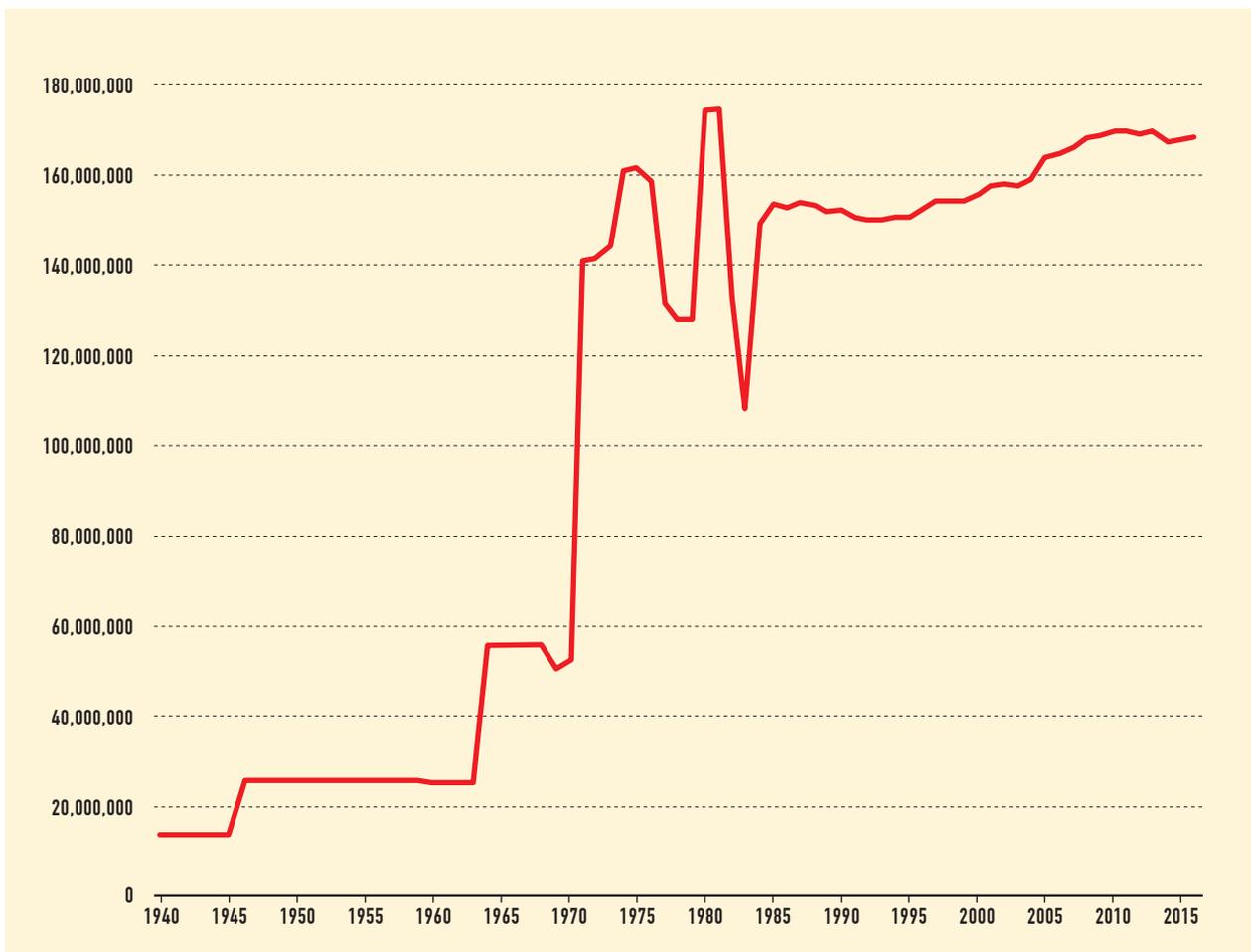
※ 1인당 공원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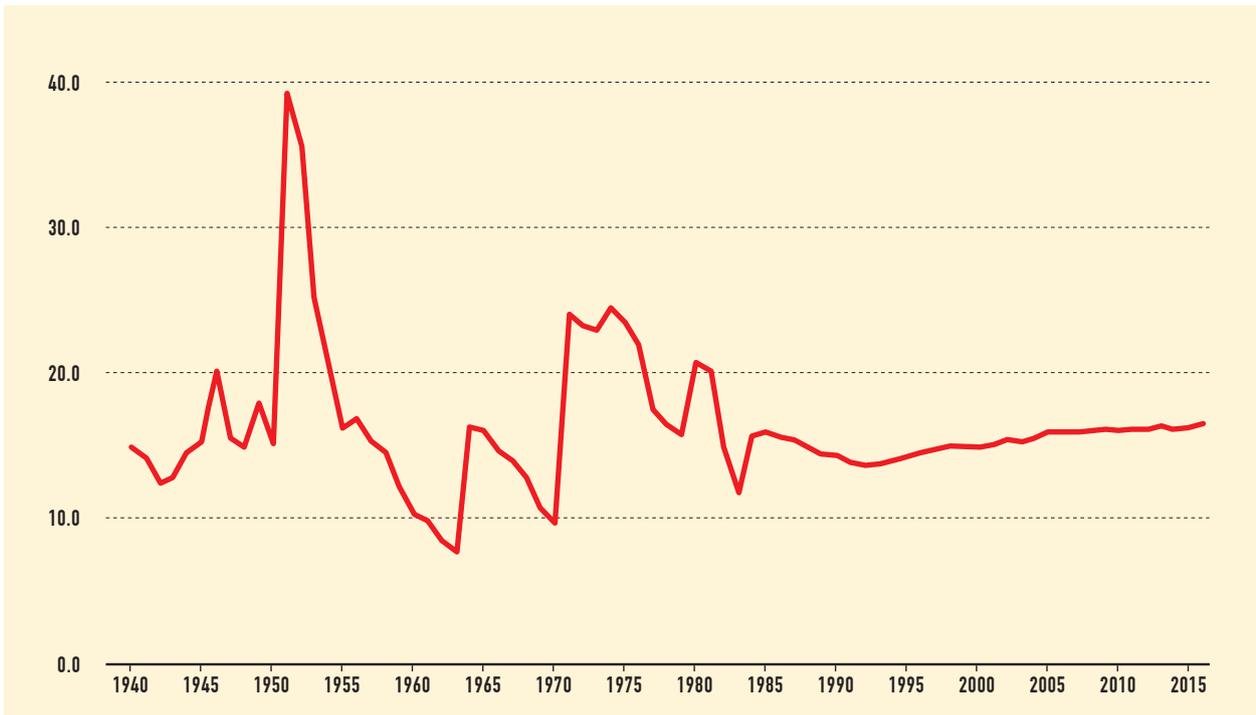
1. 1940~1982년 : 공원 면적/총인구(표.1.1-1)
2. 1983~1992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1983-1992)
3. 1993~2001년 : 서울특별시,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2002)
4. 2002~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환경 - 자연보전 - 공원(1인당 공원 면적)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1965년 40개소, 총면적 4만 9,629제곱미터에 불과하던 서울의 녹지는 2016년 7,077개소, 1508만 3,313제곱미터에 이르렀다. 이는 각각 약 177배, 304배 증가한 것으로 공원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급속히 늘어났다. 녹지 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말부터이다. 1979년 녹지 면적은 128만 1,226제곱미터로 늘어났으며, 2년 후인 1981년 207만 3,620제곱미터로 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500만 2,977제곱미터, 2008년 1308만 5,443제곱미터를 기록했다. 2016년 서울시 녹지 면적은 1508만 3,313제곱미터에 이르고 있다.

| 그림 4.10-1 | 공원 면적

단위 : 제곱미터





5

교통

자동차 등록 대수

5-1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1958년까지 서울에 자동차 수는 총 1만 대를 넘지 않았으며, 인구 천 명당 5.5대 정도 수준이었다. 1959년 자동차 수는 1만 822대로 이때부터 1960년 중반까지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인구 천 명당 차량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1960년대 말부터 서울에 자동차 수와 인구 천 명당 차량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승용차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1974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는 '브리샤'를 생산하였고, 1975년 현대자동차가 국산 첫 모델 '포니'를 만들면서 '마이카 시대'로 들어섰다. 서울의 자동차 수가 20만 대를 넘어선 것은 1979년이었으며, 이때는 인구 천 명당 약 2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다. 자동차가 가장 많이

| 표 5.1-1 |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단위: 대, 퍼센트

연도	총계	인구 천 명당 차량 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57	9,112	5.5	4,992	54.8	1,520	16.7	1,839	20.2	239	2.6
1958	9,655	5.5	4,962	51.4	1,734	18.0	2,159	22.4	214	2.2
1959	10,822	5.2	5,526	51.1	1,962	18.1	2,510	23.2	237	2.2
1960	11,411	4.7	5,838	51.2	1,993	17.5	2,647	23.2	225	2.0
1961	10,306	4.0	4,506	43.7	2,049	19.9	2,760	26.8	271	2.6
1962	11,562	3.9	6,531	56.5	1,090	9.4	3,029	26.2	88	0.8
1963	12,883	4.0	5,919	45.9	2,485	19.3	3,373	26.2	105	0.8
1964	14,457	4.2	8,426	58.3	1,295	9.0	3,541	24.5	120	0.8
1965	16,624	4.8	5,202	31.3	3,069	18.5	5,022	30.2	3,331	20.0
1966	20,638	5.4	7,181	34.8	3,268	15.8	5,749	27.9	4,440	21.5
1967	25,680	6.5	10,544	41.1	3,349	13.0	7,371	28.7	4,416	17.2

연도	총계	인구 천 명당 차량 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68	35,135	8.1	15,135	43.1	3,809	10.8	11,388	32.4	4,803	13.7
1969	49,628	10.4	24,600	49.6	4,475	9.0	14,333	28.9	6,220	12.5
1970	60,442	11.1	30,304	50.1	4,805	7.9	19,325	32.0	6,008	9.9
1971	67,275	11.5	35,005	52.0	5,518	8.2	20,923	31.1	5,829	8.7
1972	68,492	11.3	37,202	54.3	5,546	8.1	20,463	29.9	5,281	7.7
1973	76,303	12.1	42,575	55.8	5,957	7.8	22,922	30.0	4,849	6.4
1974	80,248	12.3	42,649	53.1	6,315	7.9	26,854	33.5	4,430	5.5
1975	85,407	12.4	46,265	54.2	6,634	7.8	28,307	33.1	4,201	4.9
1976	96,557	13.3	53,694	55.6	7,117	7.4	31,775	32.9	3,971	4.1
1977	123,233	16.4	73,308	59.5	8,015	6.5	38,708	31.4	3,202	2.6
1978	167,101	21.4	106,099	63.5	8,730	5.2	50,688	30.3	1,584	0.9
1979	201,188	24.8	128,353	63.8	11,054	5.5	60,327	30.0	1,454	0.7
1980	206,778	24.7	130,064	62.9	12,133	5.9	63,222	30.6	1,359	0.7
1981	221,644	25.5	140,357	63.3	14,799	6.7	65,479	29.5	1,009	0.5
1982	253,647	28.4	161,494	63.7	21,037	8.3	70,084	27.6	1,032	0.4
1983	314,777	34.2	205,358	65.2	29,426	9.3	78,729	25.0	1,264	0.4
1984	377,220	39.7	247,613	65.6	36,847	9.8	91,291	24.2	1,469	0.4
1985	445,807	46.2	296,848	66.6	44,252	9.9	103,111	23.1	1,596	0.4
1986	521,521	53.2	350,841	67.3	52,248	10.0	116,683	22.4	1,749	0.3
1987	631,794	63.2	432,638	68.5	64,481	10.2	133,033	21.1	1,642	0.3
1988	778,940	75.7	547,009	70.2	79,477	10.2	150,585	19.3	1,869	0.2
1989	991,290	93.7	721,726	72.8	92,785	9.4	175,803	17.7	976	0.1
1990	1,193,633	112.5	883,415	74.0	103,833	8.7	204,641	17.1	1,744	0.1
1991	1,374,677	126.1	1,035,943	75.4	108,351	7.9	228,787	16.6	1,596	0.1
1992	1,569,399	143.1	1,194,432	76.1	117,821	7.5	255,339	16.3	1,807	0.1
1993	1,750,880	160.3	1,346,181	76.9	124,627	7.1	278,332	15.9	1,740	0.1
1994	1,932,233	178.9	1,498,895	77.6	132,441	6.9	299,055	15.5	1,842	0.1
1995	2,043,458	192.9	1,595,039	78.1	135,111	6.6	311,297	15.2	2,011	0.1
1996	2,168,182	207.1	1,704,493	78.6	142,366	6.6	319,138	14.7	2,185	0.1
1997	2,248,567	216.4	1,776,377	79.0	149,925	6.7	320,033	14.2	2,232	0.1
1998	2,198,619	213.0	1,732,632	78.8	154,283	7.0	309,556	14.1	2,148	0.1

연도	총계	인구 천 명당 차량 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99	2,297,726	222.6	1,762,927	76.7	204,638	8.9	328,018	14.3	2,143	0.1
2000	2,440,992	235.3	1,796,720	73.6	289,219	11.8	352,801	14.5	2,252	0.1
2001	2,550,441	246.9	1,917,947	75.2	251,834	9.9	378,287	14.8	2,373	0.1
2002	2,691,431	261.8	2,053,613	76.3	244,184	9.1	391,142	14.5	2,492	0.1
2003	2,776,536	270.2	2,143,502	77.2	231,414	8.3	399,117	14.4	2,503	0.1
2004	2,779,841	270.2	2,162,256	77.8	219,509	7.9	395,441	14.2	2,635	0.1
2005	2,808,771	272.8	2,209,526	78.7	204,138	7.3	392,196	14.0	2,911	0.1
2006	2,856,857	275.9	2,266,106	79.3	198,696	7.0	388,988	13.6	3,067	0.1
2007	2,933,286	281.5	2,347,758	80.0	195,302	6.7	386,876	13.2	3,350	0.1
2008	2,949,211	282.1	2,375,173	80.5	191,335	6.5	379,247	12.9	3,456	0.1
2009	2,954,704	282.4	2,394,901	81.1	185,343	6.3	370,894	12.6	3,566	0.1
2010	2,981,400	281.9	2,434,230	81.6	176,999	5.9	366,306	12.3	3,865	0.1
2011	2,977,599	282.8	2,443,261	82.1	169,922	5.7	360,103	12.1	4,313	0.1
2012	2,969,184	284.3	2,447,876	82.4	162,723	5.5	353,905	11.9	4,680	0.2
2013	2,973,877	286.3	2,462,515	82.8	156,871	5.3	349,285	11.7	5,206	0.2
2014	3,013,541	290.6	2,510,742	83.3	149,991	5.0	346,980	11.5	5,828	0.2
2015	3,056,588	296.8	2,560,154	83.8	141,927	4.6	347,765	11.4	6,742	0.2
2016	3,083,007	302.1	2,598,344	84.3	134,309	4.4	343,173	11.1	7,181	0.2

주석

- 1957~1964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항목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소형차로 구분함
- 1957~1964년의 자동차 등록 대수 총 합계에는 소형차를 포함시켰으나, 이 표에서는 소형차 대수와 비율을 따로 표기하지 않음
- 총 합계에서 이문처는 제외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다만 다음 각 목적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 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 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자료출처

- 1957~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7&cot=009>
- 1965~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수단 - 자동차등록(월별/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늘어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1986년 52만 1,521대로 서울의 자동차 수가 총 50만대를 돌파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승용차 소유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90년에는 100만대를 넘어서서 인구 천 명당 100대 이상의 비율로 자동차가 보급되었다. 1995년에는 204만 3,458대로 1990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자동차 수가 약 2배 증가하였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244만 992대, 인구 천 명당 235.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08만 3,007대, 인구 천 명당 302.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다.

1968년까지만 해도 화물차와 특수차를 합친 수보다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적었지만, 1969년부터 승용차 등록 대수가 화물차와 특수차의 합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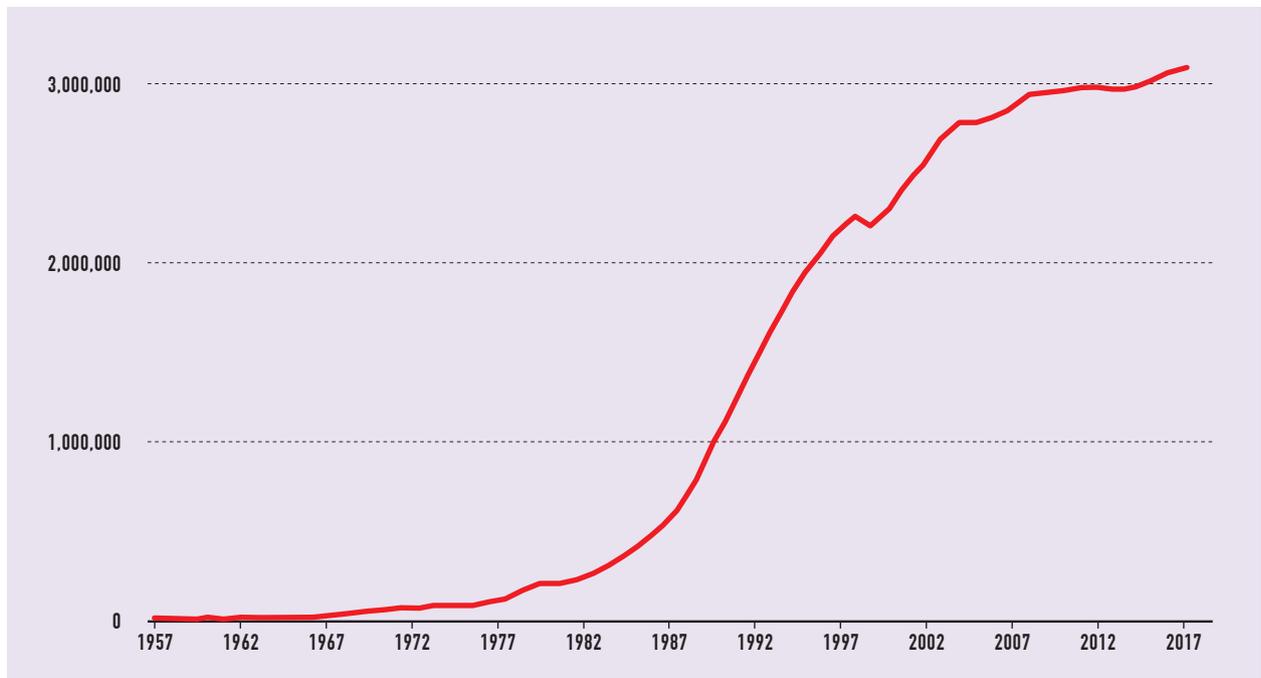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한 데는 특히 승용차 증

가가 크게 기여하였다. 승용차 등록차량의 증가율은 승합차나 화물차보다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추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전체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의 구성비는 1965년 31.3퍼센트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8년 70퍼센트를 넘어섰다. 2016년 자동차가 전체 차량의 84.3퍼센트를 차지하며, 약 260만대에 달했다.

승합차 비율은 시기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1958년 전체 차량의 18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10퍼센트 미만에 머물렀으며, 2016년 약 13만 대로 4.4퍼센트 비율을 차지하였다. 화물차는 1960~1970년대 약 30퍼센트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6년 11.1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등록 차량 수는 약 34만 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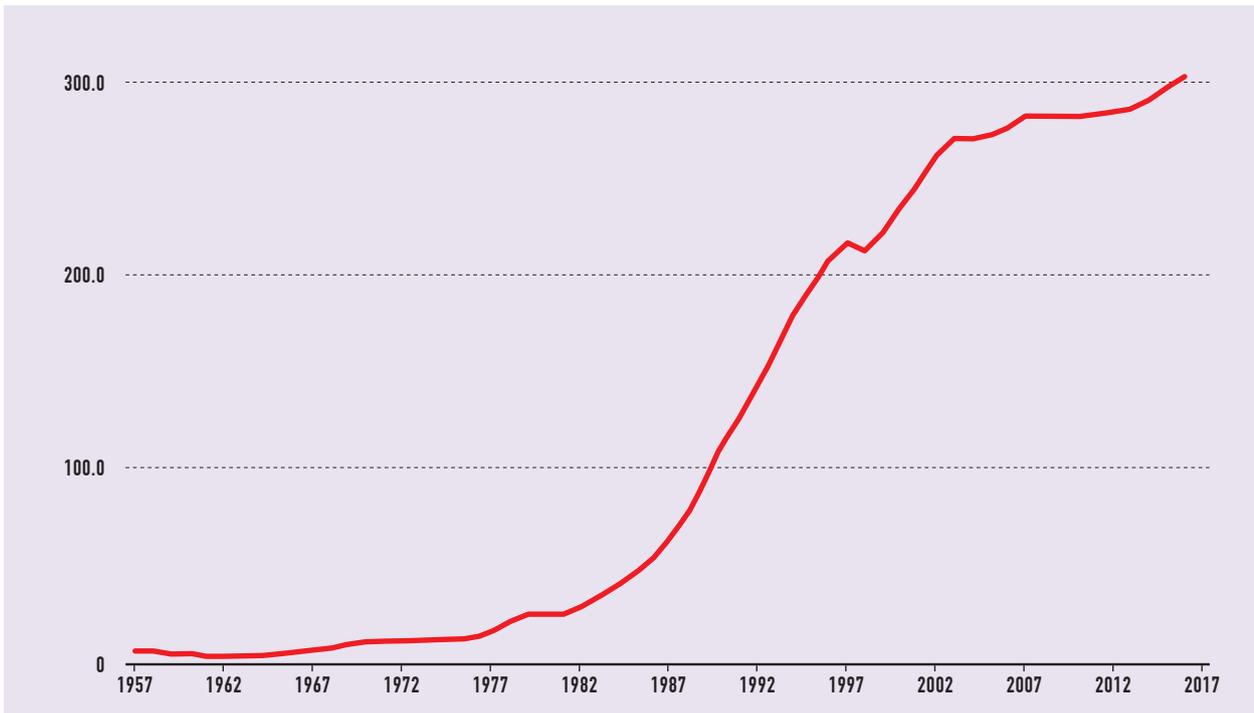
| 그림 5.1-1 | 자동차 등록 대수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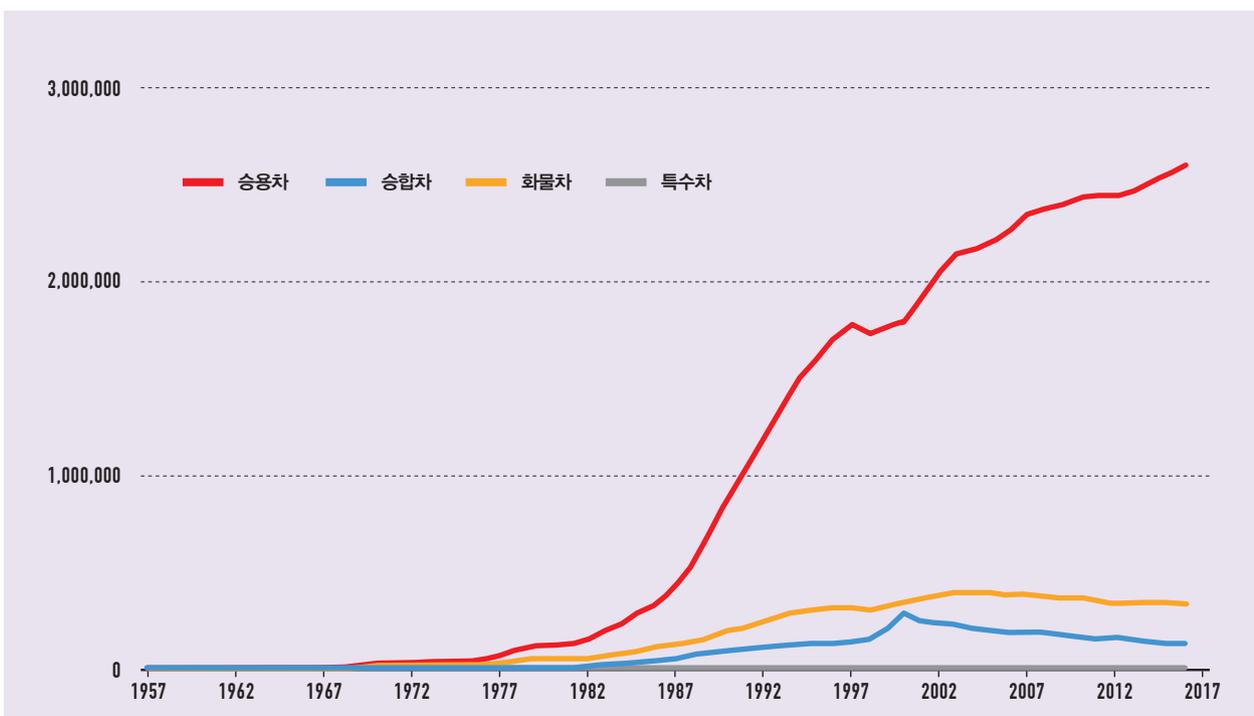
| 그림 5.1-2 |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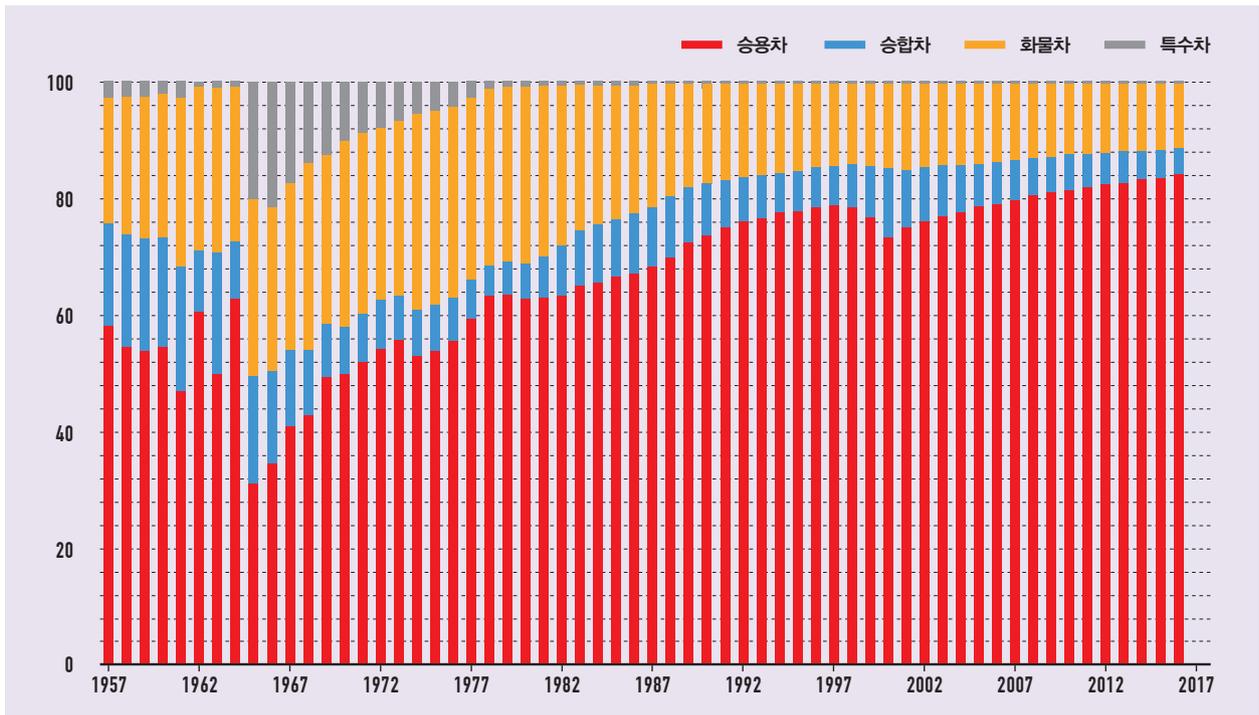
단위: 대/천 명



| 그림 5.1-3 |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단위: 대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표 5.1-2는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를 관용, 영업용, 자가용으로 나누어 용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관용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영업용은 일반 사업용 및 대여용 자동차를 의미한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전체 차량 중 영업용 차량이 5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69년을 기점으로 자가용이 영업용 차량보다 더 많아졌다. 1979년 자가용 비

| 표 5.1-2 |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연도	총계	자가용 보급률	관용		영업용		자가용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57	9,112	1.0	1,345	14.8	4,649	51.0	3,118	34.2
1958	9,655	0.9	1,263	13.1	5,360	55.5	3,032	31.4
1959	10,822	0.7	1,527	14.1	6,617	61.1	2,678	24.7

연도	총계	자가용 보급률	관용		영업용		자가용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60	11,411	0.7	1,372	12.0	6,817	59.7	3,222	28.2
1961	10,306	0.4	1,086	10.5	7,318	71.0	1,902	18.5
1962	11,562	0.6	1,137	9.8	7,237	62.6	3,188	27.6
1963	12,883	0.7	1,308	10.2	7,617	59.1	3,958	30.7
1964	14,457	0.8	1,259	8.7	7,979	55.2	5,213	36.1
1965	16,624	1.0	1,353	8.1	8,581	51.6	6,690	40.2
1966	20,638	1.2	1,534	7.4	10,455	50.7	8,649	41.9
1967	25,680	1.4	1,600	6.2	13,221	51.5	10,859	42.3
1968	35,135	1.9	2,083	5.9	16,908	48.1	16,144	45.9
1969	49,628	2.7	2,411	4.9	21,153	42.6	26,064	52.5
1970	60,442	2.9	2,648	4.4	25,833	42.7	31,961	52.9
1971	67,275	3.2	2,892	4.3	27,348	40.7	37,035	55.1
1972	68,492	3.3	3,107	4.5	25,971	37.9	39,414	57.5
1973	76,303	3.8	3,499	4.6	26,912	35.3	45,892	60.1
1974	80,248	3.9	3,235	4.0	27,651	34.5	49,362	61.5
1975	85,407	3.8	3,346	3.9	28,526	33.4	53,535	62.7
1976	96,557	4.3	3,652	3.8	29,643	30.7	63,262	65.5
1977	123,233	5.4	4,243	3.4	35,658	28.9	83,332	67.6
1978	167,101	7.1	4,215	2.5	49,311	29.5	113,575	68.0
1979	201,188	8.4	4,549	2.3	52,778	26.2	143,861	71.5
1980	206,778	8.1	5,291	2.6	53,050	25.7	148,437	71.8
1981	221,644	8.4	5,319	2.4	55,451	25.0	160,874	72.6
1982	253,647	9.6	5,428	2.1	56,829	22.4	191,390	75.5
1983	314,777	11.8	5,812	1.8	58,871	18.7	250,094	79.5
1984	377,220	13.8	6,122	1.6	61,772	16.4	309,326	82.0
1985	445,807	16.1	6,403	1.4	64,373	14.4	375,031	84.1
1986	521,521	18.3	6,942	1.3	71,373	13.7	443,206	85.0
1987	631,794	21.8	6,005	1.0	75,831	12.0	549,958	87.0
1988	778,940	25.9	7,175	0.9	82,321	10.6	689,444	88.5
1989	991,290	31.9	7,849	0.8	85,953	8.7	897,488	90.5
1990	1,193,633	38.8	8,821	0.7	92,083	7.7	1,092,729	91.5

연도	총계	자가용 보급률	관용		영업용		자가용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1991	1,374,677	38.1	9,698	0.7	97,113	7.1	1,267,866	92.2
1992	1,569,399	43.4	10,499	0.7	102,377	6.5	1,456,523	92.8
1993	1,750,880	48.0	10,210	0.6	103,729	5.9	1,636,941	93.5
1994	1,932,233	52.9	10,025	0.5	107,600	5.6	1,814,608	93.9
1995	2,043,458	56.2	10,260	0.5	111,216	5.4	1,921,982	94.1
1996	2,168,182	59.7	10,092	0.5	114,718	5.3	2,043,372	94.2
1997	2,248,567	61.3	10,203	0.5	117,030	5.2	2,121,334	94.3
1998	2,198,619	59.9	9,780	0.4	117,386	5.3	2,071,453	94.2
1999	2,297,726	61.9	9,507	0.4	128,703	5.6	2,159,516	94.0
2000	2,440,992	64.7	9,648	0.4	139,426	5.7	2,291,918	93.9
2001	2,550,441	67.0	9,779	0.4	150,043	5.9	2,390,619	93.7
2002	2,691,431	69.5	10,149	0.4	161,230	6.0	2,520,052	93.6
2003	2,776,536	70.0	10,319	0.4	166,580	6.0	2,599,637	93.6
2004	2,779,841	68.7	10,441	0.4	172,509	6.2	2,596,891	93.4
2005	2,808,771	67.6	10,510	0.4	179,929	6.4	2,618,332	93.2
2006	2,856,857	66.7	10,484	0.4	192,429	6.7	2,653,944	92.9
2007	2,933,286	67.1	10,485	0.4	208,949	7.1	2,713,852	92.5
2008	2,949,211	66.4	10,418	0.4	217,032	7.4	2,721,761	92.3
2009	2,954,704	66.3	10,520	0.4	213,857	7.2	2,730,327	92.4
2010	2,981,400	65.1	10,499	0.4	219,281	7.4	2,751,620	92.3
2011	2,977,599	65.7	10,815	0.4	210,658	7.1	2,756,126	92.6
2012	2,969,184	66.1	10,858	0.4	198,759	6.7	2,759,567	92.9
2013	2,973,877	66.2	10,892	0.4	194,216	6.5	2,768,769	93.1
2014	3,013,541	66.9	11,178	0.4	195,894	6.5	2,806,469	93.1
2015	3,056,588	68.0	11,146	0.4	195,917	6.4	2,849,525	93.2
2016	3,083,007	68.6	11,276	0.4	196,426	6.4	2,875,305	93.3

주석

1. 자가용 보급률 : 자가용/세대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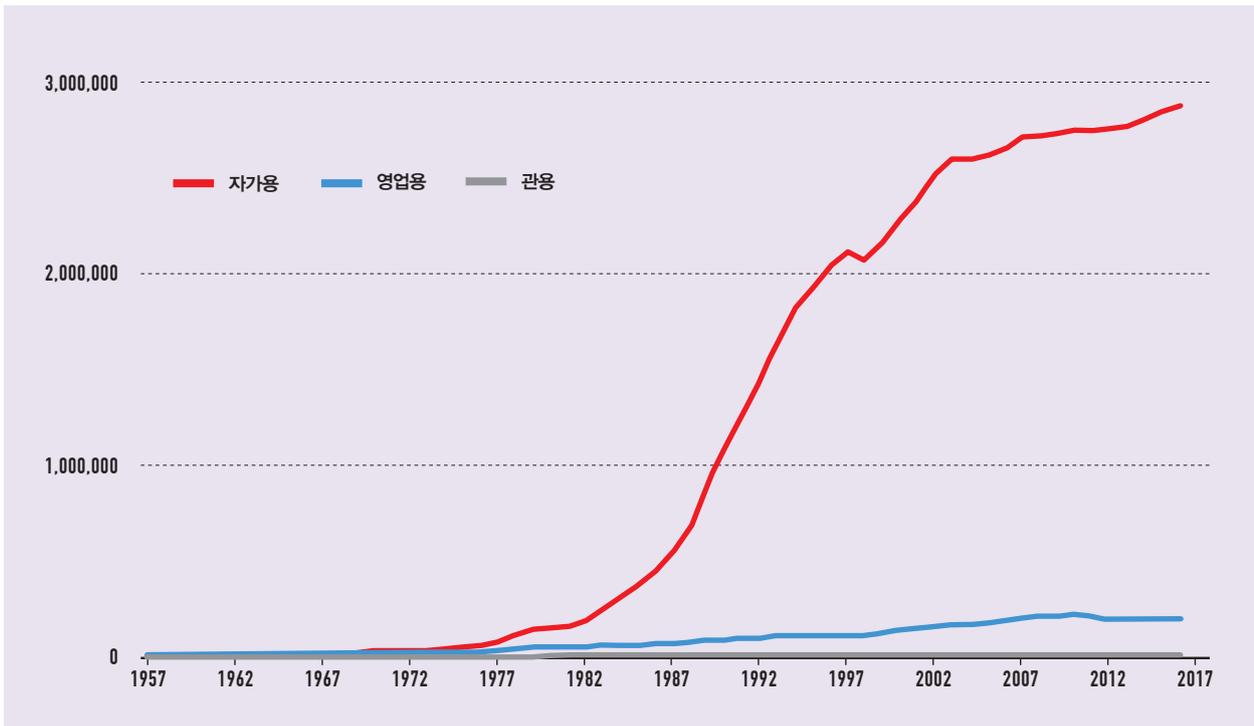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57~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7&cot=009>

2. 1965~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수단 - 자동차등록(월별/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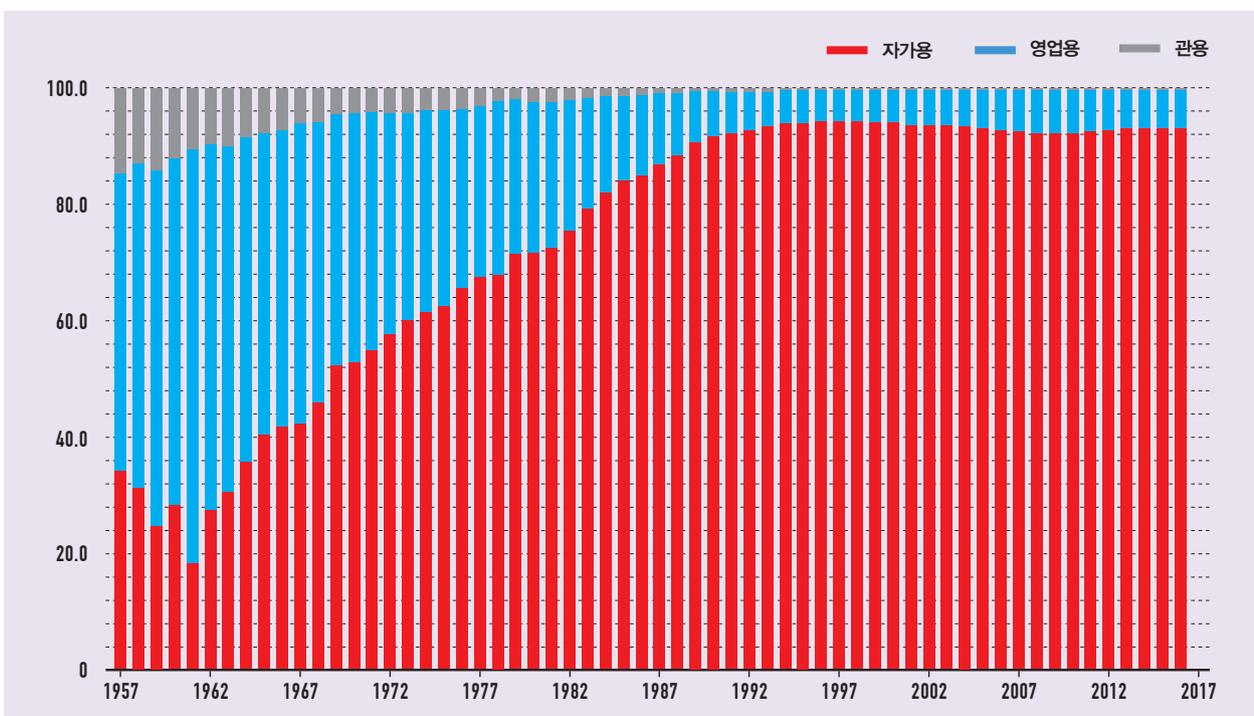
| 그림 5.1-5 |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단위: 대



| 그림 5.1-6 | 용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비율

단위: 퍼센트



율은 71.5퍼센트였으며 1984년에는 82퍼센트를 차지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부터 90퍼센트를 넘어섰다. 특히 1996년은 자가용 승용차가 200만 대를 돌파한 해이기도 하다. 2016년 자가용 비율은 93.3퍼센트이다.

반면 영업용 차량은 1961년에 71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1970년

대에 40퍼센트대에서 20퍼센트대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10퍼센트 미만이었다. 2016년 영업용 차량 비율은 6.4퍼센트이다. 관용차는 1957년 14.8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88년부터 1퍼센트 미만, 2016년에는 0.4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

5-2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1984년 서울 시민이 사용하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였다. 당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67.0퍼센트로 전체 교통수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교통수단의 수송 분담률을 살펴보면 택시가 14.2퍼센트, 지하철이 11.4

퍼센트, 승용차는 7.3퍼센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으로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이 증가하여 1997년을 기점으로 지하철의 분담률(30.8퍼센트)이 버스의 분담률(29.4퍼센트)을 넘어서 지하철은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2015년 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39.3퍼센트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표 5.2-1 |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단위 : 천 통행/일, 퍼센트

연도	총합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기타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1984	16,020	99.9	1,176	7.3	10,750	67.0	1,825	11.4	2,269	14.2		
1985	14,534	100.0	1,911	13.2	7,677	52.8	2,268	15.6	2,678	18.4		
1986	15,187	100.0	2,550	16.8	7,242	47.7	2,522	16.6	2,873	18.9		
1987	15,536	100.0	2,685	17.3	7,297	47.0	2,657	17.1	2,897	18.6		
1988	18,517	100.0	3,073	16.6	9,370	50.6	3,111	16.8	2,963	16.0		
1989	18,320	100.0	3,441	18.8	9,038	49.3	3,592	19.6	2,249	12.3		
1990	24,658	100.0	3,449	14.0	10,688	43.3	4,632	18.8	3,154	12.8	2,735	11.1
1991	25,091	100.0	3,538	14.1	10,388	41.4	5,319	21.2	3,161	12.6	2,685	10.7
1992	25,715	100.0	3,740	14.5	9,989	38.9	6,313	24.6	3,072	11.9	2,601	10.1
1993	26,240	100.0	3,727	14.2	10,128	38.6	6,717	25.6	3,096	11.8	2,572	9.8
1994	26,440	100.0	3,796	14.3	10,037	38.0	7,480	28.3	2,569	9.7	2,558	9.7
1995	27,099	100.0	3,950	14.5	9,934	36.7	8,075	29.8	2,899	10.7	2,241	8.3

연도	총합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기타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통행량	분담률
1996	27,800	100.0	6,829	24.6	8,358	30.1	8,183	29.4	2,901	10.4	1,529	5.5
1997	27,203	100.0	5,593	20.6	8,012	29.4	8,369	30.8	2,752	10.1	2,477	9.1
1998	27,205	100.0	5,466	20.1	7,922	29.1	8,776	32.3	2,636	9.7	2,405	8.8
1999	27,462	100.0	5,385	19.6	7,909	28.8	9,282	33.8	2,535	9.2	2,356	8.6
2000	28,030	100.0	5,354	19.1	7,932	28.3	9,895	35.3	2,467	8.8	2,383	8.5
2001	28,598	100.0	5,348	18.7	7,893	27.6	10,438	36.5	2,402	8.4	2,517	8.8
2002	29,680	100.0	7,983	26.9	7,705	26.0	10,285	34.6	2,195	7.4	1,513	5.1
2003	29,375	100.0	7,755	26.4	7,520	25.6	10,458	35.6	2,086	7.1	1,557	5.3
2004	30,344	100.0	8,001	26.4	7,953	26.2	10,854	35.8	2,011	6.6	1,525	5.0
2005	31,005	100.0	8,166	26.3	8,513	27.5	10,785	34.8	2,016	6.5	1,524	4.9
2006	31,196	100.0	8,189	26.3	8,616	27.6	10,839	34.7	1,960	6.3	1,592	5.1
2007	31,509	100.0	8,243	26.3	8,715	27.6	11,012	34.9	1,958	6.2	1,582	5.0
2008	31,705	100.0	8,235	26.0	8,824	27.8	11,097	35.0	1,961	6.2	1,587	5.0
2009	31,948	100.0	8,262	25.9	8,884	27.8	11,238	35.2	1,981	6.2	1,583	4.9
2010	31,155	100.0	7,502	24.1	8,746	28.1	11,289	36.2	2,236	7.2	1,382	4.4
2011	31,885	100.0	7,509	23.5	8,913	28.0	11,840	37.1	2,232	7.0	1,391	4.4
2012	32,150	100.0	7,442	23.1	8,798	27.4	12,275	38.2	2,226	6.9	1,409	4.4
2013	32,516	100.0	7,435	22.9	8,813	27.1	12,630	38.8	2,220	6.8	1,418	4.4
2014	32,690	100.0	7,461	22.8	8,831	27.0	12,741	39.0	2,219	6.8	1,437	4.4
2015	32,410	100.0	7,467	23.0	8,569	26.5	12,714	39.3	2,220	6.8	1,441	4.4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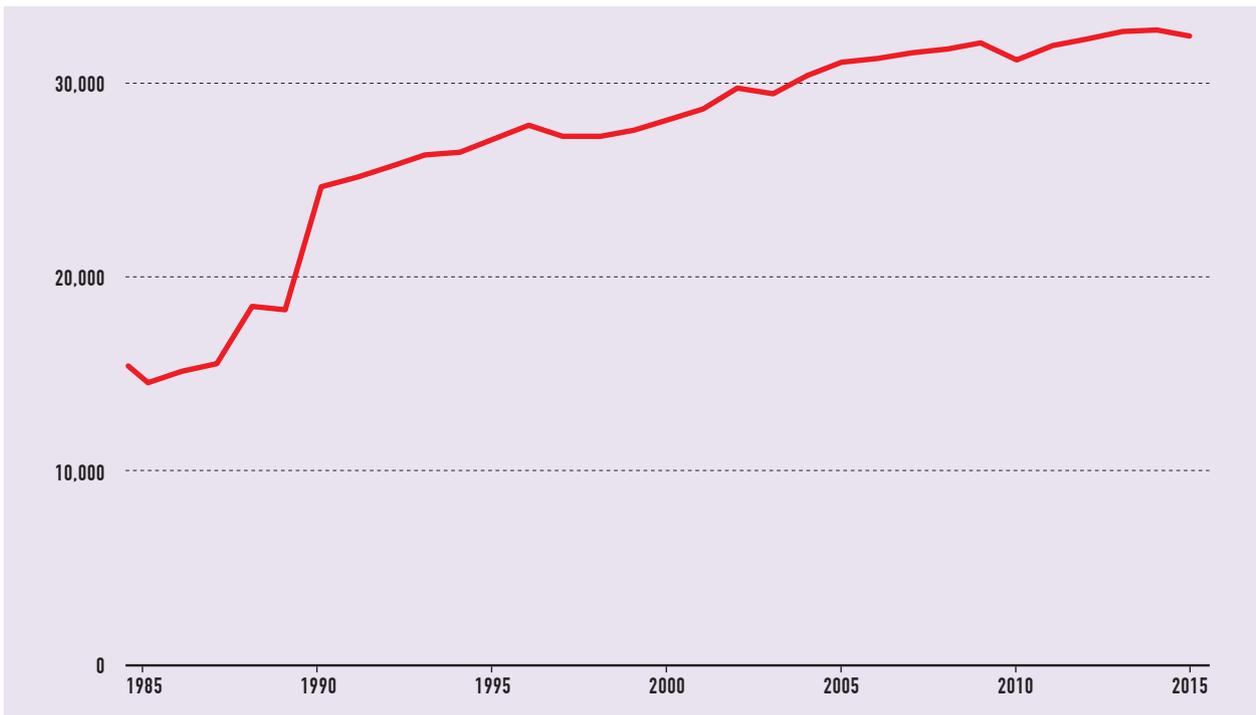
1. 1984~1989년 자료는 승용차에 기타 포함
2. 1984년은 분담률의 합이 99.9퍼센트로 100퍼센트가 안 되나 문헌 그대로 따름
3. 2000년, 2001년, 2003년의 서울통계연보에는 총 통행량과 분담률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통행량을 추정함
4.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기타 버스
5. '지하철·철도'는 노선 간 환승객 포함
6. '기타'는 도보 및 자전거를 제외한 오토바이, 화물차, 특수차를 말함
7. 통행량은 서울 내부 간 통행과 서울 유출입 통행의 합을 말함

자료출처

1. 1984~1994년 : 서울특별시, 1996, 도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1984~1994) '1일 시민교통량 수송 분담률' 국회도서관 소장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2. 1995년, 1997~2001년, 200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3. 1996년, 2002년, 2004~2015년 : 서울통계-주제별-교통-교통 현황-1일 교통수단별 통행 현황(분담률)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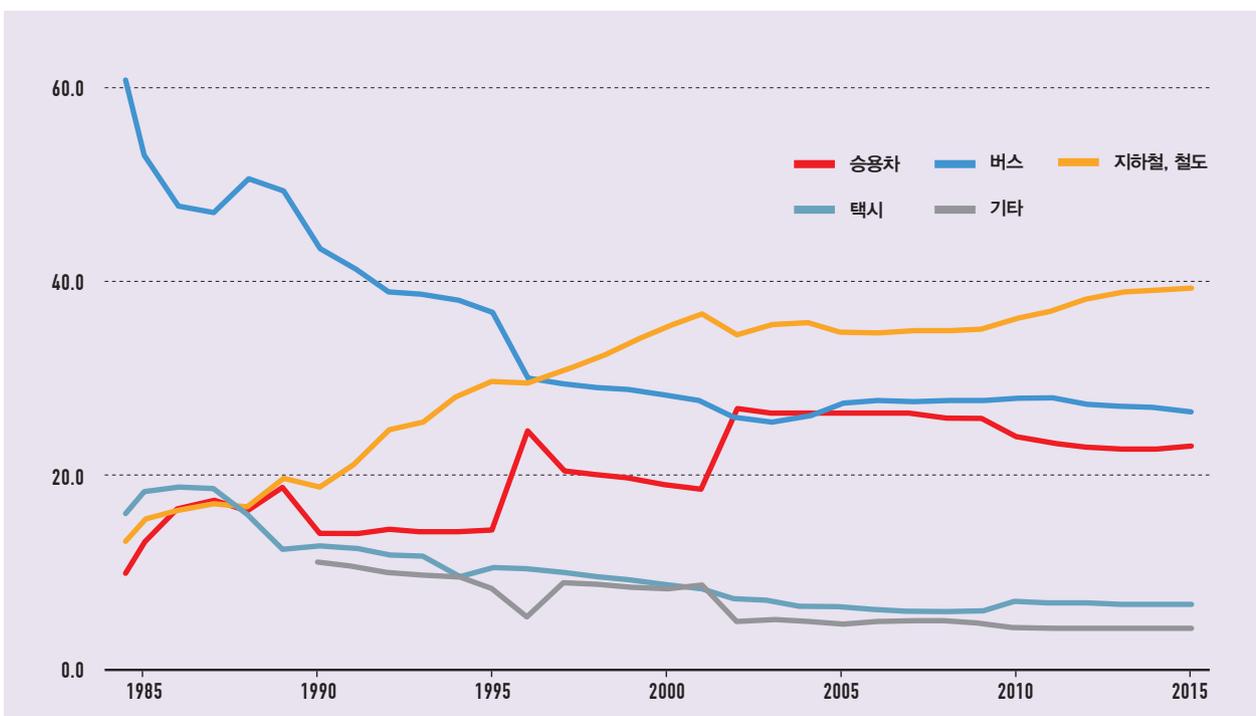
| 그림 5.2-1 | 1일 시민 교통 수송 인원

단위 : 천 통행/일



| 그림 5.2-2 |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단위 : 퍼센트



1990년대 이후 버스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의 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주로 버스 이용객이 지하철 이용으로 이동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택시 수송 분담률은 1986년 18.9퍼센트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6.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택시 이용객 감소는 승용차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승용차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4년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이 7.3퍼센트에서 1996년 24.6퍼센트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23.0퍼센트로 택시 수송 분담률의 약 3.4배이다.

주요 지점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5-3

주요 지점별 교통량

표 5.3-1은 도심에서의 이동 교통량(도심), 한강교량을 건너는 교통량(한강교량) 및 서울시의 시 경계 지점을 유출입하는 교통량(시계)의 추이를 보여 준다. 1986~1991년 자료는 해당 연도 중 특정 기간(11~12월) 자료이며, 도심의 경우 주중(6~22시) 교통량이다. 1993년부터 루프 검지기에 의한 전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점 또한 이전과 차이가 있다. 루프 검지기에 의해 전일 조사

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교통량 측정기(루프 검지기)의 기능 저하, 도로공사, 사고, 자연파손 등의 이유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년 동일한 지점의 교통량 데이터가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점별 교통량 합산 자료만으로는 교통량의 실제 증감 추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2015년에 교통량 조사자료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2014~2015년 동일 지점에 대한

| 표 5.3-1 | 지점별 교통량 및 교통량 변동 추이

단위: 대/일, 퍼센트

연도	교통량				교통량 변동 추이(전년 대비 증감률)		
	합계	도심 지점	한강교량	시계 지점	도심 지점	한강교량	시계 지점
1986	2,906,694	1,097,931	1,171,470	637,293			
1987	3,396,044	1,261,679	1,293,513	840,852			
1988	3,852,493	1,364,555	1,443,202	1,044,736			
1989	3,852,840	1,288,150	1,394,241	1,170,449			
1990	4,257,885	1,270,656	1,562,122	1,425,107			
1991	4,518,163	1,286,943	1,541,602	1,689,618			
1992	4,379,580	1,181,872	1,587,363	1,610,345			
1993	5,203,579	1,646,365	1,720,681	1,836,533			
1994	5,697,030	1,681,932	1,763,862	2,251,236			

연도	교통량				교통량 변동 추이(전년 대비 증감률)		
	합계	도심 지점	한강교량	시계 지점	도심 지점	한강교량	시계 지점
1995	5,840,712	1,682,976	1,839,774	2,317,962			
1996	6,280,790	1,729,919	1,906,077	2,644,794			
1997	6,344,660	1,656,662	1,926,622	2,761,376			
1998	5,935,285	1,543,411	1,698,168	2,693,706			
1999	5,836,127	1,515,119	1,750,331	2,570,677			
2000	5,773,318	1,517,504	1,634,982	2,620,832			
2001	5,671,590	1,474,362	1,529,064	2,668,164			
2002	7,008,210	1,961,586	1,983,982	3,062,642			
2003	6,931,694	1,950,923	1,950,893	3,029,878			
2004	6,180,889	1,502,774	1,673,487	3,004,628			
2005	6,064,049	1,491,830	1,745,365	2,826,854			
2006	6,369,805	1,469,494	1,880,829	3,019,482			
2007	5,249,029	1,304,662	1,367,249	2,577,118			
2008	3,882,524	1,086,314	730,611	2,065,599			
2009	4,313,174	1,030,089	1,097,780	2,185,305			
2010	4,684,311	1,360,527	1,524,986	1,798,798			
2011	4,598,035	1,077,293	1,505,213	2,015,529			
2012	4,170,213	987,272	981,120	2,201,821			
2013	3,107,238	1,034,119	646,296	1,426,823			
2014	6,457,000	1,255,000	1,207,000	1,586,000			
2015	6,627,000	1,252,000	1,184,000	1,786,000	-0.2	-1.9	12.6

주석

1. 1986~1991년 자료 : 해당 연도 특정 기간(11~12월) 자료이며, 도심은 주중(6~22시) 교통량임(통계로 본 서울교통)
2. 1993년부터 루프 검지기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도로에 매설된 교통량 측정기의 기능 저하, 도로공사, 사고, 자연파손 등의 이유로 측정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년 동일한 지점의 교통량 데이터가 합산되는 것은 아님(서울통계)
3. 2015년 자료는 2014년에 조사된 지점 중 2015년에 정상 수집된 지점에 해당하는 자료임(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보고서)
4. 전년도와 조사 지점 수가 일치한 연도는 2014년, 2015년뿐이므로, 교통량 변동 추이(전년 대비 증감률)는 해당 연도만 기록

자료출처

1. 1986~1991년 : 서울특별시, 1999, 『통계로 본 서울교통』(원자료 출처는 교통관리실(교통기획과) 내부자료)
2. 1992~2013년 : 서울통계-주제별-교통-교통 현황-도심 지점별 교통량/교량 지점별 교통량/시계 지점별 교통량, 원자료 출처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과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3. 2014~2015년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2015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보고서 http://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2_1.do

교통량을 제공한다. 앞서 지적한 자료의 한계를 이유로 교통량 변동 추이는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2015년만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교통량은 하루 645만 7천 대이며, 2015년은 662만 7천 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점별로 교통량 변동 추이(전년 대비 증감률)를 살펴보면 도심 지점은 마이너스 0.2퍼센트, 한강교량은 마이너스 1.9퍼센트, 시계 지점은 12.6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서울시 내부에서의 통행보다 외부에서의 유출입 통행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차종, 지역별 통행속도

차량의 통행속도는 차량 등록 대수, 교통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5.1-1의 차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와 그림 5.2-1의 연도별 수송 인원을 참고하면, 1990년대에 차량 등록 대수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승용차 등록 대수와 승용차의 수송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승용차 전체의 통행속도는 1990년 시간당 24.2킬로미터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1996년 20.9킬로미터까지 감소하였다. 이듬해 IMF사태 여파로 차량 수가 감소하면서 시간당 25킬로미터대로 개선되었으나, 2000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01년 21.7킬로미터로 악화되었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시간당 25.2킬로미터로 개선되었다.

버스의 통행속도는 1990년대 초반 감소하다가 1995년 2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버스의 통행속도는 시간당 20.1킬로미터에서 2003년 17.2킬로미터로 악화되었다.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2015년 버스의 통행속도는 시간당 19.5킬로미터였다.

| 표 5.3-2 | 지역별 통행속도

단위 : 킬로미터/시간

연도	승용차 속도			버스 속도
	전체	도심	외곽	
1984	-	25.2	-	-
1985	-	-	-	-
1986	-	23.4	-	-
1987	-	19.6	-	-
1988	-	20.5	-	-
1989	-	18.7	-	-
1990	24.2	16.4	23.4	18.8
1991	21.6	17.7	21.9	18.2
1992	22.6	19.3	22.9	16.9
1993	23.5	20.0	23.8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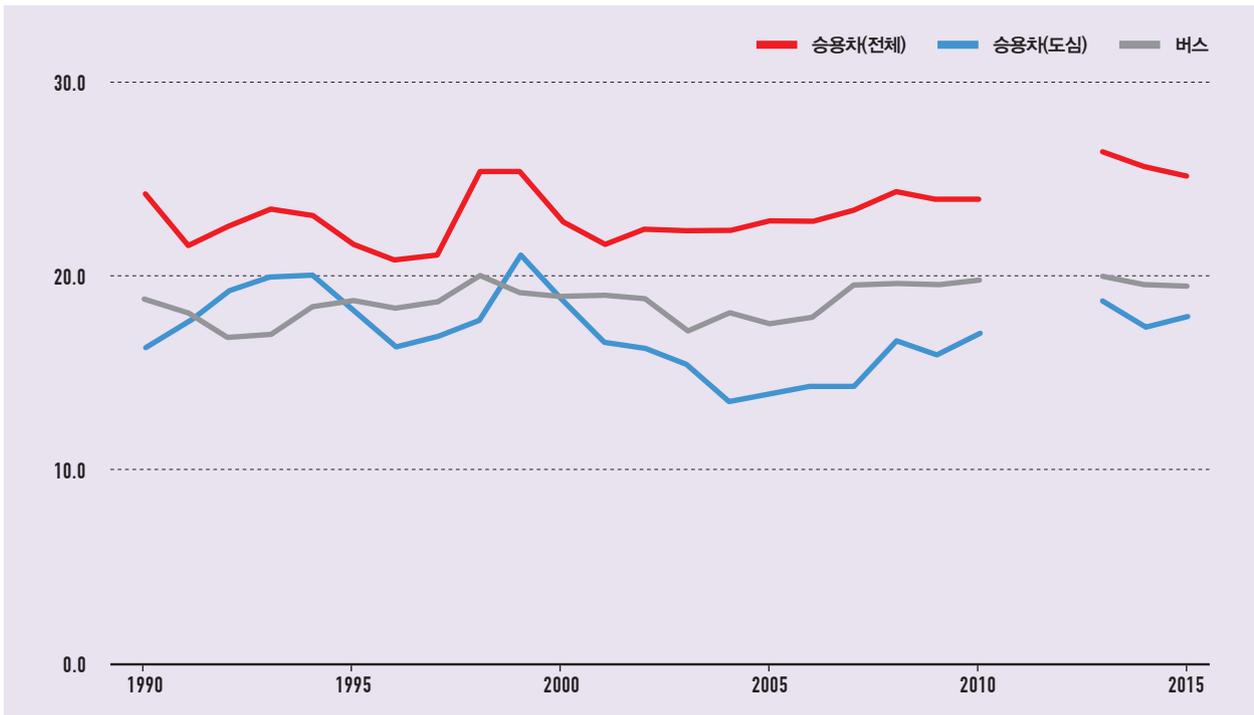
연도	승용차 속도			버스 속도
	전체	도심	외곽	
1994	23.2	20.0	23.4	18.4
1995	21.7	18.3	21.9	18.8
1996	20.9	16.4	21.2	18.4
1997	21.1	16.9	21.3	18.7
1998	25.4	17.7	25.9	20.1
1999	25.4	21.2	25.7	19.2
2000	22.9	18.8	23.2	19.0
2001	21.7	16.6	22.1	19.1
2002	22.5	16.3	23.0	18.9
2003	22.4	15.5	22.9	17.2
2004	22.4	13.6	23.0	18.1
2005	22.9	14.0	23.5	17.6
2006	22.9	14.4	23.5	17.9
2007	23.4	14.4	24.0	19.6
2008	24.4	16.7	24.9	19.7
2009	24.0	16.0	24.5	19.6
2010	24.0	17.0	24.5	19.8
2011	-	-	-	-
2012	-	-	-	-
2013	26.4	18.7	26.6	20.0
2014	25.7	17.4	26.0	19.6
2015	25.2	17.9	25.4	19.5

주석

1. 1985년 자료는 누락됨(『서울교통사』(2000))
2. 2011년, 2012년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는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 대행기관의 폐업으로 알 수 없음(서울통계)
3. 2013년부터 영업용 택시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구간속도 산출 방식 적용으로 서울시 자체 속도 생성. 분석대상도로 연장 변경(1,229.0킬로미터에서 1,429.7킬로미터로) (TOPIS)

자료출처

1. 1984~1994년 : 서울특별시, 2000, 『서울교통사』(원자료 출처는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자료)
2. 1995~2010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 현황 - 차량통행속도, 원자료 출처는 서울시 교통정보과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3. 2013~2015년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연도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http://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1_1.do



택시 면허 대수

1960년대 서울 시내에서 교통혼잡은 날로 심각해지고 대중교통수단은 부족하였다.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사업을 급성장시켰다. 1962년 2,887대에 불과하던 택시 수는 1971년 1만 2,176대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유류파동이 발생하면서 유류 소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부제 운행 등 택시 운행을 제한하여 택시 수 증가가 정체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 개인택시제도가 도입되어 택시 면허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19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개인택시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펼쳐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표 5.2-1에 따르면, 서울의 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18퍼센트대에 이를 만큼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6.8퍼센트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택시 면허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62년 2,887대에 불과하던 택시 면허 대수는 1970년에 1만 대를 넘어섰고, 1982년 3만 대, 1986년 4만 대, 1988년 5만 대, 1991년 6만 대, 2000년 7만 대를 넘었다. 2016년 전체 택시 면허 대수는 7만 2,007대이며, 1962년에 비해 무려 약 25배 증가했다.

| 표 5.4-1 | 택시 면허 대수

단위: 대

연도	택시 면허 수	법인택시	개인택시	연도	택시 면허 수	법인택시	개인택시
1962	2,887	2,887	-	1990	57,293	24,358	32,935
1963	2,887	2,887	-	1991	60,672	24,733	35,939
1964	2,887	2,887	-	1992	65,004	24,556	40,448
1965	3,095	3,095	-	1993	64,682	24,156	40,526
1966	4,608	4,608	-	1994	66,953	23,516	43,437
1967	6,591	6,587	4	1995	68,200	23,359	44,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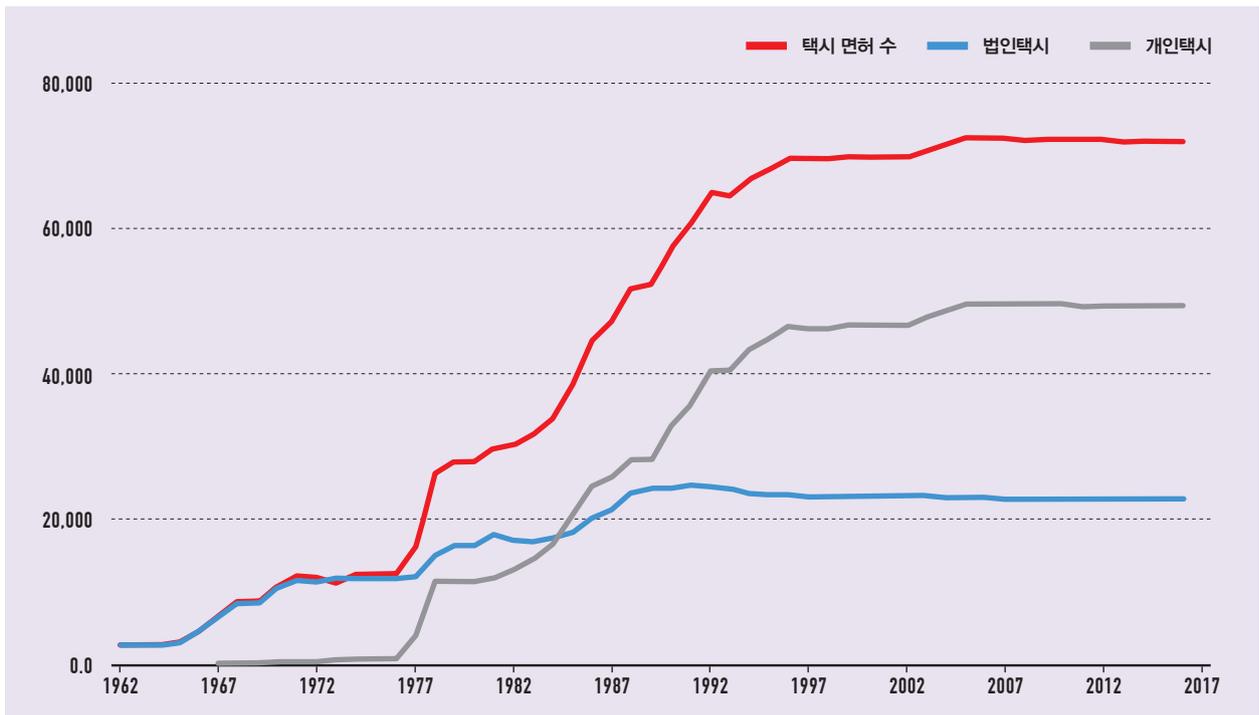
연도	택시 면허 수	법인택시	개인택시	연도	택시 면허 수	법인택시	개인택시
1968	8,534	8,504	30	1996	69,806	23,336	46,470
1969	8,590	8,364	226	1997	69,720	23,273	46,447
1970	10,880	10,429	451	1998	69,633	23,185	46,448
1971	12,176	11,625	551	1999	69,998	23,172	46,826
1972	11,960	11,409	551	2000	70,017	23,170	46,847
1973	12,401	11,848	553	2001	70,025	23,163	46,862
1974	12,393	11,839	554	2002	70,002	23,130	46,872
1975	12,460	11,906	554	2003	70,903	23,130	47,773
1976	12,557	11,903	654	2004	71,774	23,070	48,704
1977	16,049	12,131	3,918	2005	72,500	22,949	49,551
1978	26,420	14,943	11,477	2006	72,500	22,949	49,551
1979	27,875	16,407	11,468	2007	72,453	22,854	49,599
1980	27,837	16,372	11,465	2008	72,363	22,806	49,557
1981	29,804	17,923	11,881	2009	72,366	22,843	49,523
1982	30,167	17,104	13,063	2010	72,355	22,851	49,504
1983	31,708	17,047	14,661	2011	72,280	22,831	49,449
1984	33,843	17,317	16,526	2012	72,251	22,827	49,424
1985	38,616	18,144	20,472	2013	72,181	22,787	49,394
1986	44,742	20,278	24,464	2014	72,160	22,787	49,373
1987	47,127	21,262	25,865	2015	72,096	22,760	49,336
1988	51,693	23,534	28,159	2016	72,007	22,738	49,269
1989	52,380	24,220	28,160				

주석

1.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62~1997년 : 서울특별시, 1998, 『통계로 본 서울교통』(원자료는 교통관리실(운수물류과) 내부자료)
2. 1998~1999년 : 건설교통부, 해당 연도 건설교통통계연보(해당 출처확인은 국회도서관에서 가능함, <http://dl.nanet.go.kr/SearchList.do>)
3. 2000~2004년 : 정보공개청구(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 2005~2016년 : 서울시청 - 교통 - HOME - 교통정보 - 교통통계 - 주요교통통계 - 택시, 화물 대여자동차 <http://traffic.seoul.go.kr/archives/307>



버스 대수와 노선 수

한국전쟁 이후 1953년 서울시 버스 보유 대수는 230대에 불과하였다. 서울시는 심각한 버스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를 계속 증차하여 1960년 615대에서 1962년 2,014대로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로 서울 시내 버스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다. 1960년대 말 버스의 무제한 증차를 허용하였고, 1967년부터 시영버스를 운용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도 버스를 꾸준히 증차하였으며 1979년에는 대폭적으로 증차하여 7,138대의 버스가 운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하철이 정착하면서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현격한 양적 증가 추세는 멈추었다. 1982년 버스 대수는 8,310대였으며 미미한 증감은 있으나 2004년까지 약 8,300대 선이 유

지되었다. 2016년 버스 대수는 7,421대로 1980년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는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었다. 2004년 7월 버스운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버스 노선을 운행 특성에 따라 빨강, 파랑, 초록, 노랑으로 구분하였다. 빨강은 광역 노선, 파랑은 간선 노선, 초록은 지선 노선과 마을버스, 노랑은 순환 노선을 나타낸다. 또한 강남대로와 수색로를 포함한 많은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다. 버스와 지하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경기도 버스와 환승할인을 시행하였다.

연도	버스 보유 대수	노선 수	연도	버스 보유 대수	노선 수
1953	230	-	1985	8,296	355
1954	508	-	1986	8,294	368
1955	557	-	1987	8,291	368
1956	574	-	1988	8,287	383
1957	604	-	1989	8,286	379
1958	604	-	1990	8,781	448
1959	604	-	1991	8,781	438
1960	615	-	1992	8,734	422
1961	995	-	1993	8,727	436
1962	2,014	-	1994	8,725	453
1963	2,224	-	1995	8,725	461
1964	2,316	-	1996	8,725	448
1965	2,446	-	1997	8,655	409
1966	2,729	-	1998	8,443	367
1967	2,845	-	1999	8,375	-
1968	3,045	-	2000	8,551	395
1969	3,807	-	2001	8,249	376
1970	3,956	-	2002	8,134	367
1971	4,351	-	2003	8,110	365
1972	4,296	-	2004	8,307	457
1973	4,487	-	2005	7,792	402
1974	4,635	-	2006	7,766	395
1975	4,833	-	2007	7,748	390
1976	5,000	-	2008	7,736	381
1977	5,345	-	2009	7,598	375
1978	5,478	-	2010	7,548	369

연도	버스 보유 대수	노선 수	연도	버스 보유 대수	노선 수
1979	7,138	-	2011	7,534	363
1980	7,237	-	2012	7,522	361
1981	7,970	-	2013	7,485	361
1982	8,310	343	2014	7,485	358
1983	8,310	343	2015	7,482	355
1984	8,310	347	2016	7,421	351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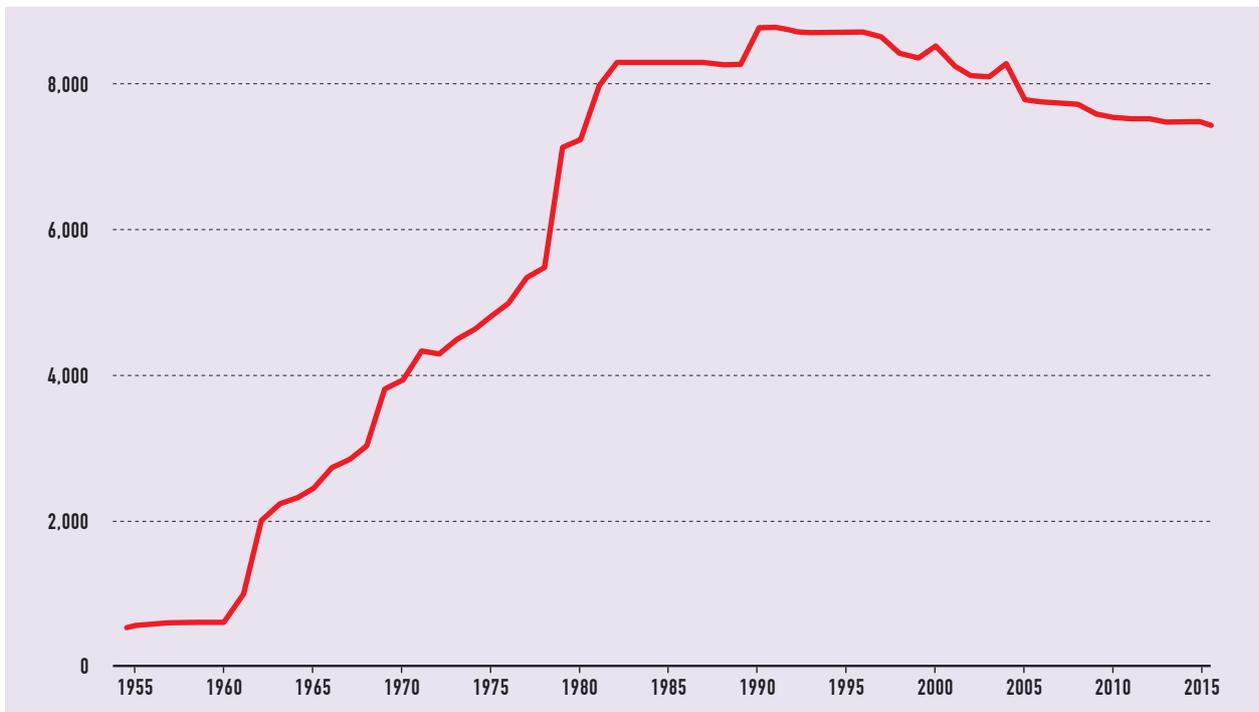
1. '-'는 자료 없음
2. 1999년 버스노선 수 누락됨(서울통계)

자료출처

1. 1953~1978년 : 서울특별시, 2000, 『서울교통사』
2. 1979~1999년 버스 보유 대수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79~1998년 노선 수 : 서울특별시, 2000, 『서울교통사』
4. 2000~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통 - 교통수단 - 시내버스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 그림 5.4-2 | 버스 대수

단위 : 대



지하철 수송 인원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던 해 지하철은 연간 약 3,200만 명을 수송하였다. 지하철 수송량은 점차 증가하여 1980년 연간 1억 9,760만 명이 이용하였고, 지하철 2, 3, 4호선 완공 이후인 1986년에는 이용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7억 4,165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5개 노선이 더 신설되어 총 9개 노선에 이르게 되었고, 지하철 이용객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6년 지하철 수송

인원은 28억 5,645만 명이다.

표 5.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버스 대수는 198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하철 수송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 5.2-1에 따르면 1997년을 기점으로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30.8퍼센트로 버스의 분담률 29.4퍼센트를 넘어섰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앞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임을 알 수 있다.

| 표 5.4-3 | 지하철 수송 인원

단위: 개, 명/년

연도	노선 수	수송 여객 인원	연도	노선 수	수송 여객 인원
1974	1	31,775,905	1996	7	1,509,824,000
1975	1	79,980,203	1997	7	1,636,859,000
1976	1	89,251,981	1998	7	1,591,276,000
1977	1	124,969,820	1999	7	1,728,645,000
1978	1	165,927,857	2000	8	1,735,560,000
1979	1	194,372,797	2001	8	2,157,657,000
1980	2	197,605,534	2002	8	2,230,783,000
1981	2	233,547,361	2003	8	2,249,226,000
1982	2	242,273,667	2004	8	2,300,735,000
1983	2	283,855,927	2005	8	2,277,298,000
1984	2	397,469,780	2006	8	2,269,410,000
1985	4	511,068,702	2007	8	2,267,676,000
1986	4	741,653,450	2008	8	2,293,848,000
1987	4	810,457,532	2009	9	2,293,042,000
1988	4	927,443,677	2010	9	2,446,519,000
1989	4	1,006,939,706	2011	9	2,518,165,000

연도	노선 수	수송 여객 인원	연도	노선 수	수송 여객 인원
1990	4	1,168,651,488	2012	9	2,559,655,000
1991	4	1,241,157,067	2013	9	2,619,529,000
1992	4	1,354,150,224	2014	9	2,660,907,000
1993	4	1,388,037,097	2015	9	2,640,527,000
1994	4	1,404,232,972	2016	9	2,856,452,000
1995	5	1,481,528,000			

주석

1. 수송 인원은 순승차와 환승차를 모두 포함(서울통계)
2. 노선 수는 최초 개통 시기로서 해당 연도 12월을 기준으로 함(노선 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장 도시기반시설'의 '4.3 지하철'을 참고)

자료출처

1. 1974~199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1&cot=052>
4. 1997~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교통-교통수단-지하철수송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6

공공복지와 문화

의료시설

6-1

의료시설 수

서울의 의료시설은 1960년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의료시설은 치과병의원으로 1960~2015년 사이 무려 17.3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은 6.9배 증가하였고, 일반의원은 6.4배, 병원은 6.2배, 종합병원은 3.3배 증가하였다. 2016년 서울에는 일반의원이 8,020개, 치과병의원이 4,795개, 한방병의원이 3,636개, 부속의원이 55개 있으며, 대규모 병원인 종합병원은 57개, 일반병원은 213개가 있다.

병원, 일반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1995년 73개로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하여 2016년 기준 57개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시설보다 민간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민간의료시설들이 날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는 그 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소는 1999년에 최근 수준인 25개로 늘어난 후 계속해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의료시설 수가 크게 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이 정착됨에 따라 의료수요

| 표 6.1-1 | 의료시설 수

단위: 개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보건소
1960	17	34	1,231	275	521	-	9
1961	17	48	1,569	382	635	-	9
1962	18	46	1,876	415	657	-	9
1963	18	52	1,849	423	669	-	9
1964	18	72	1,799	441	568	-	9
1965	17	69	1,817	468	728	-	9
1966	5	78	1,660	496	759	-	9
1967	5	68	1,821	512	799	-	9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부속의원	보건소
1968	8	67	1,955	580	884	-	9
1969	8	63	1,936	606	970	-	9
1970	8	60	2,133	698	1,044	-	9
1971	10	68	2,195	761	1,074	-	9
1972	12	65	2,249	795	1,102	-	9
1973	12	48	2,283	832	1,201	-	9
1974	25	28	2,268	847	1,070	-	11
1975	22	32	2,300	882	1,108	-	12
1976	23	37	2,282	922	1,126	-	12
1977	24	41	2,188	941	1,103	-	13
1978	26	56	2,163	972	1,064	-	13
1979	28	59	2,208	1,037	1,063	-	15
1980	32	64	2,265	1,114	1,080	75	17
1981	34	71	2,374	1,172	1,102	79	17
1982	38	78	2,397	1,229	1,149	74	17
1983	46	82	2,530	1,284	1,149	50	17
1984	51	88	2,687	1,357	1,181	66	17
1985	57	94	2,818	1,423	1,234	79	17
1986	63	87	2,925	1,511	1,305	78	17
1987	63	85	3,125	1,603	1,395	76	17
1988	62	86	3,300	1,728	1,530	82	22
1989	64	87	3,445	1,900	1,650	82	22
1990	64	87	3,609	2,091	1,741	84	22
1991	66	84	3,822	2,260	1,796	86	22
1992	66	88	3,930	2,447	1,881	81	22
1993	69	84	4,053	2,624	2,004	83	22
1994	71	97	4,162	2,743	2,057	87	21
1995	73	95	4,238	2,851	2,121	76	23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부속의원	보건소
1996	70	94	4,235	2,907	2,110	77	23
1997	67	94	4,326	2,986	2,084	71	24
1998	66	96	4,482	3,061	2,103	73	24
1999	65	100	4,774	3,186	2,091	65	25
2000	66	102	4,969	3,275	2,180	60	25
2001	65	99	5,542	3,389	2,276	53	25
2002	61	110	6,098	3,618	2,460	13	25
2003	63	115	6,154	3,611	2,564	47	25
2004	62	116	6,283	3,787	2,640	51	25
2005	62	123	6,460	3,904	2,748	51	25
2006	62	132	6,672	4,036	2,964	35	25
2007	62	145	6,883	4,142	3,149	49	25
2008	60	153	7,041	4,254	3,239	45	25
2009	59	161	7,197	4,389	3,334	46	25
2010	58	165	7,355	4,539	3,372	46	25
2011	57	181	7,482	4,451	3,304	44	25
2012	58	194	7,489	4,605	3,449	42	25
2013	57	206	7,548	4,646	3,512	47	25
2014	57	206	7,695	4,697	3,563	50	25
2015	56	212	7,831	4,744	3,603	56	25
2016	57	213	8,020	4,795	3,636	55	25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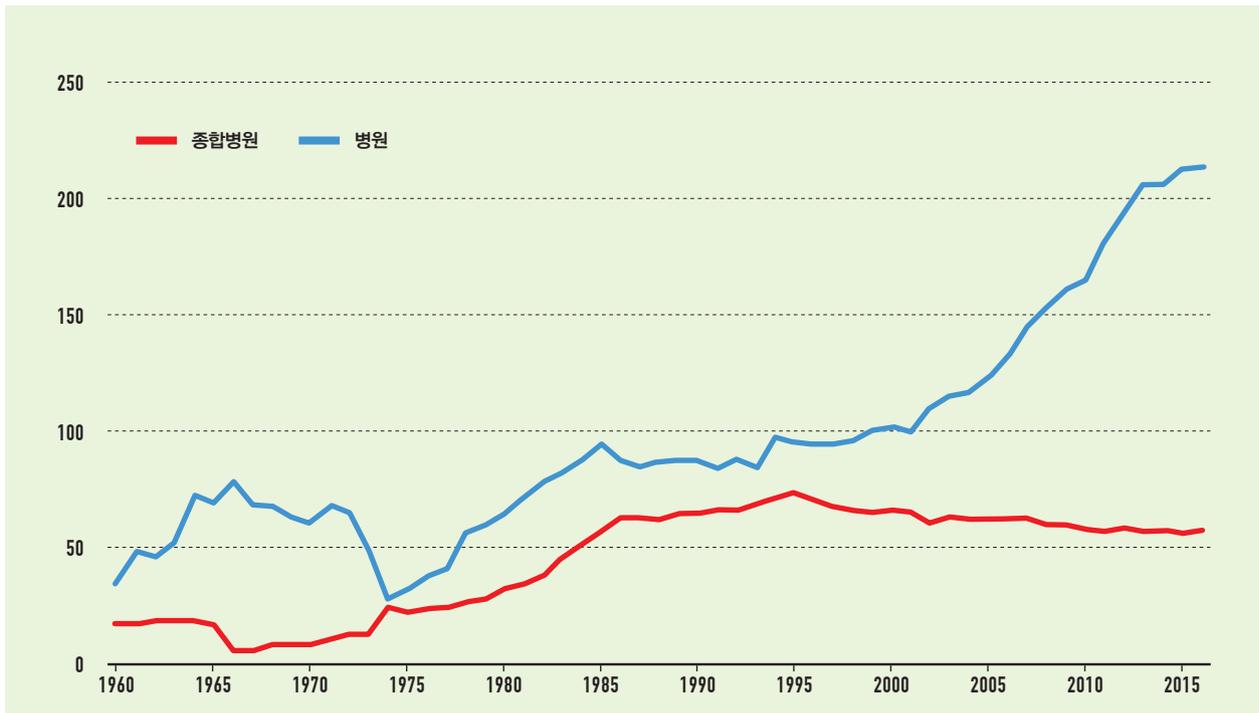
1.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60~196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6회 1966년 서울통계연보(1965년 기준)
2. 1966~197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3. 1980~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보건 - 의료 현황 - 의료기관(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4. 1980~2016년 부속의원 및 보건소 : 서울통계 - 주제별 - 보건 - 의료 현황 -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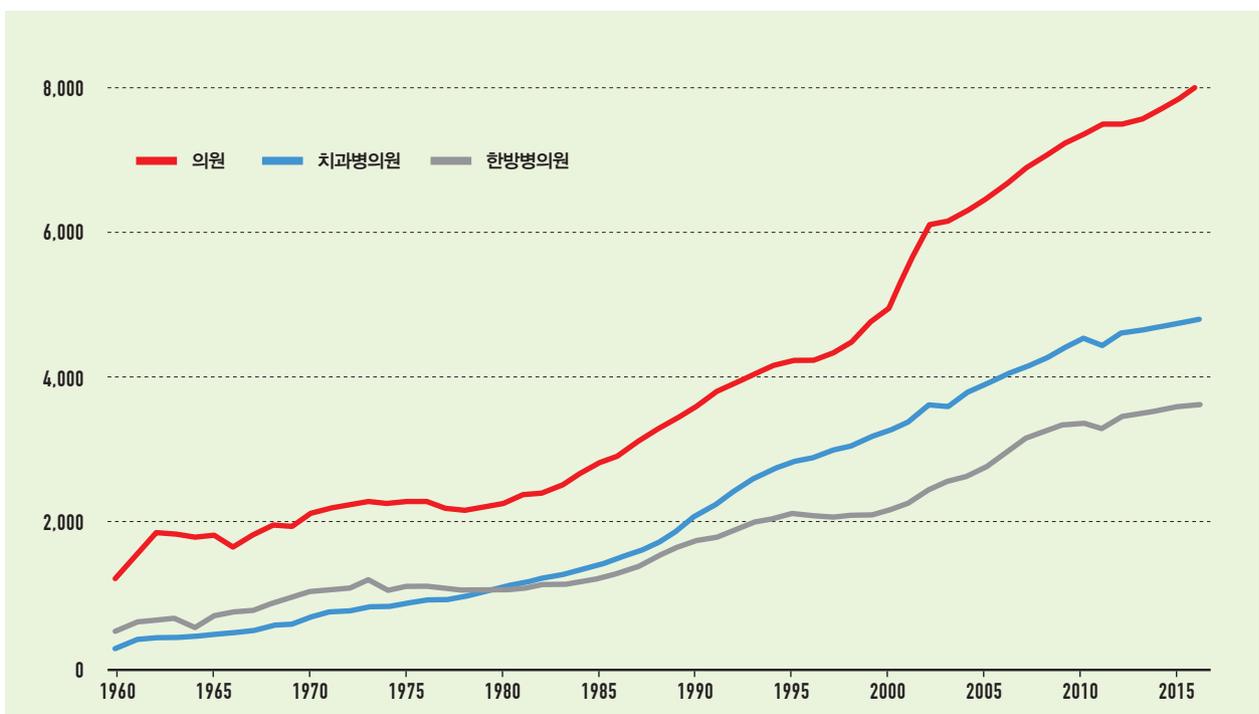
| 그림 6.1-1 | 종합병원 및 병원 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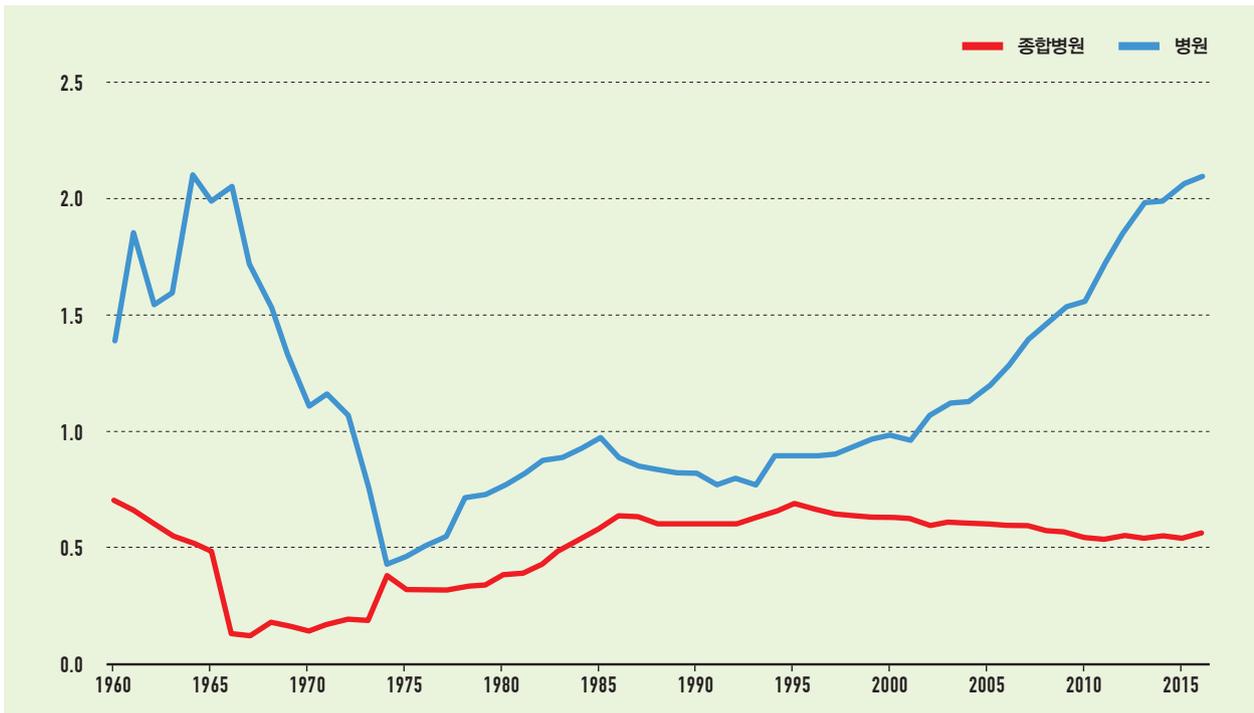
| 그림 6.1-2 |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수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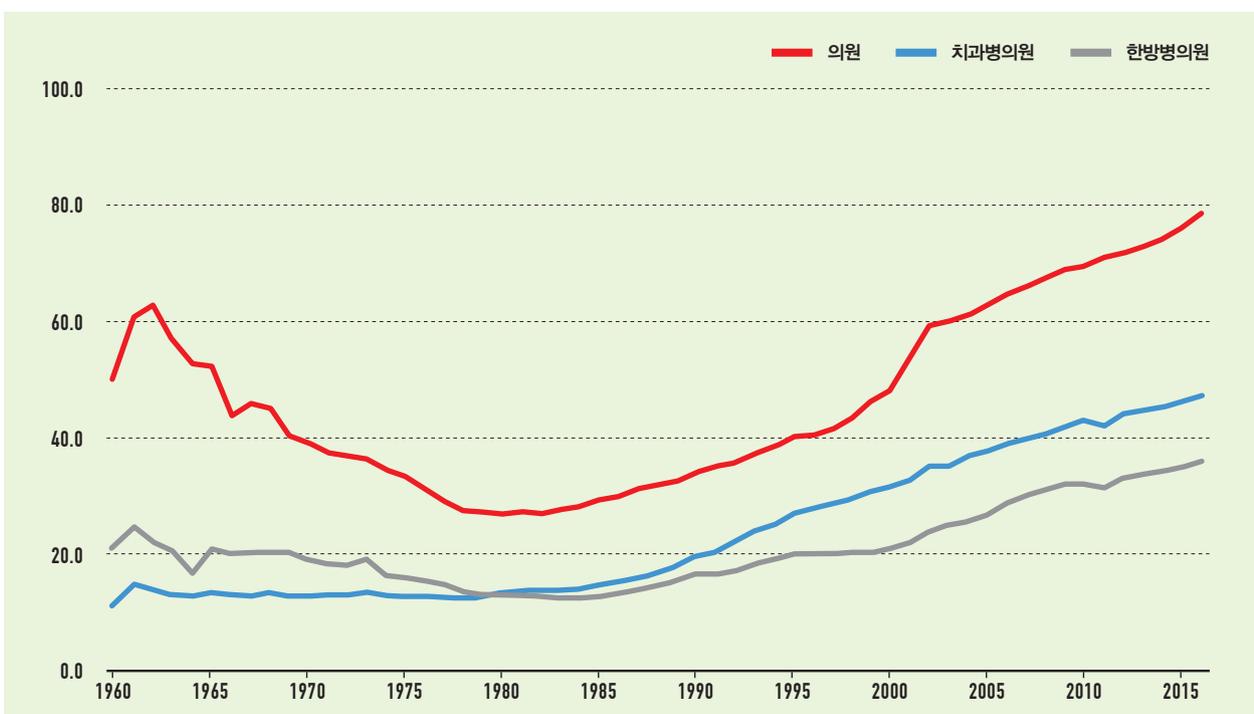
| 그림 6.1-3 |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및 병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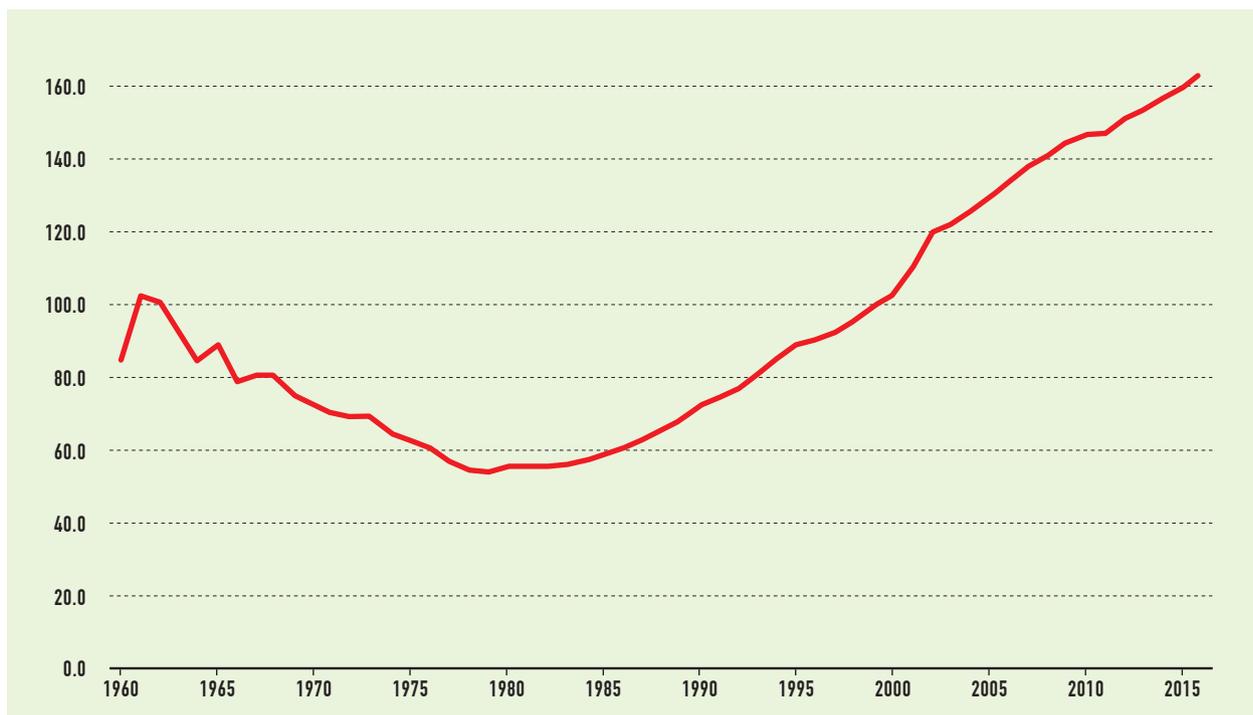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만 명당



| 그림 6.1-4 | 인구 10만 명당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수

단위: 개/인구 10만 명당





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의료시설 수 증가가 반드시 의료서비스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구 10만 명당 의료시설 수를 보여 주는 그림 6.1-3과 그림 6.1-4에 따르면, 1970년대 말까지 의료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의료시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시기에 서울시 인구가 가장 급속히 증가했는데,

의료시설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료시설 수는 1980년대 들어 대체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료시설 수(모든 의료시설의 합계)는 1979년 54.2개로 가장 낮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164.4개로 증가하였다.

유치원 개괄

교육시설 중 유치원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중·상류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 교육이나 사치스러운 교육기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69년 제1차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었고, 1976년에는 공립유치원 설립이 시작되었다.

1961년 서울에는 60개의 유치원이 있었고 3,581명이 유치원에 다녔다. 당시 7세 이하 아동 중 일부 아동만이 유치원에 다녔음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이후 유치원 수

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1년 141개소로 1961년 이후 10년간 약 2.4배 늘어났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976년 처음으로 공립유치원을 개교하였다.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1980년대로, 1983년 한 해 동안 238개가 신설되었고, 이후 1989년까지 매년 100~150여 개씩 늘어났다. 이처럼 유치원 이용률이 늘어난 이유는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지만, 주부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아동을 낮

| 표 6.2-1 | 유치원 개괄

단위: 개, 명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1961	60	3,581	59.7	215	16.7	601	6.0	-
1962	86	4,478	52.1	312	14.4	134	33.4	-
1963	90	4,785	53.2	278	17.2	136	35.2	-
1964	93	5,064	54.5	308	16.4	151	33.5	-
1965	102	5,741	56.3	355	16.2	189	30.4	146
1966	114	7,249	63.6	416	17.4	194	37.4	167
1967	122	7,384	60.5	446	16.6	214	34.5	177
1968	134	7,620	56.9	470	16.2	217	35.1	209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1969	137	7,375	53.8	423	17.4	272	27.1	295
1970	135	6,917	51.2	441	15.7	195	35.5	195
1971	141	7,214	51.2	473	15.3	217	33.2	354
1972	151	7,476	49.5	517	14.5	225	33.2	384
1973	166	9,071	54.6	582	15.6	256	35.4	414
1974	176	9,961	56.6	631	15.8	279	35.7	431
1975	188	11,526	61.3	691	16.7	314	36.7	480
1976	201	14,145	70.4	726	19.5	383	36.9	545
1977	221	16,456	74.5	821	20.0	463	35.5	631
1978	242	19,052	78.7	903	21.1	506	37.7	709
1979	247	21,187	85.8	937	22.6	550	38.5	738
1980	271	22,922	84.6	1,073	21.4	613	37.4	841
1981	321	28,159	87.7	1,199	23.5	751	37.5	975
1982	339	27,958	82.5	1,240	22.5	780	35.8	1,056
1983	577	41,175	71.4	1,972	20.9	1,174	35.1	1,536
1984	729	48,987	67.2	2,196	22.3	1,437	34.1	1,911
1985	889	58,677	66.0	2,807	20.9	1,705	34.4	2,423
1986	1,087	65,639	60.4	3,139	20.9	2,044	32.1	2,739
1987	1,240	74,864	60.4	3,277	22.8	2,385	31.4	3,134
1988	1,326	80,721	60.9	3,681	21.9	2,635	30.6	3,651
1989	1,401	88,183	62.9	3,905	22.6	2,804	31.4	3,921
1990	1,398	94,005	67.2	4,751	19.8	2,976	31.6	3,997
1991	1,364	96,688	70.9	4,521	21.4	3,009	32.1	4,125
1992	1,371	100,234	73.1	4,936	20.3	3,135	32.0	4,276
1993	1,354	102,904	76.0	4,978	20.7	3,193	32.2	4,395
1994	1,391	104,999	75.5	5,282	19.9	3,334	31.5	4,623
1995	1,370	104,810	76.5	5,389	19.4	3,430	30.6	4,898
1996	1,322	103,307	78.1	5,379	19.2	3,396	30.4	4,715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1997	1,306	104,590	80.1	5,279	19.8	3,509	29.8	4,681
1998	1,251	94,506	75.5	4,915	19.2	3,388	27.9	4,794
1999	1,237	92,681	74.9	4,536	20.4	3,376	27.5	3,305
2000	1,160	94,690	81.6	4,933	19.2	3,563	26.6	3,812
2001	1,093	94,051	86.0	5,017	18.7	3,628	25.9	3,967
2002	1,031	93,015	90.2	5,090	18.3	3,674	25.3	3,918
2003	976	89,232	91.4	5,092	17.5	3,583	24.9	3,832
2004	949	87,468	92.2	4,972	17.6	3,605	24.3	3,949
2005	923	85,302	92.4	5,033	16.9	3,511	24.3	3,898
2006	908	85,764	94.5	5,153	16.6	3,623	23.7	3,906
2007	890	82,461	92.7	5,177	15.9	3,579	23.0	3,821
2008	883	82,144	93.0	5,219	15.7	3,647	22.5	3,941
2009	873	79,704	91.3	5,293	15.1	3,578	22.3	3,968
2010	866	78,789	91.0	5,404	14.6	3,632	21.7	4,015
2011	857	81,237	94.8	5,755	14.1	3,725	21.8	3,649
2012	866	87,997	101.6	6,213	14.2	3,639	24.2	3,748
2013	869	92,400	106.3	6,657	13.9	3,829	24.1	3,828
2014	884	91,195	103.2	6,651	13.7	4,170	21.9	3,962
2015	888	91,394	102.9	6,903	13.2	4,275	21.4	4,151
2016	879	91,026	103.6	7,023	13.0	4,319	21.1	4,114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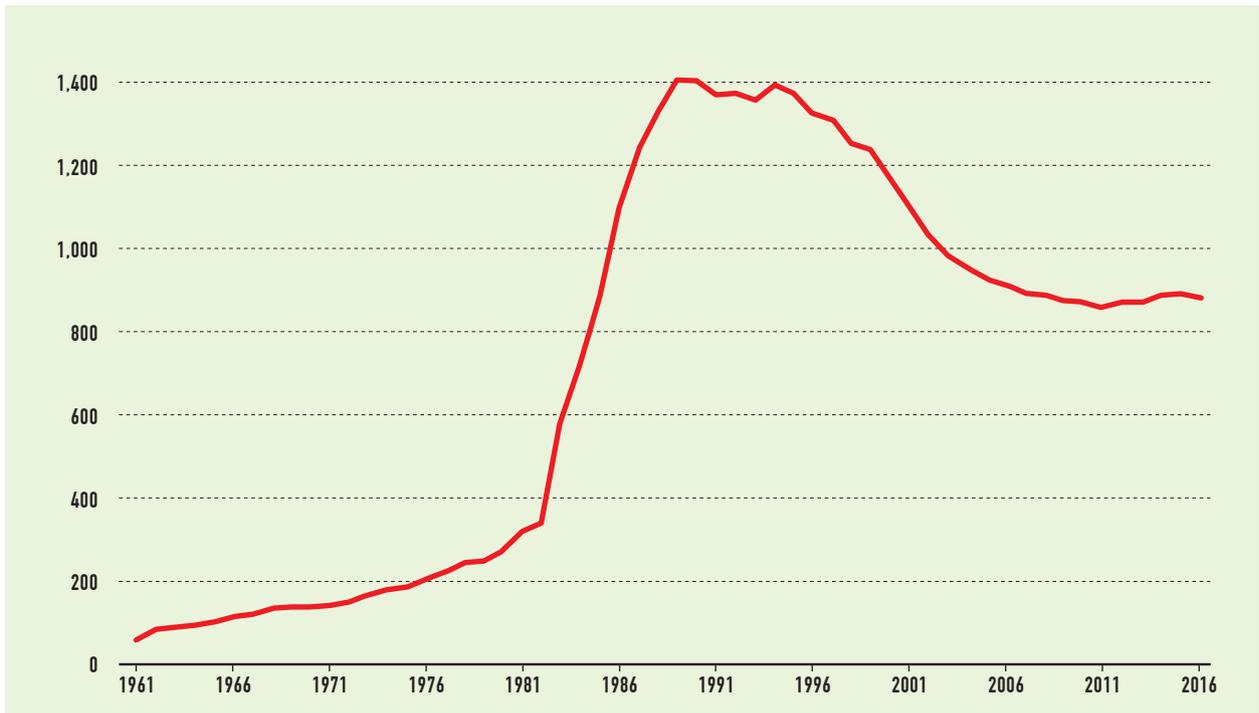
1. 휴원 유치원 포함(서울통계)
2. 교원 수는 재직, 휴직 파견을 포함(서울통계)
3.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61~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2. 1965~1967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8회 1968년 서울통계연보(1967년 기준)
3. 1968~198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85~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육 - 영유아교육 - 유치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link=1&cot=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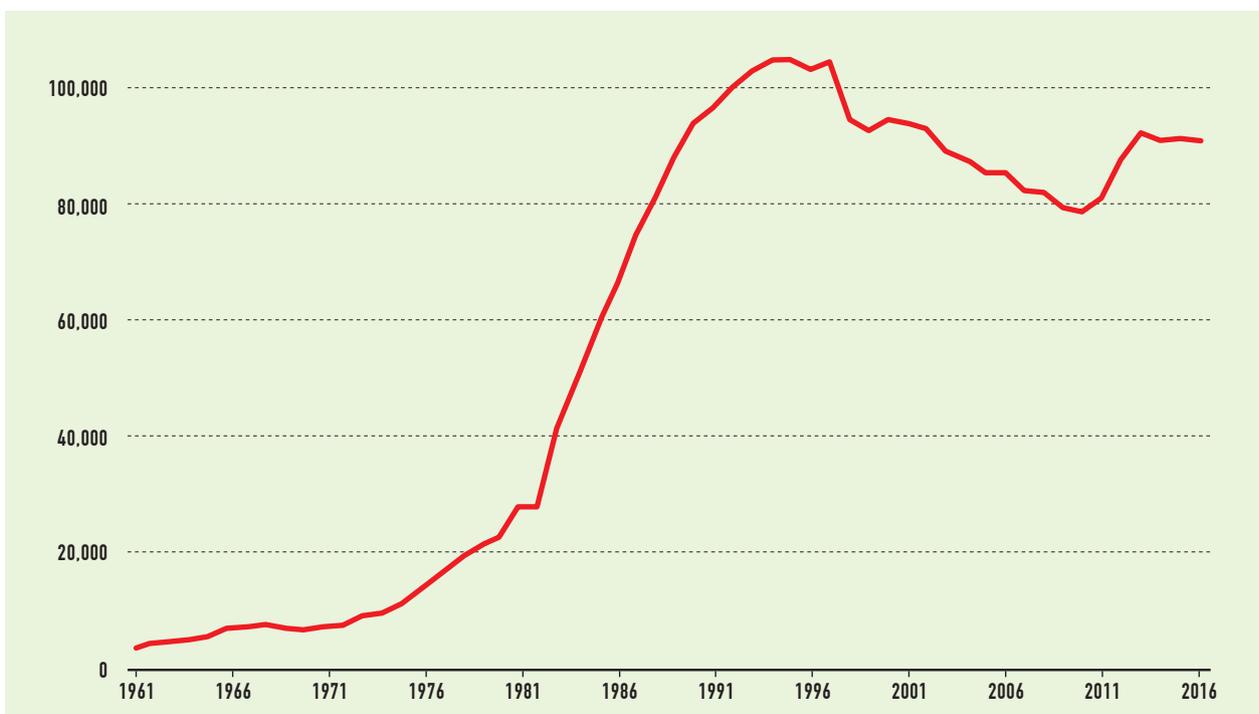
| 그림 6.2-1 | 유치원 수 추이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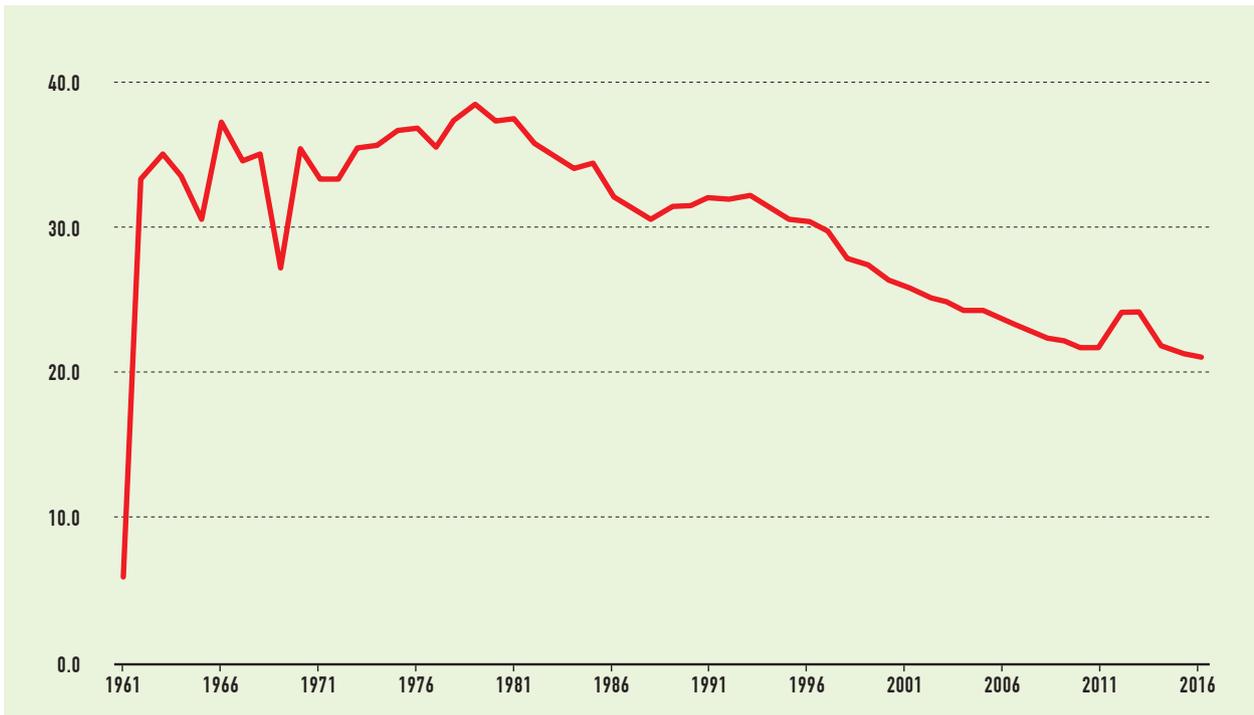
| 그림 6.2-2 | 유치원 재학생 수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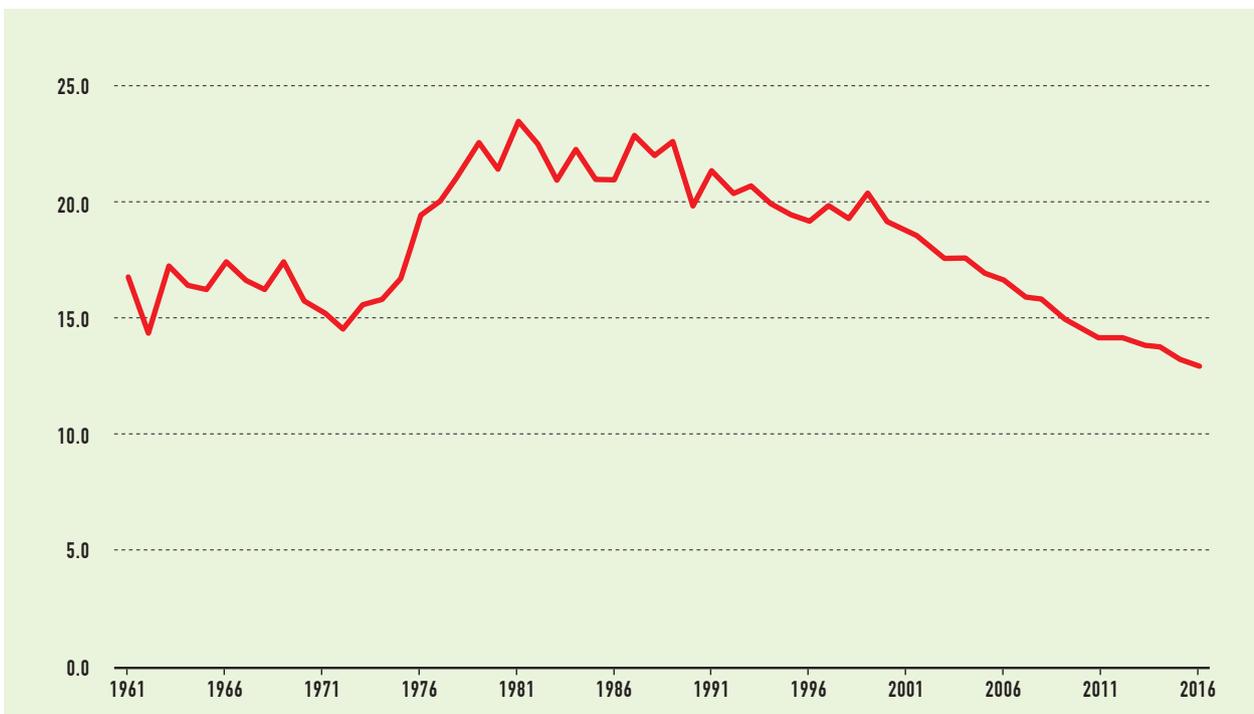
| 그림 6.2-3 |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그림 6.2-4 |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간 동안 돌보아 주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 1994년 유치원 수는 1,391개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879개가 되었다. 유치원 및 재학생 수가 감소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하며 아동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 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교사 수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1961년 200명을 조금 넘는 유치원 교사는 1980년 1천 명을 넘어섰고, 2016년 7,023명이 되었다. 하지만 유치원과 교사 수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2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당 학생 수는 1962년 52.1명이었으나 2016년 103.6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2년 14.4명에서 2016년 13.0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는 1962년 33.4명이었으나 유치원 수가 증가하며 2016년 21.1명으로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개괄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공식적으로 1950년 6월 1일 채택되었으나 시설과 교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1953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6.2-2에 따르면 서울의 초등학교 수는 1957년 94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601개로 6.4배 증가하였다. 2016년 약 44만 명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들을 담당하는 교원은 2만 9,448명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 수준을 살펴보면 1957년 학급당 학생 수가 76.6명이었으며, 1965년 85.1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97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는 약 80명 수준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80명 이

표 6.2-2 | 초등학교 개괄

단위: 개, 명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1957	94	241,991	2,574	3,654	66.2	3,159	76.6	-
1958	94	239,593	2,549	4,707	50.9	3,561	67.3	-
1959	101	270,896	2,682	4,084	66.3	3,452	78.5	-
1960	101	296,239	2,933	4,187	70.8	3,967	74.7	-
1961	104	331,266	3,185	4,342	76.3	4,001	82.8	2,815
1962	114	367,097	3,220	4,904	74.9	4,577	80.2	3,487
1963	142	450,643	3,174	5,827	77.3	5,492	82.1	3,955
1964	152	515,282	3,390	6,474	79.6	6,253	82.4	4,003
1965	160	564,779	3,530	7,133	79.2	6,640	85.1	3,928
1966	177	590,958	3,339	7,798	75.8	7,335	80.6	4,416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1967	185	626,808	3,388	8,374	74.9	7,884	79.5	5,195
1968	201	679,541	3,381	8,871	76.6	8,398	80.9	6,565
1969	211	748,242	3,546	9,548	78.4	9,124	82.0	7,680
1970	206	770,167	3,739	10,552	73.0	9,191	83.8	8,318
1971	208	809,645	3,893	11,050	73.3	10,301	78.6	8,894
1972	222	832,332	3,749	11,514	72.3	10,783	77.2	9,855
1973	232	844,414	3,640	11,959	70.6	11,222	75.2	10,630
1974	241	870,494	3,612	12,123	71.8	11,377	76.5	11,015
1975	252	908,474	3,605	12,373	73.4	11,627	78.1	11,134
1976	259	932,953	3,602	13,030	71.6	12,264	76.1	11,282
1977	263	978,968	3,722	14,024	69.8	13,306	73.6	11,571
1978	271	1,056,347	3,898	15,372	68.7	14,566	72.5	12,012
1979	278	1,126,383	4,052	16,676	67.5	15,847	71.1	12,747
1980	291	1,168,724	4,016	17,903	65.3	17,053	68.5	13,773
1981	301	1,181,324	3,925	19,242	61.4	18,327	64.5	14,652
1982	318	1,183,735	3,722	20,477	57.8	19,001	62.3	15,372
1983	351	1,166,202	3,323	21,476	54.3	19,899	58.6	16,551
1984	384	1,125,601	2,931	21,688	51.9	19,522	57.7	18,160
1985	405	1,090,330	2,692	21,629	50.4	19,405	56.2	18,160
1986	433	1,086,283	2,509	21,765	49.9	20,035	54.2	18,934
1987	431	1,088,466	2,525	22,936	47.5	20,533	53.0	19,401
1988	441	1,113,868	2,526	23,978	46.5	21,081	52.8	19,856
1989	453	1,146,912	2,532	24,626	46.6	21,945	52.3	19,872
1990	463	1,141,839	2,466	25,382	45.0	22,314	51.2	20,740
1991	474	1,107,606	2,337	25,784	43.0	22,269	49.7	21,039
1992	481	1,049,985	2,183	26,118	40.2	21,763	48.2	20,903
1993	492	975,800	1,983	26,116	37.4	21,271	45.9	20,792
1994	503	900,239	1,790	26,113	34.5	21,042	42.8	20,723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1995	512	831,282	1,624	25,710	32.3	20,300	40.9	20,162
1996	519	778,709	1,500	25,287	30.8	20,276	38.4	20,147
1997	523	756,542	1,447	25,306	29.9	20,294	37.3	20,191
1998	527	748,978	1,421	25,453	29.4	20,453	36.6	20,447
1999	529	753,606	1,425	24,299	31.0	20,222	37.3	20,330
2000	532	759,443	1,428	25,265	30.1	20,363	37.3	20,571
2001	536	762,967	1,423	25,547	29.9	20,663	36.9	20,932
2002	542	759,229	1,401	25,939	29.3	20,987	36.2	21,199
2003	550	759,010	1,380	26,417	28.7	21,311	35.6	21,622
2004	554	736,710	1,330	26,586	27.7	21,695	34.0	22,557
2005	563	711,136	1,263	26,758	26.6	21,689	32.8	22,633
2006	568	689,169	1,213	27,219	25.3	21,570	32.0	22,528
2007	572	665,227	1,163	27,646	24.1	21,320	31.2	22,118
2008	578	633,486	1,096	28,391	22.3	20,973	30.2	21,792
2009	586	598,514	1,021	29,004	20.6	20,682	28.9	21,186
2010	587	566,149	964	29,335	19.3	20,351	27.8	20,894
2011	591	535,948	907	29,639	18.1	19,993	26.8	20,762
2012	594	502,000	845	29,762	16.9	19,648	25.5	20,569
2013	597	469,392	786	29,751	15.8	19,149	24.5	20,118
2014	599	457,517	764	29,613	15.4	18,854	24.3	19,790
2015	599	450,675	752	29,627	15.2	18,780	24.0	24,934
2016	601	436,121	726	29,448	14.8	18,621	23.4	24,989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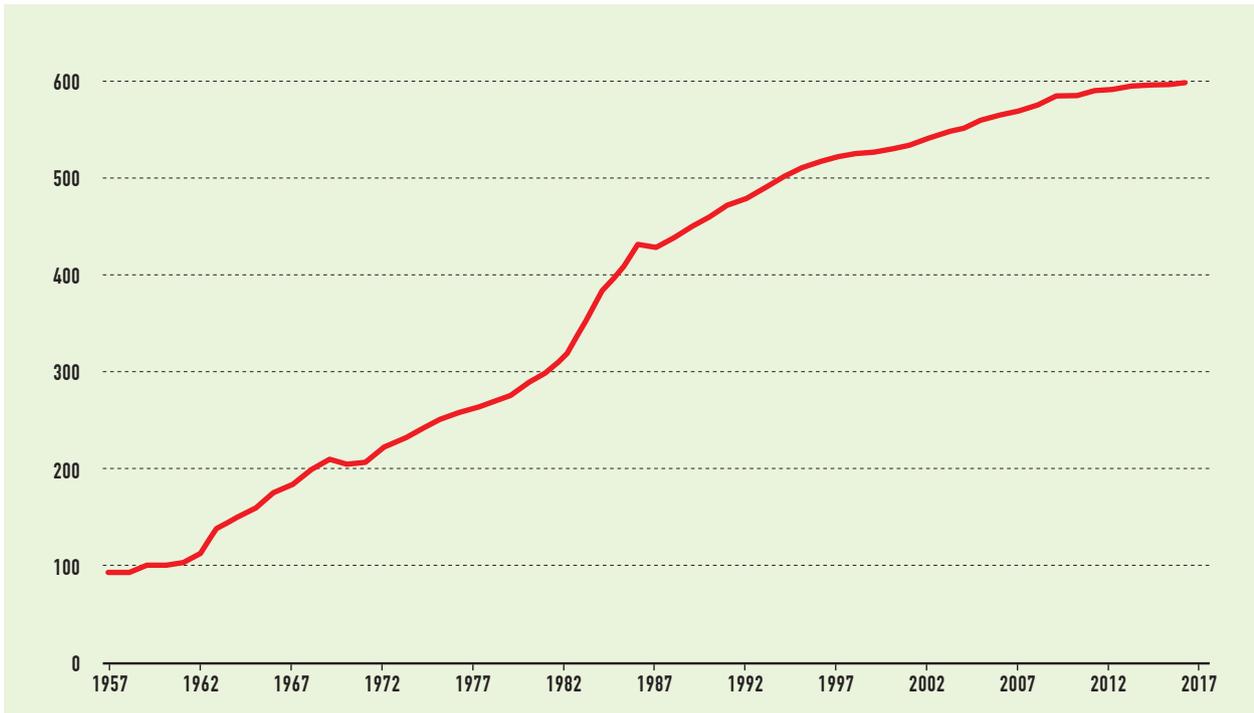
1.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57~196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6회 1966년 서울통계연보(1965년 기준)
2. 1965~196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3. 1969~1980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81~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육 - 초중등교육 - 초등학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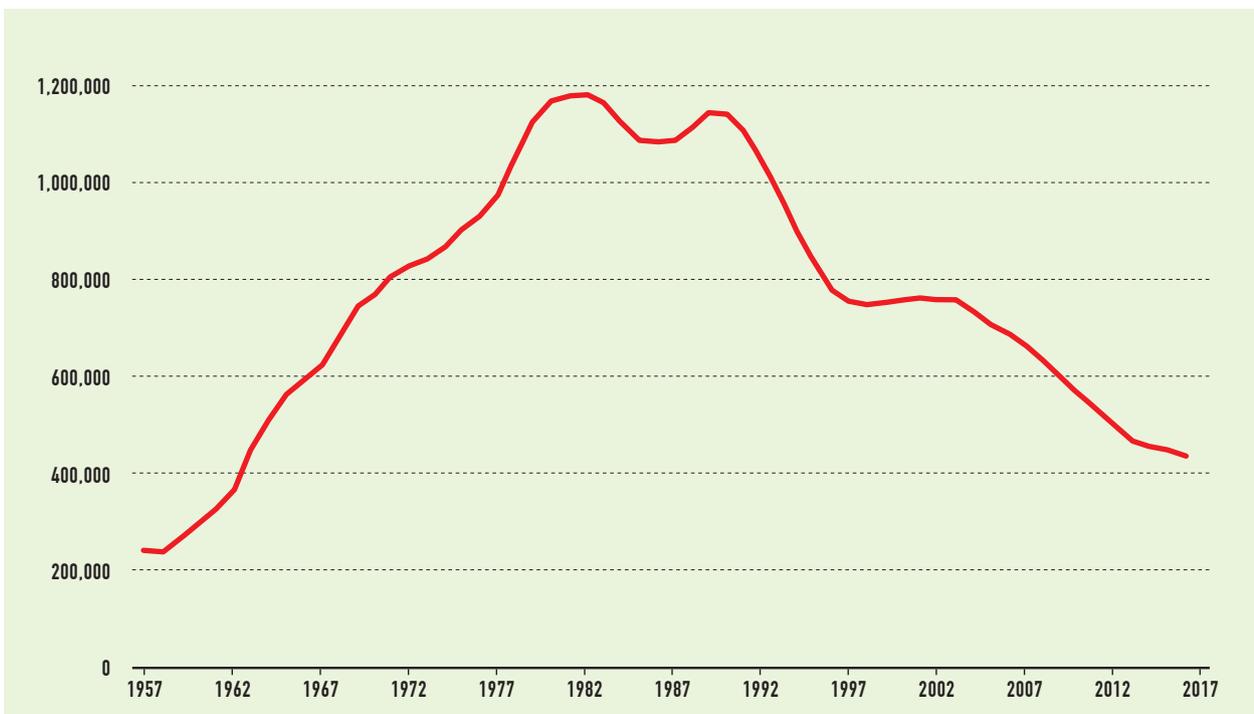
| 그림 6.2-5 | 초등학교 수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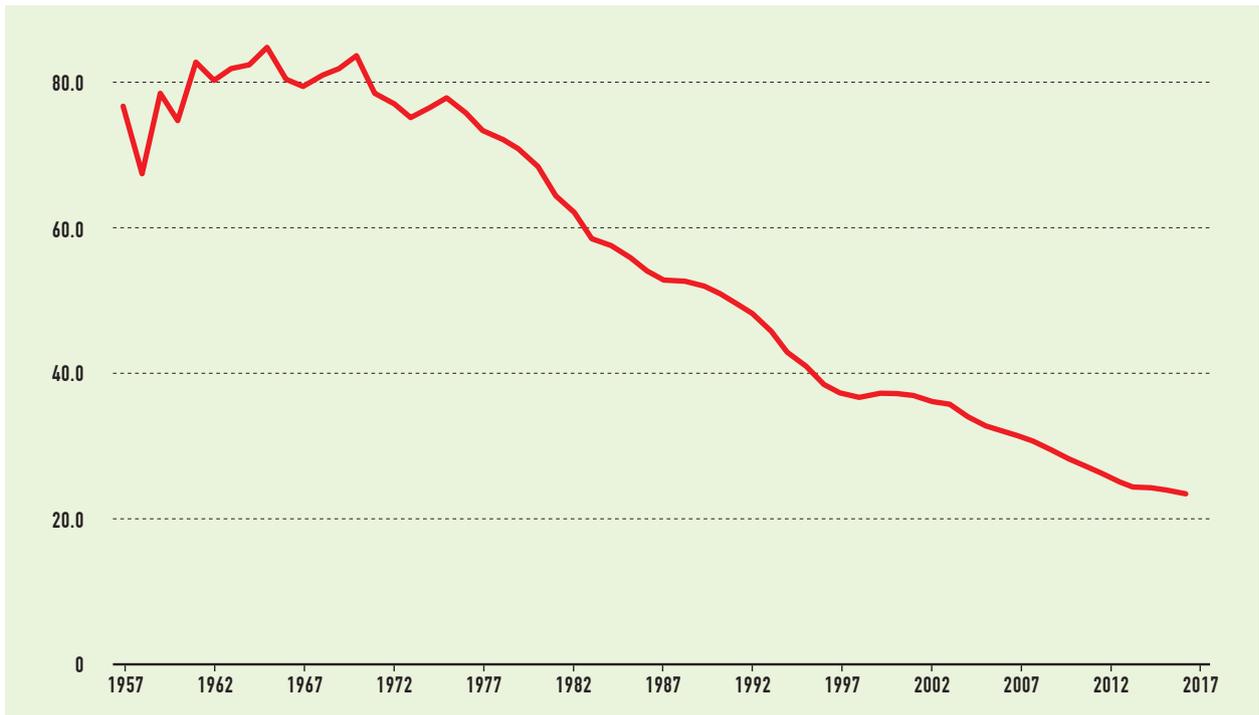
| 그림 6.2-6 | 초등학교 재학생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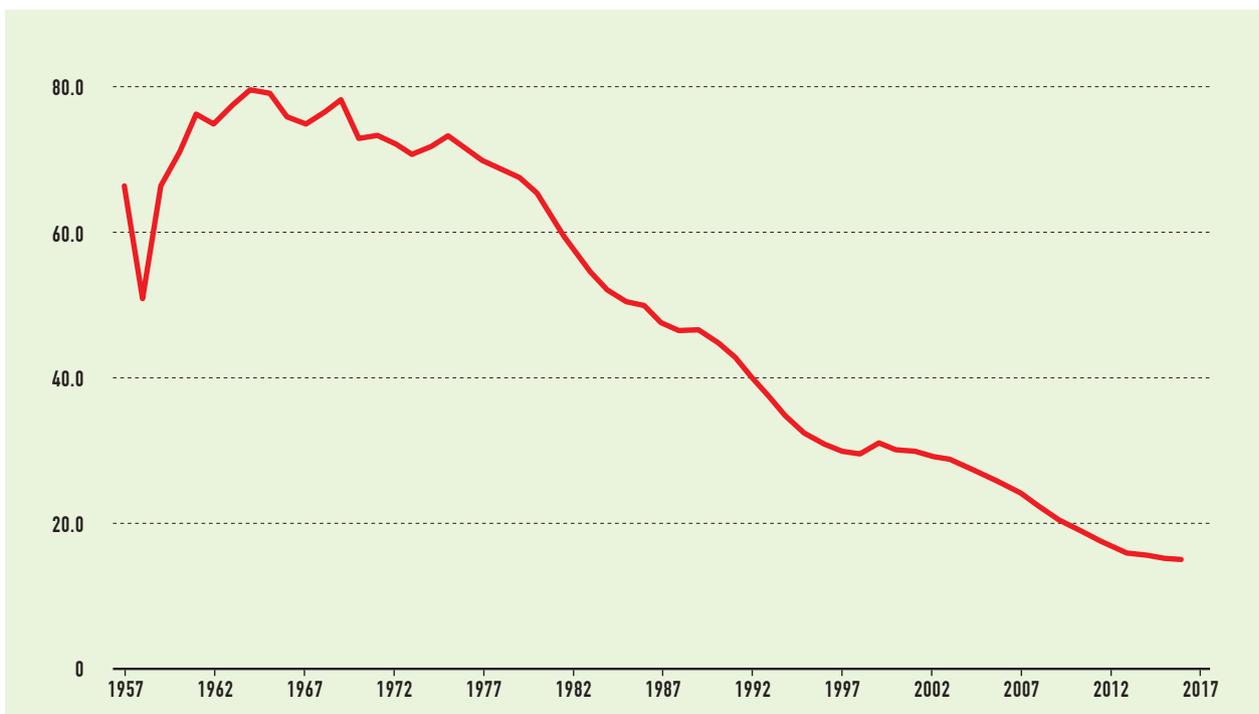
| 그림 6.2-7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이

단위 : 명



| 그림 6.2-8 |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 명



하로 감소하였으며, 1991년 학급당 학생 수가 49.7명으로 처음 5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 수준이 되었다.

교육서비스 수준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교실당 학생 수 변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1960년대에는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70명을 넘어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1960년대에 초등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취학 대상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취학하는 학생 수가 적어 교원당 학생 수가 약 70명 이하였는데, 1960년대 들어서 70명 선을 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7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고, 가장 학생 수가 많았던 때는 1964년 79.6명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개선되기 시작

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80년 65.3명, 1990년 45명, 2000년 30.1명, 2016년 14.8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한 데는 취학 대상 아동 수의 상대적 감소뿐 아니라 교원 수의 양적 증가도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표 6.2-2에 의하면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매년 약 1천 명 이상의 교원이 확충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재학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중학교 개괄

교육시설 중 중학교는 1957년 97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84개로 약 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

표 6.2-3 | 중학교 개괄

단위: 개, 명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1957	97	64,200	662	2,036	31.5	1,021	62.9	-	10.5
1958	97	75,584	779	2,049	36.9	1,142	66.2	-	11.8
1959	102	90,700	889	2,020	44.9	1,434	63.2	-	14.1
1960	106	111,502	1,052	2,319	48.1	1,727	64.6	-	16.3
1961	109	119,342	1,095	2,364	50.5	1,927	61.9	1,715	17.7
1962	110	111,936	1,018	2,952	37.9	1,876	59.7	1,972	17.1
1963	112	112,414	1,004	2,814	39.9	1,852	60.7	1,877	16.5
1964	117	111,805	956	3,270	34.2	1,871	59.8	2,043	16.0
1965	113	127,844	1,131	3,258	39.2	2,054	62.2	1,411	18.2
1966	116	151,574	1,307	3,493	43.4	2,409	62.9	1,525	20.8
1967	120	179,174	1,493	4,083	43.9	2,883	62.1	2,528	24.0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1968	135	199,814	1,480	4,771	41.9	3,217	62.1	2,848	23.8
1969	146	232,285	1,591	5,750	40.4	3,617	64.2	3,309	24.8
1970	156	265,437	1,702	6,502	40.8	3,992	66.5	3,853	25.6
1971	163	297,129	1,823	7,287	40.8	4,360	68.1	4,402	26.7
1972	168	320,741	1,909	7,774	41.3	4,684	68.5	4,721	27.9
1973	176	340,594	1,935	8,136	41.9	4,966	68.6	4,992	28.2
1974	179	366,463	2,047	8,336	44.0	5,281	69.4	5,304	29.5
1975	180	385,450	2,141	8,751	44.0	5,557	69.4	5,631	30.9
1976	181	400,144	2,211	9,002	44.5	5,792	69.1	5,826	32.0
1977	183	409,577	2,238	9,164	44.7	5,924	69.1	5,934	32.4
1978	190	423,067	2,227	9,357	45.2	6,087	69.5	6,136	32.0
1979	196	440,587	2,248	9,783	45.0	6,336	69.5	6,362	32.3
1980	201	469,410	2,335	10,435	45.0	6,754	69.5	6,803	33.6
1981	219	511,136	2,334	11,362	45.0	7,370	69.4	7,386	33.7
1982	228	542,170	2,378	12,208	44.4	7,832	69.2	7,852	34.4
1983	243	578,910	2,382	12,989	44.6	8,355	69.3	8,445	34.4
1984	267	616,266	2,308	13,955	44.2	9,378	65.7	9,036	35.1
1985	285	645,367	2,264	15,080	42.8	9,687	66.6	9,767	34.0
1986	298	647,803	2,174	15,933	40.7	10,166	63.7	10,232	34.1
1987	304	621,385	2,044	16,752	37.1	10,321	60.2	10,357	34.0
1988	309	592,717	1,918	17,447	34.0	10,325	57.4	10,339	33.4
1989	318	572,740	1,801	17,952	31.9	10,385	55.2	10,419	32.7
1990	327	558,327	1,707	19,223	29.0	10,581	52.8	10,594	32.4
1991	336	550,197	1,637	19,713	27.9	10,730	51.3	10,711	31.9
1992	337	572,451	1,699	20,198	28.3	11,132	51.4	11,137	33.0
1993	343	582,994	1,700	20,426	28.5	11,303	51.6	11,312	33.0
1994	347	594,487	1,713	20,943	28.4	11,451	51.9	11,441	33.0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1995	352	566,645	1,610	20,845	27.2	11,350	49.9	11,316	32.0
1996	355	526,294	1,483	21,010	25.0	11,353	46.4	11,293	32.0
1997	352	469,834	1,335	21,002	22.4	11,234	41.8	11,208	31.9
1998	353	424,208	1,202	20,497	20.7	11,149	38.0	11,128	31.6
1999	353	390,220	1,105	19,672	19.8	10,970	35.6	10,969	31.1
2000	353	375,605	1,064	19,357	19.4	10,882	34.5	10,853	30.8
2001	354	364,688	1,030	19,397	18.8	10,750	33.9	10,827	30.4
2002	357	361,244	1,012	19,468	18.6	10,773	33.5	10,848	30.2
2003	358	359,457	1,004	19,395	18.5	10,754	33.4	10,859	30.0
2004	362	370,551	1,024	19,413	19.1	10,780	34.4	11,239	29.8
2005	363	379,188	1,045	19,406	19.5	10,828	35.0	11,222	29.8
2006	367	384,977	1,049	19,288	20.0	10,908	35.3	11,297	29.7
2007	368	375,937	1,022	19,220	19.6	10,761	34.9	11,159	29.2
2008	369	365,579	991	19,038	19.2	10,528	34.7	10,965	28.5
2009	374	355,838	951	18,946	18.8	10,359	34.4	10,800	27.7
2010	376	345,413	919	18,618	18.6	10,201	33.9	10,825	27.1
2011	377	330,219	876	18,652	17.7	10,056	32.8	10,728	26.7
2012	379	315,241	832	18,442	17.1	9,848	32.0	10,467	26.0
2013	382	304,251	796	18,424	16.5	9,694	31.4	10,311	25.4
2014	383	286,826	749	18,350	15.6	9,497	30.2	10,169	24.8
2015	384	263,466	686	18,076	14.6	9,249	28.5	14,062	24.1
2016	384	239,912	625	17,897	13.4	9,028	26.6	13,876	23.5

주석

1. 교실 수는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계(서울통계)
2.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57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6회 1966년 서울통계연보(1965년 기준)
2. 1958~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3. 1965~196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4. 1969~197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5회 1975년 서울통계연보(1974년 기준)
5. 1975~198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6. 1984~198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5회 1985년 서울통계연보(1984년 기준)
7. 1986~199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8. 1994~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교육 - 초·중등교육 - 중등학교(사립)/중등학교(국공립)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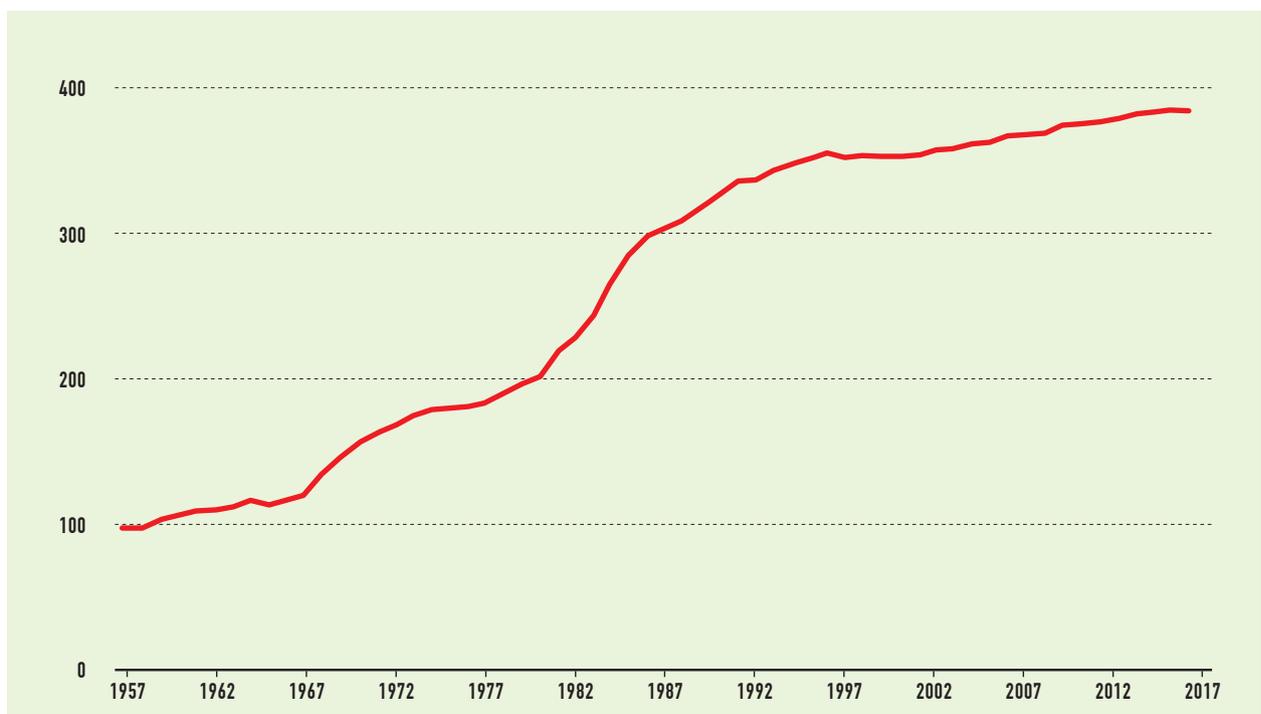
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가 6.4배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중학교 확충에 따라 중학교의 교원 수도 1957년 2,036명에서 2016년 1만 7,897명으로 약 9배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중학교 시설의 추가 공급이 거의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당 학급 수는 1957년 10.5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4년 35.1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학교당 학급 수는 23.5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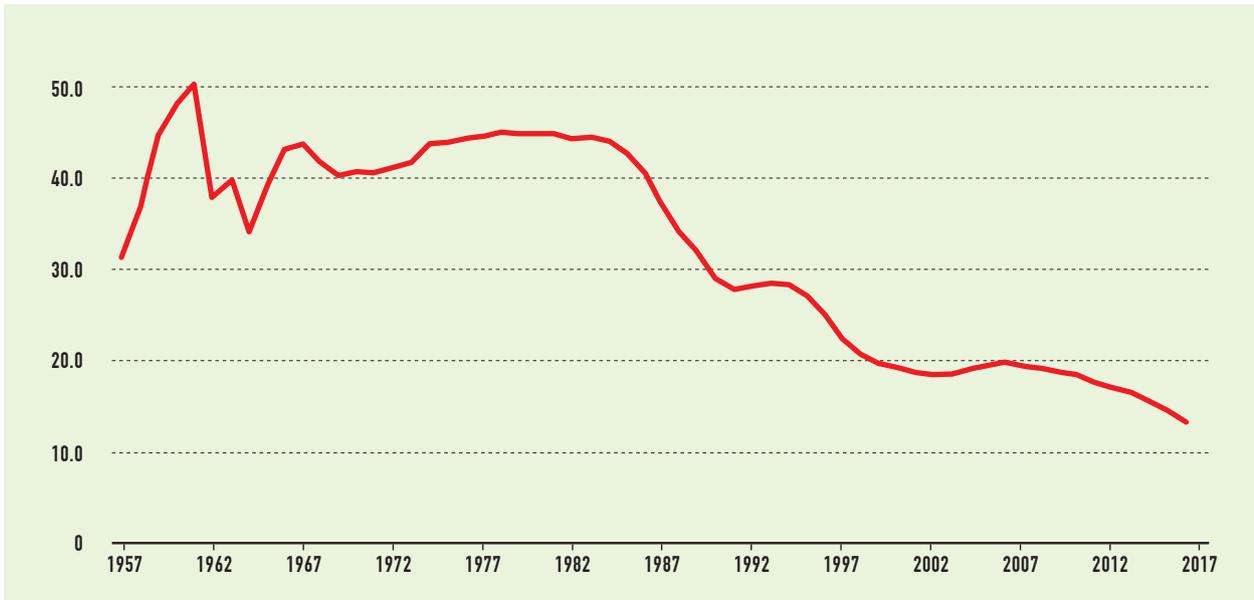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중학교 진학 대상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중반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중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86년으로 64만 7,803명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3만 9,912명이 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시설 공급에 비해 진학 학생의 증가율이 더 높아 학급당 약 60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여 공

| 그림 6.2-9 | 중학교 수 추이

단위 : 개





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 학급당 학생 수가 69.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 52.8명, 2000년 34.5명, 2016년 26.6명으로 줄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1978년에는 교원 한 사람이 45.2명의 학생을 담당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개선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교원 1인당 29명, 2000년에 19.4명, 2016년에 13.4명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개괄

교육시설 중 고등학교는 1957년 91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18개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교원 수도 1957년 2,121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표 6.2-4 | 고등학교 개괄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1957	91	54,896	603	2,121	25.9	901	60.9	-	9.9
1958	92	68,250	742	2,382	28.7	1,053	64.8	-	11.4
1959	95	71,730	755	2,263	31.7	1,298	55.3	-	13.7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1960	102	79,310	778	2,493	31.8	1,405	56.4	-	13.8
1961	105	87,162	830	2,418	36.0	1,543	56.5	1,939	14.7
1962	109	89,888	825	3,050	29.5	1,550	58.0	1,822	14.2
1963	112	101,629	907	3,259	31.2	1,674	60.7	2,800	14.9
1964	115	113,389	986	3,494	32.5	1,828	62.0	2,162	15.9
1965	114	123,167	1,080	3,021	40.8	2,083	59.1	1,711	18.3
1966	116	124,908	1,077	3,052	40.9	2,124	58.8	2,599	18.3
1967	119	123,887	1,041	3,930	31.5	2,110	58.7	2,008	17.7
1968	124	135,327	1,091	4,340	31.2	2,291	59.1	2,356	18.5
1969	125	151,099	1,209	4,849	31.2	2,549	59.3	2,387	20.4
1970	127	169,432	1,334	5,460	31.0	2,823	60.0	2,610	22.2
1971	125	179,926	1,439	5,851	30.8	3,010	59.8	2,715	24.1
1972	127	198,274	1,561	6,318	31.4	3,305	60.0	2,973	26.0
1973	141	223,258	1,583	7,143	31.3	3,720	60.0	3,435	26.4
1974	143	254,066	1,777	7,998	31.8	4,245	59.9	3,733	29.7
1975	148	282,126	1,906	8,790	32.1	4,748	59.4	4,055	32.1
1976	149	301,025	2,020	9,287	32.4	5,100	59.0	4,347	34.2
1977	152	316,909	2,085	9,768	32.4	5,340	59.3	4,553	35.1
1978	158	333,496	2,111	10,228	32.6	5,553	60.1	4,723	35.1
1979	163	351,480	2,156	10,716	32.8	5,825	60.3	5,035	35.7
1980	164	370,653	2,260	11,179	33.2	6,212	59.7	5,219	37.9
1981	166	384,725	2,318	11,666	33.0	6,402	60.1	5,462	38.6
1982	169	397,555	2,352	12,138	32.8	6,662	59.7	5,584	39.4
1983	180	420,008	2,333	12,786	32.8	7,032	59.7	5,973	39.1
1984	196	449,541	2,294	13,683	32.9	7,538	59.6	6,527	38.5
1985	212	478,433	2,257	14,772	32.4	8,261	57.9	7,165	39.0
1986	213	507,067	2,381	15,646	32.4	8,735	58.1	7,597	41.0
1987	221	534,271	2,418	16,728	31.9	9,178	58.2	8,126	41.5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1988	228	562,461	2,467	17,764	31.7	9,657	58.2	8,522	42.4
1989	234	580,928	2,483	18,905	30.7	10,087	57.6	8,951	43.1
1990	239	570,516	2,387	19,831	28.8	10,266	55.6	9,202	43.0
1991	242	552,102	2,281	20,383	27.1	10,338	53.4	9,420	42.7
1992	253	533,325	2,108	20,642	25.8	10,351	51.5	9,785	40.9
1993	258	520,643	2,018	20,795	25.0	10,393	50.1	9,938	40.3
1994	266	516,768	1,943	21,056	24.5	10,484	49.3	10,021	39.4
1995	273	533,421	1,954	21,248	25.1	10,563	50.5	10,023	38.7
1996	274	543,575	1,984	21,361	25.4	10,567	51.4	10,197	38.6
1997	274	551,894	2,014	21,392	25.8	10,529	52.4	10,229	38.4
1998	278	532,570	1,916	21,262	25.0	10,442	51.0	10,206	37.6
1999	278	503,096	1,810	20,604	24.4	10,271	49.0	10,182	36.9
2000	279	453,068	1,624	19,857	22.8	9,989	45.4	9,916	35.8
2001	278	410,341	1,476	19,480	21.1	9,711	42.3	9,878	34.9
2002	282	378,168	1,341	21,098	17.9	10,470	36.1	10,676	37.1
2003	284	366,556	1,291	21,665	16.9	10,548	34.8	10,856	37.1
2004	289	356,157	1,232	21,953	16.2	10,528	33.8	11,825	36.4
2005	292	353,023	1,209	22,114	16.0	10,522	33.6	11,811	36.0
2006	295	349,154	1,184	22,130	15.8	10,527	33.2	11,652	35.7
2007	297	355,193	1,196	22,155	16.0	10,549	33.7	11,589	35.5
2008	302	361,942	1,198	22,315	16.2	10,527	34.4	11,497	34.9
2009	308	368,075	1,195	22,603	16.3	10,577	34.8	11,092	34.3
2010	311	362,466	1,165	22,827	15.9	10,551	34.4	11,107	33.9
2011	314	353,632	1,126	23,052	15.3	10,535	33.6	10,977	33.6
2012	317	344,391	1,086	23,245	14.8	10,509	32.8	11,125	33.2
2013	318	334,123	1,051	23,190	14.4	10,483	31.9	10,989	33.0
2014	318	320,398	1,008	22,957	14.0	10,355	30.9	10,948	32.6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	학교당 학급 수
2015	318	308,306	970	22,870	13.5	10,233	30.1	16,310	32.2
2016	318	299,556	942	22,598	13.3	10,096	29.7	16,250	31.7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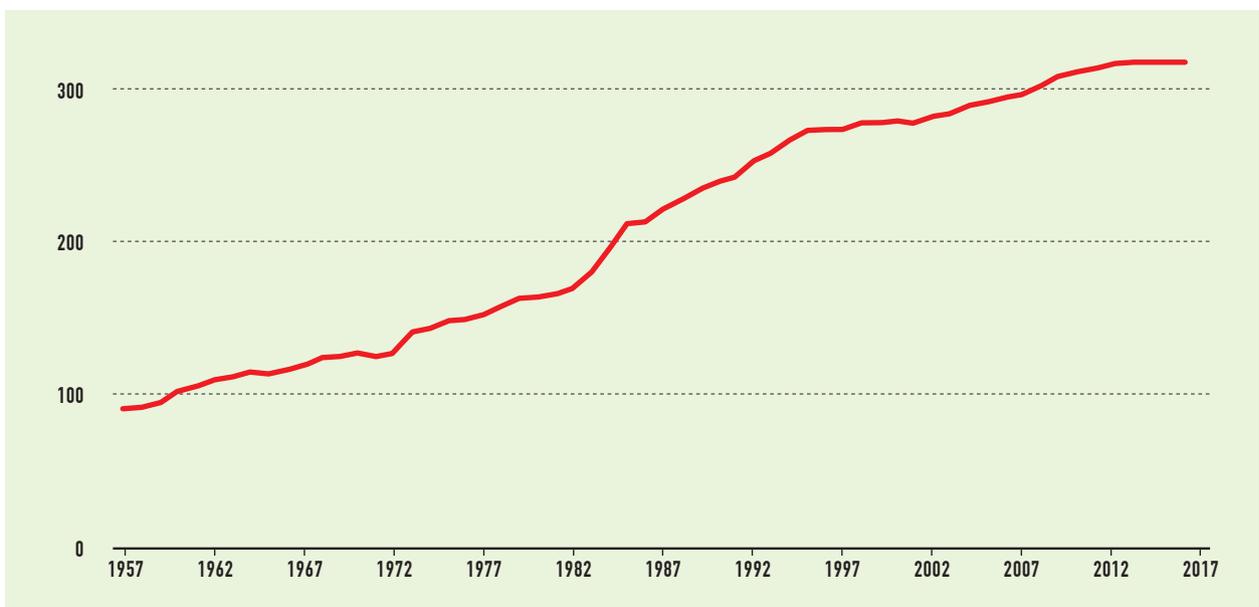
1. 고등학교는 국·공립, 사립을 모두 포함
2. 2010년 이전에는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사립), 전문계고등학교(국·공립, 사립)의 합계
3. 2011년 이후부터 일반고등학교(국·공립,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국·공립, 사립),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 사립), 자율고등학교(국·공립, 사립)의 합계
4. '-'는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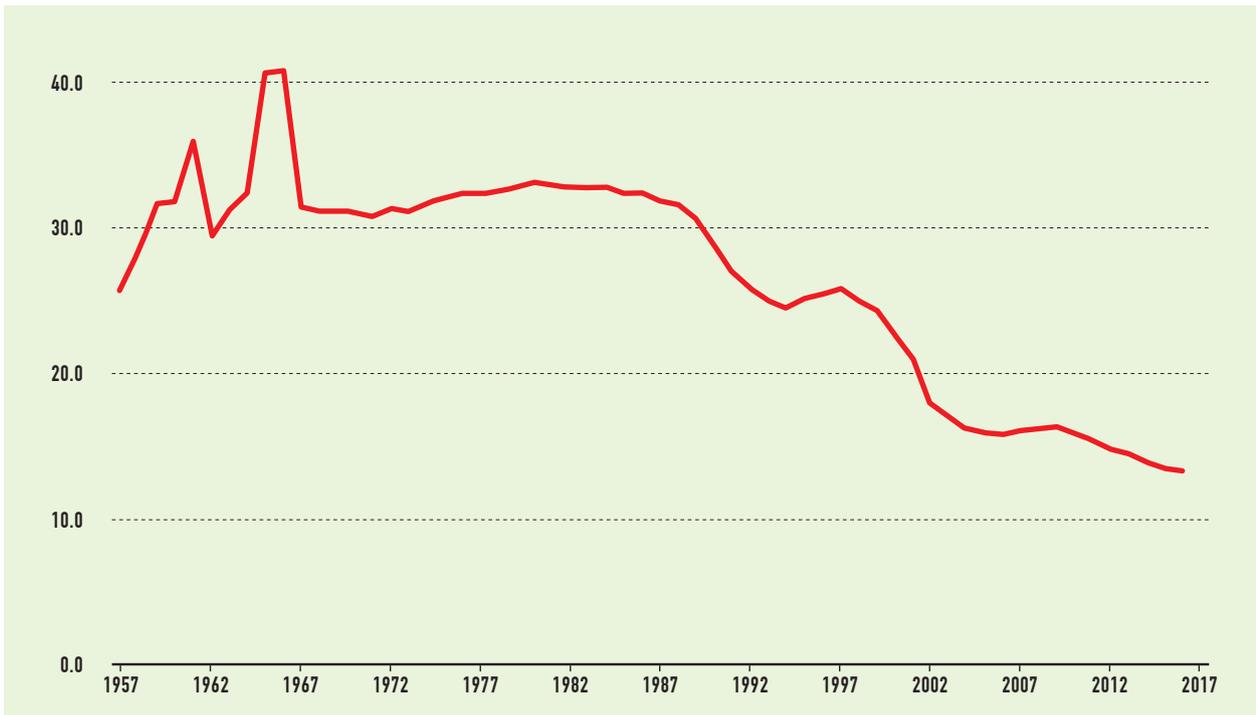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57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2. 1958~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3. 1965~1968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4. 1969~197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15회 1975년 서울통계연보(1974년 기준)
5. 1975~198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6. 1984~198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5회 1985년 서울통계연보(1984년 기준)
7. 1986~199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8. 1994~2010년 : 서울통계-주제별-교육-초중등교육-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사립) / 전문계고등학교(국·공립)(사립)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9. 2011~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교육-초중등교육-일반고등학교(국·공립)(사립) / 특수목적고등학교(국·공립)(사립) / 특성화고등학교(국·공립)(사립) / 자율고등학교(국·공립)(사립)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그림 6.2-11 | 고등학교 수 추이

단위 : 개





2016년 2만 2,598명으로 10.6배 늘었다.

반면 학교당 학급 수는 1957년 9.9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9년 최대 43.1개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6년 31.7개가 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57년 5만 4,89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58만 9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1986년이었는데, 1989년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해이기에 고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29만 9,556명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학교시설 공급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재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6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 49명, 2002년에 36.1명, 2016년에 29.7명까지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0년대 후반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60년대를 제외하고, 1970~1989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30명 정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교직원 수는 계속 증가한 반면, 재학생 수는 감소하여, 2016년 13.3명 수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대학교 개괄

1957년 당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총 13개였다. 서울의 대학은 1961~1962년에 사립대학교가 통계에 추가되어 10개가 늘어났고, 이후 1966년 38개, 2016년 38개로 큰 변화가 없다. 이는 1970년대 시행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대학의 신·증설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1957	13	10,648	819	1,068	10.0	-
1958	13	12,235	941	-	-	-
1959	13	12,156	935	1,019	11.9	-
1960	13	13,277	1,021	526	25.2	83
1961	13	13,211	1,016	541	24.4	84
1962	23	73,936	3,215	3,229	22.9	457
1963	27	86,715	3,212	4,346	20.0	488
1964	22	58,785	2,672	-	-	547
1965	39	71,345	1,829	3,290	21.7	539
1966	38	90,364	2,378	3,504	25.8	550
1967	37	83,434	2,255	3,711	22.5	590
1968	37	82,656	2,234	4,091	20.2	665
1969	37	90,188	2,438	-	-	662
1970	38	97,916	2,577	-	-	680
1971	38	102,426	2,695	-	-	702
1972	36	105,488	2,930	-	-	730
1973	37	112,026	3,028	-	-	761
1974	37	117,504	3,176	-	-	797
1975	36	124,728	3,465	-	-	820
1976	36	133,723	3,715	6,160	21.7	834
1977	37	140,616	3,800	6,599	21.3	838
1978	37	144,163	3,896	6,548	22.0	813
1979	37	151,374	4,091	6,979	21.7	908
1980	37	172,155	4,653	7,421	23.2	1,089
1981	36	211,205	5,867	8,701	24.3	1,108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1982	36	250,643	6,962	9,388	26.7	1,121
1983	36	282,166	7,838	10,150	27.8	1,239
1984	36	309,021	8,584	10,359	29.8	1,215
1985	36	308,763	8,577	10,740	28.7	1,256
1986	36	312,779	8,688	11,063	28.3	1,267
1987	36	311,852	8,663	11,185	27.9	991
1988	34	292,796	8,612	10,924	26.8	1,019
1989	34	287,859	8,466	10,822	26.6	1,026
1990	34	288,642	8,489	11,099	26.0	1,043
1991	34	284,521	8,368	11,409	24.9	1,050
1992	34	285,530	8,398	11,881	24.0	1,074
1993	35	289,965	8,285	12,281	23.6	1,078
1994	35	299,102	8,546	12,881	23.2	1,113
1995	35	310,723	8,878	14,912	20.8	1,152
1996	34	327,977	9,646	14,992	21.9	1,254
1997	38	345,481	9,092	16,068	21.5	1,385
1998	39	381,331	9,778	11,737	32.5	1,825
1999	39	408,911	10,485	11,885	34.4	2,024
2000	39	422,594	10,836	12,027	35.1	2,535
2001	39	432,787	11,097	12,205	35.5	2,165
2002	38	438,986	11,552	12,380	35.5	2,137
2003	38	445,169	11,715	12,764	34.9	2,098
2004	38	453,265	11,928	13,322	34.0	2,052
2005	38	446,599	11,753	13,187	33.9	2,051
2006	38	451,481	11,881	13,991	32.3	2,158
2007	38	454,639	11,964	13,912	32.7	2,103
2008	37	440,846	11,915	14,122	31.2	2,016

연도	학교 수	재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수
2009	37	447,982	12,108	14,405	31.1	2,053
2010	37	468,509	12,662	15,626	30.0	2,084
2011	37	471,648	12,747	15,923	29.6	2,124
2012	38	494,016	13,000	17,078	28.9	2,195
2013	38	495,395	13,037	17,532	28.3	2,178
2014	38	504,569	13,278	17,746	28.4	2,208
2015	38	500,178	13,163	17,957	27.9	2,170
2016	38	498,944	13,130	18,022	27.7	2,192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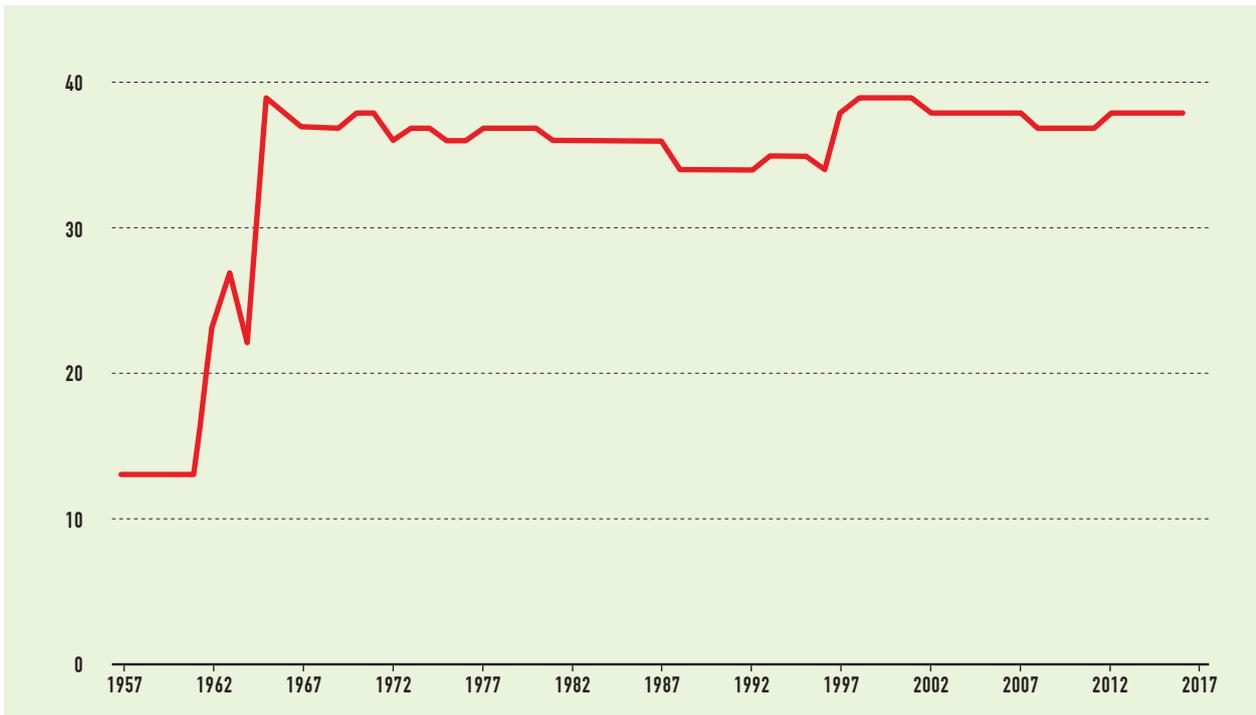
1. 대학교 현황은 4년제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포함하며,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은 제외됨
2. 1957~1961년은 국·공립대학교 현황이며, 자료의 결측으로 인하여 사립대학교가 제외됨
3. '-'는 자료 없음

자료출처

1. 1957~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2. 1965~1967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8회 1968년 서울통계연보(1967년 기준)
3. 1968~197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76~1981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2회 1982년 서울통계연보(1981년 기준)
5. 1982~198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6. 1984~198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5회 1985년 서울통계연보(1984년 기준)
7. 1986~1989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8. 1990~199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3회 1993년 서울통계연보(1992년 기준)
9. 1994~199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10. 1996~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교육-고등교육-대학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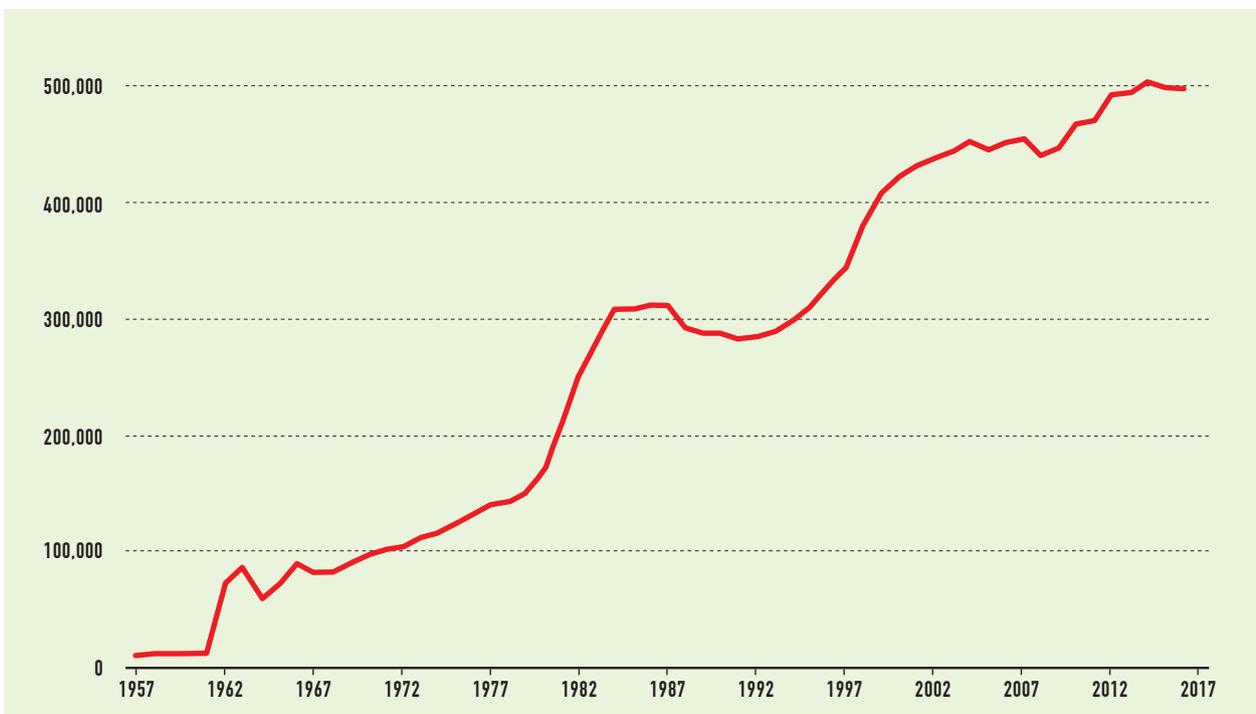
| 그림 6.2-13 | 대학교 수 추이

단위: 개



| 그림 6.2-14 | 대학교 재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세를 보였는데, 1957년 1만 648명에서 1971년 10만 2,426명, 1987년 31만 1,852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1988~1991년에 조금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6년 49만 8,944명에 이르렀다.

대학교당 학생 수는 1957년 819명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 대학교당 학생 수는 1만 3,130명이다. 대학교 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대학교의 규모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수가 증가하며 대학교 교원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만 8,022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7.7명이다.

학교 종합

학교시설 수에서는 유치원이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유치원은 1961년 60개에서 1989년 1,401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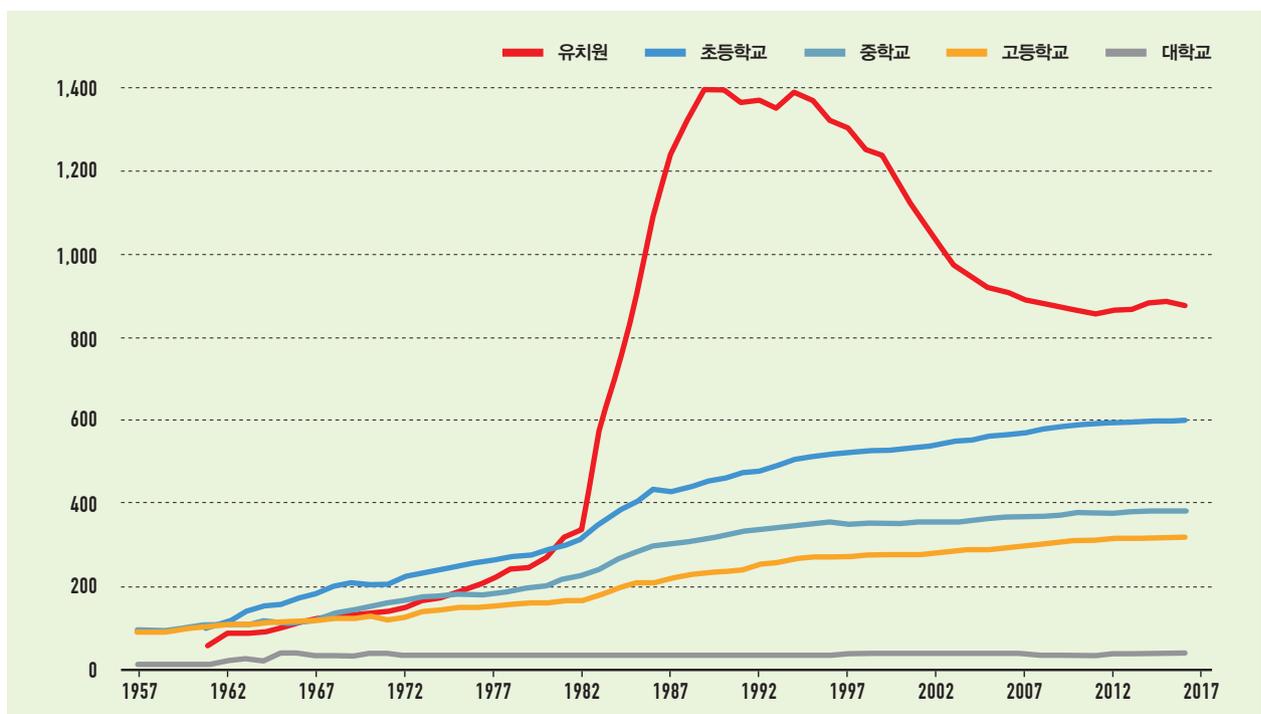
무려 23.4배가 증가하였다. 재학생 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한 반면, 유치원 학생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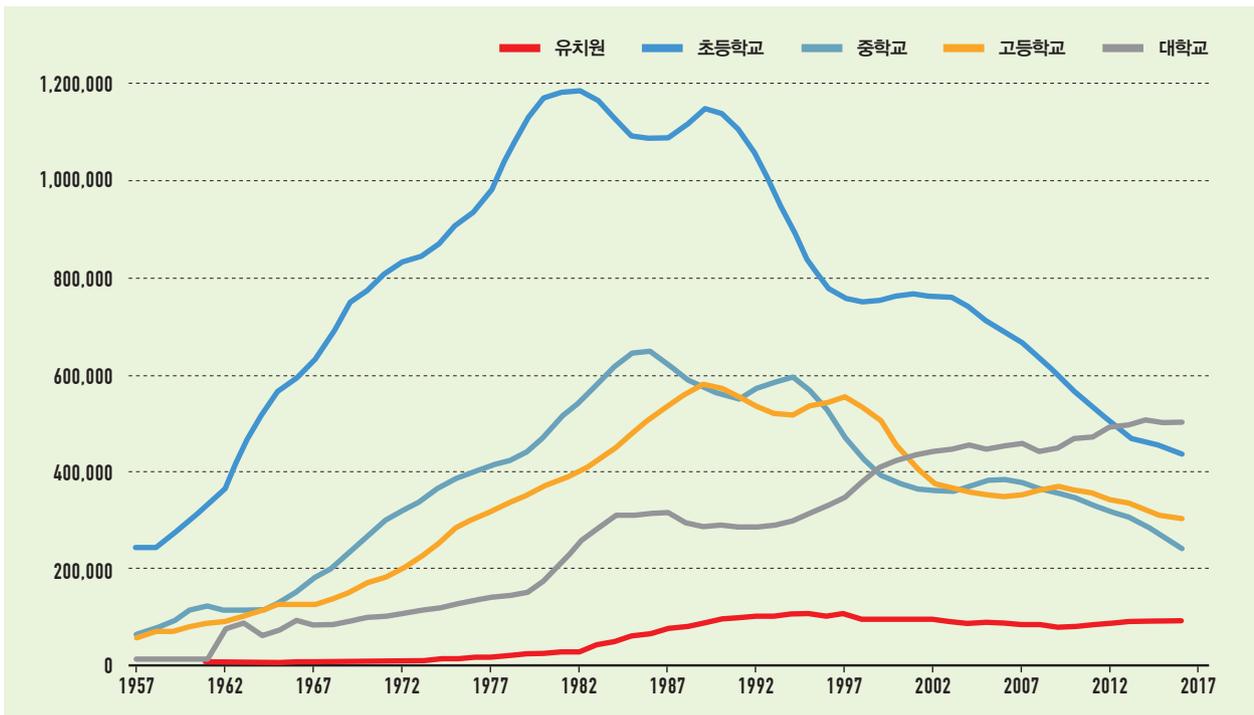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면 재학생 수는 1980년대에 최고치를 보이는데, 이는 1960년대 베이비붐세대의 영향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초등학교가 1982년 이후, 중학교는 1986년, 고등학교는 1989년 이후 재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교실 공급은 1960년대에 가장 열악하였다. 1961년 학급당 학생 수가 82.8명, 교실당 학생 수는 117.7명으로 교실이 크게 부족하여 2,3부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초등학교의 교육서비스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2016년 학급당 학생 수가 23.4명, 교실당 학생 수는

| 그림 6.2-15 | 학교별 학교 수 추이

단위 : 개





17.5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69.5명(1978~1980년)에서 26.6명(2016년)으로, 고등학교는 최대 64.8명(1958년)에서 29.7명(2016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여건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64년 79.6명으로 가장 열악하였으며 1990년대까지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

았다. 그러나 2016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8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3.3명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는 학교시설과 교원 수의 증가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아동과 청소년 인구의 변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이 교육 환경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복지 및 문화시설

6-3

사회복지시설 개괄

사회복지시설은 그 수혜 대상에 따라 다양한 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수혜자들이 모든 의식주를 시설 내에서 생활하며 제공 받는 '생활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이용시설(기관)'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인식과 정

책 변화에 따라 그 종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수시로 변해 왔다.

근대적 사회복지가 처음 소개된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복지정책을 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수용시설(또는 생활시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격리·수용 정책에서 지역사회 내 보호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그로 인해 '생활시설'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은 '이

표 6.2-1 | 사회복지시설 개괄

단위: 개

연도	영아 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	여성선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부랑인 시설	복지 회관
1960	44	-	3	-	-	-	-	-	3	-
1965	64	5	4	-	5	-	-	-	3	-
1970	57	5	2	-	8	9	9	9	3	-
1975	46	7	2	-	11	9	9	9	4	-
1980	8	37	4	4	-	12	7	7	4	-
1981	8	34	4	5	-	12	7	7	-	-
1982	8	37	3	7	-	15	6	7	-	-
1983	8	36	3	7	-	17	6	7	4	-

연도	영아 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	여성선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부랑인 시설	복지 회관
1984	8	37	3	7	-	17	5	7	4	-
1985	8	37	3	7	-	20	6	7	4	-
1986	8	37	3	6	2	22	5	7	4	-
1987	8	37	3	6	2	24	6	7	4	-
1988	8	37	3	6	2	23	6	7	4	-
1989	9	36	2	6	3	20	6	7	4	-
1990	8	35	2	7	3	18	6	7	4	-
1991	8	34	2	7	3	22	6	7	4	-
1992	8	33	3	7	4	23	6	7	4	-
1993	8	33	3	7	4	24	6	7	4	41
1994	8	33	3	7	4	26	5	7	4	41
1995	8	33	2	7	5	27	5	7	4	42
1996	2	33	3	6	8	27	5	7	5	69
1997	2	32	3	6	9	27	3	7	5	78
1998	2	32	3	6	9	29	3	7	5	87
1999	2	32	3	6	9	28	3	7	5	87
2000	-	33	3	6	9	28	8	7	5	90
2001	-	31	3	6	9	28	8	8	2	90
2002	-	32	3	6	12	28	9	8	4	92
2003	-	33	3	4	14	28	10	8	4	94
2004	-	40	-	4	16	30	14	8	3	93
2005	-	40	-	4	18	32	-	6	3	93
2006	-	40	-	4	19	34	-	6	4	95
2007	-	40	-	11	28	36	-	6	4	95
2008	-	33	-	25	84	39	-	6	4	95
2009	-	33	-	18	127	41	-	6	4	95
2010	-	33	-	21	231	43	-	10	4	95

연도	영아 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	여성선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부랑인 시설	복지 회관
2011	-	32	-	15	227	43	-	6	4	96
2012	-	34	-	14	227	43	-	6	4	98
2013	-	35	-	14	159	50	-	6	4	98
2014	-	34	-	14	176	44	-	6	4	98
2015	-	32	-	13	188	44	-	6	-	98

주석

1. '-'는 자료 없음

* 영아시설, 아동양육시설

1. 1960~1975년은 '영아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이 '영·육아시설'로 분류
2. 1980~2003년은 '영아시설', '육아시설'이 따로 구분됨
3. 2003년 이후부터 '아동양육시설'만 알 수 있음

* 아동직업훈련시설

1. 1965~2003년 '아동직업보호시설 수'로 분류, 이후에는 통계 항목에서 제외됨

* 양로시설

1. 1960~1975년은 '양로시설'로 분류
2. 1980~1985년은 '양로원수용보호시설'로 분류
3. 1986~1995년은 '양로시설'로 분류
4. 1996~2007년은 '무료양로시설'로 분류
5. 2008년 이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2008.7.) 분류 기준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로 분류됨(서울통계)

* 노인요양시설

1. 1986~1995년은 '노인요양시설'로 분류
2. 1996~2007년은 '무료노인요양시설'로 분류
3. 2008년 이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2008.7.) 분류 기준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됨(서울통계)

* 장애인복지

1. 1965~1975년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
2. 1981~1985년은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 분류
3. 1986~1995년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
4. 1996~2007년은 '장애인복지입소시설'로 분류
5. 2008~2011년은 '장애인복지생활시설'로 분류
6. 2012년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추가됨

* 여성선도보호시설

1. 1970~1995년은 '부녀직업보호시설'로 분류
2. 1996~2004년은 '여성선도보호시설'로 분류, 이후에는 통계항목에서 제외됨

*** 모자보호시설**

1. 1970~2015년은 '모자보호시설'로 분류

*** 부랑인시설**

1. 1960~1975년, 1983~1995년은 '부랑인시설'로 분류
2. 1996~2014년 '부랑인수용시설'로 분류. 이후에는 통계항목에서 제외됨

*** 복지회관**

1. 1993~2015년 '종합복지회관'으로 분류(서울통계)

자료출처

- 1. 1960~1975년 :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1995, 『통계로 본 서울의 변화』
- 2. 1980~1993년 : 보건사회부, 연도별 보건사회통계연보
- 3. 1994~2000년 :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
- 4. 2001~201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7&cot=009>
- 5. 1993~2015년 복지회관 : 서울통계 - 주제별 - 문화관광 - 문화기반 -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용시설'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예를 들어 복지회관 형태의 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감소 추세이지만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과 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서비스 욕구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에 따라 노인 관련 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201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는 곧 노인복지시설의 수요 증가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증가 또한 장애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영향을 끼쳤지만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여 1965년 5개에서 2015년 44개로 무려 약 9배 증가하였다.

공공도서관 개괄

1961년 서울의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재건최고회의도서관(현 국회도서관), 남대문도서관(현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4개가 있었다. 2015년 공공도서관 수는 146개이며, 1961년 4개였던 것과 비교해 약 37배 증가하였다. 1972년까지도 약 5개 공공도서관이 있었으나, 이후 조금 증가하여 1981년에 10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10년 동안 10개가 추가되어 1990년에는 20개가 되었고, 이후 10년간 3개가 더 추가되어 2003년 23개가 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공공도서관에 국·공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포함되어 공공도서관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 146개에 이르렀다.

도서관의 증가와 함께 이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1961년 연간 74만 명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이후 이용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무려 7100만 명이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였다. 1961년

연간 이용자 수 대비 약 96배 증가하였다.

연간 이용자 수를 해당 연도 인구 수와 비교해 보면, 도서관 이용 빈도가 훨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61

년 인구 천 명당 연간 이용자 수가 288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900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 서울 시민 1명당 약 6.9회 정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수치이다.

| 표 6.3-2 | 공공도서관 개괄

단위: 개, 명

연도	도서관 수	좌석 수	장서 수	연간 이용자 수	인구 천 명당 연간 이용자 수	1관당 인구 수
1960	6	1,783	517,249	631,041	258	407,567
1961	4	1,980	514,318	741,535	288	644,255
1962	5	2,363	1,173,132	927,762	311	596,665
1963	5	2,121	1,460,223	1,196,473	368	650,926
1964	5	2,201	1,219,004	809,334	236	684,877
1965	5	3,280	1,232,331	1,130,959	326	694,176
1966	5	3,112	1,295,144	1,041,588	275	758,656
1967	5	3,076	1,290,988	358,546	90	793,844
1968	5	3,389	1,591,514	1,206,009	278	866,995
1969	5	3,346	1,394,442	1,178,545	247	955,386
1970	5	3,694	1,378,932	1,314,112	242	1,086,640
1971	6	4,510	1,599,428	1,506,813	258	975,154
1972	5	4,030	1,078,141	1,654,086	272	1,215,229
1973	9	5,509	1,014,206	2,395,777	381	698,840
1974	6	5,480	1,197,504	1,444,075	221	1,090,250
1975	6	4,925	1,336,151	2,123,161	308	1,148,250
1976	7	9,082	1,360,193	2,644,708	365	1,036,423
1977	7	9,672	1,616,363	3,880,716	516	1,075,090
1978	7	8,419	1,689,692	3,646,968	466	1,117,599
1979	8	9,752	1,678,169	3,582,948	442	1,014,253
1980	9	10,517	1,887,741	3,150,242	377	929,375

연도	도서관 수	좌석 수	장서 수	연간 이용자 수	인구 천 명당 연간 이용자 수	1관당 인구 수
1981	10	12,833	1,529,168	4,030,484	465	867,604
1982	10	13,331	1,652,036	5,717,758	641	891,648
1983	12	15,366	1,834,801	6,488,632	705	767,029
1984	16	19,562	1,985,671	7,376,177	776	593,838
1985	16	20,935	2,181,979	8,366,726	868	602,444
1986	17	22,682	2,450,867	9,244,660	943	576,385
1987	17	23,365	2,671,854	8,897,153	891	587,711
1988	17	23,916	2,873,295	8,639,600	840	605,088
1989	20	27,661	3,107,668	8,399,328	794	528,840
1990	20	28,633	3,564,054	8,266,305	779	530,629
1991	21	29,621	3,725,480	8,044,640	738	519,263
1992	21	30,777	4,047,854	10,520,715	959	522,374
1993	21	29,783	4,465,908	11,676,613	1,069	520,260
1994	22	32,322	4,537,027	6,226,306	577	490,850
1995	23	33,433	5,011,024	11,722,885	1,106	460,693
1996	23	32,217	5,446,593	12,775,908	1,220	455,211
1997	23	31,868	5,937,539	13,565,490	1,306	451,698
1998	23	29,456	6,398,165	15,014,495	1,455	448,761
1999	23	26,290	7,129,525	16,356,202	1,585	448,759
2000	23	26,907	6,936,137	15,891,812	1,532	451,010
2001	23	25,477	8,044,353	15,948,737	1,544	449,185
2002	23	24,423	7,980,669	13,824,432	1,345	446,979
2003	23	22,415	8,387,749	22,469,418	2,186	446,825
2004	46	31,516	11,923,116	27,609,343	2,684	223,649
2005	56	31,720	12,604,856	30,144,927	2,928	183,875
2006	65	28,648	13,879,311	36,454,810	3,520	159,326
2007	71	30,220	15,918,426	37,057,131	3,556	146,786

연도	도서관 수	좌석 수	장서 수	연간 이용자 수	인구 천 명당 연간 이용자 수	1관당 인구 수
2008	78	39,035	6,798,045	43,850,941	4,194	134,052
2009	94	40,720	7,571,258	49,231,515	4,705	111,320
2010	101	37,680	8,329,942	53,642,006	5,072	104,707
2011	109	36,629	8,910,508	57,095,987	5,423	96,594
2012	116	38,594	9,754,776	60,377,702	5,782	90,021
2013	123	41,703	10,693,144	64,286,726	6,189	84,456
2014	132	42,194	11,213,319	69,852,671	6,736	78,558
2015	146	43,227	11,929,816	71,050,641	6,900	70,528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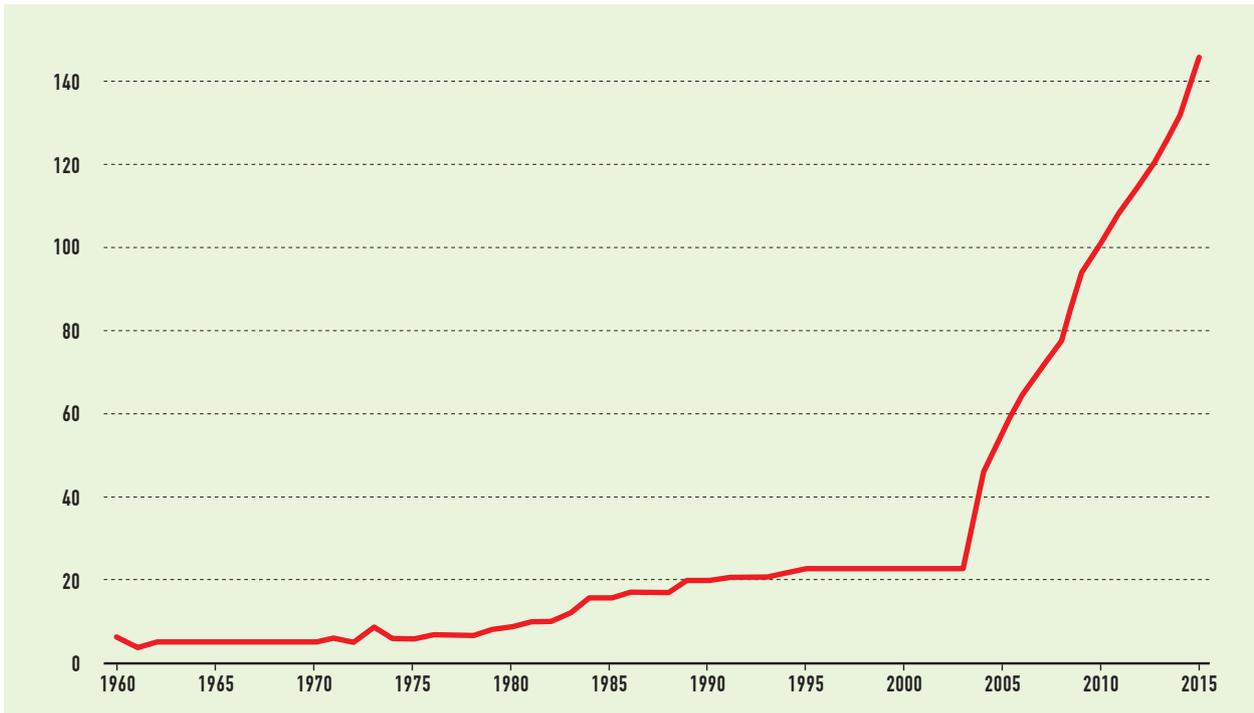
1. 1960~1980년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의 합계
2. 1981~2003년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합계
3. 2004~2007년은 국·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의 합계
4. 2008~2015년은 시·도(구립)도서관, 교육청(시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의 합계

자료출처

1. 1960~1962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2. 1963~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3. 1965~196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67~1968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5. 1969~198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6. 1986~199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7. 1994~199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7회 1997년 서울통계연보(1996년 기준)
8. 1997~2001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9. 2002~200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4회 2004년 서울통계연보(2003년 기준)
10. 2004~2007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11. 2008~201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4회 2014년 서울통계연보(2013년 기준)
12. 2014~201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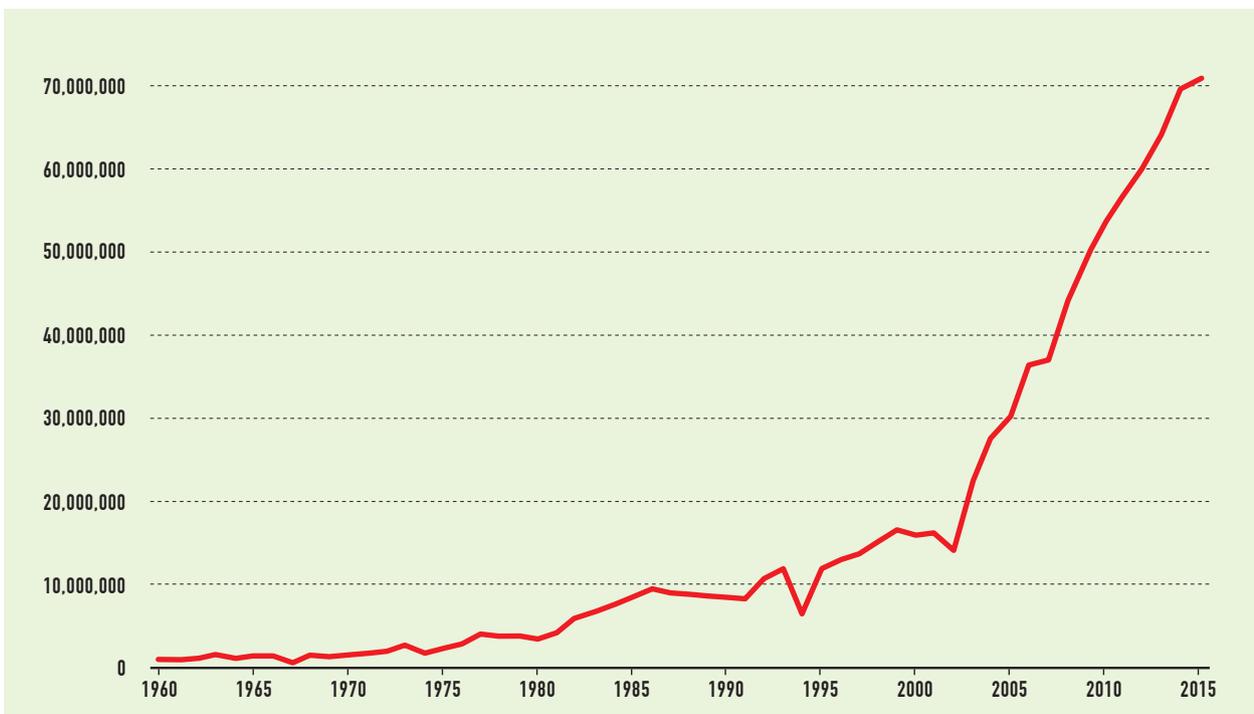
| 그림 6.3-1 | 공공도서관 수 추이

단위: 개



| 그림 6.3-2 |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

단위: 명



문화재 개괄

2016년 서울에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999개로 1965년 146개와 비교하여 약 6.8배 증가하였다. 2016년 국보는 164개, 보물은 673개, 사적은 70개, 천연기념물은 12개, 중요무형문화재는 39호, 중요민속자료는 41개였다. 전반적으로 문화재는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소 정체되었는데, 이 시기 전 문화재와 자료 발굴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보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 전체 합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는 478개로 1980년 76개보다 약 6.3배 증가하였다. 이 중 유형문화재가 364개, 기념물이 38개, 민속자료가 30개, 무형문화재가 46호 있으며, 시 지정 문화재는 대체로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 6.3-3 | 문화재 개괄

단위: 개, 호

연도	국가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1965	146	50	71	14	7	2	2	-	-	-	-	-
1966	148	50	71	15	8	2	2	-	-	-	-	-
1967	148	51	71	15	6	3	2	-	-	-	-	-
1968	162	53	76	17	8	6	2	-	-	-	-	-
1969	183	57	78	23	8	13	4	-	-	-	-	-
1970	192	60	81	23	8	16	4	-	-	-	-	-
1971	216	66	90	23	8	24	5	-	-	-	-	-
1972	224	69	93	24	8	24	6	-	-	-	-	-
1973	239	76	97	26	8	26	6	-	-	-	-	-
1974	269	103	100	26	8	26	6	-	-	-	-	-
1975	276	103	106	27	8	26	6	-	-	-	-	-
1976	293	108	106	29	12	30	8	-	-	-	-	-
1977	299	108	105	36	12	30	8	-	-	-	-	-
1978	302	97	120	36	12	29	8	-	-	-	-	-
1979	337	98	124	38	12	29	36	-	-	-	-	-
1980	370	93	149	50	11	31	36	76	45	4	27	-
1981	375	93	150	51	11	32	38	77	46	4	27	-

연도	국가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자료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1982	387	96	156	53	12	32	38	82	49	6	27	-
1983	392	96	158	53	12	34	39	87	54	6	27	-
1984	422	100	184	53	12	34	39	95	61	7	27	-
1985	459	108	210	53	12	37	39	99	65	7	27	-
1986	501	111	250	53	12	36	39	99	65	7	27	-
1987	496	104	249	53	12	33	45	100	64	7	29	-
1988	528	109	273	55	12	34	45	102	67	7	27	1
1989	541	112	282	55	12	35	45	106	69	7	27	3
1990	562	116	299	55	12	35	45	108	69	10	26	3
1991	637	133	355	59	12	33	45	115	75	11	26	3
1992	645	130	363	61	12	34	45	132	84	12	27	9
1993	657	137	369	61	12	33	45	136	83	15	27	11
1994	658	131	377	61	11	33	45	138	86	15	28	9
1995	662	132	383	61	11	30	45	138	86	15	28	9
1996	664	132	382	61	11	32	46	152	91	15	28	18
1997	663	132	381	61	11	32	46	156	96	15	27	18
1998	657	122	374	63	11	41	46	163	102	15	27	19
1999	677	124	393	63	11	40	46	185	118	15	28	24
2000	671	125	386	63	11	40	46	186	118	16	28	24
2001	674	125	385	66	11	40	47	218	138	20	27	33
2002	674	125	385	66	11	40	47	218	138	20	27	33
2003	645	121	350	69	9	50	46	239	156	21	29	33
2004	691	126	400	67	10	40	48	269	187	22	28	32
2005	762	157	439	71	10	37	48	279	195	24	28	32
2006	788	157	456	71	12	44	48	303	204	24	29	46
2007	809	159	473	72	12	45	48	322	231	25	29	37
2008	839	160	505	76	11	39	48	353	255	25	29	44
2009	851	159	514	73	13	40	52	380	275	27	34	44
2010	859	159	524	74	11	40	51	413	311	26	34	42
2011	859	159	524	74	11	40	51	394	296	29	33	36

연도	국가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자료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2012	874	159	544	72	13	45	41	411	311	29	29	42
2013	909	157	586	71	13	42	40	428	324	31	30	43
2014	914	157	591	71	13	42	40	451	339	37	30	45
2015	932	161	607	71	12	40	41	458	345	38	30	45
2016	999	164	673	70	12	39	41	478	364	38	30	46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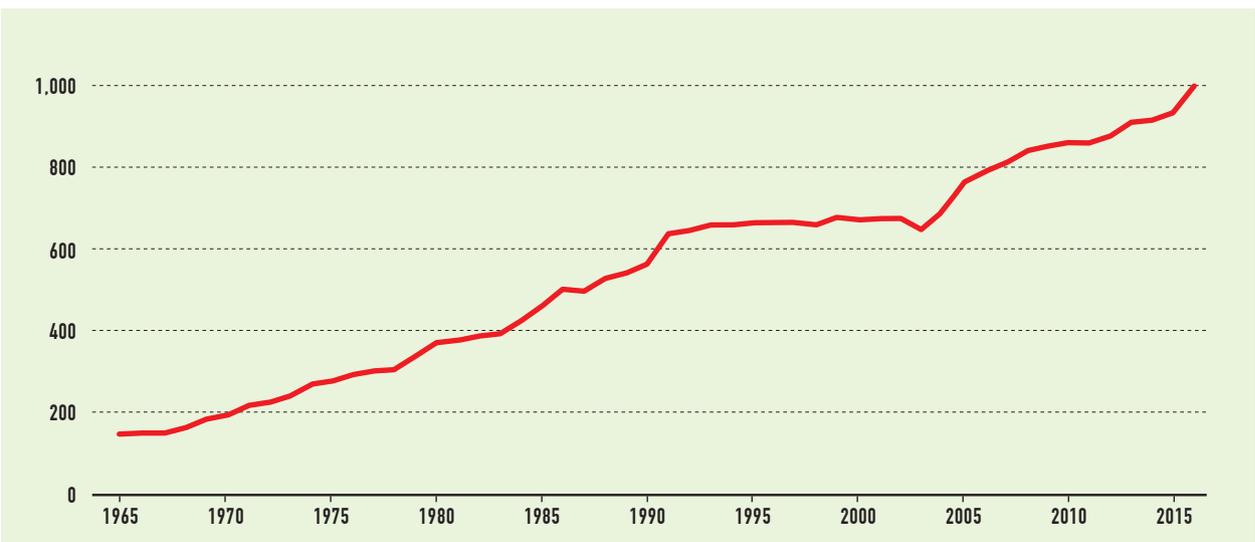
1. '-'는 자료 없음
2. 2002년부터 국가 지정 문화재 중 사적에 명승이 포함됨
3.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1980~1982년에 '지정문화재 이외 문화재(매년 4개)' 항목이 있으나 이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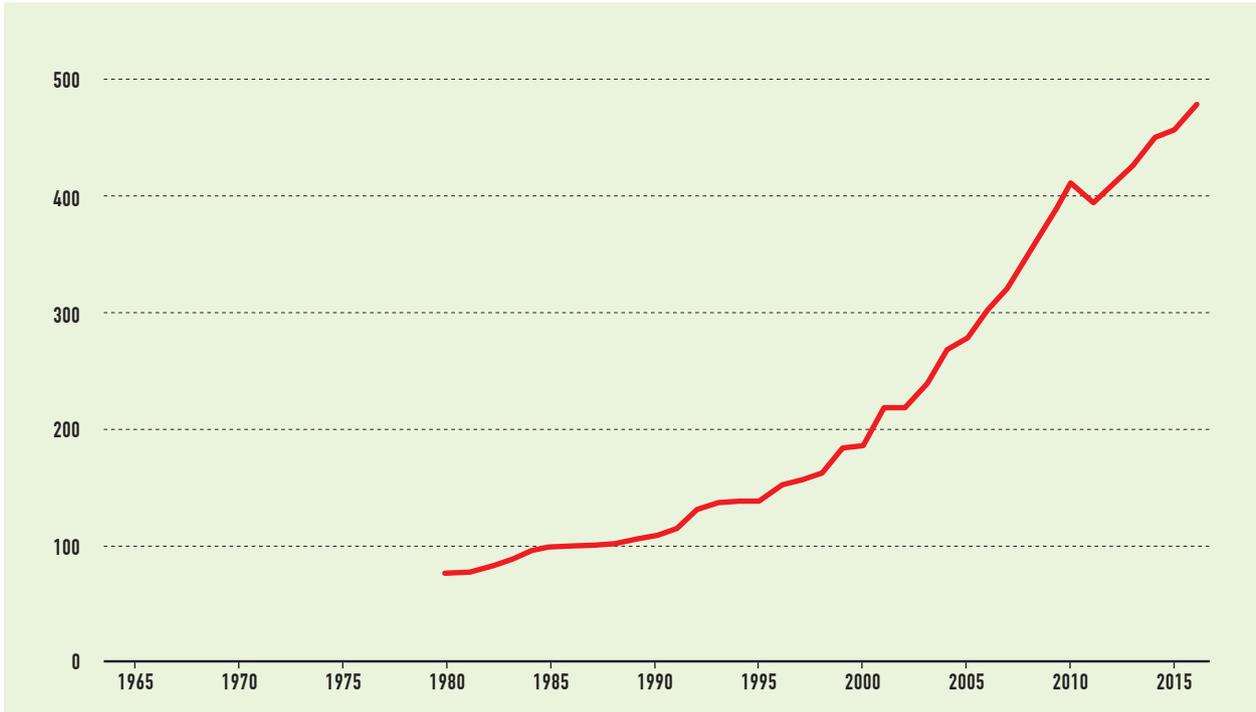
자료출처

1. 1965~197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2. 1972~197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4회 1974년 서울통계연보(1973년 기준)
3. 1974~197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4. 1980~1982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3회 1983년 서울통계연보(1982년 기준)
5. 1983~198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6. 1986~199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7. 1994~199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서울통계연보
8. 1997~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문화관광 - 문화기반 - 문화재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그림 6.3-3 | 국가 지정 문화재 수 추이

단위 : 개





문화시설 개괄

문화시설을 공연 시설,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지역 문화시설(구민회관, 청소년회관)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공연장은 1957년부터, 전시 시설과 지역 문화시설은 1992년부터 살펴볼 수 있다. 공연 시설은 공연장과 영화관(스크린 수)을 포함한 것으로 1957년 29개에서 2015년 892개로 약 31배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문화시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서울시의 문화예술창작 활성

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추측된다. 특히 공연 시설은 2000년 314개에서 2015년 892개로 2.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전시 시설과 지역 문화시설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지역 문화시설인 구민회관은 1992년 15개에서 2005년 24개로 늘어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거의 모든 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회관도 1992년 26개에서 2015년 63개로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도	공연 시설	전시 시설			지역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회랑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1957	29	-	-	-	-	-
1958	40	-	-	-	-	-
1959	46	-	-	-	-	-
1960	51	-	-	-	-	-
1961	57	-	-	-	-	-
1962	62	-	-	-	-	-
1963	77	-	-	-	-	-
1964	83	-	-	-	-	-
1965	85	-	-	-	-	-
1966	88	-	-	-	-	-
1967	92	-	-	-	-	-
1968	99	-	-	-	-	-
1969	106	-	-	-	-	-
1970	115	-	-	-	-	-
1971	121	-	-	-	-	-
1972	124	-	-	-	-	-
1973	120	-	-	-	-	-
1974	116	-	-	-	-	-
1975	111	-	-	-	-	-
1976	105	-	-	-	-	-
1977	101	-	-	-	-	-
1978	95	-	-	-	-	-
1979	93	-	-	-	-	-
1980	85	-	-	-	-	-
1981	84	-	-	-	-	-
1982	81	-	-	-	-	-
1983	113	-	-	-	-	-
1984	145	-	-	-	-	-

연도	공연 시설	전시 시설			지역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1985	167	-	-	-	-	-
1986	178	-	-	-	-	-
1987	194	-	-	-	-	-
1988	214	-	-	-	-	-
1989	241	-	-	-	-	-
1990	256	-	-	-	-	-
1991	279	-	-	-	-	-
1992	240	-	10	105	15	26
1993	258	-	10	106	15	28
1994	258	45	10	106	15	28
1995	265	48	10	106	18	29
1996	265	51	12	146	19	20
1997	263	57	12	254	20	19
1998	235	63	12	222	20	22
1999	241	64	16	223	20	20
2000	314	64	17	223	21	23
2001	329	65	18	-	23	28
2002	353	72	20	-	23	32
2003	381	76	20	-	23	41
2004	455	79	21	-	23	43
2005	501	83	26	-	24	45
2006	571	92	31	-	24	58
2007	631	96	32	-	24	62
2008	629	106	32	-	24	61
2009	671	108	32	-	24	62
2010	680	112	34	-	24	64
2011	687	114	33	-	24	64
2012	745	114	34	-	24	63
2013	779	115	38	-	24	65
2014	833	117	39	-	24	63

연도	공연 시설	전시 시설			지역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2015	892	119	41	-	24	63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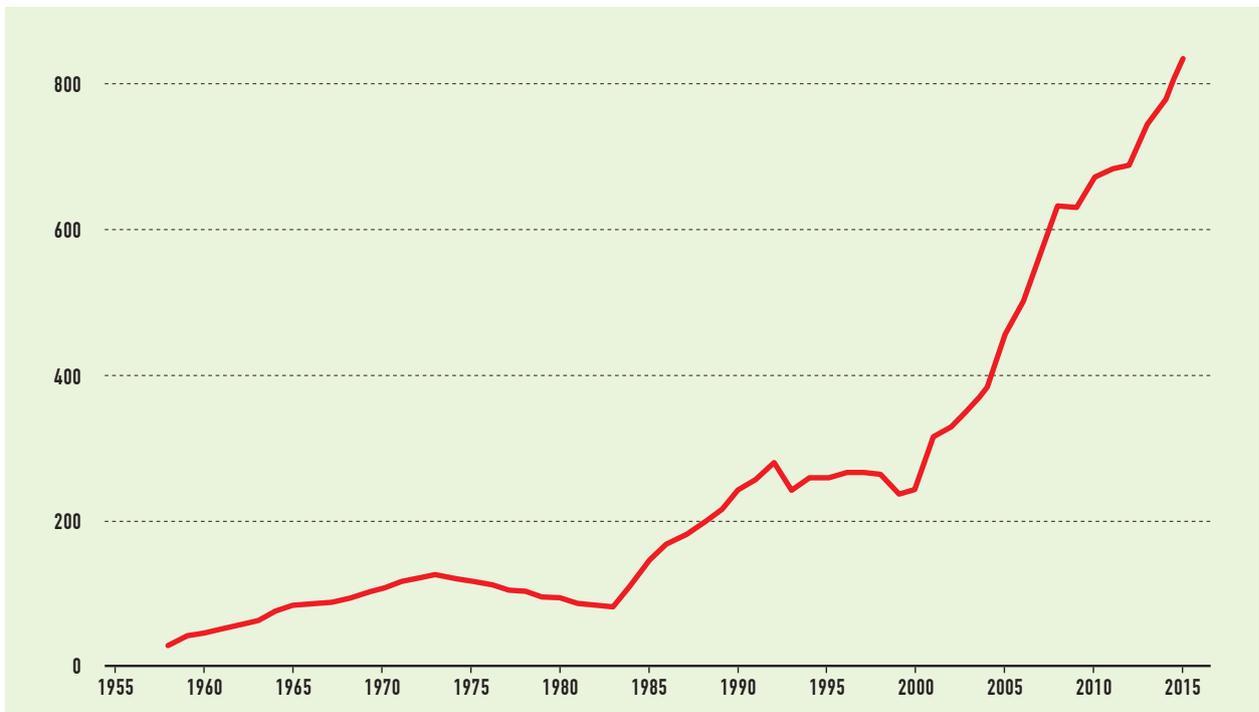
1. '-'는 자료 없음
2. 공연 시설은 공연장과 영화관(스크린 수)을 포함

자료출처

1. 1957~1962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회 1963년 서울통계연보(1962년 기준)
2. 1963~196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3. 1967~1969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10회 1970년 서울통계연보(1969년 기준)
4. 1970~1991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5. 1992~199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6. 1994~199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6회 1996년 서울통계연보(1995년 기준)
7. 1996~1999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2회 2002년 서울통계연보(2001년 기준)
8. 2000~200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46회 2006년 서울통계연보(2005년 기준)
9. 2006~2011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2회 2012년 서울통계연보(2011년 기준)
10. 2012~2015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그림 6.3-5 | 공연 시설 수 추이

단위 : 개



재정 규모

서울시 재정 규모는 1960년 26억 원 정도 수준이었다. 예산이 1천억 원을 넘긴 것은 1974년이며, 1981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0

년 6조 원, 1994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2003년에는 20조 원을 넘었고 2008년에는 처음으로 30조 원대로 진입하였다. 2015년 예산 규모는 39조 6000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단순히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 표 7.1-1 | 재정 규모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	세입	세출	연도	예산	세입	세출
1957	-	811	839	1987	2,483,928	2,443,714	1,940,853
1958	-	1,177	1,079	1988	3,009,636	3,193,272	2,372,816
1959	-	1,759	1,501	1989	4,343,886	4,744,159	3,537,582
1960	2,604	1,858	1,773	1990	6,007,007	6,097,751	4,336,260
1961	3,262	2,405	2,236	1991	7,536,973	7,903,028	6,109,989
1962	3,759	3,429	3,137	1992	9,238,180	8,727,271	7,339,362
1963	4,575	4,344	3,582	1993	9,819,083	8,953,591	7,640,507
1964	5,439	4,899	4,546	1994	10,786,075	10,364,872	8,277,961
1965	7,525	6,725	5,840	1995	11,617,533	11,980,114	9,318,464
1966	13,546	10,545	10,275	1996	12,661,825	13,376,998	10,479,847
1967	17,863	14,262	14,172	1997	14,281,422	13,868,489	11,625,377
1968	29,368	22,909	22,662	1998	13,035,928	12,590,607	11,133,096
1969	41,593	35,105	34,632	1999	13,845,910	13,983,111	11,937,540

연도	예산	세입	세출	연도	예산	세입	세출
1970	49,426	44,257	44,038	2000	15,688,174	15,624,796	13,423,609
1971	67,122	55,165	54,745	2001	17,132,681	17,517,809	14,719,396
1972	73,243	58,580	56,898	2002	18,531,175	20,491,101	15,810,659
1973	80,869	79,220	72,681	2003	21,089,844	22,918,734	17,909,422
1974	102,274	100,600	91,569	2004	23,494,769	23,866,839	20,215,267
1975	167,580	163,105	151,898	2005	24,372,008	24,245,449	21,216,739
1976	220,391	216,740	185,203	2006	23,417,226	25,297,366	20,812,065
1977	331,160	319,236	272,759	2007	27,315,122	28,824,769	24,069,053
1978	463,222	450,622	386,481	2008	30,974,779	31,362,554	26,647,391
1979	651,101	581,230	514,254	2009	36,046,424	34,583,900	31,618,951
1980	805,369	722,175	672,890	2010	32,199,697	30,500,481	28,160,747
1981	1,003,204	877,532	774,604	2011	31,003,315	30,757,083	28,318,085
1982	1,444,353	1,262,305	1,024,917	2012	32,476,021	32,274,825	29,853,315
1983	1,795,265	1,646,732	1,322,095	2013	35,014,068	35,082,068	32,259,078
1984	2,174,309	1,690,554	1,483,364	2014	36,977,580	37,488,229	34,247,909
1985	2,319,004	1,853,823	1,705,749	2015	39,642,624	41,638,559	36,394,097
1986	2,513,917	2,200,855	1,925,924	2016	44,534,362	47,131,165	40,578,570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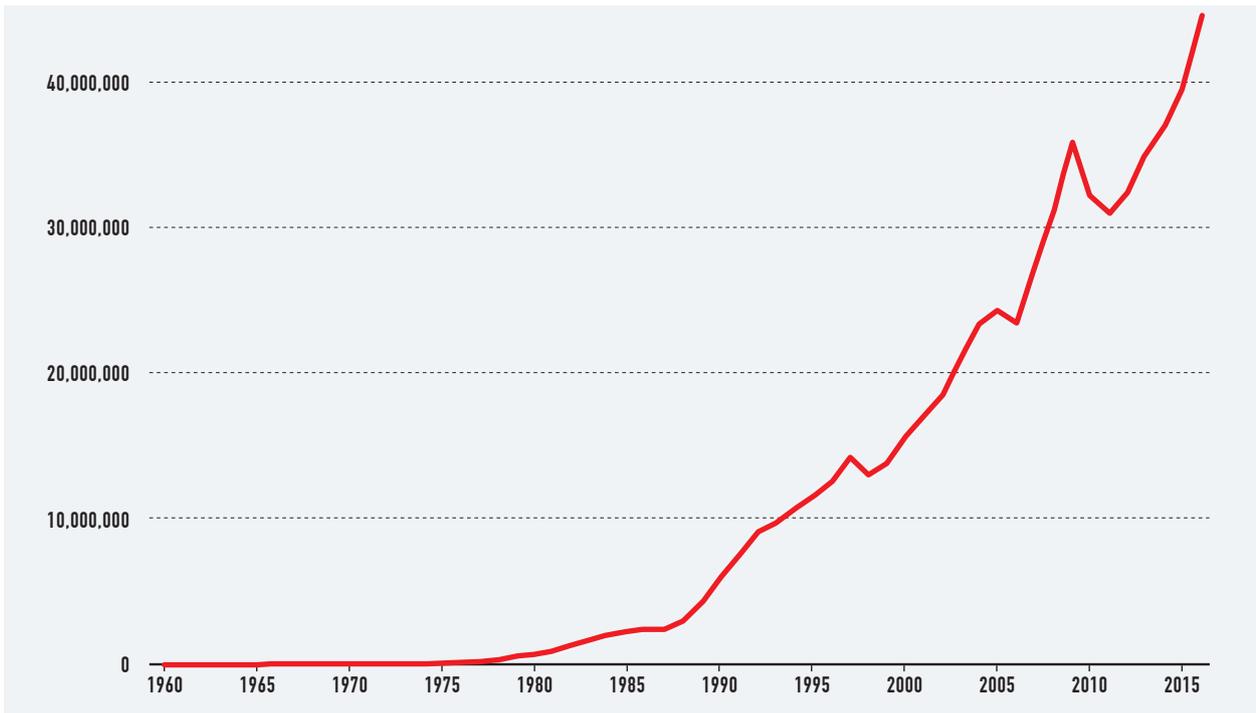
1. '-'은 자료 없음
2. 경상가격 기준
3. 자치구 예산, 결산 포함

자료출처

1. 1957~1964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2. 1965~1966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3. 1967~1968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9회 1969년 서울통계연보(1968년 기준)
4. 1969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0회 1970년 서울통계연보(1969년 기준)
5. 1970~1971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6. 1972~1981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7. 1982~1983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8. 1984~1986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9. 1987~1992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3회 1993년 서울통계연보(1992년 기준)
10. 1993~1995년: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11. 1996~2016년: 서울통계 - 주제별 - 행정일반 - 재정 - 예산결산 총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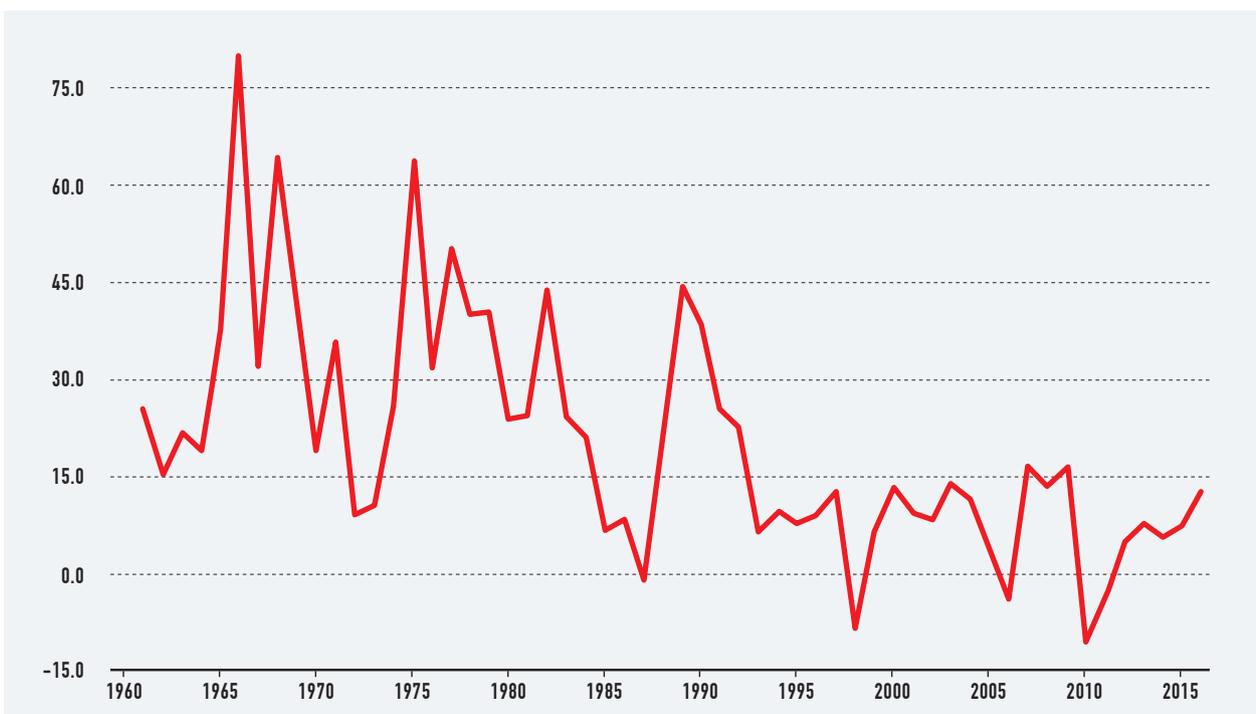
| 그림 7.1-1 | 예산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 그림 7.1-2 | 예산 증가율

단위: 퍼센트



상의 증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7.1-2는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보여 준다. 1960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은 20.4퍼센트이다. 예산 증가율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가 평균 37.0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1970년대 32.7퍼센트, 1980년대 21.7퍼센트, 1990년대 12.9퍼센트, 2000년대 10.2퍼센트, 2010년대 1.8퍼센트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평균 증가율은 1960년대가 가장 높았지만, 당시 재정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액은 적다. 1970년대 전반에는 부동산 침체와 유류파동으로 인하여 세입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힘입어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는 1988~1997년이다. 이 시기는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수출 호황으로 경제가 활발하던 시기였다. 아울러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로 현금흐름이 많았으며, 소비성향도 높아져 경제 규모에 거품이 많았다. 이후 2000년부터 예산 규모는 다시 증가하였다.

예산 규모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서울의 세입이 감소하고, 2008년 약 2조 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불과 2년 만인 2010년에 약 5조 원으로 급증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년부터 예산 규모는 다시 증가하여 2016년 약 44조 5천억 원에 이르렀다.

행정구역 변천

서울의 행정구역은 지금의 구제(區制)와 달랐다. 1911년에는 5부(部) 8면제(面制)를 실시하였고, 1914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동부, 서부, 북부, 용산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1년 후인 1915년에는 용산출장소만 남기고 출장소를 폐지하였다가, 1936년 동부와 영등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40년 다시 서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총 4개의 출장소가 경성부 하관 관아

로서 경성부 업무를 보조하였다. 이와 같은 출장소제는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때부터 경성부의 행정구역은 현재와 같은 구(區)단위로 구획되었다.

구제가 처음 도입된 1943년 당시 서울은 7개 구로 구성되었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7개 구가 1943년부터 오늘날까지 존속하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구가 되었다. 1944년 마포구가 신설되었고, 1949년 성북구가 신설되었다. 이

| 표 7.2-1 | 행정구역 조정 연혁

연도	구의 수	기존의 구	추가된 구
1943	7	이전에는 부·면제, 출장소제도가 실시됨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1944	8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1949	9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1973	11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1975	12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1977	13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1979	15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강동구

연도	구의 수	기존의 구	추가된 구
1980	17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1988	22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1995	25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2016	25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자료출처

1.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6회 2016년 서울통계연보(2015년 기준)-행정구역 변천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들 9개 자치구가 한국전쟁 이전부터 존속되어 왔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자치구의 신설이 없었다.

서울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서울시는 행정구역 규모를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구를 신설하고 재편하였다. 1973년 도봉구와 관악구가 신설되어 11개 구로 늘어났으며, 1975년 강남구, 1977년 강서구, 1979년 은평구와 강동구, 1980년 구로구와 동작구

가 신설되었다. 이후에도 분구(分區)와 신설을 통해 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8년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가 신설되었으며 1995년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가 신설되어 지금의 25개 구가 구성되었다. 서울에는 2016년 기준 총 424개의 행정동(行政洞), 1만 2,604개의 통(統), 9만 4,618개의 반(班)이 있다.

| 표 7.2-2 | 행정구역 변천

단위 : 개

연도	구	동		통	반
		행정동	법정동		
1957	9	245	-	2,417	19,296
1958	9	245	-	2,440	18,957
1959	9	251	-	2,568	21,194
1960	9	251	-	2,624	22,104
1961	9	252	-	2,856	24,643

연도	구	등		통	반
		행정등	법정등		
1962	9	295	-	3,232	27,100
1963	9	295	-	3,262	27,332
1964	9	295	-	3,393	28,729
1965	9	301	-	3,507	29,704
1966	9	302	-	3,676	31,216
1967	9	302	-	3,833	32,678
1968	9	302	-	3,983	34,067
1969	9	302	-	4,037	34,553
1970	9	306	-	4,953	42,603
1971	9	307	-	5,473	47,372
1972	9	307	-	5,533	47,782
1973	11	317	466	5,598	47,321
1974	11	317	468	5,860	49,202
1975	12	343	471	8,717	45,542
1976	12	343	471	8,685	56,711
1977	13	369	473	9,284	58,026
1978	13	382	473	9,456	58,727
1979	15	382	473	9,875	61,551
1980	17	417	474	11,011	66,657
1981	17	417	474	11,260	67,796
1982	17	417	474	12,361	95,439
1983	17	426	474	12,530	97,201
1984	17	426	474	12,920	101,396
1985	17	453	471	13,158	102,920
1986	17	453	470	13,473	105,173
1987	17	453	470	13,845	107,650
1988	22	475	470	14,385	111,290
1989	22	494	469	14,956	115,085
1990	22	506	469	15,341	117,332
1991	22	506	469	15,469	118,120

연도	구	방		통	반
		행정동	법정동		
1992	22	519	469	15,995	120,258
1993	22	521	469	16,258	121,862
1994	22	526	469	16,371	122,489
1995	25	527	472	16,420	122,321
1996	25	530	472	16,226	120,848
1997	25	530	472	16,145	119,428
1998	25	522	472	15,267	112,734
1999	25	522	472	13,649	101,742
2000	25	522	472	13,691	102,138
2001	25	522	472	13,862	103,563
2002	25	522	472	13,798	102,698
2003	25	522	472	13,810	103,266
2004	25	522	472	13,759	103,192
2005	25	522	472	13,832	103,762
2006	25	522	472	13,603	103,104
2007	25	497	469	13,347	102,249
2008	25	436	478	13,147	101,512
2009	25	424	467	12,778	98,895
2010	25	424	467	12,756	99,098
2011	25	424	467	12,710	98,681
2012	25	423	467	12,471	97,501
2013	25	423	467	12,423	94,855
2014	25	423	467	12,541	95,790
2015	25	424	467	12,528	94,647
2016	25	424	467	12,604	94,618

주석

1. '-'은 자료 없음
2. 연도별 구 개수는 '표 7.2-1 행정구역 조정 연혁' 참고

자료출처

1. 1957~195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회 1962년 서울통계연보 (1961년 기준)
2. 1960~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주택, 건설 - 토지 및 하천 - 행정구역(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공무원 수

7-3

서울시 공무원은 1956년 4,087명에서 2016년 5만 430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56년 516명에 불과했던 본청 공무원 수도 2016년 4,02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동사무소 공무원을 포함한 구청 공무원으로 1956년 2,961명

으로 전체 서울시 공무원의 72.4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 65.4퍼센트로 낮아졌다. 시의회 및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1956년 610명에서 2016년 1만 3,446명으로 늘어났다. 시정 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직속 기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표 7.3-1 | 공무원 수

단위 : 명, 퍼센트

연도	합계	본청		구청		시의회 및 직속 기관	
		공무원 수	비율	공무원 수	비율	공무원 수	비율
1956	4,087	516	12.6	2,961	72.4	610	14.9
1957	4,054	507	12.5	3,028	74.7	519	12.8
1958	4,113	519	12.6	3,078	74.8	516	12.5
1959	5,045	693	13.7	3,730	73.9	622	12.3
1960	5,947	907	15.3	4,218	70.9	822	13.8
1961	5,229	1,730	33.1	3,499	66.9	-	-
1962	8,083	1,305	16.1	4,089	50.6	2,689	33.3
1963	6,719	969	14.4	4,178	62.2	1,572	23.4
1964	7,895	1,280	16.2	4,036	51.1	2,579	32.7
1965	8,066	1,275	15.8	4,071	50.5	2,720	33.7
1966	8,434	1,309	15.5	4,316	51.2	2,809	33.3
1967	8,751	1,357	15.5	4,504	51.5	2,890	33.0
1968	8,917	1,206	13.5	4,560	51.1	3,151	35.3

연도	합계	본청		구청		시의회 및 직속 기관	
		공무원 수	비율	공무원 수	비율	공무원 수	비율
1969	9,648	1,207	12.5	5,284	54.8	3,157	32.7
1970	9,948	1,267	12.7	5,497	55.3	3,184	32.0
1971	10,935	1,492	13.6	5,977	54.7	3,466	31.7
1972	11,388	1,411	12.4	6,637	58.3	3,340	29.3
1973	11,316	1,391	12.3	6,658	58.8	3,267	28.9
1974	13,199	1,326	10.0	7,613	57.7	4,260	32.3
1975	14,470	1,396	9.6	9,688	67.0	3,386	23.4
1976	15,728	1,582	10.1	10,616	67.5	3,530	22.4
1977	17,187	1,697	9.9	11,792	68.6	3,698	21.5
1978	19,194	1,733	9.0	13,016	67.8	4,445	23.2
1979	20,829	1,881	9.0	14,142	67.9	4,806	23.1
1980	23,378	1,752	7.5	16,061	68.7	5,565	23.8
1981	28,021	1,781	6.4	18,077	64.5	8,163	29.1
1982	28,574	1,758	6.2	18,329	64.1	8,487	29.7
1983	27,081	1,768	6.5	18,702	69.1	6,611	24.4
1984	26,484	1,777	6.7	18,248	68.9	6,459	24.4
1985	27,323	1,887	6.9	18,949	69.4	6,487	23.7
1986	28,951	1,914	6.6	19,811	68.4	7,226	25.0
1987	29,396	1,886	6.4	20,050	68.2	7,460	25.4
1988	34,398	1,984	5.8	26,174	76.1	6,240	18.1
1989	29,143	1,913	6.6	18,708	64.2	8,522	29.2
1990	31,745	1,931	6.1	20,746	65.4	9,068	28.6
1991	33,822	2,013	6.0	22,445	66.4	9,364	27.7
1992	35,565	1,990	5.6	23,802	66.9	9,773	27.5
1993	34,491	1,946	5.6	23,137	67.1	9,408	27.3
1994	35,136	1,969	5.6	22,742	64.7	10,425	29.7
1995	38,242	2,055	5.4	25,353	66.3	10,834	28.3
1996	38,901	2,432	6.3	25,644	65.9	10,825	27.8
1997	43,585	2,610	6.0	25,276	58.0	15,699	36.0
1998	39,186	2,414	6.2	22,499	57.4	14,273	36.4

연도	합계	본청		구청		시의회 및 직속 기관	
		공무원 수	비율	공무원 수	비율	공무원 수	비율
1999	38,875	2,619	6.7	22,709	58.4	13,547	34.8
2000	39,162	2,741	7.0	22,994	58.7	13,427	34.3
2001	45,074	2,770	6.1	29,609	65.7	12,695	28.2
2002	45,522	2,813	6.2	29,704	65.3	13,005	28.6
2003	46,718	3,011	6.4	30,734	65.8	12,973	27.8
2004	47,156	3,158	6.7	31,035	65.8	12,963	27.5
2005	47,563	3,304	6.9	31,411	66.0	12,848	27.0
2006	47,933	3,295	6.9	31,598	65.9	13,040	27.2
2007	48,001	3,476	7.2	31,695	66.0	12,830	26.7
2008	46,320	3,460	7.5	30,470	65.8	12,390	26.7
2009	46,337	3,503	7.6	30,454	65.7	12,380	26.7
2010	46,523	3,664	7.9	30,467	65.5	12,392	26.6
2011	46,828	3,685	7.9	30,545	65.2	12,598	26.9
2012	47,521	3,832	8.1	30,876	65.0	12,813	27.0
2013	47,958	3,910	8.2	31,023	64.7	13,025	27.2
2014	48,463	3,978	8.2	31,343	64.7	13,142	27.1
2015	49,379	3,954	8.0	31,908	64.6	13,517	27.4
2016	50,430	4,025	8.0	32,959	65.4	13,446	26.7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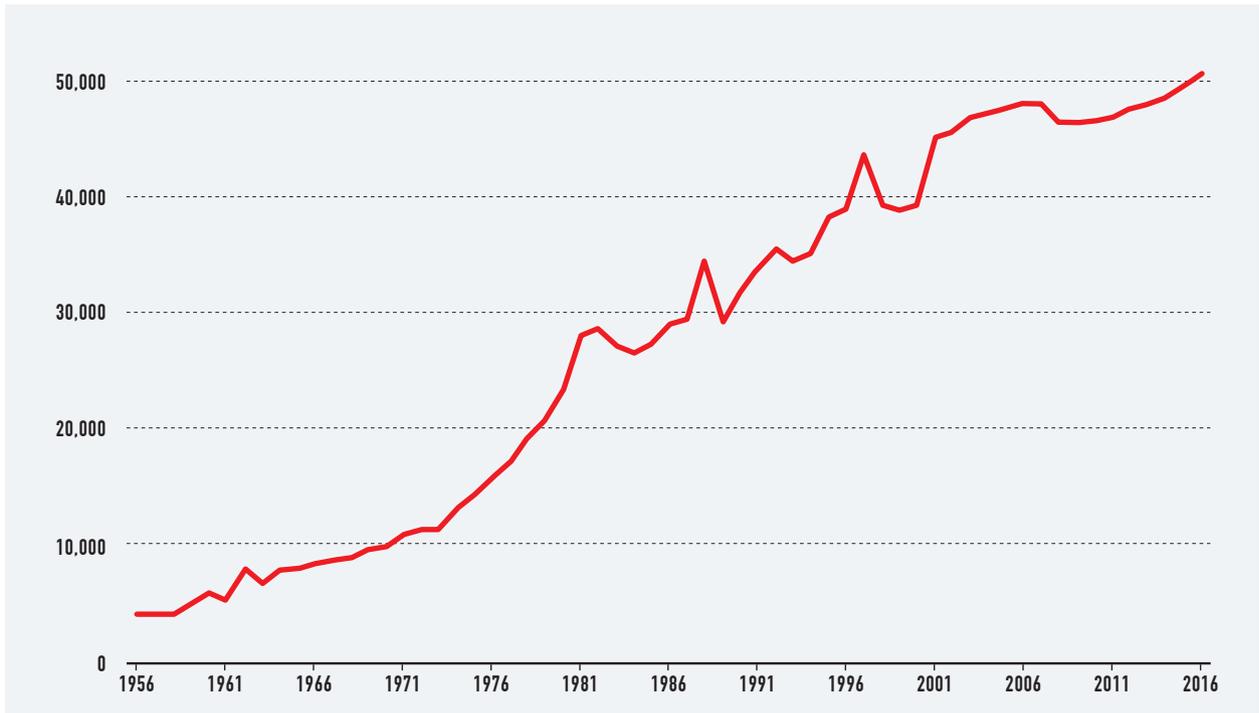
1. 1961년은 '시의회 및 직속 기관' 공무원 자료 없음
2. 1956~1988년은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의 합계이며,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제외됨
3. 1989~1996년은 본청, 시의회 및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의 합계이며 소방 공무원은 제외됨
4. 1997~2016년은 본청, 시의회 및 사업소(시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 시 직속 기관,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의 합계

자료출처

1. 1956~196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5회 1965년 서울통계연보(1964년 기준)
2. 1965~1968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3. 1969~1971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4. 1972~197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5. 1977년: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1회 1981년 서울통계연보(1980년 기준)
6. 1978~1983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7. 1984~1988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8. 1989~1994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통계연보-제35회 1995년 서울통계연보(1994년 기준)
9. 1995~1996년 : 서울통계-통계간행물-연도별 통계연보
10. 1997~2016년 : 서울통계-주제별-행정일반-공무원 현황-공무원 총괄(정원)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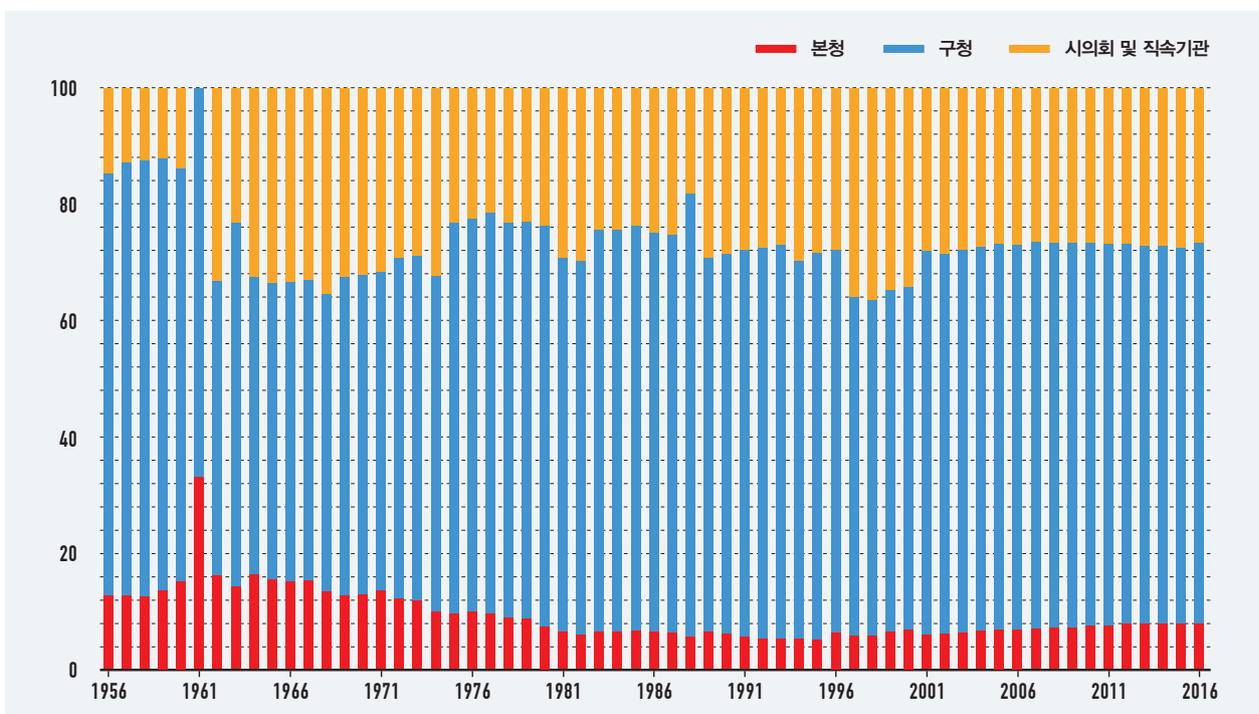
| 그림 7.3-1 | 공무원 수 추이

단위 : 명



| 그림 7.3-2 | 공무원 비율

단위 : 퍼센트



전반적으로 본청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 추이는 완만한 편이다. 1960년대 들어서 1천 명 선을 넘어선 이후,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2천 명을 넘었다. 2003년 3,000명을 넘어섰으며, 2016년 들어서 4천 명을 넘었다. 본청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체 서울시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 10.1퍼센트에서 2016년 8.0퍼센트로 감소하였다.

구청 공무원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앞서 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 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구청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퍼센트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2016년 기준 65.4퍼센트이다.

서울시 공무원 수 증가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시의회 및 직속 기관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시의회 및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수는 1956년 610명에서 2016년 1만 3,446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전체 서울시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56년 14.9퍼센트에서 2016년 26.7퍼센트로 늘었다.

도시 관리 지표

7-4

범죄 개괄

서울의 범죄 발생 자료는 1951년부터 있지만, 1951~1972년 사이에는 풍속범이 특별법범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관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본 지표에서 해당 연도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특별법범에 풍속범이 제외된 1973년부터 살펴보았다.

서울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5년 10만 건, 1983년 20만 건, 1989년 30만 건을 넘어섰다. 2001년과 2009년에 40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 34만 3,105건을 나타냈다.

서울시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을

살펴보면, 1973년 14.9건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33.6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범죄 건수 증가는 1980년 이후 특별법범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별법범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 범죄가 급증하였고,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각종 형태의 반사회적 활동이 확산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 유형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퍼센트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기록을 보이는데, 2016년 4만 6,858건이며 전체 범죄 유형 중 13.7퍼센트를 차지한다. 폭력범죄는 1973년 1만 7,647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1년 9만 8,983건으로 가

| 표 7.4-1 | 범죄 개괄

단위 : 건, 퍼센트

연도	범죄 발생 및 검거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사범		특별법범	
	발생	검거	검거 비율	발생 건수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1973	93,607	83,541	89.2	14.9	610	0.7	23,290	24.9	17,647	18.9	13,969	14.9	22,252	23.8	15,839	16.9
1974	90,799	77,170	85.0	13.9	685	0.8	24,793	27.3	20,183	22.2	12,279	13.5	21,655	23.8	11,204	12.3
1975	110,291	91,835	83.3	16.0	948	0.9	27,494	24.9	26,153	23.7	14,388	13.0	25,936	23.5	15,372	13.9
1976	135,724	116,509	85.8	18.7	954	0.7	27,496	20.3	27,630	20.4	16,569	12.2	27,675	20.4	35,400	26.1

연도	범죄 발생 및 검거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사범		특별범범	
	발생	검거	검거 비율	발생 건수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1977	146,790	127,781	87.1	19.5	977	0.7	25,008	17.0	27,651	18.8	16,620	11.3	33,580	22.9	42,954	29.3
1978	151,188	129,644	85.8	19.3	809	0.5	26,546	17.6	25,627	17.0	15,232	10.1	36,983	24.5	45,991	30.4
1979	160,702	136,446	84.9	19.8	982	0.6	27,008	16.8	25,863	16.1	15,239	9.5	33,843	21.1	57,767	35.9
1980	172,500	149,295	86.5	20.6	1,341	0.8	25,900	15.0	27,954	16.2	24,032	13.9	36,844	21.4	56,429	32.7
1981	178,854	156,387	87.4	20.6	1,385	0.8	25,239	14.1	28,601	16.0	31,234	17.5	39,374	22.0	53,021	29.6
1982	196,423	170,667	86.9	22.0	1,679	0.9	29,641	15.1	37,861	19.3	32,787	16.7	43,899	22.3	50,556	25.7
1983	242,743	199,328	82.1	26.4	1,744	0.7	31,917	13.1	41,062	16.9	28,421	11.7	52,747	21.7	86,852	35.8
1984	238,676	207,146	86.8	25.1	1,928	0.8	27,528	11.5	43,849	18.4	28,984	12.1	53,300	22.3	83,087	34.8
1985	239,470	207,262	86.6	24.8	2,189	0.9	26,418	11.0	48,150	20.1	26,715	11.2	54,435	22.7	81,563	34.1
1986	248,887	218,367	87.7	25.4	1,903	0.8	26,631	10.7	49,969	20.1	26,931	10.8	51,522	20.7	91,931	36.9
1987	278,846	248,486	89.1	27.9	1,965	0.7	23,130	8.3	56,081	20.1	26,477	9.5	57,547	20.6	113,646	40.8
1988	270,854	247,514	91.4	26.3	1,878	0.7	19,564	7.2	49,142	18.1	22,707	8.4	60,640	22.4	116,923	43.2
1989	324,529	279,781	86.2	30.7	2,417	0.7	35,986	11.1	55,905	17.2	21,649	6.7	66,217	20.4	142,355	43.9
1990	309,165	271,784	87.9	29.1	2,848	0.9	31,265	10.1	52,021	16.8	20,494	6.6	63,235	20.5	139,302	45.1
1991	310,362	287,004	92.5	28.5	2,192	0.7	25,020	8.1	53,287	17.2	23,153	7.5	59,864	19.3	146,846	47.3
1992	314,957	291,322	92.5	28.7	2,125	0.7	21,763	6.9	53,019	16.8	33,755	10.7	57,340	18.2	146,955	46.7
1993	345,568	335,598	97.1	31.6	2,887	0.8	17,686	5.1	59,473	17.2	43,937	12.7	58,206	16.8	163,379	47.3
1994	348,993	308,278	88.3	32.3	3,184	0.9	15,699	4.5	60,624	17.4	52,221	15.0	29,572	8.5	187,693	53.8
1995	353,994	314,621	88.9	33.4	2,420	0.7	15,908	4.5	57,914	16.4	65,679	18.6	9,116	2.6	202,957	57.3
1996	349,118	322,684	92.4	33.3	2,247	0.6	13,835	4.0	57,738	16.5	64,932	18.6	9,325	2.7	201,041	57.6
1997	349,414	326,372	93.4	33.6	2,370	0.7	12,947	3.7	58,548	16.8	56,599	16.2	9,211	2.6	209,739	60.0
1998	376,053	347,953	92.5	36.4	2,662	0.7	15,793	4.2	68,203	18.1	61,658	16.4	9,459	2.5	218,278	58.0
1999	349,465	332,654	95.2	33.9	2,841	0.8	14,543	4.2	85,257	24.4	57,787	16.5	11,119	3.2	177,918	50.9
2000	370,838	325,294	87.7	35.7	3,337	0.9	36,029	9.7	96,934	26.1	46,219	12.5	12,519	3.4	175,800	47.4
2001	410,054	357,238	87.1	39.7	4,022	1.0	52,238	12.7	98,983	24.1	46,593	11.4	12,952	3.2	195,266	47.6
2002	375,940	342,817	91.2	36.6	4,078	1.1	61,709	16.4	81,847	21.8	46,751	12.4	12,034	3.2	169,521	45.1
2003	382,833	340,154	88.9	37.3	4,928	1.3	57,744	15.1	81,922	21.4	57,380	15.0	11,420	3.0	169,439	44.3
2004	392,342	337,989	86.1	38.1	3,941	1.0	36,206	9.2	80,361	20.5	72,643	18.5	12,111	3.1	187,080	47.7
2005	350,502	308,481	88.0	34.0	3,870	1.1	33,981	9.7	74,815	21.3	65,607	18.7	12,417	3.5	159,812	45.6
2006	346,810	303,128	87.4	33.5	3,798	1.1	29,261	8.4	70,754	20.4	68,755	19.8	15,807	4.6	158,435	45.7

연도	범죄 발생 및 검거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사범		특별법범	
	발생	검거	검거 비율	발생 건수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2007	355,735	315,886	88.8	34.1	3,383	1.0	29,977	8.4	74,020	20.8	54,551	15.3	16,633	4.7	177,171	49.8
2008	392,643	340,920	86.8	37.6	3,778	1.0	28,900	7.4	74,290	18.9	62,149	15.8	18,465	4.7	205,061	52.2
2009	405,432	354,537	87.4	38.7	4,495	1.1	37,175	9.2	73,069	18.0	72,262	17.8	23,067	5.7	195,364	48.2
2010	348,189	286,626	82.3	32.9	6,628	1.9	49,382	14.2	68,798	19.8	66,368	19.1	17,516	5.0	139,497	40.1
2011	358,577	273,089	76.2	34.1	6,905	1.9	54,294	15.1	72,044	20.1	71,252	19.9	18,861	5.3	135,221	37.7
2012	358,534	260,199	72.6	34.3	6,023	1.7	61,329	17.1	70,623	19.7	72,238	20.1	21,287	5.9	127,034	35.4
2013	368,583	265,023	71.9	35.5	6,276	1.7	61,585	16.7	65,422	17.7	76,541	20.8	22,127	6.0	136,632	37.1
2014	355,990	258,863	72.7	34.3	6,277	1.8	59,391	16.7	65,318	18.3	72,308	20.3	25,245	7.1	127,451	35.8
2015	356,576	265,788	74.5	34.6	6,203	1.7	55,307	15.5	65,206	18.3	73,300	20.6	26,437	7.4	130,123	36.5
2016	343,105	267,282	77.9	33.6	6,698	2.0	46,858	13.7	64,569	18.8	72,437	21.1	26,947	7.9	125,596	36.6

주석

1.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시 인구 천 명당 발생 범죄 건수
2. 2001~2016년은 기타 형사범에 풍속범이 포함됨(서울통계)

자료출처

1. 1973~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안전 - 범죄 - 범죄 발생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장 높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6년 6만 4,569건을 기록했다. 폭력범죄는 발생 건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전체 범죄 유형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능범죄는 1990년대 들어 증가하였으며, 2016년 전체 범죄 유형 중 21.1퍼센트를 차지했다.

서울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13만 건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폭력이 54.8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눈에 띄는 점은 강도와 폭력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강간·강제추행과 절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간·강제추행은 2000년 1,522건(1.1퍼센트)에서 2016년 6,002건(5.1퍼센트)으로 증가했으며, 절도는 2000년 3만 6,029건(26.5퍼센트)에서 2016년 4만 6,857건(39.8퍼센트)으로 늘었다.

연도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검거 비율	발생 건수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2000	136,051	106,978	78.6	13.1	167	0.1	1,399	1.0	1,522	1.1	36,029	26.5	96,934	71.2
2001	154,928	118,710	76.6	15.0	203	0.1	1,874	1.2	1,631	1.1	52,237	33.7	98,983	63.9
2002	147,340	127,353	86.4	14.3	169	0.1	2,134	1.4	1,481	1.0	61,709	41.9	81,847	55.5
2003	144,732	123,697	85.5	14.1	175	0.1	2,840	2.0	2,100	1.5	57,707	39.9	81,910	56.6
2004	121,427	100,091	82.4	11.8	228	0.2	1,661	1.4	2,977	2.5	36,196	29.8	80,365	66.2
2005	113,382	97,065	85.6	11.0	219	0.2	1,481	1.3	2,913	2.6	33,960	30.0	74,809	66.0
2006	104,848	90,820	86.6	10.1	199	0.2	1,200	1.1	3,480	3.3	29,246	27.9	70,723	67.5
2007	108,644	95,484	87.9	10.4	219	0.2	1,076	1.0	3,388	3.1	29,962	27.6	73,999	68.1
2008	107,771	92,991	86.3	10.3	221	0.2	948	0.9	3,421	3.2	28,894	26.8	74,287	68.9
2009	115,752	101,939	88.1	11.1	250	0.2	1,510	1.3	3,758	3.2	37,167	32.1	73,067	63.1
2010	124,447	92,707	74.5	11.8	294	0.2	1,029	0.8	4,939	4.0	49,387	39.7	68,798	55.3
2011	132,939	85,500	64.3	12.6	258	0.2	956	0.7	5,252	4.0	54,412	40.9	72,061	54.2
2012	137,725	82,578	60.0	13.2	179	0.1	570	0.4	4,908	3.6	61,436	44.6	70,632	51.3
2013	132,966	79,345	59.7	12.8	152	0.1	420	0.3	5,387	4.1	61,585	46.3	65,422	49.2
2014	130,674	79,061	60.5	12.6	158	0.1	343	0.3	5,462	4.2	59,393	45.5	65,318	50.0
2015	126,401	82,680	65.4	12.3	163	0.1	276	0.2	5,449	4.3	55,307	43.8	65,206	51.6
2016	117,839	84,421	72	11.5	148	0.1	262	0.2	6,002	5.1	46,857	39.8	64,570	54.8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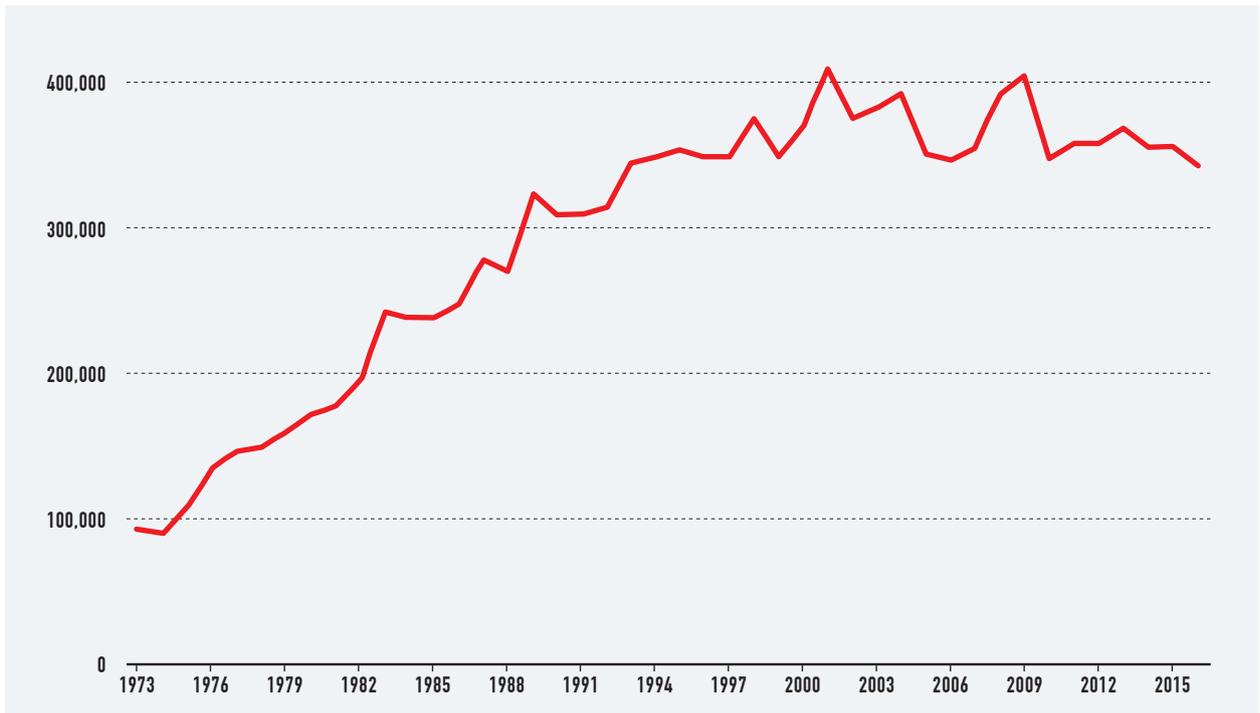
1.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시 인구 천 명당 발생 범죄 건수

자료출처

1. 2000~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안전 - 범죄 - 5대범죄 발생 현황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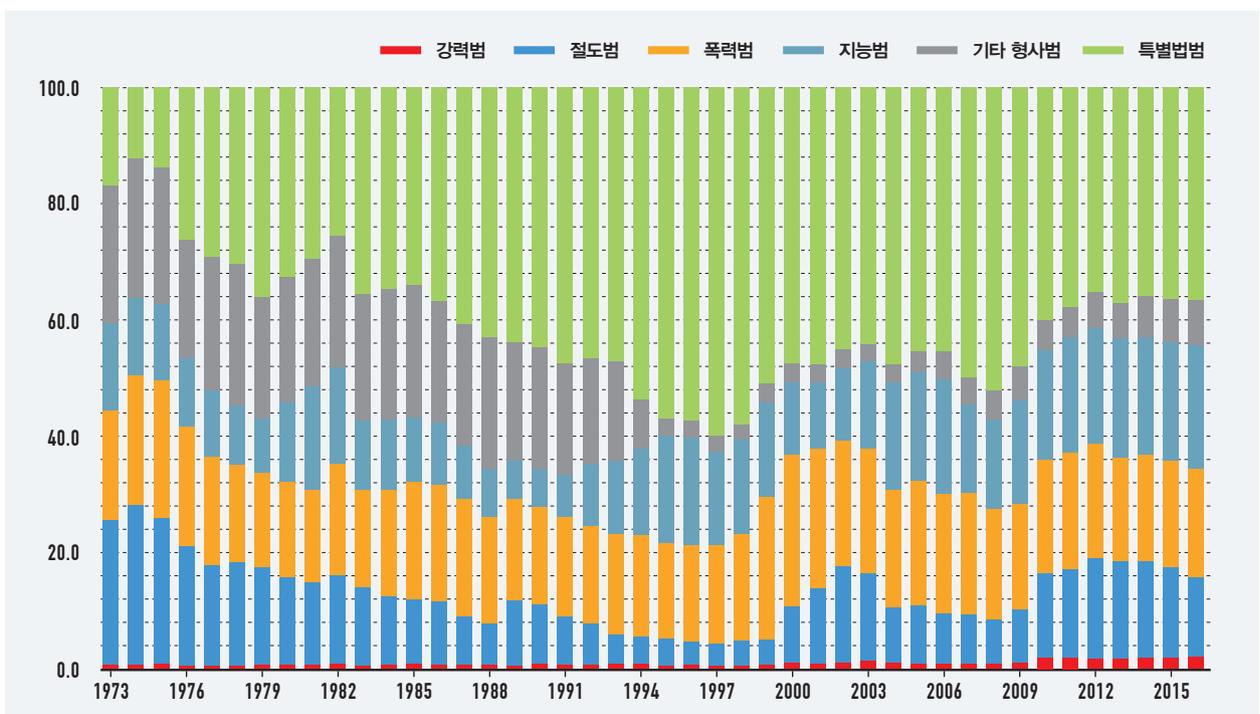
| 그림 7.4-1 | 범죄 발생 건수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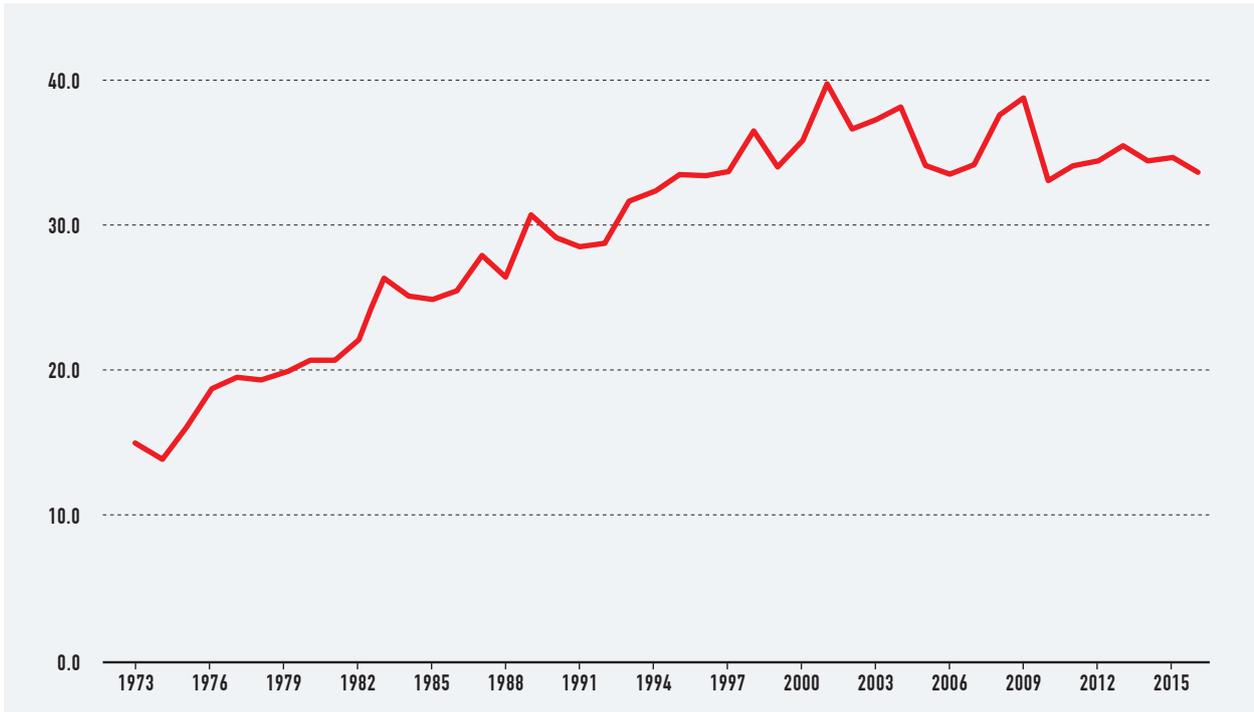
| 그림 7.4-2 | 발생 범죄 유형 비율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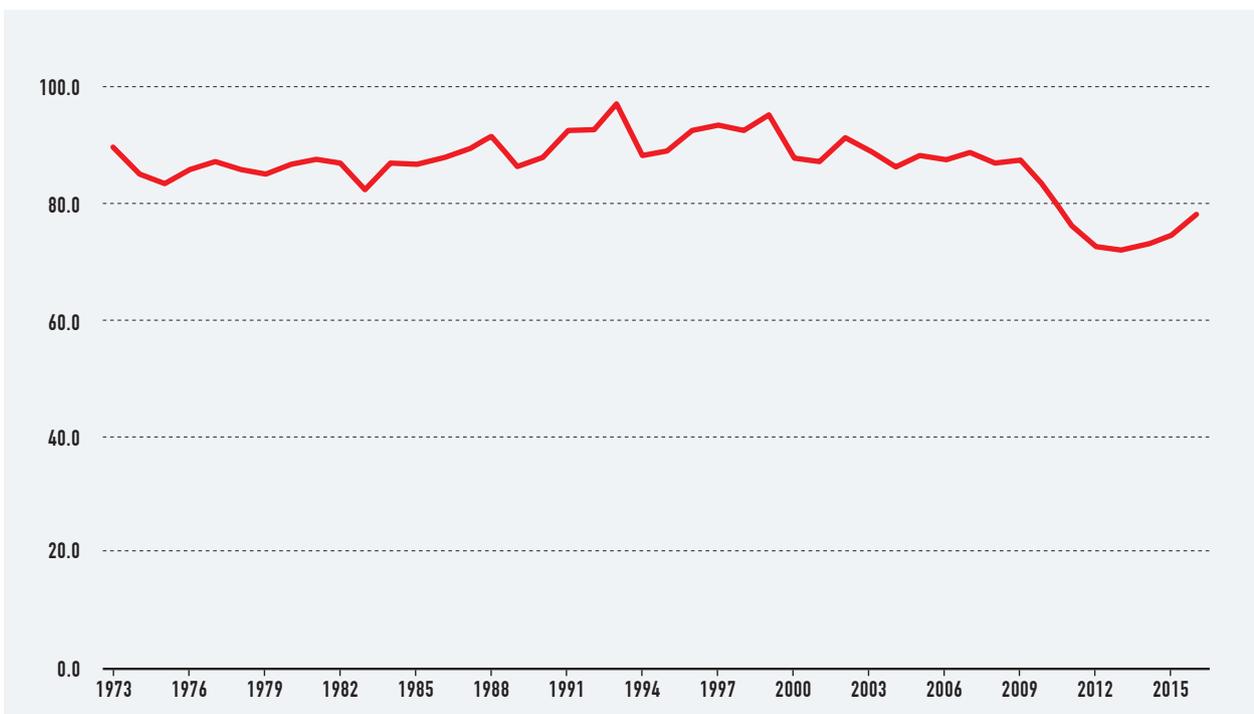
| 그림 7.4-3 | 범죄 발생 건수 추이

단위: 건/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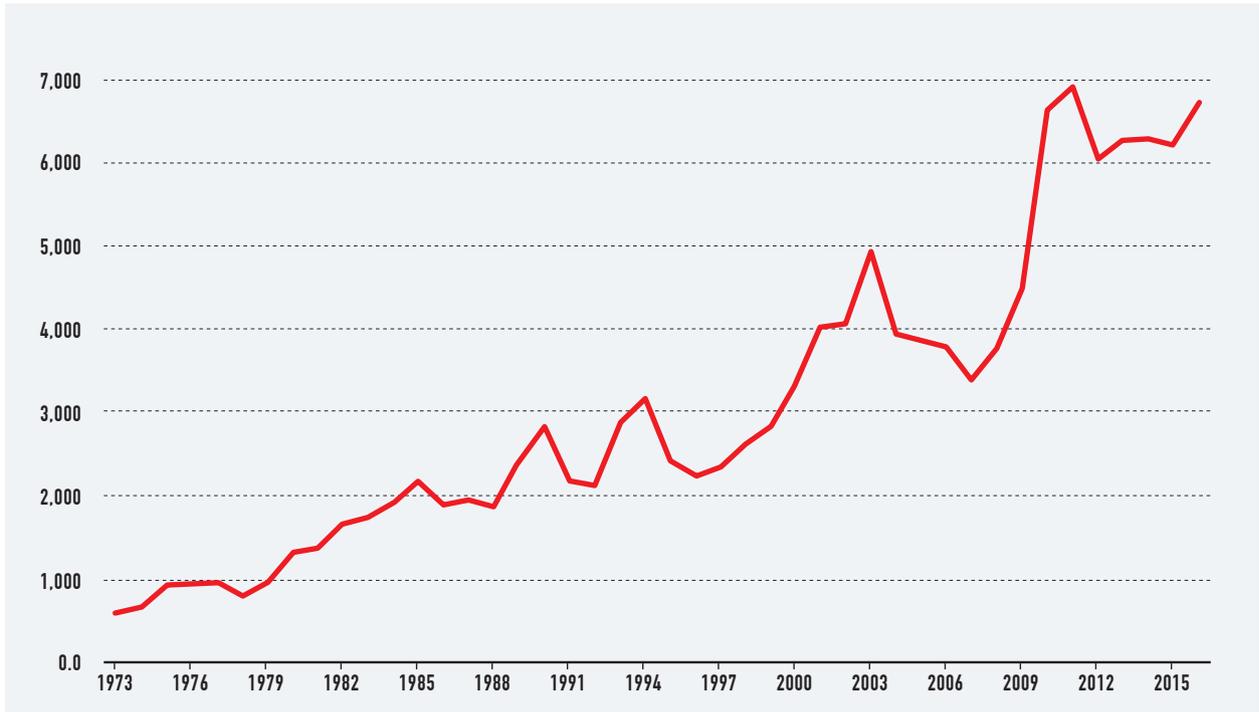
| 그림 7.4-4 | 범죄 검거 비율 추이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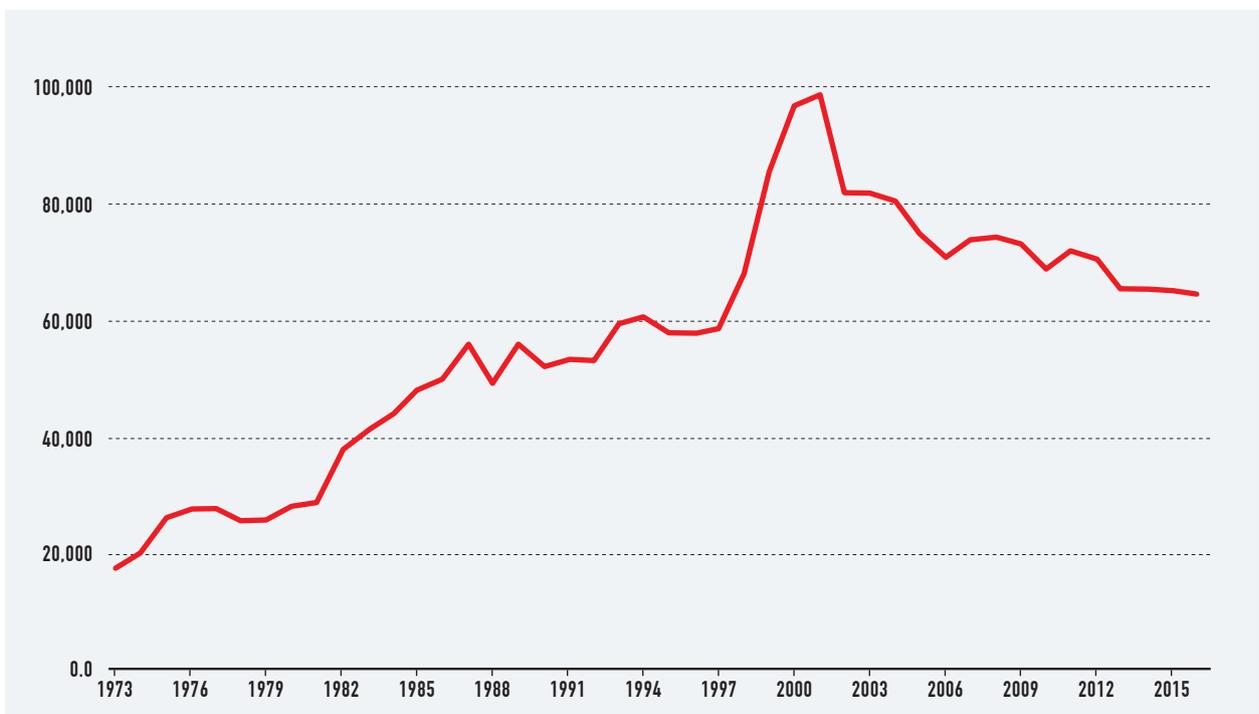
| 그림 7.4-5 | 강력범 발생 건수

단위 : 건



| 그림 7.4-6 | 폭력범 발생 건수

단위 : 건



화재 개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1961년 426건에서 1998년 7,511건으로 17.6배로 증가했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6년 6,443건을 기록했다. 인구 십만 명당 발생 건수를 보면 1961년 16.5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년 72.8건으로 가장 높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6년 63.1건으로 줄었다.

1970년대 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2,098건, 사망자 수는 평균 201명, 부상자 수는 평균 362명이었다. 2000년대는 발생 건수 평균 6,103건, 사망자 수 평균 66명, 부상자 수 평균 299명으로 평균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반면,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당 인명 피해가 크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재산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체 피해액 뿐만 아니라 화재 건당 피해액도 증가했다. 1961년 화재 건당 피해액은 약 15만 원이었으나 2015년 240만 원으로 무려 16배 증가했다.

표 7.4-4는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본 서울시 10대 화재를 보여 준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화재는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총 2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화재는 2008년 발생한 승례문 화재로 1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표 7.4-3 | 화재 개괄

단위 : 건, 제곱미터, 명, 천 원

연도	발생 건수	소실 면적 (제곱미터)	인명 피해(명)		피해액 (천 원)	건당 재산 피해액(천 원)	인구 십만 명당 발생 건수
			사망	부상			
1961	426	-	-	-	64,942	152	16.5
1962	363	-	-	-	34,100	94	12.2
1963	361	-	-	-	38,393	106	11.1
1964	926	-	-	-	26,676	29	27.0
1965	1,126	-	-	-	153,758	137	32.4
1966	1,233	-	-	-	121,276	98	32.5
1967	1,390	-	-	-	174,911	126	35.0
1968	1,515	-	-	-	588,347	388	34.9
1969	1,751	-	-	-	349,787	200	36.7
1970	1,912	61,934	74	308	502,239	263	35.2
1971	1,793	65,848	1,190	310	984,016	549	30.6
1972	1,644	62,858	103	377	707,108	430	27.1
1973	1,844	55,341	44	377	364,097	197	29.3

연도	발생 건수	소실 면적 (제곱미터)	인명 피해(명)		피해액 (천 원)	건당 재산 피해액(천 원)	인구 십만 명당 발생 건수
			사망	부상			
1974	1,865	47,338	160	481	370,444	199	28.5
1975	1,949	78,210	82	392	1,233,759	633	28.3
1976	2,154	60,311	65	301	705,144	327	29.7
1977	2,453	74,666	90	361	1,314,245	536	32.6
1978	2,670	72,089	80	369	1,436,517	538	34.1
1979	2,697	84,691	126	343	1,669,744	619	33.2
1980	2,344	66,125	85	227	1,201,169	512	28.0
1981	2,446	55,506	93	273	1,950,519	797	28.2
1982	2,684	64,106	75	241	2,664,338	993	30.1
1983	3,160	82,173	85	358	2,993,770	947	34.3
1984	3,347	81,311	102	359	3,679,737	1,099	35.2
1985	3,201	83,328	65	304	3,479,800	1,087	33.2
1986	3,190	77,881	117	345	2,474,780	776	32.6
1987	3,800	97,897	88	476	4,406,333	1,160	38.0
1988	4,668	103,541	87	387	5,164,090	1,106	45.4
1989	4,500	103,346	112	350	4,539,070	1,009	42.5
1990	5,093	99,179	89	379	3,998,714	785	48.0
1991	5,648	126,332	145	370	7,130,160	1,262	51.8
1992	5,198	112,775	124	256	6,001,950	1,155	47.4
1993	5,639	115,192	136	294	6,242,039	1,107	51.6
1994	6,120	122,910	137	369	9,450,377	1,544	56.7
1995	7,153	160,832	119	426	16,307,125	2,280	67.5
1996	6,843	128,782	114	365	11,811,430	1,726	65.4
1997	6,795	118,190	114	405	12,253,065	1,803	65.4
1998	7,511	105,293	90	340	17,620,111	2,346	72.8
1999	6,917	81,798	51	277	13,634,245	1,971	67.0
2000	7,058	79,023	100	332	17,338,551	2,457	68.0
2001	7,379	66,357	98	351	16,162,507	2,190	71.4
2002	6,017	69,824	61	290	14,400,117	2,393	58.5
2003	5,503	44,517	60	333	11,768,588	2,139	53.5

연도	발생 건수	소실 면적 (제곱미터)	인명 피해(명)		피해액 (천 원)	건당 재산 피해액(천 원)	인구 십만 명당 발생 건수
			사망	부상			
2004	5,421	42,467	56	239	10,645,653	1,964	52.7
2005	4,996	44,211	79	257	12,082,338	2,418	48.5
2006	4,907	44,045	56	275	9,022,818	1,839	47.4
2007	6,698	68,195	60	403	17,895,405	2,672	64.3
2008	6,731	77,681	54	286	26,322,956	3,911	64.4
2009	6,318	73,113	37	220	15,571,156	2,465	60.4
2010	5,321	32,138	42	188	14,503,873	2,726	50.3
2011	5,526	41,944	29	168	14,185,528	2,567	52.5
2012	5,724	78,095	31	246	17,414,726	3,042	54.8
2013	5,646	39,306	31	202	21,495,228	3,807	54.4
2014	5,815	36,528	36	265	20,052,979	3,448	56.1
2015	5,921	53,787	27	222	14,337,272	2,421	57.5
2016	6,443	34,041	40	236	14,154,490	2,197	63.1

주석

1. '-'은 자료 없음
2. 재산 피해액은 등산, 부동산 합계

자료출처

1. 1961~1967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8회 1968년 서울통계연보(1967년 기준)
2. 1968~196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3. 1970~197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4. 1972~197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5. 1977~197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9회 1979년 서울통계연보(1978년 기준)
6. 1979~1980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1회 1981년 서울통계연보(1980년 기준)
7. 1981~2005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8. 2006~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안전 - 소방 - 화재발생(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 표 7.4-4 |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본 서울시 10대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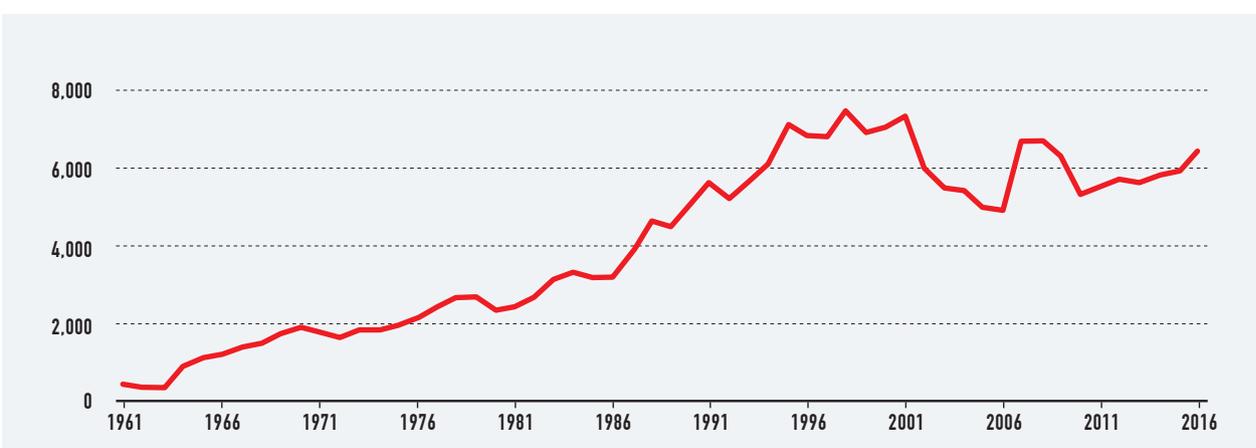
인명 피해 10대 화재			재산 피해 10대 화재		
1967.4.8.	성동구 청구동 328, C46 항공기	사상자 97명	1971.12.25.	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 호텔	8억 4천만 원
1971.12.25.	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 호텔	사상자 229명	1981.11.9.	구로구 가리봉동 419, 우미나이론공업(주)	5억 6천만 원
1972.8.5.	동대문구 전농2동 620-69, 대왕코너	사상자 66명	1991.12.4.	중구 남창동 31-2, 남대문시장(대도마켓)	15억 원
1972.12.2.	종로구 세종로 81-3, 시민회관	사상자 134명	1994.3.10.	종로구 종로5가에서 동대문 구간 지하철신구	8억 9천만 원
1974.10.17.	중구 회현동 1가 65, 뉴남산 관광호텔	사상자 63명	1994.12.7.	마포구 아현1동 606-6, 아현가스공급기지	6억 원
1974.11.3.	동대문구 전농2동 620-69, 대왕코너	사상자 123명	1995.3.22.	송파구 잠실3동 40-1, 롯데월드 쇼핑몰(민속관)	9억 5천만 원
1987.4.19.	서대문구 홍제2동 498, 광명사(사찰)	사상자 49명	1995.11.5.	성동구 도선동 69-1, 왕십리종합시장(중앙1층)	14억 8천만 원
1987.8.14.	강서구 공항동 372-1, 공항참고	사상자 101명	2005.12.1.	종로구 창신1동 437, 동문상가	14억 4천만 원
1994.12.7.	마포구 아현3동 606-6, 아현가스 공급기지	사상자 61명	2008.2.10.	중구 남대문로4가 29번지, 서울송례문	100억 원
2007.3.17.	구로구 신도림동 337, 미래사랑시티 공사장	사상자 60명	2014.12.27.	양천구 신월동 238-6, 차원빌딩	17억 1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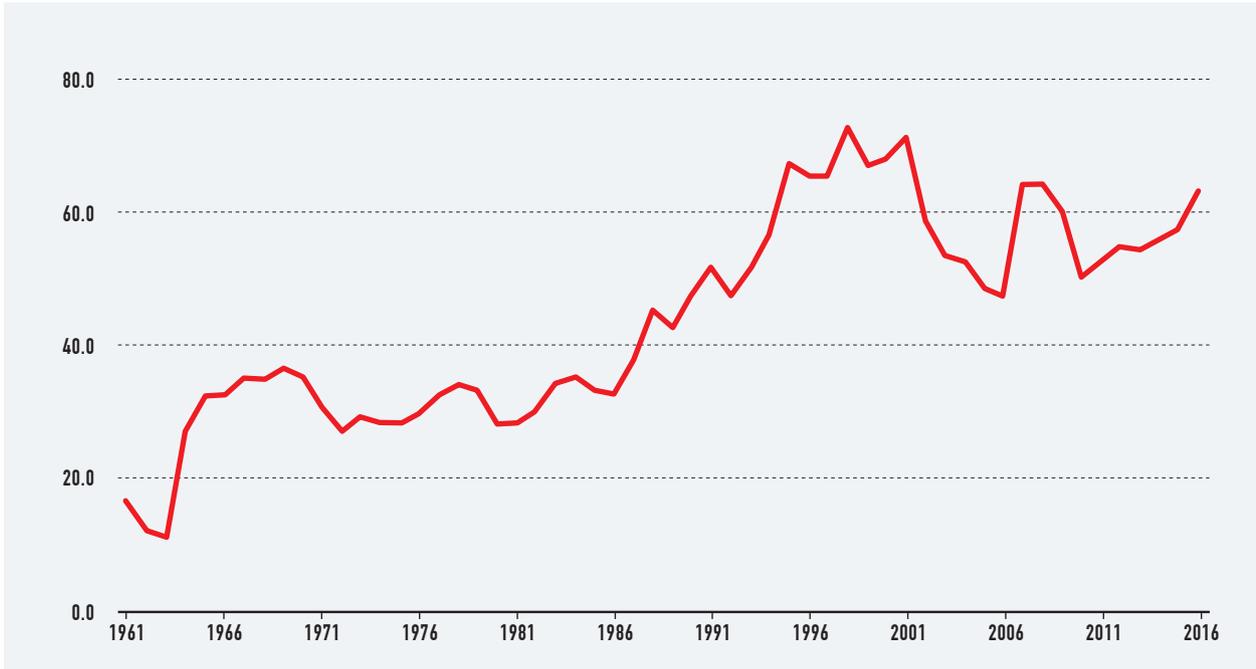
자료출처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행정백서(2016)

| 그림 7.4-7 | 화재 발생 건수 추이

단위 : 건





교통사고 개괄

서울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6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증가와 함께 늘어났다. 1960년대 후반 1만 건을 넘어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80년대 들어 4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1989년 역대 최고 수준인 6만 3,835건을 기록했다.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06년 3만 8,298건까지 줄었으나 다시 소폭 상승하여 2016년 4만 39건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1960년 98건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92건까지 늘어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연간 1천여 명을 넘어섰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 376명을 기록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972년 109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1명까지 줄었으며, 2016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196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 7만 9,04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9~2000년에 다시 상승하였고,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5만 5,669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 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2천 명 이상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0년대 들어 500명 이하까지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 200명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계	인구 10만 명당		계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계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1960	2,396	98	2,944	247	8.4	10	216	2,697	91.6	110	2,364
1961	1,531	59	1,801	163	9.1	6	158	1,638	90.9	64	1,589
1962	1,391	47	1,658	141	8.5	5	122	1,517	91.5	51	1,312
1963	1,698	52	2,100	225	10.7	7	175	1,875	89.3	58	1,455
1964	2,159	63	2,667	308	11.5	9	213	2,359	88.5	69	1,632
1965	2,154	62	2,718	308	11.3	9	185	2,410	88.7	69	1,450
1966	6,683	176	6,692	232	3.5	6	112	6,460	96.5	170	3,130
1967	8,360	211	8,152	179	2.2	5	70	7,973	97.8	201	3,105
1968	11,608	268	10,195	220	2.2	5	63	9,975	97.8	230	2,839
1969	14,038	294	12,645	404	3.2	8	81	12,241	96.8	256	2,467
1970	15,963	294	14,323	534	3.7	10	88	13,789	96.3	254	2,281
1971	21,610	369	19,258	725	3.8	12	108	18,533	96.2	317	2,755
1972	20,186	332	17,765	747	4.2	12	109	17,018	95.8	280	2,485
1973	18,165	289	16,886	660	3.9	10	86	16,226	96.1	258	2,127
1974	18,909	289	18,331	711	3.9	11	89	17,620	96.1	269	2,196
1975	25,155	365	21,842	845	3.9	12	99	20,997	96.1	305	2,458
1976	29,410	405	22,370	859	3.8	12	89	21,511	96.2	297	2,228
1977	28,200	375	23,582	815	3.5	11	66	22,767	96.5	303	1,847
1978	30,576	391	26,554	956	3.6	12	57	25,598	96.4	327	1,532
1979	36,822	454	31,499	1,109	3.5	14	55	30,390	96.5	375	1,511
1980	37,655	450	33,409	1,041	3.1	12	50	32,368	96.9	387	1,565
1981	41,040	473	36,002	1,074	3.0	12	48	34,928	97.0	403	1,576
1982	44,261	496	39,962	1,091	2.7	12	43	38,871	97.3	436	1,532
1983	51,831	563	45,703	1,169	2.6	13	37	44,534	97.4	484	1,415
1984	39,700	418	49,757	1,262	2.5	13	33	48,495	97.5	510	1,286
1985	42,829	444	54,629	1,212	2.2	13	27	53,417	97.8	554	1,198

연도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계	인구 10만 명당		계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계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1986	47,461	484	52,945	1,030	1.9	11	20	51,915	98.1	530	995
1987	49,413	495	62,189	1,073	1.7	11	17	61,116	98.3	612	967
1988	56,008	544	71,596	1,242	1.7	12	16	70,354	98.3	684	903
1989	63,835	604	80,412	1,371	1.7	13	14	79,041	98.3	747	797
1990	58,231	549	72,409	1,254	1.7	12	11	71,155	98.3	670	596
1991	56,528	518	69,327	1,305	1.9	12	9	68,022	98.1	624	495
1992	51,333	468	63,822	986	1.5	9	6	62,836	98.5	573	400
1993	49,422	452	62,845	809	1.3	7	5	62,036	98.7	568	354
1994	46,479	430	60,576	802	1.3	7	4	59,774	98.7	554	309
1995	42,100	397	55,229	865	1.6	8	4	54,364	98.4	513	266
1996	46,031	440	61,432	789	1.3	8	4	60,643	98.7	579	280
1997	40,863	393	55,745	606	1.1	6	3	55,139	98.9	531	245
1998	42,055	407	58,214	545	0.9	5	2	57,669	99.1	559	262
1999	50,047	485	70,022	566	0.8	5	2	69,456	99.2	673	302
2000	53,569	516	75,147	748	1.0	7	3	74,399	99.0	717	305
2001	45,255	438	64,242	507	0.8	5	2	63,735	99.2	617	250
2002	39,412	383	56,410	509	0.9	5	2	55,901	99.1	544	208
2003	40,279	392	59,181	504	0.9	5	2	58,677	99.1	571	211
2004	38,714	376	57,329	468	0.8	5	2	56,861	99.2	553	205
2005	38,610	375	57,919	485	0.8	5	2	57,434	99.2	558	204
2006	38,298	370	56,974	452	0.8	4	2	56,522	99.2	546	198
2007	39,410	378	57,969	452	0.8	4	2	57,517	99.2	552	196
2008	41,702	399	60,419	482	0.8	5	2	59,937	99.2	573	203
2009	44,320	424	64,085	501	0.8	5	2	63,584	99.2	608	215
2010	41,662	394	60,147	429	0.7	4	1	59,718	99.3	565	200
2011	40,451	384	58,060	435	0.7	4	1	57,625	99.3	547	194
2012	40,829	391	59,007	424	0.7	4	1	58,583	99.3	561	197
2013	39,439	380	57,139	378	0.7	4	1	56,761	99.3	546	191

연도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계	인구 10만 명당		계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계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4	40,792	393	57,745	400	0.7	4	1	57,345	99.3	553	190
2015	41,665	405	59,032	376	0.6	4	1	58,656	99.4	570	192
2016	40,039	392	56,017	348	1	3	1	55,669	99	546	181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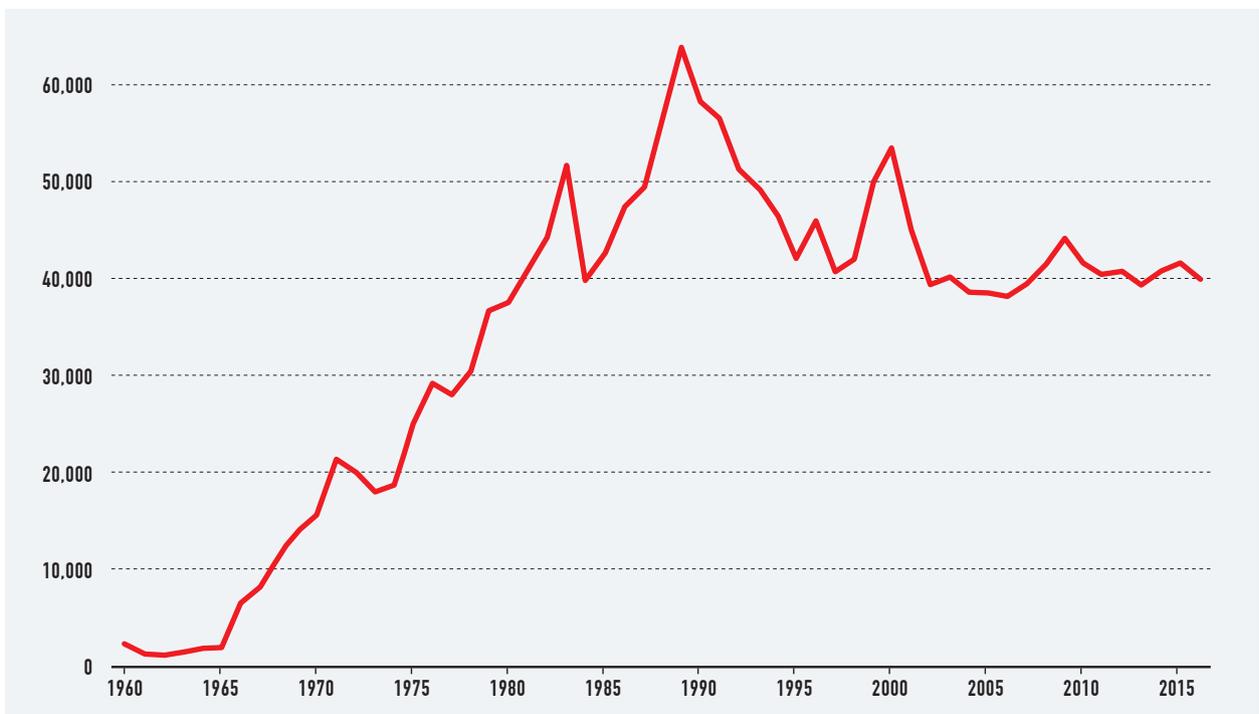
1.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 = (사고 건수/자동차 수)×10,000
2.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 (사망자 수/인구 수)×100,000
3.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 = (부상자 수/인구 수)×100,000

자료출처

1. 1960~1966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7회 1967년 서울통계연보(1966년 기준)
2. 1967~1969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3. 1970~197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12회 1972년 서울통계연보(1971년 기준)
4. 1972~1987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5. 1988~199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2회 1992년 서울통계연보(1991년 기준)
6. 1992~1998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연도별 통계연보
7. 1999~2016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안전 - 안전사고 - 교통사고 현황(구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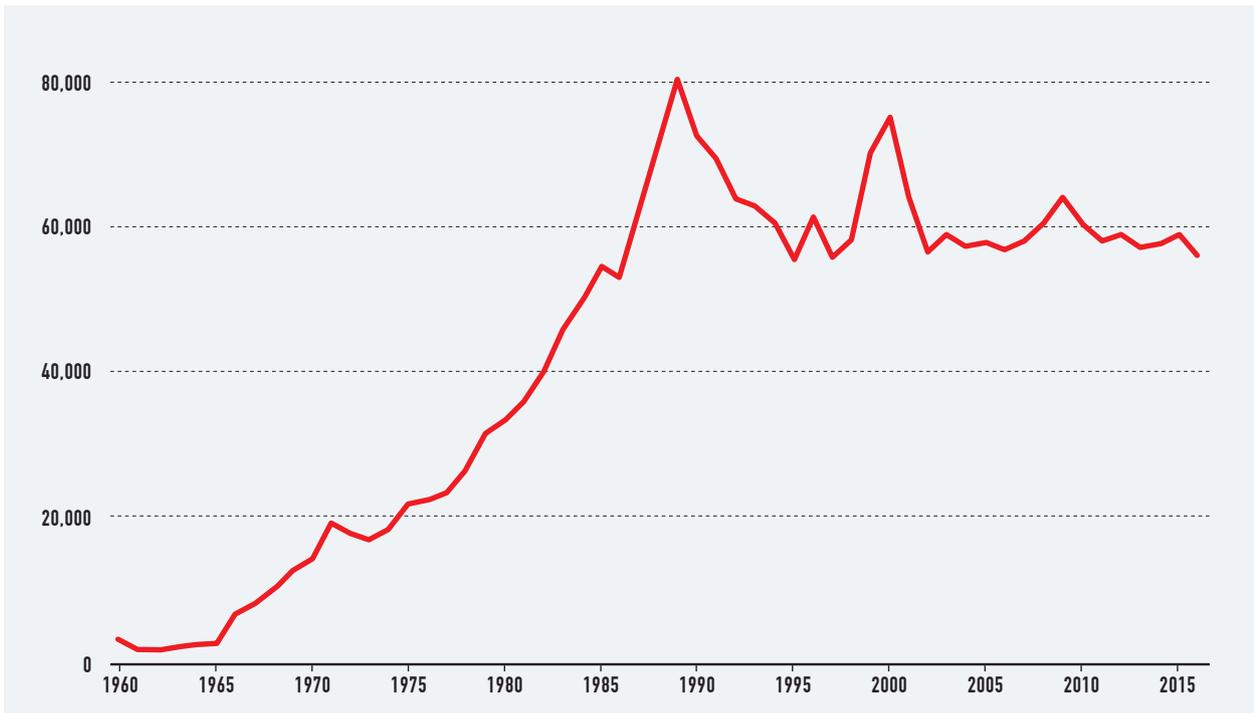
| 그림 7.4-9 | 교통사고 발생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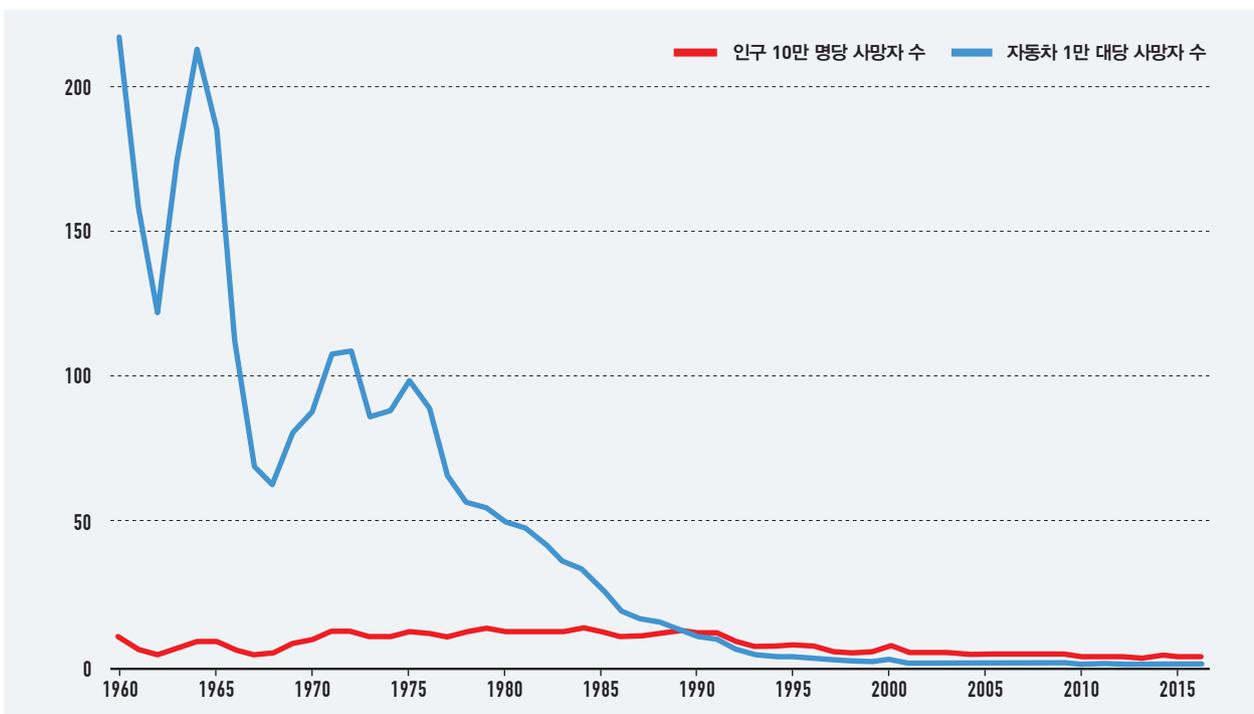
| 그림 7.4-10 | 교통사고 사상자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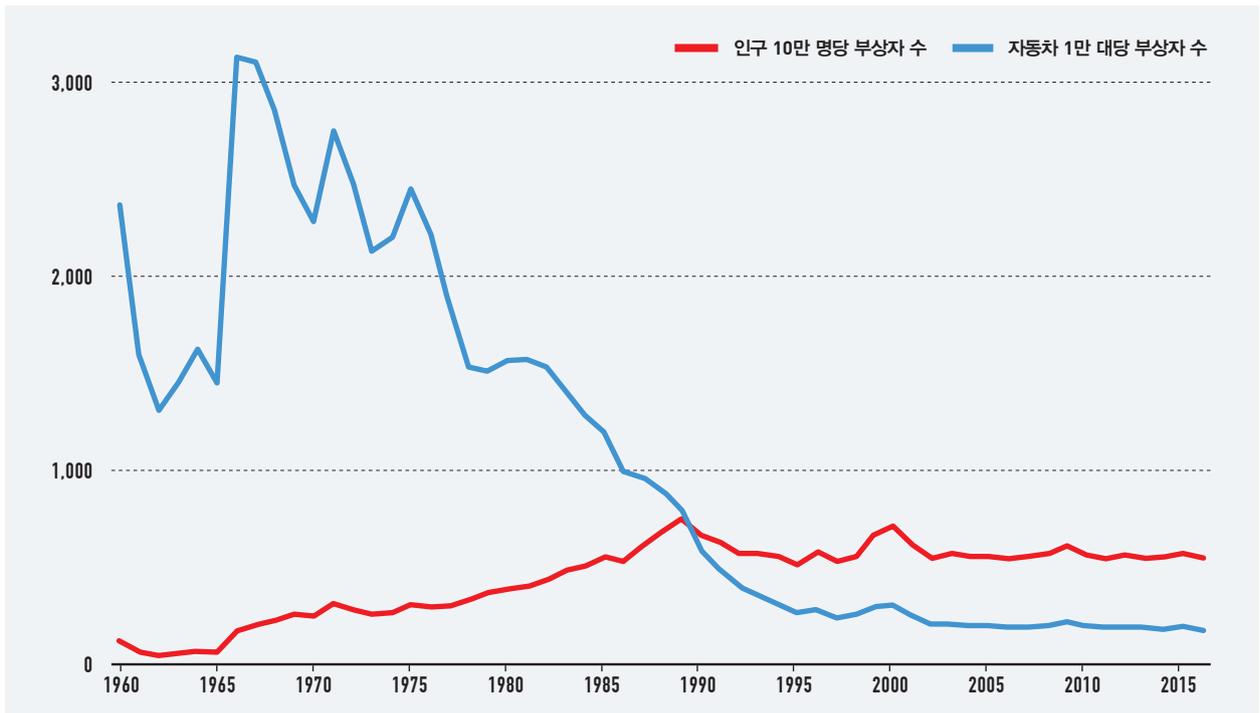
| 그림 7.4-11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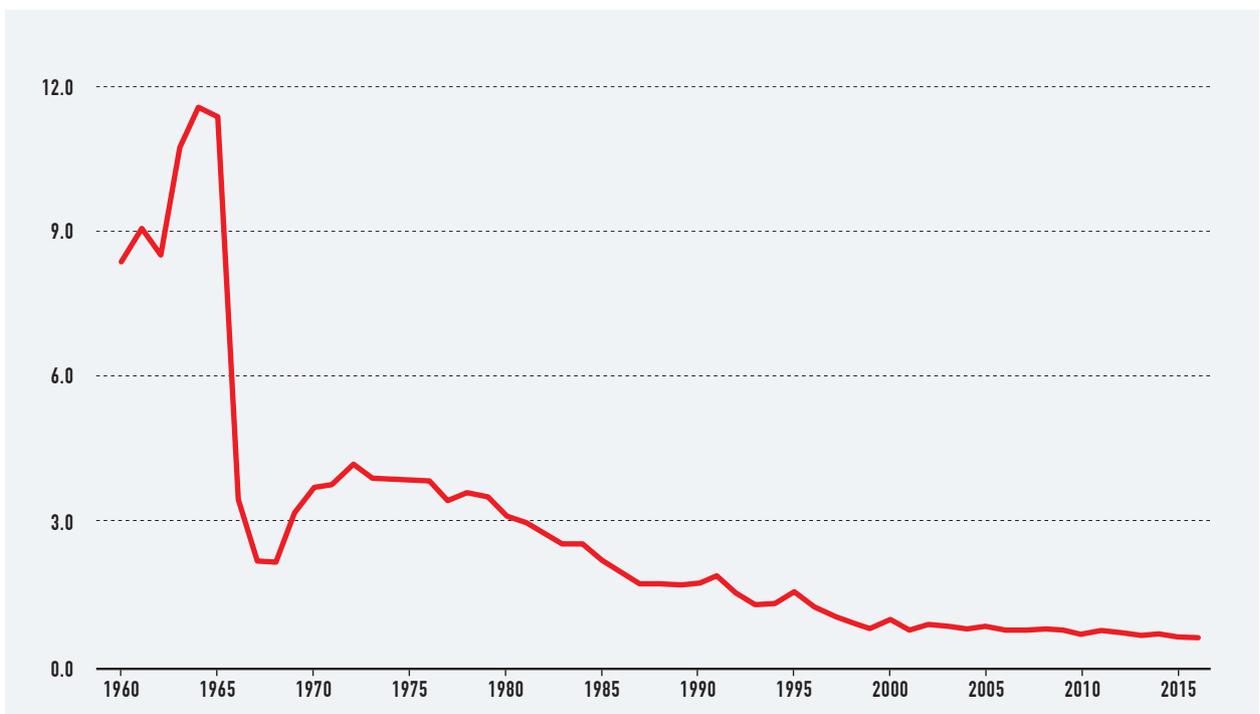
| 그림 7.4-12 | 교통사고 부상자 수 추이

단위: 명



| 그림 7.4-13 |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추이

단위: 퍼센트



풍수해 개괄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자료는 연간 발생한 풍수해 피해의 총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원인에 대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풍수해를 위주로 설명하였다.

서울에서 발생한 풍수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것은 1972년 8월 태풍 베티(Betty)로 인한 피해이다. 1972년 8월 태풍 베티가 지나가면서 469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8월 18~19일 양일간 약 452.4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지역이 침수되었다.

1984년 9월 태풍 홀리(Holly) 때도 9월 1~2일 양일간 304.2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 풍납동 일원의 성내천 하류부 연안 지구, 신정과 목동 일원, 망원동 일원, 월계동 일원 등 4개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987년에는 7~8월에 걸쳐 최저 64밀리미터를 넘는 호우가 여덟 차례 발생하였다. 구로, 개봉, 망원, 반포, 신정 등 70여 개 저지대 지역이 한때 침수되었고, 30여

개 도로와 지하철 1, 2, 4호선 일부가 침수되어 통행이 제한되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106명의 인명 피해와 약 15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1990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486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 36명, 실종 4명, 부상 11명의 인명 피해와 약 22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471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2001년 7월 14~15일 양일간 310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7월 27일 오전에는 시간당 110.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도심이 침수되었는데, 이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 주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등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 표 7.4-6 | 풍수해 개괄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피해 총액	이재민	인명 피해				건물		공공시설 피해액	기타 피해액
			계	사망	부상	실종	피해 동 수	피해액		
1968	56	4,988	122	42	69	11	5,845	-	-	4
1969	131	10,894	67	16	49	2	2,626	-	-	118
1970	34	3,313	62	21	36	5	8,549	10	16	8
1971	119	2,307	76	35	34	7	1,703	73	34	11
1972	2,002	230,938	485	281	180	24	41,514	757	732	32

연도	피해 총액	이재민	인명 피해				건물		공공시설 피해액	기타 피해액
			계	사망	부상	실종	피해 동 수	피해액		
1973	9	0	5	0	5	0	33	3	3	3
1974	-	-	-	-	-	-	-	-	-	-
1975	3	0	0	0	0	0	198	2	1	0
1976	52	485	1	1	0	0	497	2	34	16
1977	11,521	34,914	140	67	58	15	8,158	37	453	10,829
1978	63	3,451	3	0	3	0	732	2	21	41
1979	32	0	8	6	0	2	120	0	30	2
1980	24	0	2	0	2	0	4	2	15	7
1981	34	325	8	2	1	5	111	6	3	24
1982	6	0	3	1	2	0	131	1	3	1
1983	188	99	11	5	6	0	123	7	163	13
1984	20,274	289,804	95	41	2	52	34,964	3,084	9,249	7,757
1985	106	0	6	2	3	1	102	12	24	70
1986	287	1	6	3	3	0	14	7	52	228
1987	15,595	34,926	106	38	67	1	17,759	376	4,724	10,456
1988	16	30	2	0	2	0	6	15	0	1
1989	20	0	2	0	2	0	33	1	5	14
1990	10,715	93,133	71	31	27	13	17,981	1,304	8,179	466
1991	261	17	19	0	16	3	275	34	136	91
1992	41	7	1	1	0	0	97	1	35	4
1993	8	0	2	2	0	0	96	0	5	3
1994	0	0	0	0	0	0	0	0	0	0
1995	4,312	0	5	3	1	1	2	14	4,026	272
1996	37	0	7	2	5	0	4	31	4	2
1997	461	161	5	0	5	0	7	149	32	280
1998	51,396	2,287	61	24	37	0	78	900	27,028	23,415
1999	10,509	1,823	3	0	3	0	22	311	9,570	629
2000	878	0	5	0	5	0	7	82	671	125
2001	58,368	465	139	35	104	0	187	8,128	31,886	18,338
2002	7,512	120	0	0	0	0	46	621	6,479	412

연도	피해 총액	이재민	인명 피해				건물		공공시설 피해액	기타 피해액
			계	사망	부상	실종	피해 동 수	피해액		
2003	1,891	0	1	0	0	1	7	24	1,477	390
2004	419	23	1	1	0	0	2	40	8	371
2005	101	0	1	0	1	0	2	30	71	0
2006	5,734	73	0	0	0	0	22	390	5,343	0
2007	0	0	0	0	0	0	0	0	0	0
2008	45	128	0	0	0	0	61	45	0	0
2009	24	541	1	1	0	0	340	15	7	1
2010	22,207	41,529	5	3	2	0	18,507	10,765	10,892	544
2011	31,317	34,253	61	22	39	0	14,869	9,284	21,929	80
2012	1,203	1,002	0	0	0	0	515	309	876	18
2013	896	176	1	1	0	0	83	64	831	0
2014	37	2	0	0	0	0	61	37	0	0
2015	0	0	0	0	0	0	0	0	0	0

주석

1. 선박, 농경지, 농작물 피해액 항목은 피해 정도가 많지 않으므로 이 표에서 생략하였지만, 피해 총액에는 반영됨
2. ' '은 자료 없음
3. 1974년은 해당 원자료 출처에서 총계만 제공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해당하는 값을 알 수 없음

자료출처

1. 1969~1993년 : 건설부, 연도별 건설통계편람
2. 1994~2000년 : 건설교통부, 연도별 건설통계편람
3. 2001~2005년 : 국토교통계부 통계누리 - 자료마당 - 통계연보 - 2002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4. 2006~2015년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외부통계 - 승인통계 - 재해 현황 - 풍수해 현황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대기오염 수준 개괄

1960~1970년대의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1980년대까지 서울의 대기 오염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1981년 연료의 황 함유 기준을 도입하고 1988년부터 청정연료 사용 의무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과 저황유 공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각종 대기오염 저감정책으로 서울의 대기오염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

서울시는 1998년 3월, 서울의 오염 상태, 배출원, 지형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공포하였다. 2007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환경기준 중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₂)가 서울시 기준보다 강화되면서 서울시는 대기환경기준을 같은 해 5월 국가대기환경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아황산가스(SO₂)는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하였다. 초미세먼지(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국

가기준이 적용되었다.

아황산가스는 1980년 0.094ppm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 기준치인 0.01ppm의 9.4배에 해당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1997년까지 서울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998년 0.008ppm으로 감소하면서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0.005ppm을 기록했다.

이산화질소는 2006년까지 서울시 기준치가 0.04ppm이었으며, 2006년까지는 이 기준에 부합한 양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기준이 0.03ppm으로 낮아지면서 2012년을 제외하고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2016년에는 0.031ppm을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1981년 당시 서울시 기준인 60 $\mu\text{g}/\text{m}^3$ 의 2.6배에 해당하는 156 $\mu\text{g}/\text{m}^3$ 이었다. 1983~1985년 200 $\mu\text{g}/\text{m}^3$ 이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100 $\mu\text{g}/\text{m}^3$ 를 넘었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

| 표 7.4-7 | 대기오염 수준

단위 : ppm, $\mu\text{g}/\text{m}^3$

연도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먼지 ($\mu\text{g}/\text{m}^3$)	연도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먼지 ($\mu\text{g}/\text{m}^3$)
1979	0.093	-	-	1998	0.008	0.030	62
1980	0.094	-	-	1999	0.006	0.035	65
1981	0.086	0.028	156	2000	0.006	0.035	65
1982	0.057	0.027	168	2001	0.008	0.041	70
1983	0.051	0.028	225	2002	0.005	0.036	76
1984	0.066	0.030	254	2003	0.005	0.038	69
1985	0.056	0.034	216	2004	0.005	0.037	61
1986	0.054	0.033	183	2005	0.005	0.034	58

연도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먼지 ($\mu\text{g}/\text{m}^3$)	연도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먼지 ($\mu\text{g}/\text{m}^3$)
1987	0.056	0.033	175	2006	0.005	0.036	60
1988	0.062	0.033	179	2007	0.006	0.038	61
1989	0.056	0.027	149	2008	0.006	0.038	55
1990	0.051	0.029	131	2009	0.005	0.035	54
1991	0.043	0.033	121	2010	0.005	0.034	49
1992	0.035	0.031	97	2011	0.005	0.033	47
1993	0.023	0.032	88	2012	0.005	0.030	41
1994	0.019	0.032	78	2013	0.005	0.033	45
1995	0.017	0.032	85	2014	0.006	0.033	46
1996	0.013	0.033	85	2015	0.005	0.032	45
1997	0.011	0.032	72	2016	0.005	0.031	48

주석

1. ' '은 자료 없음
2. 자료는 연간 평균치
3. 서울시 대기환경기준(2016년) : 아황산가스(0.01ppm), 이산화질소(0.03ppm), 미세먼지($50\mu\text{g}/\text{m}^3$)
4. 2017년 기준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는 25개임 <http://cleanair.seoul.go.kr/inform.htm?method=monitoringpost>

자료출처

1. 1979~1983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4회 1984년 서울통계연보(1983년 기준)
2. 1984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25회 1985년 서울통계연보(1984년 기준)
3. 1985~1991년 : 서울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연보 - 제34회 1994년 서울통계연보(1993년 기준)
4. 1992~2015년 : 서울통계 - 주제별 - 환경 - 대기보전 - 대기오염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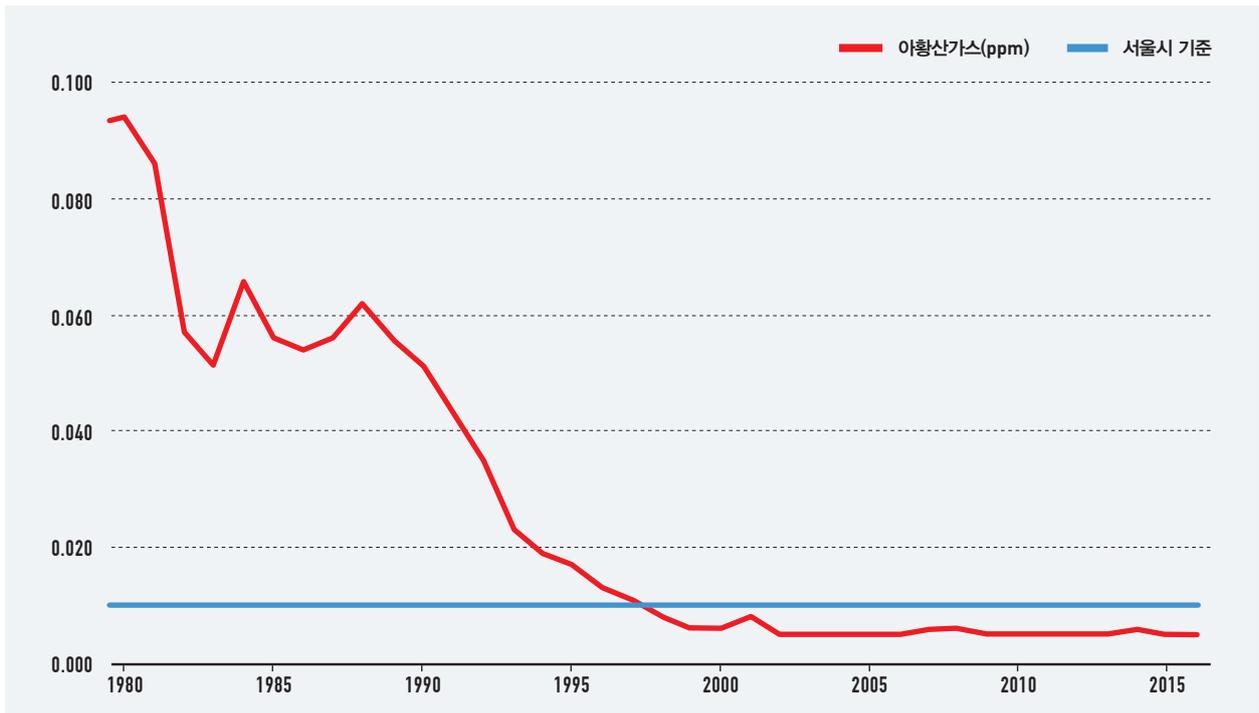
하여 2006년 처음으로 서울시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2007년 다시 기준이 강화되어 2009년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2010년부터 충족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미세먼지는 $48\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는 1973년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에 가장 먼저 설치되었으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 오존(O₃),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1979년 관악구, 1980년 광

진구, 1981년 중구, 1982년 도봉구, 1984년 용산구·중랑구·송파구, 1988년 서대문구·성북구, 1992년 강서구, 1996년 은평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었다. 1997년에는 강동구, 노원구, 동작구, 양천구, 종로구, 강북구, 금천구에 1개소씩 설치되었고, 2012년 구로구와 강남구에 1개소씩 설치되어 이때부터 구별로 1개씩 보유하고 있다

| 그림 7.4-14 | 아황산가스 추이

단위 : ppm



| 그림 7.4-15 | 이산화질소 추이

단위 : ppm

